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Survey on Rural Well – being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경제활동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2019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4037호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김두호

편집 농업환경부장 이천일, 농촌환경자원과장 김미희

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최윤지 농업연구관, 황정임 농업연구사, 최정신 농업연구사, 민소영 연구원  
코뮤니타스 신동호 대표, 전윤정 선임연구원, 조이슬 선임연구원,  
홍근택 연구원, 우영민 연구원  
부경대학교 박인호 교수, 경북대학교 이강형 교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김인설 교수, 공주대학교 김정태 교수

발행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전화 063-238-2645

인쇄처 코뮤니타스 053-746-0021

ISBN 978-89-480-6277-9 93520

## 머 리 말

농어촌의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생활여건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2004년 3월,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과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이 수립·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농어촌의 복지, 교육, 기초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업과 농어촌서비스기준·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실태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는 2019년 9월 1일에서 10월 21일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3,972가구를 대상으로 공동 문항인 생활 전반 부문과 당해 연도 조사 부문인 경제활동 부문, 문화·여가 부문 등 총 3개 부문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가 관련 정책, 연구 및 지도 현장에서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이용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전국의 표본가구 조사 대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연구진 일동

##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2019년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수록함.
2.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분석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읍면의 실제 가구 수 분포와 읍면 내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확률상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확률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3. 조사결과의 전체 합계와 각 항목 값이 모두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합계의 수치가 각 항목 값의 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4. 보고서의 통계표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5. 통계표 작성 시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응답자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음.
6. 통계표에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는 비워둠. 통계표에 0.0으로 표시된 경우는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이하 숫자가 반올림 된 것임(예 : 0.03)
7. 이 보고서는 일부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8.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19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보고서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함.
9.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063-238-2648)로 문의 바람.

# 조사 결과 요약

조사연구 개요

주요 조사 결과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 1

## 조사연구 개요

### ➔ 조사목적

-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 ➔ 조사 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2016. 8.	통계승인번호 변경 : 제11437호('04.8.31.) → 제114037호('16.8.28.)
2019. 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조사체계

○ 조사주기 : 1년(5년 1주기)

연차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1	종합 조사		농어촌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2	부문별 조사	경제활동, 문화·여가 등	농어촌 4,000가구
3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등	
4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5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	

- 1년차 종합 조사와 2~5년차 부문별 조사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
- 종합 조사는 농어촌 주민 및 삶의 질 비교를 위한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문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함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b>표본설계</b>	모집단	○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
	표본추출틀	○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파악한 조사구들로 MDIS에 탑재된 명부
	표본규모	○ 전국 농어촌 지역 3,972가구(응답률 99.3%)
	표본추출방식	○ 다단계화집락추출 - 1차 추출 : 표본 읍/면 추출 - 2차 추출 : 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b>조사방법</b>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 표본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 : 9월 1일~10월 21일(약 1.75개월)

➔ 2019년 조사내용

- 공통 문항인 생활 전반 부문과 당해 연도 조사 부문인 경제활동 부문, 문화여가 부문 등 총 3개 부문 61개 항목

구분	조사항목(*신규문항)
가구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동거 여부, 장애 가구원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가족 수, 가구 구성, 농어가 여부 등
생활 전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이주 실태, 이주의사, 주택의 종류, 주택의 점유형태, 교통수단 보유현황*,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 상태,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등
경제활동	가구원의 직업*, 은퇴계획,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사회적 경제 인지도*,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필요 서비스 분야*,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실태,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영농형태 및 영농계획, 농업 승계자 유무,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주요 물품 구입 실태, 월 평균 생활비, 저축 현황, 부채 현황,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경제적 생활수준 전반적인 만족도, 5년 전 대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향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등
문화여가	여가활동의 목적, 주된 문화·여가활동,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동호회 활동 실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체육활동 경험, 관광 경험,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등

## 2

주요 조사 결과<sup>1)</sup>

##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가구주'가 69.2%, '여성'이 57.8%, [60대 이상] 연령층이 42.7%, 혼인상태로 '유배우'가 64.1%, '고등학교'(31.9%), '대학교'(26.3%) 등 [고등학교 이상] 학력층이 60.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21.0%,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가 47.9%

단위 : %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100.0	합계		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69.2	혼인 상태	유배우	64.1
	가구주 배우자	30.8		미혼, 비혼	8.9
합계		100.0		배우자없음(사별 이혼 등)	27.0
성	남	42.2	합계	100.0	
	여	57.8	직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0
합계		1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7
연령	30대 이하	18.2		사무 종사자	7.8
	40대	17.7		서비스 종사자	8.0
	50대	21.5		판매 종사자	4.2
	60대	2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2
	70대 이상	22.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3
합계		100.0		단순노무 종사자	5.6
학력	무학	9.3	주부/무직/기타	38.1	
	초등학교	18.9	합계	100.0	
	중학교	11.6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47.9
	고등학교	31.9		상용직	29.9
	대학교	26.3		임시직	7.3
	대학원 이상	1.9		일용직	5.6
				무급가족 종사자	9.3

1)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SA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 함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농어가가 25.1%,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 '2세대' 가구가 38.2%, '1인 가구'가 29.1%
-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41.2%,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1.4%,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0.7%

➡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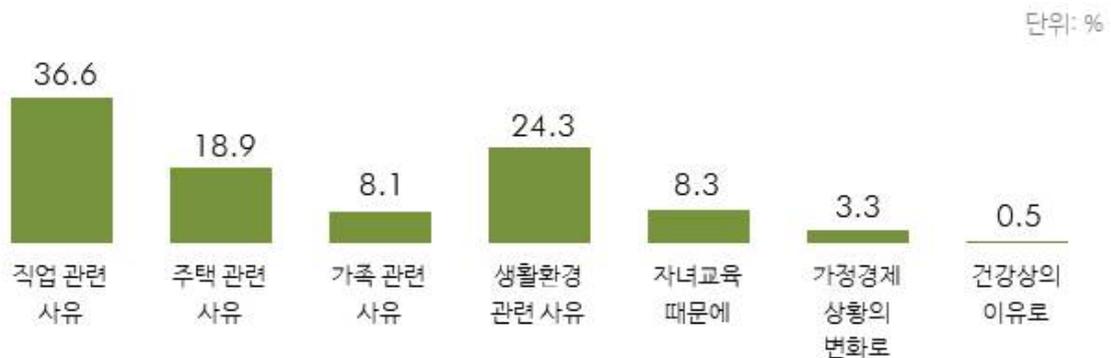
- '단독주택'이 56.3%, 점유형태로 '자가'가 73.6%,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77.0%

➡ 이주 실태

- '이주했다'(58.5%),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3.7%) 등 [이주민]이 62.2%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37.8%) 비율보다 높음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30.0%),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29.7%)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59.6%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29.2%), '중소도시 동 지역'(11.1%)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40.4%)에 비해 많음

➡ 5년 이내 이주 의사

- 이주 의향층(8.3%, n=328)의 이주 희망 이유로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36.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활환경 관련 사유'(24.3%),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18.9%), '자녀 교육 때문에'(8.3%),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8.1%) 순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안전’(평균 81.4점), ‘보건의료’(평균 81.3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평균 79.8점), ‘기초생활기반’(평균 78.6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77.8점), ‘환경·경관’(평균 76.3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74.6점)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보임
- 한편, ‘교육 여건’(평균 70.6점), ‘문화·여가 여건’(평균 68.8점)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 점(명)

구분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교육여건	문화·여가여건	기초생활기반	안전	환경·경관	이웃과의관계	경제활동여건
합계 (3,972)		81.3	79.8	70.6	68.8	78.6	81.4	76.3	74.6	77.8
읍/면	읍 (1,763)	81.3	80.2	<b>73.3</b>	70.1	79.9	82.9	77.5	73.5	79.5
	면 (2,209)	81.3	79.5	68.4	67.7	77.6	80.2	75.2	75.5	76.5
영농여부	농어가 ( 995)	82.6	81.2	70.2	69.1	80.0	82.6	78.2	<b>79.8</b>	80.9
	비농어가 (2,977)	80.9	79.3	70.7	68.6	78.1	81.1	75.6	72.8	76.8

- 지역생활 전반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54.3점)의 평가를 보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환경·경관’(평균 64.0점), ‘안전’(평균 63.2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61.3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인 반면,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던 ‘보건의료’(평균 50.7점), ‘복지서비스’(평균 50.6점), ‘기초생활기반’(평균 50.0점)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 여건’(평균 48.5점), ‘교육 여건’(평균 47.6점), ‘문화·여가 생활 여건’(평균 46.4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종합/체감/차원 만족도 : [조사연구 개요]의 ‘9. 자료처리 및 분석’ 참조(p.59)

➡ **정신건강**

-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층은 11.6%였으며, 비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관적 건강 상태**

- [건강한 편(합)] 비율이 52.6%로, [건강하지 않은 편(합)](26.5%)에 비해 높음

단위: %(명)

구분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합)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합)
합계 (3,952)		4.7	48.0	52.6	20.8	20.8	5.7	26.5
읍/면	읍 (1,753)	6.6	51.8	58.4	20.0	16.7	4.9	21.6
	면 (2,199)	3.1	44.9	48.0	21.5	24.1	6.4	30.5
영농 여부	농어가 ( 992)	3.4	45.1	48.5	20.5	26.3	4.7	31.0
	비농어가 (2,960)	5.1	48.9	54.0	20.9	19.0	6.1	25.1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행복감은 평균 60.3점으로 '약간 행복한 수준'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41.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가족'(33.0%), '경제적 안정'(16.9%) 비율도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일/직업'(3.6%), '대인관계'(2.7%), '문화 및 여가활동'(1.3%), '지역생활환경'(0.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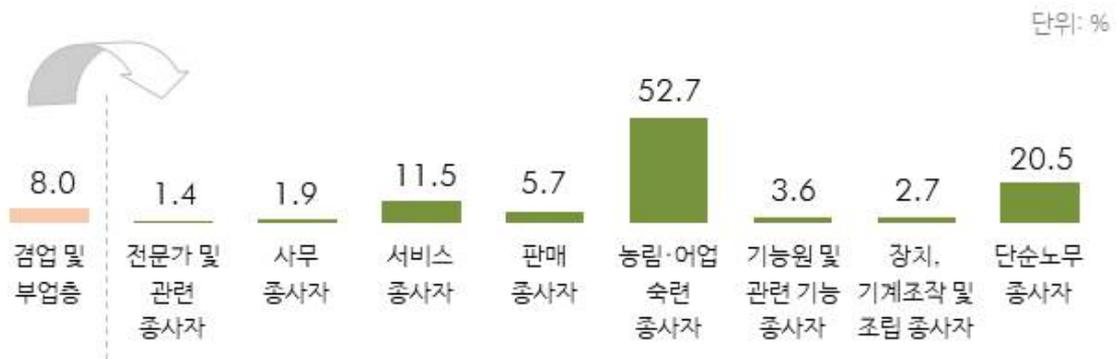
단위: %



## 경제활동

### ➔ 가구의 직업

- 주업으로 '무직(주부 등)'(3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0.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11.1%), '서비스 종사자'(7.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7.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6.5%), '단순노무 종사자'(6.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4.9%), '판매 종사자'(4.4%) 순
- 겸업 및 부업을 하고 있는 층은 8.0%(n=318), 겸업 및 부업 종류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2.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20.5%), '서비스 종사자'(11.5%), '판매 종사자'(5.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7%), '사무 종사자'(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4%) 순



- 주업을 통한 연간 소득은 평균 2,037.0만원, 겸업 및 부업을 통한 연간 소득은 평균 78.7만원으로 직업 활동을 통한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평균 2,115.7만원

단위: 만원(명)

구분		합계	주업 소득	겸업 및 부업 소득
합계		(3,127)	2,115.7	78.7
읍/면	읍	(1,431)	2,343.3	57.5
	면	(1,697)	1,923.7	96.6
영농 여부	농어가	( 977)	1,503.4	229.0
	비농어가	(2,151)	2,393.7	10.4

➔ 은퇴계획

-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절반가량(48.2%)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특정연령'(13.8%), '잘 모르겠다'(11.2%), '이미 은퇴했음'(10.7%) 순
- 한편, 특정 연령을 선택한 경우(n=537) 절반가량이 '60-64세'(51.1%)에 은퇴를 희망하였으며,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은 62.4세로 나타남. 이미 은퇴한 경우(n=415) 은퇴 연령으로 '60-64세'(26.7%), '60세 미만'(24.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은퇴 연령은 63.2세로 은퇴 희망 연령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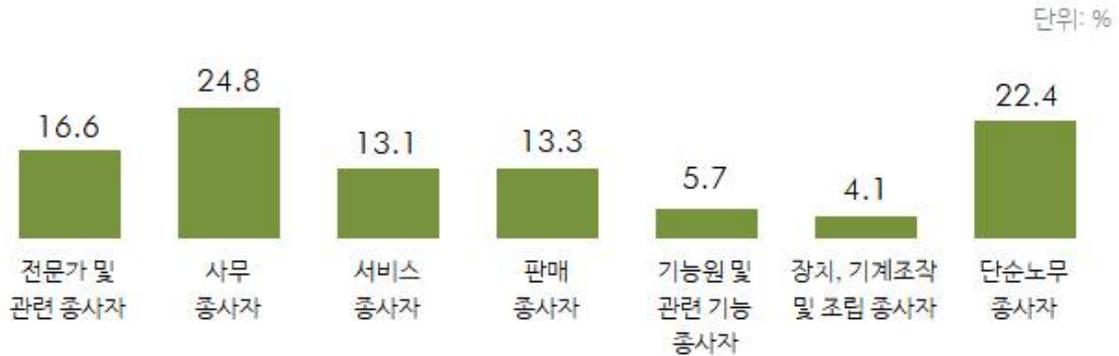
➔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 '취업(임금근로)'(7.6%), '창업(자영업)'(4.4%) 등 향후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층이 12.1%
- 창업 희망층(n=176)의 희망 업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42.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도매 및 소매업'(19.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3.8%) 비율도 높음



- 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n=176)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71.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23.1%),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1.3%) 순
- 농어촌 창업 시 가장 큰 어려움(n=172)으로 '자본금 부족'(36.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내 시장 협소'(22.6%), '지역 내 인프라 부족(교통수단 등)'(19.0%), '사업장/설비 확보'(14.8%), '본인의 역량(지식/기술) 개발 기회 부족'(5.8%), '인력 확보'(1.0%) 순

- 취업 희망층(n=304)의 희망 직종으로 '사무 종사자'(24.8%), '단순노무 종사자'(22.4%) 비율이 가장 높음



-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n=304)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72.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17.0%),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7.5%),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3.4%) 순
- 농어촌 취업 시 가장 큰 어려움(n=297)으로 '일할 기회가 부족'(42.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려움'(23.7%), '지역 내 인프라 부족(교통수단 등)'(20.3%), '본인의 역량(지식/기술) 개발 기회 부족'(13.9%) 순

➡ 사회적 경제 인지도 및 필요 서비스 분야

-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61.0%),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른다'(26.6%), '사회적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12.5%) 순
- 농어촌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분야로 '의료 및 보건, 복지 서비스'(36.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농업 및 관련 업종'(25.0%) 비율도 높게 나타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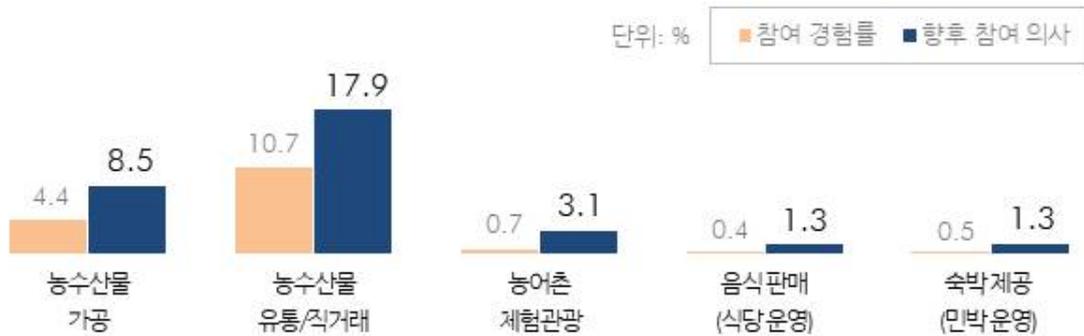
구분		농업 및 관련 업종	의료 및 보건, 복지 서비스	교육, 보육 관련 서비스	문화, 여가 관련 서비스	건축, 주거환경 관련 서비스	운수업, 택배 배송 관련 서비스	기타
합계 (3,906)		25.0	36.7	13.2	13.8	7.3	3.9	0.1
읍/면	읍 (1,740)	18.6	37.3	17.0	16.1	7.6	3.3	0.1
	면 (2,166)	30.1	36.2	10.1	12.0	7.0	4.5	0.2
영농 여부	농어가 ( 982)	52.5	25.6	4.4	8.3	5.3	3.9	
	비농어가 (2,923)	15.7	40.4	16.1	15.7	8.0	3.9	0.2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경험 유무

- '농수산물 유통/직거래'(10.7%) 참여 경험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수산물 가공'(4.4%), '농어촌 체험관광'(0.7%), '숙박 제공(민박 운영)'(0.5%), '음식 판매(식당 운영)'(0.4%) 경험률은 높지 않음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 참여 경험률이 높았던 '농수산물 유통/직거래'(17.9%) 의향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수산물 가공'(8.5%), '농어촌 체험관광'(3.1%), '음식 판매(식당 운영)', '숙박 제공(민박 운영)'(각 1.3%) 순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39.7%)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자금 부족'(23.3%), '인력 부족'(19.7%) 비율도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시설/설비 부족'(9.6%), '기술력 부족'(3.4%), '경영 관리 역량 부족'(2.9%), '행정·제도 복잡'(1.3%) 순



➡ 농업 계획 및 농업 승계자 유무

- 농업 계획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72.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17.9%),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6.3%), '확대할 계획이다'(3.1%) 순
-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8.4%)에 비해 없는 가구(61.9%) 비율이 높은 가운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가구는 29.6%

단위 : %(명)

구분	농업 계획					농업 승계자 유무				
	사례수	확대할 계획이다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축소할 계획이다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사례수	농업 승계자 있음	농업 승계자 없음	아직 잘 모르겠다	
합계	(956)	3.1	72.6	17.9	6.3	(959)	8.4	61.9	29.6	
읍/면	읍	(216)	3.6	77.3	12.1	7.0	(216)	6.4	60.4	33.3
	면	(740)	3.0	71.2	19.6	6.1	(743)	9.0	62.4	28.6

➡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 '식료품비'(27.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보건의료비'(17.6%), '교통통신비'(17.2%), '광열수도비'(16.8%) 비율도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교육비'(8.5%), '주거비'(6.3%) 순이었으며, 경조비, 문화여가비, 가구가사용품비 등 '기타'는 5.7%

단위 : %(명)

구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		
합계	(3,965)	27.9	17.6	6.3	16.8	8.5	17.2	5.7	
읍/면	읍	(1,757)	30.7	14.7	8.6	14.0	11.7	16.2	4.1
	면	(2,207)	25.6	20.0	4.4	19.1	5.9	18.1	6.9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21.1	22.3	2.0	22.5	5.0	19.5	7.7
	비농어가	(2,970)	30.2	16.1	7.7	14.9	9.6	16.5	5.0

➔ 주요 물품 구입 실태

- 식료품 및 일상생활용품 구입처 모두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 비율이 절반 이상(각 55.3%, 52.8%)으로 높게 나타남
- 식료품의 경우, 일상생활용품에 비해 '상설시장/5일장'(+4.6%p) 비율이 높은 반면,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4.1%p) 비율은 낮음



- 식료품 및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10-20분 미만' 비율이 각 40.8%, 41.3%로 가장 높았으며, 물품 구입처까지의 편도 소요시간은 식료품이 평균 13.0분, 일상생활용품이 평균 12.9분으로 비슷한 수준

➔ 월 평균 생활비

- 농어촌 지역의 월 평균 생활비는 180.2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생활비 분포별로는 '100-200만원 미만'(28.8%), '50-100만원 미만'(19.7%) 등 [100만원 미만](28.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20.2%), '300-400만원 미만'(12.1%), '400만원 이상'(10.2%) 순

단위: %(명)

구분		평균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합계 (3,932)		180.2만원	2.2	6.8	19.7	28.8	20.2	12.1	10.2
읍/면	읍 (1,738)	196.6만원	1.3	4.2	18.3	26.2	24.7	13.8	11.5
	면 (2,194)	167.2만원	2.9	8.9	20.8	31.0	16.6	10.7	9.3
영농 여부	농어가 (992)	164.7만원	1.7	4.8	21.1	38.5	17.7	9.3	6.9
	비농어가 (2,940)	185.5만원	2.3	7.5	19.2	25.6	21.0	13.0	11.4

➡ 저축 및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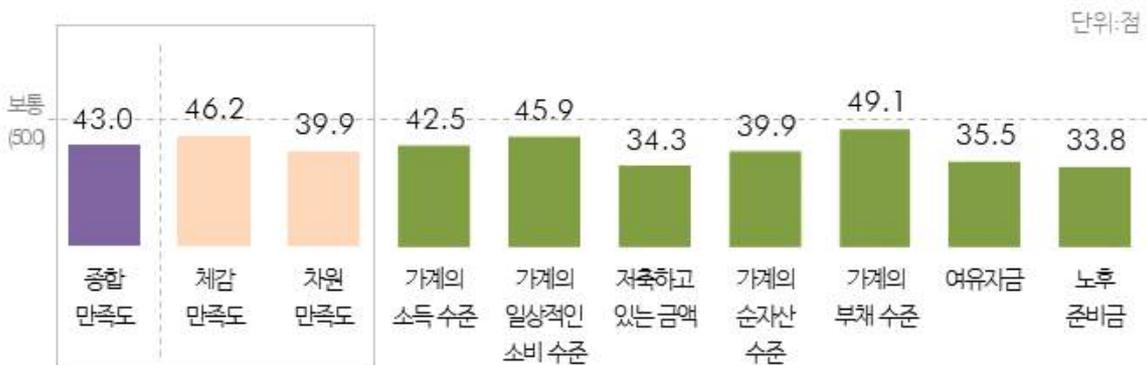
-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저축층'이 37.6%였으며, 읍지역, 비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저축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채(빚) 있는 가구가 41.8%로 나타난 가운데, 부채의 원인(n=1,632)으로 '주택 마련'(41.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업 시설, 기계, 자재 등 투자', '(농어업 외) 사업 자금 마련'(각 18.2%),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7.5%), '교육비'(4.0%), '의료비'(3.9%), '결혼, 장례 등 경조사 자금 마련'(1.5%) 순

➡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종합만족도가 평균 43.0점으로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부 평가 속성별로 '가계의 부채 수준'(평균 49.1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평균 45.9점), '가계의 소득 수준'(평균 42.5점), '가계의 순자산 수준'(평균 39.9점), '여유자금'(평균 35.5점), '저축하고 있는 금액'(평균 34.3점), '노후준비금'(평균 33.8점) 순



\* 종합/체감/차원 만족도 : [조사연구 개요]의 '9. 자료처리 및 분석' 참조(p.59)

➡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 '나빠진 편'(26.2%), '매우 나빠짐'(3.8%) 등 [나빠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30.0%로 '좋아진 편'(21.3%), '매우 좋아짐'(0.7%) 등 [좋아진 편(합)](22.0%)이라는 응답에 비해 다소 높았음. 한편, '보통'이라는 의견이 절반수준(48.0%)으로 5년 전과 비슷한 수준(평균 47.3점)이라는 평가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짐	좋아진 편	좋아진 편(합)	보통	나빠진 편	매우 나빠짐	나빠진 편(합)	
합계		(3,122)	47.3점	0.7	21.3	22.0	48.0	26.2	3.8	30.0
읍/면	읍	(1,275)	47.0점	0.7	22.1	22.8	46.4	26.2	4.6	30.8
	면	(1,848)	47.4점	0.7	20.8	21.5	49.1	26.2	3.2	29.4
영농 여부	농어가	( 962)	48.0점	0.7	24.3	25.0	44.4	27.4	3.2	30.6
	비농어가	(2,160)	46.9점	0.7	20.0	20.7	49.6	25.7	4.0	29.7

➡ 향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 '좋아질 것'(29.1%), '매우 좋아질 것'(1.1%) 등 [좋아질 것(합)]이라는 응답이 30.2%로, '나빠질 것'(24.2%), '매우 나빠질 것'(2.9%) 등 [나빠질 것(합)](27.1%)이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42.6%로 5년 전 대비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평가보다 약간 긍정적인 평가(평균 50.3점)를 보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좋아질 것(합)	보통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나빠질 것(합)	
합계		(3,966)	50.3점	1.1	29.1	30.2	42.6	24.2	2.9	27.1
읍/면	읍	(1,759)	48.9점	1.8	25.2	27.0	43.1	26.5	3.4	29.9
	면	(2,207)	51.5점	0.6	32.2	32.8	42.3	22.3	2.6	24.9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47.5점	1.0	28.7	29.7	34.2	31.5	4.6	36.1
	비농어가	(2,972)	51.3점	1.2	29.2	30.4	45.5	21.7	2.4	24.1

## 문화·여가

### ➔ 여가활동의 목적

-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40.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27.2%), '즐거움과 재미'(17.9%), '자기계발'(8.2%), '친교·교제'(6.0%) 순

### ➔ 주된 문화·여가활동 실태

-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33.8%)가 주된 문화·여가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웃/친구와의 교제 및 동호회 모임"(10.9%) 등 '사회활동'(14.7%), "산책 및 걷기"(5.7%), "낮잠"(3.8%) 등 '휴식'(14.2%), "헬스/에어로빅(3.0%)" 등 '스포츠 참여활동'(13.7%), "등산"(3.7%) 등 '취미오락활동'(13.4%) 순

단위 :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취미 오락 활동	사회 활동	휴식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합계 (3,790)		5.0	3.3	0.3	13.7	1.5	13.4	14.7	14.2	33.8
읍/면	읍 (1,628)	7.6	2.7	0.5	18.4	1.9	14.1	11.8	14.6	28.2
	면 (2,162)	3.1	3.8	0.2	10.1	1.2	12.9	16.9	13.9	37.9
영농 여부	농어가 ( 977)	1.4	4.2	0.3	8.5	0.7	9.9	18.0	17.8	39.2
	비농어가 (2,813)	6.3	3.0	0.4	15.5	1.8	14.6	13.6	12.9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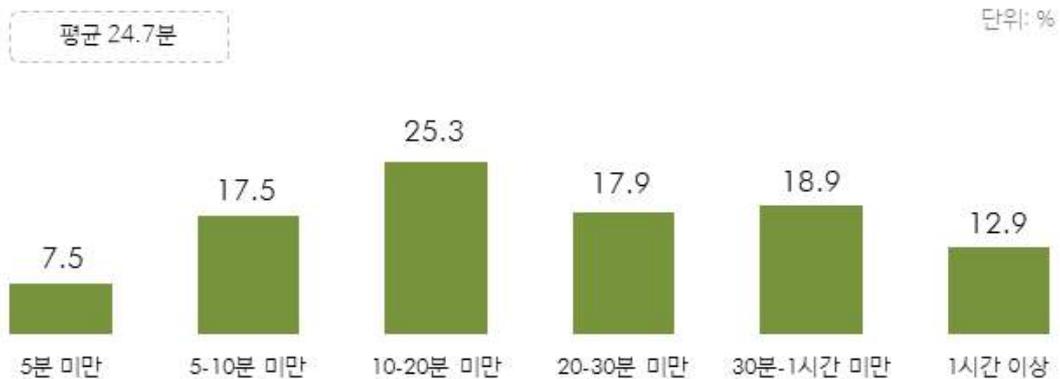
- 주된 여가활동 동반자로 '혼자'(43.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친지'(24.4%), '이웃주민'(14.0%), '친구'(13.2%),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4.8%), '직장동료'(0.7%) 순
- 여가활동의 빈도는 '주 4회 이상'이 47.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 2-3회'(24.6%), '주 1회 정도'(12.6%), '월 1-3회 정도'(10.9%), '2-3개월에 1회 정도'(2.9%), '4-6개월에 1회 정도'(1.3%), '연 1회 정도'(0.1%) 순

- '자택(집)'(48.4%)이 주된 여가활동 장소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4.6%), "마을 주변"(3.3%) 등 '실외공간'(16.7%), "영화관"(3.4%) 등 '민간시설'(16.0%), "마을회관"(4.4%), "경로당"(4.2%) 등 '마을 내 공동시설'(9.7%), "주민체육센터"(2.6%) 등 '공공시설'(8.4%) 순

단위 : %(명)

구분		자택 (집)	공공 시설	마을 내 공동시설	민간 시설	실외 공간	기타
합계 (3,789)		48.4	8.4	9.7	16.0	16.7	0.8
읍/면	읍 (1,628)	42.1	10.6	5.6	21.4	19.7	0.6
	면 (2,161)	53.1	6.8	12.8	12.0	14.4	0.9
영농 여부	농어가 ( 976)	53.5	6.5	14.5	11.5	13.5	0.5
	비농어가 (2,813)	46.6	9.1	8.0	17.6	17.8	0.9

-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의 위치로 '우리 마을 내'(70.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우리 시/군 내'(11.6%), '우리 읍/면 내'(10.0%), '다른 시/군'(8.0%) 순
- 여가활동 장소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자가용'(46.6%), '걸어서'(42.4%)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층은 7.3%
- 여가활동 장소까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으로 '10-20분 미만'(25.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분-1시간 미만'(18.9%), '20-30분 미만'(17.9%), '5-10분 미만'(17.5%), '1시간 이상'(12.9%), '5분 미만'(7.5%) 순으로 평균 소요시간은 24.7분



➡ 희망 문화·여가활동

- '스포츠 참여활동'(31.1%)이 주된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광'(17.3%), '문화예술 참여활동'(10.6%), '문화예술 관람활동'(9.9%), '휴식'(7.6%), '사회활동'(6.7%), '스포츠관람'(2.2%),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0.7%) 순
- 주된 문화여가활동 대비 '스포츠 참여활동'+(17.4%p), '관광'+(15.8%p)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물리적·인적 인프라가 필요한 '문화예술 참여활동'+(7.3%p), '문화예술 관람활동'+(4.9%p)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반면,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33.1%p)나 '휴식'(-6.6%p) 관련 욕구는 다소 낮음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 '적합한 시설/장소가 없음'(29.9%)이 희망 문화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된 지역적 제약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13.1%), '교통이 불편'(8.2%),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동호회 조직 등)'(6.2%),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3.9%), '강사 및 전문가가 없음'(3.8%),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움'(2.6%) 순이었음. 한편, '해당 없음'은 32.1%



➔ 동호회 활동 실태

- 동호회 활동층(7.8%, n=309)의 평균 참여 동호회 개수는 1.5개
-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로 “농구/배구/야구/축구/족구”(12.7%), “배드민턴/줄넘기/스트레칭/체조/홀라후프”(11.6%) 등 ‘스포츠 참여활동’(47.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등산”(9.2%), “독서/만화책(웹툰) 보기”(7.0%) 등 ‘취미오락활동’(26.1%), ‘문화예술 참여활동’(13.9%), “사회봉사활동”(9.9%) 등 ‘사회활동’(10.6%), ‘관광’(1.9%), ‘문화예술 관람활동’(0.2%) 순

단위: %명

구분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	취미오락 활동	사회 활동
합계 (294)		0.2	13.9	47.2	1.9	26.1	10.6
읍/면	읍 (139)		9.6	47.9	3.0	24.9	14.6
	면 (155)	0.4	17.8	46.7	0.9	27.2	7.1
영농 여부	농어가 ( 72)	0.6	25.1	27.1	1.7	34.0	11.4
	비농어가 (222)	0.1	10.2	53.7	2.0	23.6	10.4

- 동호회 활동 참여 빈도로 ‘월 1-3회 정도’(28.6%), ‘주 2-3회’(26.2%), ‘주 1회 정도’(24.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 4회 이상’(10.5%), ‘2-3개월에 1회 정도’(7.8%), ‘4-6개월에 1회 정도’(2.1%), ‘연 1회 정도’(0.4%) 순
- 동호회 활동의 참여 경력으로 ‘3-5년 미만’(23.9%), ‘1-3년 미만’(17.4%), ‘1년 미만’(5.1%) 등 [5년 미만] 비율이 46.4%로 절반가량을 차지한 가운데, 다음으로 ‘5-10년 미만’(18.4%), ‘10-20년 미만’(17.1%), ‘20-30년 미만’(11.8%), ‘30년 이상’(6.2%) 순으로 평균 8년 5개월 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306)		8년 5개월	5.1	17.4	23.9	18.4	17.1	11.8	6.2
읍/면	읍 (138)	10년	7.4	19.3	12.5	16.8	19.1	14.4	10.3
	면 (168)	7년 2개월	3.1	15.8	33.3	19.6	15.5	9.7	2.9
영농 여부	농어가 ( 71)	10년 11개월	2.9	12.3	21.6	12.8	25.5	9.2	15.6
	비농어가 (235)	7년 8개월	5.7	18.9	24.7	20.0	14.6	12.6	3.4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하나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관람 경험층'이 50.8%
- 프로그램별로는 '영화'(35.8%), '축제'(26.8%) 관람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시회'(6.4%), '스포츠'(5.6%), '연극, 무용 공연'(4.9%), '대중음악, 연예'(3.4%), '전통예술공연'(2.7%), '문학행사'(2.5%), '서양음악 공연'(1.9%) 순

단위: %(명)

구분		관람 경험층	문학 행사	전시회	서양 음악 공연	전통 예술 공연	연극, 무용 공연	영화	대중 음악, 연예	스포츠	축제
합계 (3,972)		50.8	2.5	6.4	1.9	2.7	4.9	35.8	3.4	5.6	26.8
읍/면	읍 (1,763)	58.5	3.3	8.4	3.1	3.4	7.6	47.2	3.8	8.0	29.8
	면 (2,209)	44.6	1.8	4.8	0.9	2.1	2.8	26.7	3.2	3.7	24.4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47.5	2.1	2.6	0.5	2.9	1.4	21.3	1.4	2.1	35.5
	비농어가 (2,977)	51.9	2.7	7.7	2.3	2.6	6.1	40.7	4.1	6.8	23.9

- 농어촌 주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횟수로 '4-5회'(22.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10회'(19.3%), '1회'(17.8%), '2회'(16.1%), '3회'(12.6%), '11회 이상'(11.5%) 순으로 연 평균 관람 횟수는 5.6회

단위: %(명)

구분		평균	1회	2회	3회	4-5회	6-10회	11회 이상
합계 (2,006)		5.6회	17.8	16.1	12.6	22.7	19.3	11.5
읍/면	읍 (1,020)	6.6회	11.4	10.9	10.6	25.5	25.7	15.9
	면 ( 986)	4.5회	24.5	21.4	14.8	19.8	12.6	6.9
영농 여부	농어가 ( 472)	3.4회	28.1	27.7	14.2	18.2	9.3	2.4
	비농어가 (1,533)	6.3회	14.7	12.5	12.2	24.1	22.4	14.3

➡ **체육활동 경험**

- 지난 1개월 간 체육활동 횟수로 '주 2-3회'(17.1%), '주 4회 이상'(13.6%)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 1회 정도'(7.8%), '월 1-3회 정도'(6.7%) 순으로 체육활동 경험층이 45.3%

단위: %명

구분		경험층(합)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비경험층(합)
합계 (3,962)		45.3	13.6	17.1	7.8	6.7	54.7
읍/면	읍 (1,763)	49.2	15.9	19.8	7.9	5.5	50.8
	면 (2,199)	42.2	11.8	14.9	7.8	7.7	57.8
영농 여부	농어가 ( 992)	36.5	13.1	12.3	4.9	6.2	63.5
	비농어가 (2,971)	48.2	13.8	18.7	8.8	6.9	51.8

- '걷기'(46.5%), "헬스"(13.2%), "요가/필라테스/태보"(6.7%), "자전거/사이클/산악자전거"(4.6%) 등 '체력단련운동'(35.0%)이 주된 체육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기 운동'(6.4%), '라켓 운동'(4.0%), '무도/격투기'(0.2%), '레저스포츠'(0.0%) 순이었으며, "등산"(5.6%) 등 '기타'는 8.0%

단위: %



➡ **관광 경험**

- 관광 경험층이 54.2%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관광 경험층'(38.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내+국외 관광 경험층'(10.7%), '국외 관광 경험층'(4.7%) 순
- '1회'(17.0%), '4회 이상'(15.5%), '2회'(14.1%), '3회'(7.7%) 등 평균 관광 횟수는 1.8회
- 국내(59.9%)와 국외(19.0%) 관광 모두 주된 동반자는 '가족친지'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강좌, 강습회 등에 참여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층이 10.3%로 나타난 가운데, 전문인력 지도 횟수(n=411)로 '1회'(71.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회'(23.0%), '3회'(4.5%), '5회 이상'(0.5%), '4회'(0.3%) 순으로 평균 지도 횟수는 1.4회
- 참여한 강좌, 강습회 종류로 "요가/필라테스/태보"(21.0%), "배드민턴/줄넘기/스트레칭/체조/홀라후프"(10.3%) 등 '스포츠 참여활동'(53.3%) 비율이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어학·기술·자격증 공부, 강의/강연 등 참여"(16.3%) 등 '취미오락활동'(24.7%), "악기연주/노래교실"(7.7%) 등 문화예술 참여활동(19.0%), '휴식'(1.7%), '사회활동'(1.3%) 순

단위 : %(명)

구분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활동	휴식
합계 (411)		19.0	53.3	24.7	1.3	1.7
읍/면	읍 (195)	8.8	61.0	25.3	1.8	3.0
	면 (216)	27.2	47.0	24.2	0.9	0.7
영농 여부	농어가 (109)	22.9	49.7	25.5	0.3	1.5
	비농어가 (301)	17.5	54.6	24.4	1.7	1.8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 전반적으로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여가활동 참여율이 10% 미만으로 높지 않은 가운데, 율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 고누,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9.8%) 경험률이 가장 높았음

단위 : %(명)

구분		전통 예술	전통 의식주	전통 무예	공동체 의례	공동체 놀이	전통 놀이
합계 (3,972)		4.1	1.7	1.0	1.4	3.4	9.8
읍/면	읍 (1,763)	5.1	1.9	1.3	1.4	2.8	7.7
	면 (2,209)	3.4	1.6	0.7	1.4	3.8	11.4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5.3	1.1	0.9	1.9	6.2	13.2
	비농어가 (2,977)	3.7	1.9	1.0	1.2	2.4	8.6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경험층의 참여 만족도로 농악, 민요, 전통무용, 전통공예, 한국화, 서예, 시조 등 '전통예술'(평균 72.3점), '전통놀이'(평균 70.7점), 한복, 천연염색, 매듭, 음식, 한과 등 만들기, 한옥 짓기 등 '전통의식주'(평균 69.0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동제, 산신제, 당산제, 성황제, 별신굿, 용왕제 등 '공동체의례'(평균 54.1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만족도가 높았던 '전통예술'(16.1%), '전통 의식주'(15.4%), '전통놀이'(14.9%)에서 참여 의향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신밟기, 강강술래, 줄다리기, 거북놀이, 달집태우기 등 '공동체 놀이'(8.3%), 씨름, 국궁, 택견, 태권도 등 '전통무예'(5.7%), '공동체 의례'(5.5%) 순

단위: %(명)

구분		전통 예술	전통 의식주	전통 무예	공동체 의례	공동체 놀이	전통 놀이
합계 (3,972)		16.1	15.4	5.7	5.5	8.3	14.9
읍/면	읍 (1,763)	20.1	19.4	8.3	6.5	9.4	14.2
	면 (2,209)	12.9	12.3	3.7	4.7	7.4	15.5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16.3	13.0	6.0	6.8	12.1	18.2
	비농어가 (2,977)	16.0	16.2	5.7	5.1	7.0	13.8

➡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로 “찜질방/목욕탕”(13.6%), “산책로/산림욕장”(4.0%), “공원/유원지”(3.9%) 등 ‘친교·휴식시설’(24.9%)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영장”(10.4%), “헬스클럽”(4.8%) 등 ‘실내 체육시설’(18.3%), “영화관”(8.4%)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16.3%), “문화센터”(7.2%) 등 ‘취미활동 시설’(9.7%), ‘실외 체육시설’(3.8%) 순이었음. 한편, ‘필요한 시설이 없음’은 27.2%

단위 : %(명)

구분		문화예술 관련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실외 체육 시설	취미활동 시설	친교, 휴식 시설	필요한 시설이 없음
합계 (3,962)		16.3	18.3	3.8	9.7	24.9	27.2
읍/면	읍 (1,758)	24.3	16.2	3.6	12.2	18.7	25.0
	면 (2,203)	9.9	19.9	3.9	7.6	29.8	28.9
영농 여부	농어가 ( 992)	8.3	20.0	4.9	7.6	32.5	26.7
	비농어가 (2,969)	18.9	17.7	3.4	10.3	22.3	27.3

➡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 ‘체육활동 지도’(22.2%)가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주된 프로그램이었으며, 다음으로 ‘영화 상영’(14.1%), ‘취미활동 교육’(13.8%), ‘문화예술 교육’(13.7%), ‘대중음악, 연예 공연’(13.4%), ‘전통예술 공연’(6.5%), ‘인문교양 강좌’(4.8%), ‘서양음악 공연’(4.5%), ‘이동 도서관’(3.7%), ‘미술 전시’(3.2%) 순

단위 : %(명)

구분		미술 전시	서양 음악 공연	전통 예술 공연	대중 음악, 연예 공연	영화 상영	문화 예술 교육	체육 활동 지도	취미 활동 교육	인문 교양 강좌	이동 도서관	기타
합계 (3,550)		3.2	4.5	6.5	13.4	14.1	13.7	22.2	13.8	4.8	3.7	0.0
읍/면	읍 (1,590)	3.3	4.9	3.9	12.9	16.3	10.8	20.7	17.8	5.8	3.7	0.1
	면 (1,960)	3.2	4.3	8.6	13.9	12.4	16.0	23.4	10.5	4.0	3.7	0.0
영농 여부	농어가 ( 878)	2.7	3.9	9.5	13.7	14.3	15.9	23.4	9.8	4.3	2.3	0.1
	비농어가 (2,672)	3.4	4.7	5.5	13.4	14.1	12.9	21.8	15.1	5.0	4.2	0.0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평균 48.9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만족하는 편'(22.7%), '매우 만족'(1.4%) 등 만족한다는 층이 24.1%로, '만족하지 않는 편'(24.2%), '매우 불만족'(2.8%) 등 [불만족(합)](26.9%)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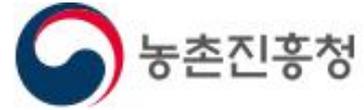
➔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 전반적인 문화·여가 여건이 '좋아진 편'(33.1%), '매우 좋아짐'(2.1%) 등 [좋아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35.2%로, '나빠진 편'(8.1%), '매우 나빠짐'(1.2%) 등 [나빠진 편(합)](9.3%)이라는 응답보다 많음. 한편, '보통'이 55.5%로 과거 5년 전과 '비슷한 수준'(평균 56.7점)이라는 평가를 보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짐	좋아진 편	좋아진 편(합)	보통	나빠진 편	매우 나빠짐	나빠진 편(합)
합계 (3,113)		56.7점	2.1	33.1	35.2	55.5	8.1	1.2	9.3
읍/면	읍 (1,272)	54.4점	1.6	30.7	32.2	54.0	11.3	2.4	13.7
	면 (1,842)	<b>58.3점</b>	2.6	34.8	37.3	56.5	5.8	0.4	6.2
영농 여부	농어가 ( 960)	57.6점	2.1	36.0	38.1	53.1	7.9	0.9	8.8
	비농어가 (2,154)	56.3점	2.2	31.8	34.0	56.6	8.1	1.3	9.5





#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전체 목차

■ 조사연구 개요 ..... 51

제1부 | 개인설문조사

**1100.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 69**

11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70

1102 비동거 가구원 특성 ..... 72

110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73

1104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 75

1105 이주 실태 ..... 76

1106 5년 이내 이주 의사 ..... 81

1107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87

---

1108 정신건강 .....	93
-----------------	----

1109 주관적 건강 상태 .....	94
----------------------	----

111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96
-------------------------	----

<b>1200. 경제활동 .....</b>	<b>99</b>
-------------------------	-----------

<b>생산활동</b>	
-------------	--

1201 가구원의 직업 .....	100
--------------------	-----

1202 은퇴계획 .....	106
-----------------	-----

1203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	108
--------------------------	-----

1204 사회적 경제 인지도 및 필요 서비스 분야 .....	117
-----------------------------------	-----

1205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실태(농어가) .....	119
------------------------------------	-----

1206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농어가) .....	124
------------------------------------	-----

1207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농어가) .....	126
--	-----

1208 영농형태(농어가) .....	128
----------------------	-----

1209 농업 계획 및 농업 승계자 유무(농어가) .....	129
-----------------------------------	-----

<b>소비활동</b>	
-------------	--

1210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	132
-------------------------	-----

1211 주요 물품 구입 실태 .....	134
------------------------	-----

1212 월 평균 생활비 .....	146
---------------------	-----

---

1213	저축 및 부채 현황 .....	148
1214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	150
1215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	153
1216	향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	155
<b>1300.</b>	<b>문화여가 .....</b>	<b>157</b>
	<b>여가활동 실태</b>	
1301	여가활동의 목적 .....	158
1302	주된 문화여가활동 실태 .....	160
1303	희망 문화여가활동 실태 .....	179
1304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	194
1305	동호회 활동 실태 .....	197
	<b>유형별 여가활동 실태</b>	
1306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	205
1307	체육활동 경험 .....	208
1308	관광 경험 .....	212
1309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	215
	<b>전통문화여가활동 경험 및 수요</b>	
1310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	218

---

## 문화여가 자원

1311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222
1312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225
1313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227
1314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231

##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b>2100.</b>	<b>경제활동 부문</b>	<b>235</b>
2101	취업 가구구성원의 업종 및 직종	236
2102	농가소득 구성	237
2103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238
2104	영농형태별 농가	240
2105	노후준비	241
21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43
2107	생활비 지출 항목	244
2108	소득 및 가계지출	247
2109	농가의 저축 및 보험	249
2110	부채 규모	250

---

2111 소득 만족도 .....	252
2112 소비생활 만족도 .....	253
<b>2200. 문화·여가 부문</b> .....	<b>254</b>
2201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 .....	255
2202 주요 여가활동 .....	256
2203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258
2204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	259
2205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261
2206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실태 .....	262
2207 지난 1년 간 여행 경험 .....	264
2208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266
2209 여가활용 만족도 .....	268
<b>부록</b> .....	<b>269</b>
(1) 전국 표본리스트 .....	271
(2) 항목별 타 자료 비교 .....	275
(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	282
(4) 주요 용어 정리 .....	295
(5)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	299

목차2  
표 목차

제1부 | 개인설문조사

표 1101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	70
표 1101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	71
표 1102   비동거 가구원 특성 .....	72
표 1103 -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1) .....	73
표 1103 -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2) .....	74
표 1104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	75
표 1105 - (1)   이주 실태 .....	76
표 1105 - (2)   이주 후 거주기간(타향 이주층) .....	77
표 1105 - (3)   이주 후 거주기간(고향 이주층) .....	78
표 1105 - (4)   이주 직전 거주지 .....	79
표 1106 - (1)   5년 이내 이주 의사 .....	81

---

표 1106 - (2)   이주 희망 지역 .....	83
표 1106 - (3)   이주 희망 이유 .....	85
표 1106 - (4)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	86
표 1107 - (1)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	88
표 1107 - (2)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90
표 1107 - (3)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	91
표 1109 - (1)   주관적 건강 상태 .....	94
표 1109 - (2)   주관적 건강 상태 - 추이 .....	95
표 1110 - (1)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96
표 1110 - (2)   행복의 영향 요인 .....	97
표 1110 - (3)   행복의 영향 요인 - 추이 .....	98
표 1201 - (1)   가구원의 주업 .....	100
표 1201 - (2)   가구원의 겸업 및 부업 .....	102
표 1201 - (3)   주업 - 종사자 지위 .....	104
표 1201 - (4)   겸업 및 부업 - 종사자 지위 .....	104
표 1201 - (5)   직업 활동을 통한 가구의 연간 소득 .....	105
표 1202 - (1)   은퇴계획 .....	106
표 1202 - (2)   은퇴 희망 연령 .....	106
표 1202 - (3)   은퇴 연령 .....	107

---

표 1202 - (4)   은퇴계획 - 추이 .....	107
표 1202 - (5)   은퇴 희망 연령 - 추이 .....	107
표 1203 - (1)   창업 및 취업 희망 여부 .....	108
표 1203 - (2)   희망 창업 업종 .....	109
표 1203 - (3)   희망 취업 직종 .....	111
표 1203 - (4)   희망 창업 조직형태 .....	113
표 1203 - (5)   희망 취업 조직형태 및 근로형태 .....	113
표 1203 - (6)   창업 기대소득 .....	114
표 1203 - (7)   취업 기대소득 .....	114
표 1203 - (8)   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	115
표 1203 - (9)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	115
표 1203 - (10)   농어촌에서 창업 시 가장 큰 어려움 .....	116
표 1203 - (11)   농어촌에서 취업 시 가장 큰 어려움 .....	116
표 1204 - (1)   사회적 경제 인지도 .....	117
표 1204 - (2)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필요 서비스 분야 .....	118
표 1205 - (1)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경험 유무(농어가) .....	119
표 1205 - (2)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경험 유무(농어가) - 추이 .....	119
표 1205 - (3)   경영형태 .....	120
표 1205 - (4)   경영형태 - 추이 .....	120

---

표 1205 - (5)   연간 소득 .....	121
표 1205 - (6)   가구 소득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 .....	121
표 1205 - (7)   가구 소득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122
표 1205 - (8)   정부 지원 수혜 여부 .....	123
표 1205 - (9)   정부 지원 수혜 여부 - 추이 .....	123
표 1206 - (1)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농어가) .....	124
표 1206 - (2)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농어가) - 추이 .....	125
표 1207 - (1)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농어가) .....	126
표 1207 - (2)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농어가) - 추이 .....	127
표 1208 - (1)   영농형태 .....	128
표 1208 - (2)   영농형태 - 추이 .....	128
표 1209 - (1)   농업 계획 .....	129
표 1209 - (2)   농업 계획 - 추이 .....	130
표 1209 - (3)   농업 승계자 유무 .....	131
표 1209 - (4)   농업 승계자 유무 - 추이 .....	131
표 1210 - (1)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	132
표 1210 - (2)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 추이 .....	133
표 1211 - (1)   식료품 구입처 .....	135
표 1211 - (2)   일상생활용품 구입처 .....	136

---

표 1211 - (3)   식료품 구입처 - 추이	137
표 1211 - (4)   일상생활용품 구입처 - 추이	137
표 1211 - (5)   식료품 주된 구입처 위치	138
표 1211 - (6)   일상생활용품 주된 구입처 위치	139
표 1211 - (7)   식료품 주된 구입처 위치 - 추이	140
표 1211 - (8)   일상생활용품 주된 구입처 위치 - 추이	140
표 1211 - (9)   주된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41
표 1211 - (10)   식료품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142
표 1211 - (11)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142
표 1211 - (12)   식료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143
표 1211 - (13)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144
표 1211 - (14)   식료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 추이	145
표 1211 - (15)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 추이	145
표 1212   월 평균 생활비	146
표 1213   부채 현황	149
표 1214 - (1)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151
표 1214 - (2)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 추이	152
표 1215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153
표 1216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155

---

표 1301 - (1)   여가활동의 목적 .....	158
표 1301 - (2)   여가활동의 목적 - 추이 .....	159
표 1302 - (1)   주된 문화·여가활동 .....	162
표 1302 - (2)   주된 문화·여가활동 - 추이 .....	163
표 1302 - (3)   주된 문화·여가활동 동반자 .....	165
표 1302 - (4)   주된 문화·여가활동 동반자 - 추이 .....	166
표 1302 - (5)   주된 문화·여가활동 빈도 .....	168
표 1302 - (6)   주된 문화·여가활동 빈도 - 추이 .....	169
표 1302 - (7)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	172
표 1302 - (8)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	173
표 1302 - (9)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 추이 .....	174
표 1302 - (10)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176
표 1302 - (11)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 .....	177
표 1302 - (12)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 - 추이 .....	178
표 1303 - (1)   희망 문화·여가활동 .....	181
표 1303 - (2)   희망 문화·여가활동 - 추이 .....	182
표 1303 - (3)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	184
표 1303 - (4)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 추이 .....	185
표 1303 - (5)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 .....	187

---

표 1303 - (6)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 - 추이 .....	188
표 1303 - (7)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 .....	191
표 1303 - (8)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	193
표 1304 - (1)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	195
표 1304 - (2)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 추이 .....	196
표 1305 - (1)   동호회 활동 여부 .....	197
표 1305 - (2)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 .....	200
표 1305 - (3)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 - 추이 .....	201
표 1305 - (4)   동호회 참여 빈도 .....	202
표 1305 - (5)   동호회 참여 빈도 - 추이 .....	202
표 1305 - (6)   동호회 참여 경력 .....	203
표 1305 - (7)   동호회 참여 빈도 - 추이 .....	203
표 1305 - (8)   동호회 활동 전문성 .....	204
표 1305 - (9)   동호회 활동 전문성 - 추이 .....	204
표 1306 - (1)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	205
표 1306 - (2)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횟수 .....	206
표 1307 - (1)   체육활동 경험 .....	208
표 1307 - (2)   주된 체육활동 종류 .....	209
표 1307 - (3)   주된 체육활동 종류 - 추이 .....	211

표 1308 - (1)   관광 경험 여부 .....	212
표 1308 - (2)   관광 횟수 .....	213
표 1308 - (3)   국내 관광 동반자 .....	214
표 1308 - (4)   국외 관광 동반자 .....	214
표 1309 - (1)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여부 .....	215
표 1309 - (2)   참여한 강좌, 강습회 종류 .....	216
표 1310 - (1)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	218
표 1310 - (2)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만족도 .....	219
표 1310 - (3)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향후 참여 의사 .....	220
표 1310 - (4)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 추이 .....	221
표 1310 - (5)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만족도 - 추이 .....	221
표 1310 - (6)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향후 참여 의사 - 추이 .....	221
표 1311 - (1)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	223
표 1311 - (2)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 추이 .....	224
표 1312 - (1)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	225
표 1312 - (2)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 추이 .....	226
표 1313 - (1)   문화여가생활 만족도(1) .....	228
표 1313 - (2)   문화여가생활 만족도(2) .....	229
표 1314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	231

##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표 2101   취업 가구구성원의 업종 및 직종 .....	236
표 2102   농가소득 구성 .....	237
표 2103 - (1)   창업·취업 희망 사유 .....	238
표 2103 - (2)   창업 희망 업종 .....	238
표 2103 - (3)   취업 희망 직업 .....	239
표 2103 - (4)   희망 직장 일의 고용형태 .....	239
표 2104   영농형태별 농가 .....	240
표 2105 - (1)   노후준비하고(되어) 있음 .....	241
표 2105 - (2)   노후준비하고 있지 않음 .....	242
표 21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	243
표 2107 - (1)   생활비 지출 항목(1) .....	244
표 2107 - (2)   생활비 지출 항목(2) .....	245
표 2107 - (3)   생활비 지출 항목(3) .....	246
표 2108 - (1)   소득 및 가계지출(1) .....	247
표 2108 - (2)   소득 및 가계지출(2) .....	248
표 2109   농가의 저축 및 보험 .....	249
표 2110 - (1)   부채 규모(1) .....	250
표 2110 - (2)   부채 규모(2) .....	251

---

표 2111   소득 만족도 .....	252
표 2112   소비생활 만족도 .....	253
표 2201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 .....	255
표 2202 - (1)   주요 여가활동(1) .....	256
표 2202 - (2)   주요 여가활동(2) .....	257
표 2202 - (3)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	257
표 2203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258
표 2204 - (1)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	259
표 2204 - (2)   지역별 문화 동호회 참여현황 .....	260
표 2205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261
표 2206 - (1)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 .....	262
표 2206 - (2)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참여 빈도 .....	263
표 2207 - (1)   지난 1년 간 국내 관광여행 횟수 .....	264
표 2207 - (2)   지난 1년 간 해외 관광여행 횟수 .....	265
표 2208 - (1)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1) .....	266
표 2208 - (2)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2) .....	267
표 2209   여가활용 만족도 .....	268

---

목차3  
그림 목차

그림 1105   이주 직전 거주지 - 추이 .....	80
그림 1106 - (1)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	82
그림 1106 - (2)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	84
그림 1107 - (1)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	87
그림 1107 - (2)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89
그림 1108 - (1)   정신건강 .....	93
그림 1108 - (2)   정신건강 - 추이 .....	93
그림 111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	98
그림 1204   사회적 경제 인지도 .....	117
그림 1206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농어가) .....	124
그림 1211   물품 구입처 .....	134
그림 1212   월 평균 생활비 - 추이 .....	147
그림 1213 - (1)   저축 현황 .....	148

그림 1213 - (2)   저축 현황 - 추이 .....	148
그림 1214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	150
그림 1215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	154
그림 1216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	156
그림 1302 - (1)   주된 문화·여가활동 .....	160
그림 1302 - (2)   주된 문화·여가활동 동반자 .....	164
그림 1302 - (3)   주된 문화·여가활동 빈도 .....	167
그림 1302 - (4)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	170
그림 1302 - (5)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	170
그림 1302 - (6)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 추이 .....	174
그림 1302 - (7)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175
그림 1302 - (8)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 .....	175
그림 1302 - (9)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178
그림 1303 - (1)   희망 문화·여가활동 .....	179
그림 1303 - (2)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	183
그림 1303 - (3)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 .....	186
그림 1303 - (4)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 .....	189
그림 1303 - (5)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	192
그림 1304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	194

---

그림 1305 - (1)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 .....	198
그림 1305 - (2)   동호회 활동 여부 .....	201
그림 1306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 추이 .....	207
그림 1307 - (1)   체육활동 경험 .....	208
그림 1307 - (2)   주된 체육활동 종류 .....	209
그림 1307 - (3)   체육활동 경험 - 추이 .....	211
그림 1308 - (1)   관광 경험 여부 - 추이 .....	212
그림 1308 - (2)   관광 횟수 - 추이 .....	213
그림 1309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여부 - 추이 .....	215
그림 1310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만족도 .....	219
그림 1313 - (1)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227
그림 1313 - (2)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추이 .....	230
그림 1314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	232

---

# 조사연구 개요

조사 목적

법적 근거

조사 연혁

조사체계

표본설계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조사방법

조사내용

자료처리 및 분석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1. 조사 목적

-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2.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 3. 조사 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2016. 8. 통계승인번호 변경 : 제11437호('04.8.31.) → 제114037호('16.8.28.)

2019. 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4. 조사 체계

○ 조사주기 : 1년(5년 1주기)

연차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1	종합 조사		농어촌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2	부문별 조사	경제활동, 문화·여가 등	농어촌 4,000가구
3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등	
4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5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	

- 1년차 종합 조사와 2~5년차 부문별 조사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
- 종합 조사는 농어촌 주민 및 삶의 질 비교를 위한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문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함

※ 본 조사의 대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 농어업인삶의질법)'의 근거에 따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함. 단, 종합 조사 시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법의 기본이념(제2조)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시 주민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 분석 자료로 활용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 5. 표본설계

### ①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2015년 기준 등록센서스)

단위 : 명

시도	가구수	인구수
<b>전국</b>	<b>3,334,713</b>	<b>8,032,936</b>
서울	-	-
부산	29,596	72,881
대구	64,848	174,527
인천	33,538	75,301
광주	-	-
대전	-	-
울산	78,311	203,564
세종	37,502	86,838
경기	732,268	1,919,100
강원	211,373	482,115
충북	225,081	533,187
충남	416,384	996,095
전북	193,414	434,577
전남	377,275	855,368
경북	467,213	1,070,741
경남	412,062	986,926
제주	55,848	141,716

### ② 추출 단위(sampling unit)

-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 : 읍/면
-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 : (병합)조사구
- 3차 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 usu) : 가구

### ③ 추출 틀(sampling frame)

-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파악한 조사구들로 MDIS에 탑재된 명부<sup>2)</sup>

### ④ 층화(stratification)

- 1차 층화 : 읍/면 지역으로 층화
- 2차 층화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구분
- 3차 층화 :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

아파트 가구 비율, 65세 이상 가구 비율, 농림어가 비율에 따라 지역별 2~3개로 층화

### ⑤ 표본배분

- 역배분(power allocation)에 의해 지역별 표본 배분을 함

#### [표본배분 기본전력]

기존 표본설계에서 고려한 배분방식은 Bankier (1988)의 “역분해(power allocation)”로 주어진 표본크기  $m$ 을 층별로 할당할 때, 층별 조사특성  $y$ 의 상대표준오차  $cv_y (= S_y / \bar{Y})$ 와 보조정보  $x$ 에 근거한 크기측도(measure of size, MOS) 혹은 중요도  $t_{xh}$ 의  $a$ 승의 곱에 비례하여 할당함. 즉,

$$m_h^{\text{역}} \propto (t_{xh})^a cv_{yh} \quad (1)$$

만약  $a = 1$ 이고  $t_{xh} = t_{yh}$ 이라면 역배분은 네이만배분(Neyman allocation)이 되고, 층별 상대 표준오차가 거의 동일하고  $t_{xh} = M_h$ 이라면 역배분은 층 크기 기준의 절충할당(compromise allocation)이 됨. 주요 조사특성들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대표준오차의 조화평균을 취하여 식 (1)에 적용함

$$\tilde{cv}_{yh} = \left( \frac{1}{Q} \sum_{q=1}^Q cv_{yh}^{-1} \right)^{-1} \quad (2)$$

2) 통계청 MDIS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표본설계를 위해 외부 자료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 2015년 이후 등록센서스로 변경된 이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값은 제외되어 통계청에서 공표되는 가구 규모에 비해 다소 작은 값이 제공됨

**[표본배분 적용]**

2013~2017년 총 5년간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설계요소별 조화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식 (2)에 통합하여 기대분산값을 산출함. 이를 식 (1)의 역배분에 적용한 후, 분석영역인 표본층별 상대 표준오차가 적절한 범위를 갖도록 추가적 조정  
 역배분은  $a = 1/3$ 을 적용하였고, 지역별 표본수를 먼저 계산한 후, 지역별 상대표준오차의 차이가 많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정을 실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구분	지역	종합조사 (2018)	부문별 조사(2019~2022)	
			추가표본	총계
전국	총계	4,000	-	4,000
	소계	2,800	1,200	4,000
	경기	300	140	440
	강원	260	120	380
	충북	280	120	400
	충남	320	140	460
	전북	340	140	480
	전남	440	180	620
	경북	380	160	540
	경남	340	140	480
	제주	140	60	200
	읍면부	소계	1,200	-
서울		460	-	-
광역시		340	-	-
기타		400	-	-

**⑥ 표본추출**

- 1차 추출 : 표본 읍/면 추출 - 읍/면별 가구수 크기비례확률표집(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 pps) 추출
- 2차 추출 : 읍/면 내 조사구 추출 - 가구수 크기비례확률표집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 조사구 명부 기초로 계통추출

## 6. 조사원 선정 및 교육

- 조사원 선정 : 3년 이상의 공공조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1명의 조사원이 50가구 내외를 담당함
- 조사원 교육 : 집합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집합교육 : 투입된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유의사항, 친절도에 대한 교육
  - 수시교육 : 응답거부 시 대처방안과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여 문제점 해결
  - 모든 조사원이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 조사원 교육 실시

## 7.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3,972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응답률 99.3%)
  - 전체 4,000가구 중 통상적인 응답률을 고려하여 95%(3,800가구)로 목표 응답률 설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직접면접식과 자기기입식 병행
- 표본대체 :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대체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조사 진행
  - 3회 방문 후 대체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장기부재,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체 진행
- 조사 일정 : 9월 1일~10월 21일(1.75개월)

## 8. 조사내용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실태 및 의식에 관한 내용 : 공통 문항인 생활 전반 부문과 당해 연도 조사 부문인 경제활동 부문, 문화여가 부문 등 총 3개 부문 61개 항목
- 일반적인 문항의 경우 다항선택형 질문(Multiple-choice Question)과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함
- 각종 만족도, 인식 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Likert 척도(5점)를 주로 사용함

구분	조사항목(*신규문항)
가구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동거 여부, 장애 가구원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가족 수, 가구 구성, 농어가 여부 등
생활 전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이주 실태, 이주의사, 주택의 종류, 주택의 점유형태, 교통수단 보유현황*,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 상태,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등
경제활동	가구원의 직업*, 은퇴계획,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사회적 경제 인지도*,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필요 서비스 분야*,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실태,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영농형태 및 영농계획, 농업 승계자 유무,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주요 물품 구입 실태, 월 평균 생활비, 저축 현황, 부채 현황,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경제적 생활수준 전반적인 만족도,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향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등
문화여가	여가활동의 목적, 주된 문화여가활동,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동호회 활동 실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체육활동 경험, 관광 경험,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등

## 9. 자료처리 및 분석

### 1) 자료처리

-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SA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함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등 평가적 신념과 관련된 문항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평균값(Mean) 산출 [100점 만점 환산 :  $(X_i - 1) \times 25$ 점,  $X_i$ :측정값]
- 종합만족도<sup>3)</sup> 산출방법 : 상관관계 분석으로 상관계수를 활용해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감안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3) 본 조사에서는 종합만족도 산출 방식으로 주요 정책 만족도 측정에서 널리 활용되는 '혼합측정' 방식을 사용함. '혼합측정' 방식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품질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간접 측정'의 장점과 함께, 간접측정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을 체감만족도라는 '직접 측정' 방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 및 하위요소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상관계수의 합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의 중요도를 산출함
  -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복지서비스](12.50%), [보건의료](12.08%), [경제활동](11.49%), [교육여건](11.21%), [문화·여가 여건](10.94%), [기초생활기반](10.64%), [환경·경관](10.54%), [안전](10.45%), [아웃과의 관계](10.15%) 등으로 중요도가 산출됨
- 보다 효율적인 전략적 방향 수립을 위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IPA)을 병행함
  - 사업(정책)의 가치평가와 향후 자원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또는 기업 관리법으로 사업(정책)의 다양한 관리 대상 요인 중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할 부분과 상대적으로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관리할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

Portfolio 분석 (IPA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만족도 (점)	중요도
<b>현 수준 유지</b>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영역]	<b>유지/관리 지속</b>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영역]
<b>만족도 제고</b>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영역]	<b>중점 개선 요망</b>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영역]

② 추정

- 표본 추정 : 조사변수  $y$ 의 모총합  $Y$ 은 표본가중합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hat{Y}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y_{hijk}$$

- $h$  : 표본층 구분자
- $i$  : 표본읍면 ( $i = 1, \dots, n_h$ )
- $j$  : 표본조사구 ( $j = 1, \dots, m_{hi}$ )
- $k$  : 표본가구 ( $k = 1, \dots, m_{hij}$ )
- $w_{hijk}$  : 표본층  $h$ 내 읍면  $i$ , 조사구  $j$ ,  $k$ 번째 표본(응답)가구의 표본가중치
- $y_{hijk}$  : 표본층  $h$ 내 읍면  $i$ , 조사구  $j$ ,  $k$ 번째 표본(응답)가구의 조사변수값
- $n_h$  : 표본층  $h$ 내 표본읍면수
- $m_{hi}$  : 표본층  $h$ 내 읍면  $i$ 의 표본조사구수
- $m_{hij}$  : 표본층  $h$ 내 읍면  $i$ , 조사구  $j$ ,  $k$ 번째 표본(응답)가구수

- 모집단 크기  $M$ 도 위의 식을 이용하여 표본가중합의 형태로 정의됨

$$\hat{M}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즉, 조사변수  $1(y_{hijk} \equiv 1)$ 에 대한 표본가중합에 해당함

- 모평균  $\bar{Y}$ 은 표본가중비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hat{\bar{Y}} = \frac{\hat{Y}}{\hat{M}}$$

○ 설계가중치

- 단계별 표본포함확률 반영 : 일차추출단위 읍면과 이차추출단위인 조사구는 각각 가구수 크기비례계통확률추출로 선택되었고, 삼차추출단위인 가구는 단순계통확률추출로 선택됨. 표본가구 설계가중치는 단계별 추출단위의 설계가중치의 곱으로 정의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됨

$$\begin{aligned}
 w_{hijk}^d &= w_{hi}^d w_{j|hi}^d w_{k|hij}^d \\
 &= \frac{M_{h\dots}}{n_h M_{hi\dots}} \frac{M_{hi\dots}}{m_{hi} M_{hij}} \frac{M_{hij}}{m_{hij}} \\
 &= \frac{M_{h\dots}}{n_h m_{hi} m_{hij}}
 \end{aligned}$$

- $w_{hijk}^d$  : 가구 ( $hijk$ )의 설계가중치
- $w_{hi}^d$  : 읍면 ( $hi$ )의 설계가중치
- $w_{j|hi}^d$  : 조사구 ( $hij$ )의 (조건부) 설계가중치
- $w_{k|hij}^d$  : 가구( $hijk$ )의 (조건부) 설계가중치
- $m_{hi}$  : 읍면 ( $hi$ ) 내 표본조사구수
- $m_{hij}$  : 조사구 ( $hij$ ) 내 표본가구수
- $M_{hij}$  : 조사구 ( $hij$ ) 내 총가구수
- $M_{hi\dots}$  : 읍면 ( $hi$ ) 내 총가구수
- $M_{h\dots}$  : 표본층  $h$  내 총가구수

- 레이킹-비 조정 : 본 조사는 레이킹-비 조정을 통해 칼리브레이션 조정<sup>4)</sup>을 고려하되 기존 1주기 조사(2013~2017)의 평가를 반영한 대리응답(proxy response) 가정 및 이상치 절사(outlier trimming)을 함께 고려한 방식을 채택함

4) 칼리브레이션 조정은 조정 전 가중치를 이용하여 보조정보  $x$ 에 대해 표본가중합과 모총합을 서로 일치시키는 것. (단위)무응답에 의한 편향(bias)을 줄임은 물론 표본추출틀 결함에 따른 포함오차(coverage error) 또한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임. 다수의 보조정보에 대한 모집단 결합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고 개별 보조정보의 주변분포만 주어지거나 결합분포에 따른 조정층 내 표본개체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보조정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칼리브레이션 조정을 수행하는 레이킹-비 조정 (혹은 반복비례적합)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Deville et al., 1993)

- 레이킹-비 조정을 위한 보조변수
  - 지역별 가구주 성별 (남녀)
  - 지역별 가구주 연령 (20-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별 주택유형 (단독, 아파트, 연립 · 다세대, 기타)
- 가중치 절사
  - 레이킹-비 조정은 보조정보 주변합에 대한 반복적 칼리브레이션을 수행하게 됨으로 이상치가 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과대조정을 지양하고자 가중치절사를 적용함

$$w_k^{TR} = \begin{cases} wL & \text{만약 } w_k^{rake} < wL \\ wU & \text{만약 } w_k^{rake} > wU \\ w_k^{rake} & \text{기타} \end{cases}$$

- $qw_{0.50} = w_k^{rake}$  의 중위수
- $qw_{0.95} = w_k^{rake}$  의 95% 백분위수
- $wL = qw_{0.50} / 4$
- $wU = \max\{4qw_{0.50}, qw_{0.95}\}$

- 반복적 레이킹-비 조정 및 가중치 절사 적용
  - 가중치 절사에 따른 표본가중합과 모총합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레이킹-비 조정과 가중치 절사 과정을 다수(3번) 반복 적용함
- 표준화 가중치
  - 최종가중치는 읍면별로 다음과 같이 표준화시킴

$$w_{\eta k}^s = \frac{m_{\eta}}{\widehat{M}_{\eta}} w_k^F$$

- $\eta$  : 읍면 영역 지시자
- $w_k^F$  : 최종가중치
- $w_{nk}^s$  : 영역  $\eta$ 의 표준화 가중치
- $m_\eta$  : 읍면 영역별 표본(응답)가구수
- $\hat{M}_\eta$  : 읍면 영역별 (최종가중치) 가중합

○ 분산추정 : 선형근사방식 분산추정

- 복합표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분석에서 표본추정량 분산식은 일반적으로 수식형태로 주어지지 못하며 가중합 함수에 대한 테일러 선형근사방식이나 복제표본 추정량의 변동에 근거한 방식 중에 선택함(Valliant, 2004)
- 선형근사방식의 표본가중평균의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
- 복잡표본 자료분석의 분산추정은 SAS, SPSS, R 등을 통해 가능함

$$v(\hat{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frac{\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y_{hijk} - \hat{Y})}{w_{...}}$$

$$\bar{e}_{h...} = \frac{1}{n_h} \sum_{i=1}^{n_h} e_{hi..}$$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 \hat{M})$$

$$f_h = \frac{n_h}{N_h} \text{ (일차추출단위 표본추출률)}$$

### ③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통상적으로 1~5% 정도로 사용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10% 정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 제 1 부 개인설문조사

1100)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1200) 경제활동

1300) 문화·여가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1100〉

##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 11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02> 비동거 가구원 특성
- 110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1104>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 1105> 이주 실태
- 1106> 5년 이내 이주 의사
- 1107>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1108> 정신건강
- 1109> 주관적 건강 상태
- 111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110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가구주'가 69.2%, '여성'이 57.8%, [60대 이상] 연령층이 42.7%
-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21.0%,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가 47.9%

 '가구주'가 69.2%, '여성'이 57.8%, [60대 이상] 연령층이 42.7%

[조사대상자(n=3,972) 중 응답자에 한해 - 가구주와의 관계, 성, 혼인상태 : 응답률 100.0%(n=3,972)]

[연령 : 응답률 99.9%(n=3,971), 학력 : 응답률 98.7%(n=3,922)]

가구주나 배우자 중 1명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의 69.2%가 '가구주' 본인이며, '여성'(57.8%) 비율이 '남성'(42.2%)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 '70대 이상'(22.7%), '60대'(20.0%) 등 [60대 이상] 비율이 42.7%이었으며, '50대'(21.5%), '30대 이하'(18.2%), '40대'(17.7%) 순이었다. 혼인상태로 '유배우'(64.1%),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27.0%)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 '고등학교'(31.9%), '대학교'(26.3%), '대학원 이상'(1.9%) 등 [고등학교 이상](60.1%) 비율이 '초등학교'(18.9%), '중학교'(11.6%), '무학'(9.3%) 등 [중학교 이하](39.8%)에 비해 높았다.

| 표 1101 -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972)	100.0	합계	(3,971)	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747)	69.2	연령	30대 이하	( 722)	18.2
	가구주 배우자	(1,225)	30.8		40대	( 701)	17.7
합계			100.0		50대	( 855)	21.5
성	남	(1,677)	42.2		60대	( 792)	20.0
	여	(2,295)	57.8		70대 이상	( 901)	22.7
합계			100.0		합계		(3,922)
혼인 상태	유배우	(2,547)	64.1	학력	무학	( 366)	9.3
	미혼, 비혼	( 353)	8.9		초등학교	( 740)	18.9
	배우자없음 (사별, 이혼 등)	(1,072)	27.0		중학교	( 455)	11.6
					고등학교	(1,252)	31.9
			대학교		(1,033)	26.3	
			대학원 이상		( 76)	1.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21.0%,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가 47.9%**

[직업 - 조사대상자(n=3,972)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7%(n=3,961)]

[종사자 지위 - 주부/무직/기타를 제외한 농어업 종사자 및 자영업/직장인층(n=2,454)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100.0%(n=2,454)]

직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8.0%), '사무 종사자'(7.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6.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7%), '단순노무 종사자'(5.6%) 등 [자영업/직장인](40.8%)과 [주부/무직/기타](38.1%)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비율은 21.0%였다.

농어업 종사자 및 자영업/직장인층의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47.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용직'(29.9%), '무급가족 종사자'(9.3%), '임시직'(7.3%), '일용직'(5.6%) 순이었다.

| 표 1101 - (2)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961)	100.0	합계	(2,454)	100.0	
직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833)	21.0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1,174)	47.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26)	5.7		상용직	( 734)	29.9
	사무 종사자	( 309)	7.8		임시직	( 179)	7.3
	서비스 종사자	( 319)	8.0		일용직	( 139)	5.6
	판매 종사자	( 165)	4.2		무급가족 종사자	( 228)	9.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127)	3.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251)	6.3				
	단순노무 종사자	( 224)	5.6				
	주부/무직/기타	(1,507)	38.1				

## 1102 > 비동거 가구원 특성

▶ 비동거 가구원의 77.2%가 '가구주의 자녀', 주된 비동거 사유는 '직장(직업, 취업준비)'(55.4%)

[비동거 가구원(n=695) 기준/ 중복응답, 100.0% 환산]

농어촌 가구의 전체 가구원(n=10,116) 중 비동거 가구원은 6.9%(n=695)였으며, 가구주와의 관계로 '가구주의 자녀'(77.2%) 비율이 매우 높았다. 비동거 사유로 '직장(직업, 취업준비)'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25.3%) 비율도 높았다.

| 표 1102 | 비동거 가구원 특성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695)	100.0	합계	(666)	100.0	
비동거 가구원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의 배우자	(108)	15.5	비동거 사유	친지 보육	( 18)	2.7
	가구주의 자녀	(537)	77.2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	(168)	25.3
	자녀의 배우자	( 18)	2.6		자녀 교육 지원	( 26)	3.9
	손자녀/그 배우자	( 10)	1.4		직장(직업, 취업준비)	(369)	55.4
	부모	( 11)	1.6		건강(입원, 요양 등)	( 25)	3.7
	조부모	( 3)	0.5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 60)	9.0
	형제자매/그 배우자	( 9)	1.2				

## 1103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 농어가가 25.1%,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 '2세대 가구'가 38.2%
- ▶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41.2%

 농어가가 25.1%,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 '2세대 가구'가 38.2%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농어촌 가구 중 농어가가 25.1%이었으며, 가구원 수는 '2명'(34.5%), '1명'(29.1%), '3명'(15.3%), '4명'(15.0%) 순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로 부부 중심의 '1세대' 가구가 28.3%, 부모, 자녀 중심의 '2세대' 가구가 38.2%였으며,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는 29.1%로 나타났다.

| 표 1103 - (1)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1)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 3,972)	100.0	합계	( 3,972)	100.0	
농어가 여부	농어가	( 995)	25.1	총 가구원 수	1명	(1,154)	29.1
	비농어가	(2,977)	74.9		2명	(1,369)	34.5
합계		( 3,972)	100.0		3명	( 607)	15.3
가족 형태	1인 가구	(1,154)	29.1		4명	( 595)	15.0
	1세대	(1,123)	28.3		5명	( 180)	4.5
	2세대	(1,516)	38.2		6명 이상	( 68)	1.7
	3세대 이상	( 179)	4.5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41.2%**

[만 65세 이상 가구원/장애 가구원/결혼 이민자 유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장애 가구원 가구주와의 관계 및 장애 증상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n=425) 기준/ 중복응답, 100.0% 환산]

농어촌 가구 중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41.2%,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1.4%였으며, 가구주와의 관계(n=54)로 '가구주의 배우자'(84.6%) 비율이 매우 높았고, '자녀의 배우자'(14.3%), '가구주'(1.1%) 순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4.4%,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는 2.0%이었다.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전체 농촌가구의 10.7%였다. 장애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n=480)로 '가구주'(57.9%) 본인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구주의 배우자'(18.5%), '가구주의 자녀'(13.7%), '부모'(6.9%), '조부모'(2.1%), '형제자매/그 배우자'(0.7%), '손자녀/그 배우자'(0.2%) 순이었다. 장애증상의 종류(n=467)로 '경증'(65.3%) 비율이 '중증'(34.7%)에 비해 높았다.

| 표 1103 - (2)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2) 단위: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b>합계</b>			<b>( 3,972)</b>	<b>100.0</b>	<b>합계</b>			<b>( 3,972)</b>	<b>100.0</b>
만65세이상 가구원	있음		(1,637)	41.2	장애 가구원	있음	( 425)	10.7	
	없음		(2,335)	58.8		없음	(3,547)	89.3	
<b>합계</b>			<b>( 3,972)</b>	<b>100.0</b>	<b>합계</b>			<b>(480)</b>	<b>100.0</b>
결혼 이민자	있음		( 54)	1.4	장애 가구원 가구주 와의 관계	가구주	(278)	57.9	
	없음		(3,918)	98.6		가구주의 배우자	( 89)	18.5	
<b>합계</b>			<b>( 3,972)</b>	<b>100.0</b>		가구주의 자녀	( 66)	13.7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여부	수급		( 174)	4.4		손자녀/그 배우자	( 1)	0.2	
	차상위계층		( 78)	2.0		부모	( 33)	6.9	
	해당 없음		(3,720)	93.7		조부모	( 10)	2.1	
						형제자매/그 배우자	( 4)	0.7	
						<b>합계</b>	<b>(467)</b>	<b>100.0</b>	
					장애 증상	중증	(162)	34.7	
						경증	(305)	65.3	

## 1104 >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 ▶ '단독주택' 비율이 56.3%, '자가' 비율이 73.6%
- ▶ 교통수단 보유 가구는 77.0%, '승용차'(64.7%) 보유율이 가장 높음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택의 점유형태는? 귀댁은 교통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주택 종류 : 응답률 100.0%(n=3,972), 점유형태 : 응답률 99.8%(n=3,965)]

[교통수단 보유 현황 : 교통수단별 각 100.0%]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6.3%), '아파트'(31.7%), '연립/다세대주택'(7.5%) 순이었으며, 점유형태로 '자가'(73.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월세'(19.9%), '무상'(6.5%) 순이었다.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77.0%로 나타난 가운데, 보유 교통수단의 종류로 '승용차'(64.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물차'(15.7%), '자전거'(12.6%), '오토바이'(6.9%), '전동차(전동스쿠터)'(2.7%) 순이었다.

| 표 1104 |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972)	100.0	합계	(3,972)	1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36)	56.3	교통수단 보유 현황	보유	(3,059)	77.0
	아파트	(1,260)	31.7		승용차	(2,569)	64.7
	연립/다세대 주택	( 297)	7.5		화물차	( 625)	15.7
	기타	( 179)	4.5		오토바이	( 274)	6.9
	합계	(3,965)	100.0		전동차(전동스쿠터)	( 107)	2.7
점유 형태	자가	(2,916)	73.6		자전거	( 499)	12.6
	전·월세	( 791)	19.9		기타	( 32)	0.8
	무상	( 258)	6.5		미보유	( 913)	23.0

## 1105 &gt; 이주 실태

- ▶ [이주민] 62.2% > [선주민] 37.8%
- ▶ 이주 직전 거주지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30.0%),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29.7%) 등 [농어촌 → 농어촌] 비율이 59.6%

 [이주민] 62.2% > [선주민] 37.8%

귀댁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이주했다'(58.5%),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3.7%) 등 [이주민] 이 62.2%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37.8%) 비율보다 높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비율이 높았다.

| 표 1105 - (1) | 이주 실태

단위 : %(명)

구분		이주했다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이주민 (합)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선주민 (합)
합계 (3,972)		58.5	3.7	62.2	37.8	37.8
읍/면	읍 (1,763)	71.4	2.7	74.1	25.9	25.9
	면 (2,209)	48.3	4.5	52.7	47.3	47.3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23.7	5.4	29.1	70.9	70.9
	비농어가 (2,977)	70.2	3.1	73.3	26.7	26.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78.0	3.8	81.8	18.2	18.2
	40대 ( 701)	73.5	2.7	76.2	23.8	23.8
	50대 ( 855)	60.7	4.9	65.6	34.4	34.4
	60대 ( 792)	53.4	5.1	58.5	41.5	41.5
	70대 이상 ( 901)	33.8	2.0	35.8	64.2	64.2

**평균 거주기간 : '타향 이주층'(평균 12.1년) < '고향 이주층'(평균 13.2년)**

[이주층(타향 이주층 n=2,325, 고향 이주층 n=146) 중 응답가구에 한해]

타향 이주층(n=2,325)의 이주 후 거주기간으로 '5-10년 미만'(22.1%), '1-3년 미만'(16.5%), '3-5년 미만'(13.8%), '1년 미만'(4.8%) 등 [10년 미만] 비율이 57.2%이었으며, 다음으로 '10-30년 미만'(32.4%), '30년 이상'(10.4%)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2.1년이었다.

먼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표 1105 - (2) | 이주 후 거주기간(타향 이주층)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2,325)		12.1년	4.8	16.5	13.8	22.1	32.4	10.4
읍/면	읍 (1,259)	10.8년	4.5	17.5	16.1	23.7	30.1	8.1
	면 (1,066)	13.5년	5.2	15.4	11.0	20.1	35.1	13.2
영농 여부	농어가 (236)	22.9년	.7	2.7	6.8	13.7	45.9	30.2
	비농어가 (2,089)	10.8년	5.3	18.1	14.5	23.0	30.9	8.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63)	4.3년	11.0	30.4	19.5	29.0	10.1	
	40대 (516)	8.3년	4.2	13.4	17.0	22.0	42.3	1.1
	50대 (519)	11.5년	3.8	13.1	10.1	22.0	47.6	3.4
	60대 (423)	16.3년	1.8	13.9	11.6	20.2	30.8	21.8
	70대 이상 (305)	27.8년	.7	5.5	6.9	12.2	33.3	41.5

고향 이주층(n=146)의 이주 후 거주기간으로 '10-30년 미만'(52.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10년 미만'(19.1%), '3-5년 미만'(17.7%), '1-3년 미만'(1.6%), '1년 미만'(1.5%) 등 [10년 미만](39.9%)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은 7.2%로, 평균 거주기간은 13.2년이었다.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평균 거주기간이 긴 경향을 보였다.

| 표 1105 - (3) | 이주 후 거주기간(고향 이주층)

단위: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146)		13.2년	1.5	1.6	17.7	19.1	52.9	7.2
읍/면	읍 (48)	13.1년	1.7	1.0	13.0	26.7	56.2	1.5
	면 (99)	13.3년	1.4	1.9	19.9	15.5	51.3	10.0
영농 여부	농어가 (54)	15.4년		3.4	12.2	27.1	42.0	15.3
	비농어가 (93)	12.0년	2.4	.6	20.8	14.5	59.2	2.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8)	8.0년			21.2	25.6	53.2	
	40대 (19)	12.8년			5.0	34.7	60.3	
	50대 (42)	14.3년		1.4	19.9	9.2	69.5	
	60대 (41)	14.1년	3.4	4.4	21.6	18.6	34.9	17.1
	70대 이상 (18)	17.3년	4.5		11.2	17.4	47.0	19.9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30.0%),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29.7%) 등  
[농어촌 → 농어촌] 비율이 59.6%

지금 살고 있는 곳 직전에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주층(n=2,471)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86.1%(n=2,128)]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30.0%),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29.7%)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59.6%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29.2%), '중소도시 동 지역'(11.1%)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40.4%)에 비해 많았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해 온 가구 중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는 전체 이주층 중 14.9%(n=369, 농어촌 전체 대비 9.3%)였다.

타향 이주층에서 [농어촌 → 농어촌]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하 연령층, 고향 이주층에서 [도시 → 농어촌] 비율이 높았다.

| 표 1105 - (4) | 이주 직전 거주지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	농어촌 → 농어촌	중소도시 동 지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	도시 → 농어촌
합계 (2,128)		30.0	29.7	59.6	11.1	29.2	40.4
읍/면	읍 (1,131)	32.2	27.5	59.7	9.0	31.3	40.3
	면 ( 997)	27.4	32.2	59.6	13.6	26.8	40.4
영농 여부	농어가 ( 261)	25.3	34.2	59.5	14.6	25.9	40.5
	비농어가 (1,867)	30.6	29.1	59.7	10.6	29.7	4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473)	24.2	26.0	50.2	8.8	41.0	49.8
	40대 ( 459)	24.9	29.2	54.1	10.1	35.8	45.9
	50대 ( 521)	36.4	31.9	68.3	12.7	19.0	31.7
	60대 ( 388)	31.8	26.9	58.8	16.9	24.3	41.2
	70대 이상 ( 287)	33.1	36.4	69.5	6.1	24.4	30.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타향 이주층 (1,994)	31.0	30.6	61.6	10.2	28.1	38.4
	고향 이주층 ( 134)	13.7	16.7	30.4	24.5	45.2	69.6

 이주 직전 거주지 - 추이

- 2018년 대비 [농어촌 → 농어촌] 비율이 감소함(-15.7%p)

| 그림 1105 | 이주 직전 거주지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3년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군+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읍/면 지역

## 1106 > 5년 이내 이주 의사

- ▶ 이주의향층이 8.3%,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59.5%
- ▶ 주된 이주 희망 이유는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36.6%)

### 이주의향층 8.3%

귀택은 향후 5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1%(n=3,937)]

향후 5년 내 이주할 의향이 있는 층이 8.3%로,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이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06 - (1) | 5년 이내 이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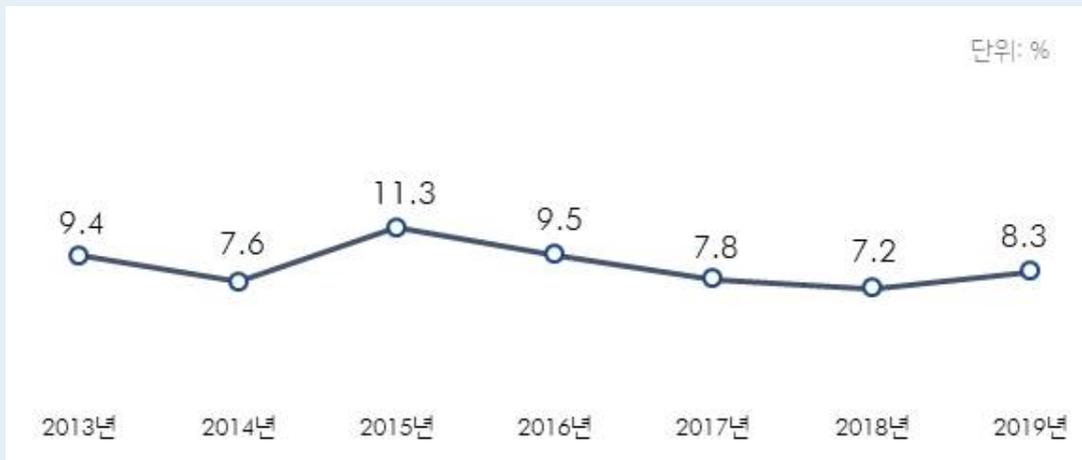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이주의향층	잘 모르겠다	없다
합계 (3,937)		8.3	11.0	80.6
읍/면	읍 (1,753)	11.6	14.9	73.4
	면 (2,184)	5.7	7.9	86.4
영농 여부	농어가 ( 986)	1.2	3.4	95.4
	비농어가 (2,950)	10.7	13.6	75.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13)	23.8	18.7	57.5
	40대 ( 697)	10.1	20.4	69.4
	50대 ( 851)	5.0	9.0	86.0
	60대 ( 777)	4.1	7.3	88.5
	70대 이상 ( 897)	1.4	2.8	95.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62)	12.5	15.8	71.7
	선주민 (1,475)	1.3	3.1	95.6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조금씩 감소 추세가 완화되어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음

| 그림 1106 - (1) |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5년까지 이주의향층은 '있다', '반반이다'의 합이었으나, 2016년 문항 구성이 '있다', '잘 모르겠다', '없다'로 달라짐에 따라 향후 이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층만 5년 이내 이주의향층으로 제시함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 59.5%**

어디로 이주할 생각이십니까?

[이주의향층(n=328)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6%(n=320)]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 지역’(26.0%),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면 지역’(14.1%), ‘다른 시/군의 읍 지역’(11.2%), ‘다른 시/군의 면 지역’(8.3%) 등 농어촌으로 이동하겠다는 층이 59.5%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22.0%), ‘중소도시 동 지역’(16.6%) 등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비율 (3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농어촌→도시] 비율이 높았다.

| 표 1106 - (2) | 이주 희망 지역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 지역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면 지역	다른 시/군의 읍 지역	다른 시/군의 면 지역	농어촌 → 농어촌	중소 도시 동 지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	농어촌 → 도시	기타 (해외 파견, 이민 등)
합계 (320)		26.0	14.1	11.2	8.3	59.5	16.6	22.0	38.6	1.8
읍/면	읍 (203)	28.0	12.5	10.4	8.5	59.3	13.3	27.4	40.7	
	면 (117)	22.6	16.8	12.6	7.9	59.9	22.3	12.8	35.0	5.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70)	14.7	16.1	8.0	11.8	50.5	16.7	30.3	47.0	2.4
	40대 ( 71)	42.4	8.0	13.8	2.2	66.3	24.4	9.3	33.7	
	50대 ( 43)	44.2	5.1	6.2	7.0	62.5	15.1	19.0	34.1	3.4
	60대 ( 28)	17.7	30.9	29.3	6.5	84.4	3.9	10.7	14.6	1.0
	70대 이상 ( 9)	51.3	12.9	19.1	1.2	84.5		15.5	15.5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 2018년 대비 [농어촌→도시] 비율은 증가(+6.7%p) 반면,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감소(-8.6%p)하여 2017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임

| 그림 1106 - (2) |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주된 이주 희망 이유는 '직업 관련 사유'(36.6%)

(이주의향층에 한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의향층(n=328)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6%(n=317)]

이주 희망 이유로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36.6%)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환경 관련 사유'(24.3%),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18.9%), '자녀 교육 때문에'(8.3%),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8.1%) 순이었다.

면지역에서 '직업 관련 사유'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에서 '생활환경 관련 사유'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40대 연령층에서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자녀교육 때문에', 60대 연령층에서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106 - (3) | 이주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생활환경 관련 사유	자녀교육 때문에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상의 이유로
합계 (317)		36.6	18.9	8.1	24.3	8.3	3.3	0.5
읍/면	읍 (201)	33.6	13.3	6.5	32.9	9.2	4.1	0.4
	면 (116)	41.8	28.6	10.9	9.4	6.7	2.0	0.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68)	46.5	12.7	2.5	30.9	7.5		
	40대 ( 70)	16.3	29.9	20.5	15.1	18.2		
	50대 ( 42)	41.4	23.3	9.9	20.4		4.9	
	60대 ( 28)	31.4	24.4	4.4	10.6	3.2	25.2	0.8
	70대 이상 ( 9)	3.6	12.7	18.1	35.0		15.4	15.2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 2018년 대비 '직업 관련 사유'(+10.7%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주택 관련 사유'(-9.3%p) 비율은 감소함

| 표 1106 - (4) |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단위: %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생활환경 관련 사유	자녀교육 때문에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상의 이유로
2019년 (317)	36.6	18.9	8.1	24.3	8.3	3.3	0.5
2018년 (195)	25.9	28.2	7.0	25.3	9.3	0.5	0.2
2017년 (296)	29.9	29.3	2.6	18.4	14.1	3.1	2.4
2016년 (370)	16.2	38.4	1.9	10.1	27.5	2.9	1.9
2015년 (684)	22.0	28.3	2.9	22.7	15.0	7.1	1.6
2014년 (516)	21.8	30.0	3.9	24.3	11.4	5.5	1.8
2013년 (415)	26.4	23.1	3.5	13.2	17.1	6.3	3.5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아춘 가구 기준 수치임

\* 2018년에 추가된 항목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0.5%)와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 1107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지역생활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안전’(평균 81.4점),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등 ‘보건의료’(평균 81.3점) 중요도가 가장 높음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중요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  $\chi_i$  = 측정 값]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평균 81.4점),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등 ‘보건의료’(평균 81.3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소득, 생활, 보육 등 ‘복지서비스’(평균 79.8점),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평균 78.6점),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평균 77.8점),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등 ‘환경·경관’(평균 76.3점), 지역공동체 참여, 교류 등 ‘이웃과의 관계’(평균 74.6점)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한편,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평균 70.6점),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등 ‘문화·여가 여건’(평균 68.8점)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그림 1107 - (1)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농어가, 선주민층에서 ‘이웃과의 관계’, 읍지역, 40대 이하 연령층,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에서 ‘교육 여건’, ‘문화·여가 여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여건’ 중요도가 낮았다.

| 표 1107 - (1)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단위 : 점(명)

구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여건	기초 생활 기반	안전	환경· 경관	이웃 과의 관계	경제 활동 여건
합계 (3,972)		81.3	79.8	70.6	68.8	78.6	81.4	76.3	74.6	77.8
읍/면	읍 (1,763)	81.3	80.2	73.3	70.1	79.9	82.9	77.5	73.5	79.5
	면 (2,209)	81.3	79.5	68.4	67.7	77.6	80.2	75.2	75.5	76.5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82.6	81.2	70.2	69.1	80.0	82.6	78.2	79.8	80.9
	비농어가 (2,977)	80.9	79.3	70.7	68.6	78.1	81.1	75.6	72.8	76.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81.9	80.2	80.1	76.4	82.7	84.2	77.2	72.8	80.6
	40대 ( 701)	83.6	81.9	82.0	75.6	81.6	85.1	80.8	74.4	82.2
	50대 ( 855)	79.8	78.9	69.5	67.7	75.7	78.6	75.8	74.1	78.0
	60대 ( 792)	80.0	79.2	64.8	65.9	78.9	81.8	74.4	75.1	77.3
	70대 이상 ( 901)	81.6	79.3	60.0	60.8	75.4	78.8	73.9	76.2	72.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81.1	79.3	71.5	68.7	78.9	81.6	75.7	72.5	77.8
	선주민 (1,501)	81.7	80.6	68.9	68.8	78.0	81.2	77.2	77.9	77.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 328)	82.7	78.5	75.9	72.3	82.7	86.0	73.6	71.3	80.1
	비의향층 (3,609)	81.2	80.0	70.1	68.4	78.2	81.1	76.5	74.9	77.7

**환경경관(평균 64.0점), '안전'(평균 63.2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61.3점) 만족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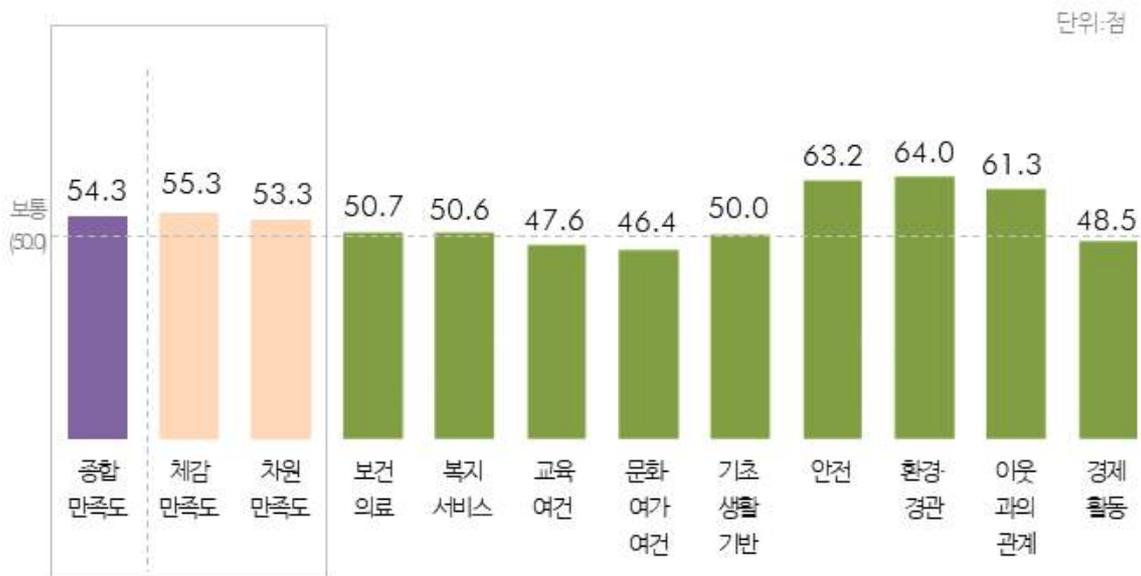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  $\chi_i$  = 측정 값]

지역생활 전반에 대해 평균 54.3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전반적인 느낌을 반영한 체감만족도(평균 55.3점)가 각 평가 속성별 만족도를 환산한 차원만족도(평균 53.3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환경·경관'(평균 64.0점), '안전'(평균 63.2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61.3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인 반면, '경제활동 여건'(평균 48.5점), '교육 여건'(평균 47.6점), '문화·여가 생활 여건'(평균 46.4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던 '보건의료'(평균 50.7점), '복지서비스'(평균 50.6점), '기초생활기반'(평균 50.0점)에 대한 만족도도 '보통 수준'에 그쳤다.

| 그림 1107 - (2)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종합/체감/차원 만족도 : [조사연구 개요]의 '9. 자료처리 및 분석' 참조(p.59)

읍지역, 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면지역에서 ‘환경·경관’,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여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1107 - (2)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전반적인 농어촌생활 만족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여가 여건	기초 생활 기반	안전	환경·경관	이웃과의 관계	경제 활동 여건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b>합계</b>	<b>(3,972)</b>	<b>54.3</b>	<b>55.3</b>	<b>53.3</b>	<b>50.7</b>	<b>50.6</b>	<b>47.6</b>	<b>46.4</b>	<b>50.0</b>	<b>63.2</b>	<b>64.0</b>	<b>61.3</b>	<b>48.5</b>
읍/면	읍 (1,763)	54.7	55.0	54.3	51.7	52.4	50.9	48.1	51.4	63.9	61.1	59.7	51.5
	면 (2,209)	54.0	55.5	52.5	50.0	49.2	44.9	45.0	48.9	62.7	66.3	62.6	46.1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57.3	58.1	56.6	54.4	53.3	47.9	48.3	54.7	67.2	70.0	67.5	49.2
	비농어가 (2,977)	53.3	54.4	52.2	49.5	49.7	47.4	45.7	48.4	61.9	62.0	59.3	48.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50.9	52.0	49.9	45.7	46.4	46.5	44.1	46.8	59.3	58.7	55.4	48.3
	40대 ( 701)	53.2	54.5	51.9	46.9	49.8	47.4	45.7	48.9	61.0	62.4	58.2	49.0
	50대 ( 855)	56.0	57.7	54.2	53.9	52.3	47.6	46.7	51.9	63.7	64.2	59.6	50.0
	60대 ( 792)	55.5	56.6	54.3	53.2	51.6	48.1	46.2	50.7	65.6	65.9	63.9	46.2
	70대 이상 ( 901)	55.3	55.1	55.5	52.7	52.0	48.0	48.5	51.0	65.7	67.6	68.0	48.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52.8	54.1	51.4	48.6	49.0	46.9	44.2	47.2	62.1	61.0	58.0	47.9
	선주민 (1,501)	56.9	57.3	56.5	54.3	53.2	48.6	49.9	54.6	65.1	68.9	66.9	49.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 328)	49.1	49.4	48.7	43.8	44.6	43.1	39.3	43.9	63.5	60.1	56.6	46.5
	비의향층 (3,609)	54.8	55.8	53.8	51.4	51.2	48.1	47.0	50.7	63.3	64.4	61.8	48.8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 전반적으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표 1107 - (3)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단위 : 점(명)

구분	전반적인 농어촌생활 만족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여건	기초 생활 기반	안전	환경· 경관	이웃 과의 관계	경제 활동 여건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2019년 (3,972)	54.3	55.3	53.3	50.7	50.6	47.6	46.4	50.0	63.2	64.0	61.3	48.5
2018년 (2,780)	55.0	55.8	54.2	52.0	52.2	49.5	48.9	51.3	61.7	62.8	60.7	49.0
2017년 (3,995)	54.8	58.3	51.3	45.8	49.9	43.6	42.2	51.3	65.5	63.6	-	46.8
2016년 (3,952)	51.7	52.6	50.9	46.9	47.9	44.4	41.7	47.5	66.5	62.7	-	46.5
2015년 (3,934)	52.5	55.4	49.6	48.8		42.6	39.5	46.6	61.5	65.4	-	43.5
2014년 (3,939)	48.9	50.0	47.7	44.7		43.4	38.9	47.5	61.3	63.5	-	42.9
2013년 (2,764)	-	-	-	48.9	44.4	49.6	41.4	51.0	-	60.2	64.7	41.3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3년 '교육여건'은 "사교육 여건"(평균 47.3점), "학교교육 여건"(평균 51.8점)의 산술평균 값임. 2013년은 개별 문항으로 만족도를 측정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하지 않음

\* 2014년, 2015년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로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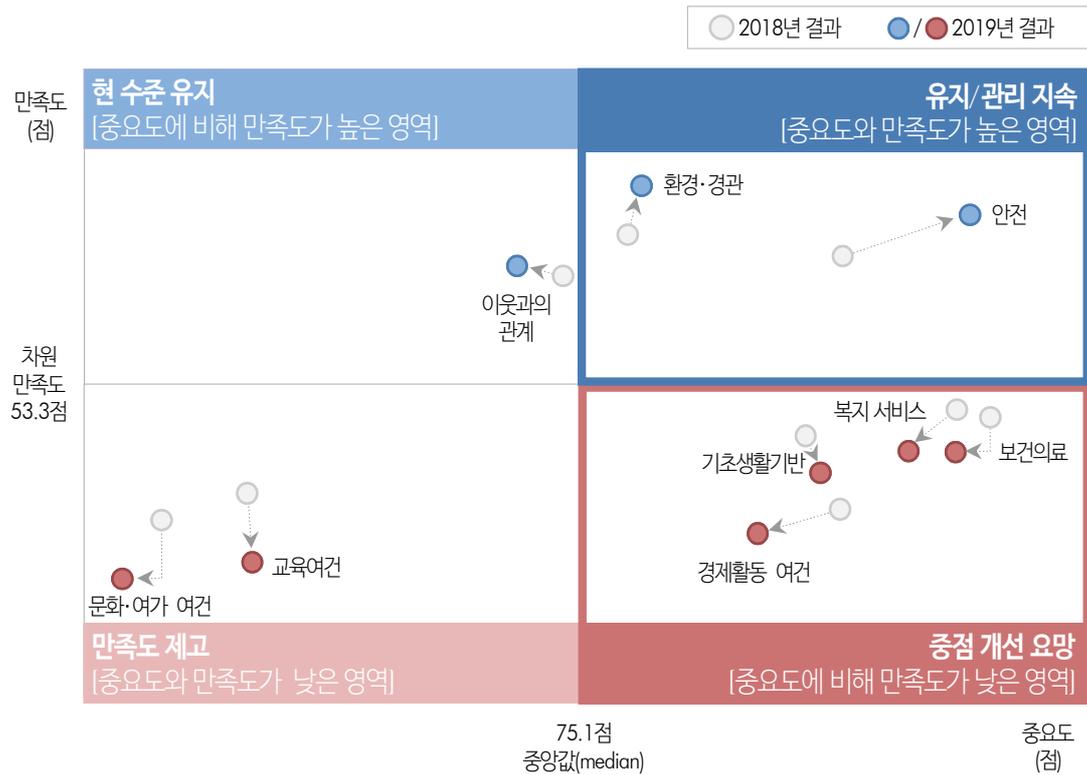
\* 2016년 '안전'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평균 66.2점), "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평균 66.8점)의 산술평균 값임. '보건의료'와 '복지여건(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은 별도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종합만족도 산출 시 반영되지 않음

## \*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

[차원 만족도/중요도 기준]

- ▶ [유지/관리 지속 영역] : '환경·경관', '안전'
- [현 수준 유지 영역] : '이웃과의 관계'
- [만족도 제고 영역] :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 [중점개선 요망 영역] :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

2018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 [현 수준 유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만족도 제고] 영역,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가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아 [중점개선 요망]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108> 정신건강

▶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층은 11.6%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는 층은 11.6%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 1108 - (1) | 정신건강



### 정신건강 - 추이

- 2018년과 비슷한 수준(+1.9%p)

| 그림 1108 - (2) | 정신건강 - 추이



## 1109 > 주관적 건강 상태

▶ [건강한 편(합)](52.6%) > [건강하지 않은 편(합)](26.5%)

귀하는 지금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5%(n=3,952)]

‘건강한 편이다’(48.0%) 등 [건강한 편(합)] 비율이 52.6%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0.8%) 등 [건강하지 않은 편(합)](26.5%)에 비해 높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건강한 편(합)] 비율이 높았다.

| 표 1109 - (1) |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 %(명)

구분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합)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합)
합계 (3,952)		4.7	48.0	52.6	20.8	20.8	5.7	26.5
읍/면	읍 (1,753)	6.6	51.8	58.4	20.0	16.7	4.9	21.6
	면 (2,199)	3.1	44.9	48.0	21.5	24.1	6.4	30.5
영농 여부	농어가 ( 992)	3.4	45.1	48.5	20.5	26.3	4.7	31.0
	비농어가 (2,960)	5.1	48.9	54.0	20.9	19.0	6.1	25.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17)	11.4	69.4	80.8	15.1	3.7	0.4	4.1
	40대 ( 694)	6.4	58.0	64.4	23.1	11.2	1.4	12.5
	50대 ( 853)	5.3	56.5	61.8	24.5	12.4	1.3	13.7
	60대 ( 791)	1.2	42.6	43.8	22.7	25.0	8.5	33.5
	70대 이상 ( 896)	0.5	19.6	20.1	18.5	46.2	15.2	61.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60)	6.2	49.1	55.3	23.1	16.7	4.8	21.5
	선주민 (1,492)	2.2	46.0	48.2	17.0	27.6	7.2	34.8

 주관적 건강상태 - 추이

- 2018년 대비 [건강한 편(합)](+6.2%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보통이다](-8.3%p) 비율은 감소함

| 표 1109 - (2) | 주관적 건강 상태 - 추이

단위 : %(명)

구분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합)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합)
2019년 (3,952)	4.7	48.0	52.6	20.8	20.8	5.7	26.5
2018년 (2,766)	4.3	42.2	46.4	29.1	21.3	3.1	24.4

\* 2018년은 도/농 종합 조사로 농어촌 가구(n=2,780) 기준 수치임

## 1110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60.3점
- ▶ '건강'(41.7%)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60.3점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행복감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  $\chi_i$  = 측정 값]

‘매우 행복하다’(4.0%), ‘행복한 편이다’(46.1%) 등 [행복한 편]이라는 응답이 절반(50.1%)을 차지하여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60.3점이었다. 읍지역,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우울감 비경험층,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으로 인지하는 층에서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았다.

| 표 1110 - (1)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한 편 (합)	보통이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 (합)
합계 (3,963)		60.3점	4.0	46.1	50.1	38.0	10.6	1.2	11.8
읍/면	읍 (1,762)	63.1점	6.2	48.9	55.2	36.1	8.2	0.5	8.7
	면 (2,201)	58.0점	2.2	43.9	46.1	39.6	12.5	1.8	14.3
영농 여부	농어가 ( 991)	60.6점	3.2	46.6	49.8	40.0	9.6	0.5	10.1
	비농어가 (2,972)	60.2점	4.3	46.0	50.2	37.4	10.9	1.5	12.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68.7점	6.6	64.8	71.4	25.4	3.2		3.2
	40대 ( 701)	66.8점	7.4	57.5	64.9	30.1	4.7	0.2	5.0
	50대 ( 853)	60.6점	3.9	46.2	50.0	38.8	10.8	0.3	11.1
	60대 ( 791)	57.5점	2.2	40.3	42.5	44.4	11.5	1.6	13.1
	70대 이상 ( 895)	50.5점	0.9	27.3	28.2	48.0	20.2	3.5	23.8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층 ( 460)	43.1점	0.2	19.5	19.7	39.6	33.7	6.9	40.7
	비경험층 (3,503)	62.5점	4.5	49.6	54.1	37.8	7.6	0.5	8.1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한 편 (2,079)	69.6점	6.9	67.6	74.5	22.6	2.9		2.9
	보통 ( 821)	55.9점	1.1	29.9	31.0	60.7	8.1	0.2	8.3
	건강하지 않은 편 (1,047)	45.0점	0.5	15.6	16.2	51.4	27.9	4.5	32.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건강' (41.7%)**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8%(n=3,92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41.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가족'(33.0%), '경제적 안정'(16.9%)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일/직업'(3.6%), '대인관계'(2.7%), '문화 및 여가활동'(1.3%), '지역생활환경'(0.5%)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우울감 경험층,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인지하는 층에서 '건강'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 우울감 비경험층,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으로 인지하는 층에서 '가족' 비율이 높았다.

| 표 1110 - (2) | 행복의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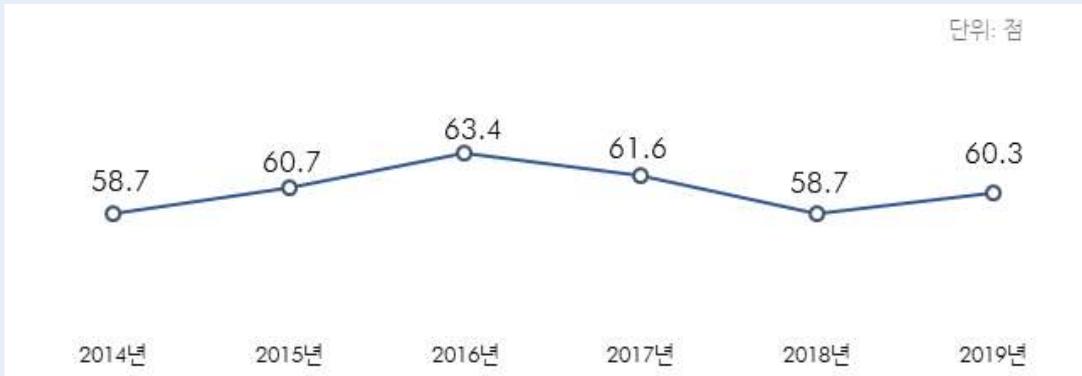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가족	건강	경제적 안정	일/직업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생활 환경	대인 관계	기타
<b>합계 (3,924)</b>		<b>33.0</b>	<b>41.7</b>	<b>16.9</b>	<b>3.6</b>	<b>1.3</b>	<b>0.5</b>	<b>2.7</b>	<b>0.3</b>
읍/면	읍 (1,749)	<b>38.7</b>	37.4	16.6	2.4	1.2	0.5	3.0	0.1
	면 (2,175)	28.5	<b>45.2</b>	17.1	4.7	1.4	0.4	2.4	0.4
영농 여부	농어가 ( 985)	31.0	<b>47.5</b>	15.2	2.0	2.1	0.3	1.9	0.1
	비농어가 (2,939)	33.7	39.8	17.4	4.2	1.1	0.5	2.9	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05)	<b>53.0</b>	16.2	20.5	5.8	1.8		2.7	
	40대 ( 694)	41.9	25.2	22.7	3.4	2.3	1.0	3.4	
	50대 ( 847)	33.2	37.4	19.8	5.4	0.8	0.2	3.0	0.1
	60대 ( 784)	23.6	53.6	14.7	2.7	1.5	1.0	1.8	1.0
	70대 이상 ( 893)	18.4	<b>68.4</b>	8.5	1.3	0.5	0.2	2.6	0.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35)	<b>35.4</b>	35.8	<b>19.9</b>	3.9	1.3	0.6	3.2	0.1
	선주민 (1,489)	29.2	<b>51.4</b>	11.9	3.2	1.4	0.3	1.9	0.6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층 ( 445)	22.4	<b>51.9</b>	20.1	2.5	0.9	0.5	1.6	0.1
	비경험층 (3,479)	<b>34.4</b>	40.4	16.4	3.8	1.4	0.5	2.8	0.3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한 편 (2,061)	<b>40.1</b>	32.8	16.1	5.5	1.5	0.6	3.0	0.4
	보통 ( 804)	34.8	32.7	<b>24.3</b>	2.6	1.8	0.4	3.4	0.0
	건강하지 않은 편 (1,042)	16.7	<b>66.9</b>	13.0	0.8	0.6	0.3	1.5	0.2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 2016년 이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대비 약간 증가(평균 +1.6점)하며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그림 1110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 2016년은 10점 척도를 사용함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80) 기준 수치임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가족', '건강'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18년 대비 '가족'(+6.4%p) 비율이 증가하여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경제적 안정'(-9.3%p) 비율은 감소함

| 표 1110 - (3) | 행복의 영향 요인 - 추이 단위: %(명)

구분	가족	건강	경제적 안정	일/직업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생활 환경	대인 관계	기타
2019년 (3,924)	33.0	41.7	16.9	3.6	1.3	0.5	2.7	0.3
2018년 (2,752)	26.6	40.0	26.2	3.1	1.1	0.4	2.4	0.2
2017년 (3,982)	34.3	38.0	21.8	3.3	0.9	0.5	0.6	0.5
2016년 (3,935)	41.5	33.2	15.7	3.5	1.2	1.2	3.3	0.4
2015년 (3,916)	39.4	35.2	13.3	3.6		1.8	6.3	0.4
2014년 (3,931)	41.1	35.7	12.8	2.9		0.9	6.2	0.5

\* '문화 및 여가활동' : 2016년 추가  
 \* 2016년까지는 행복의 영향 요인 2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여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함/ 2017년부터 단일항목을 선택함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80) 기준 수치임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 1200〉 경제활동

- 1201> 가구원의 직업
- 1202> 은퇴계획
- 1203>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 1204> 사회적 경제 인지도 및 필요 서비스 분야
- 1205>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실태(농어가)
- 1206>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농어가)
- 1207>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농어가)
- 1208> 영농형태(농어가)
- 1209> 농업 계획 및 농업 승계자 유무(농어가)
- 1210>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 1211> 주요 물품 구입 실태
- 1212> 월 평균 생활비
- 1213> 저축 및 부채 현황
- 1214>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 1215>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 1216> 향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 1201 > 가구원의 직업

- ▶ 주된 직업은 '무직(주부 등)'(3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0.4%)
- ▶ 겸업 및 부업을 하고 있는 가구원은 전체의 8.0%
- ▶ 직업 활동을 통한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평균 2,115.7만원

### ▶ '무직(주부 등)'(3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0.4%)가 가구원의 주된 직업

2018년을 기준으로 가구주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개방형 질문 :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중복응답, 100.0% 환산]

주된 직업으로 '무직(주부 등)'(3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0.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11.1%), '서비스 종사자'(7.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7.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6.5%), '단순노무 종사자'(6.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4.9%), '판매 종사자'(4.4%) 순이었다.

면지역, 선주민층에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읍지역, 이주민층에서 '사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 표 1201 - (1) | 가구원의 주업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학생	무직(주부 등)
합계 (3,968)		0.1	6.5	11.1	7.7	4.4	20.4	4.9	7.3	6.1	0.3	0.5	30.8
읍/면	읍 (1,759)	0.1	8.3	13.9	7.1	4.7	9.2	5.6	10.2	6.6	0.3	0.8	33.2
	면 (2,209)	0.2	5.0	8.8	8.2	4.1	29.7	4.3	4.8	5.6	0.2	0.3	28.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67)	0.2	8.5	13.9	8.7	5.4	8.9	5.8	9.8	6.4	0.4	0.9	31.3
	선주민 (1,501)	0.1	3.2	6.6	6.0	2.7	39.4	3.4	3.2	5.5	0.1	0.0	29.9

## 가구의 직업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중복응답, 100.0% 환산]

구분	세부사항
관리자 (0.1%)	· 고위 관리직, 건설회사 부장(임원), 건설회사 현장 감독 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5%)	·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약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강사, 엔지니어, 전기기술자, 목사, 스님 등
사무 종사자 (11.1%)	· 사무직 공무원, 사무직 회사원, 은행원, 회계, 경리, 행정, 서무 등
서비스 종사자 (7.7%)	· 경찰, 소방관, 요양보호사, 미용사, 요리사, 홀서빙, 식당·카페 운영, 펜션·민박 운영 등
판매 종사자 (4.4%)	· 슈퍼마켓·마트·편의점 운영, 주유소 운영, 철물점 운영, 공구 판매, 고물상 운영, 농약 판매, 인터넷 쇼핑몰, 판매 영업직 등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0.4%)	· 벼농사, 고추/마늘/오이/당근/딸기 등 채소 재배, 사과/복숭아/감/자두/포도 등 과수 재배, 화훼 재배, 인삼 등 특·약용작물 재배, 축산, 양봉, 미역 채취, 홍합 채취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9%)	· 건설·건축업 종사자, 기계 수리, 용접원, 자동차 정비사, 전기공무원, 기능직 회사원 등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3%)	· 생산직, 현장직, 택시 운전, 버스 운전, 화물차 운전, 용달화물차 운전, 굴삭기 등 중장비기사, 레미콘 운전, 낚시 배 운전 등
단순노무 종사자 (6.1%)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경비원, 청소원, 산불감시원, 가사도우미, 건설현장 단순노무직, 농사 관련 일용직, 어업 관련 일용직 등

\* 군인, 학생, 무직(주부 등)은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음

**겸업 및 부업을 하고 있는 층이 8.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2.7%)가 주된 겸업/부업**

[겸업 및 부업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겸업 및 부업 종류 - 개방형 질문 : 겸업/부업 종사 가구원이 있는 가구(n=318)에 한해, 중복응답, 100.0% 환산]

겸업 및 부업을 하고 있는 가구원은 총 가구원의 8.0%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2.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20.5%), '서비스 종사자'(11.5%), '판매 종사자'(5.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7%), '사무 종사자'(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4%)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겸업 및 부업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면지역에서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에서 '판매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201 - (2) | **가구원의 겸업 및 부업**

단위: %(명)

구분	겸업 및 부업 여부		겸업 및 부업 종류								
	사례수	겸업 및 부업층	사례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b>합계</b>	<b>(3,972)</b>	<b>8.0</b>	<b>(291)</b>	<b>1.4</b>	<b>1.9</b>	<b>11.5</b>	<b>5.7</b>	<b>52.7</b>	<b>3.6</b>	<b>2.7</b>	<b>20.5</b>
읍/면	읍	4.3	( 70)	0.0	0.0	12.4	9.7	46.4	11.8	6.8	12.9
	면	10.9	(222)	1.9	2.5	11.2	4.4	54.7	0.9	1.3	23.1
영농 여부	농어가	26.8	(249)	1.7	2.0	6.1	1.5	63.6	4.2	3.2	17.7
	비농어가	1.7	( 42)	0.0	1.1	37.4	26.2	0.0	1.0	0.0	34.3

## 가구원의 겸업 및 부업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겸업/부업 종사 가구원이 있는 가구(n=318)에 한해, 중복응답, 100.0% 환산]

구분	세부사항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	· 강사, 손해사정사 등
사무 종사자 (1.9%)	· 마을이장, 회사 고문 등
서비스 종사자 (11.5%)	· 영양보호사, 구내식당 조리사, 식당·카페 운영, 펜션·민박 운영 등
판매 종사자 (5.7%)	· 슈퍼마켓·마트 운영, 농자재 판매, 보험설계사 등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2.7%)	· 벼농사, 고추 재배, 감/감귤 등 과수 재배, 콩 재배, 참깨 재배,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농수산물 가공, 한우/염소 등 축산, 양봉, 조개 캐기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6%)	· 미장공, 공방원, 기계 수리, 목수, 매립작업원, 석재 관련 기능원, 탕제원, 기능직 회사원 등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 택시 운전, 화물차 운전, 용달화물차 운전, 중장비기사, 지게차 운전, 농기계 운전 등
단순노무 종사자 (20.5%)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경비원, 청소원, 산불감시원, 건설현장 단순노무직, 재활용품 수거, 농사 관련 일용직, 어업 관련 일용직 등

**주업은 '상용직'(37.3%), '자영업자'(37.2%)  
겸업 및 부업은 '자영업자'(60.9%) 비율이 가장 높음**

[주업 - 주부/무직/기타를 제외한 농업 종사자 및 자영업/직장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n=2,991)에 한해, 중복응답, 100.0% 환산]

[겸업 및 부업 - 겸업/부업 종사 가구원이 있는 가구(n=318)에 한해, 중복응답, 100.0% 환산]

주업 종사자 지위로 '상용직'(37.3%), '자영업자'(37.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급가족 종사자'(12.9%), '임시직'(7.2%), '일용직'(5.3%)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상용직' 비율이 높았다.

| 표 1201 - (3) | 주업 - 종사자 지위 단위 : %(명)

구분		자영업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b>합계 (2,991)</b>		<b>37.2</b>	<b>37.3</b>	<b>7.2</b>	<b>5.3</b>	<b>12.9</b>
읍/면	읍 (1,378)	26.8	<b>51.2</b>	8.3	6.3	7.5
	면 (1,614)	<b>45.3</b>	26.6	6.4	4.6	<b>17.1</b>
영농 여부	농어가 ( 987)	<b>58.5</b>	9.8	2.2	2.0	<b>27.5</b>
	비농어가 (2,005)	24.8	<b>53.4</b>	10.1	7.3	4.4

겸업 및 부업의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60.9%)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다음으로 '일용직'(15.7%), '무급가족 종사자'(10.5%), '임시직'(10.1%), '상용직'(2.8%) 순으로 나타나 주업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읍지역, 농어가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비농어가에서 '일용직' 비율이 높았다.

| 표 1201 - (4) | 겸업 및 부업 - 종사자 지위 단위 : %(명)

구분		자영업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b>합계 (291)</b>		<b>60.9</b>	<b>2.8</b>	<b>10.1</b>	<b>15.7</b>	<b>10.5</b>
읍/면	읍 ( 70)	<b>71.5</b>	4.4	<b>15.1</b>	5.0	4.0
	면 (222)	57.4	2.2	8.5	<b>19.2</b>	<b>12.7</b>
영농 여부	농어가 (249)	<b>66.4</b>	3.3	7.1	12.5	10.6
	비농어가 ( 42)	34.6	0.0	<b>24.4</b>	<b>31.1</b>	9.9

### 직업 활동을 통한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평균 2,115.7만원

[주업 및 겸업/부업 가구원이 있는 가구(n=3,968)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78.8%(n=3,127)]

주업을 통한 연간 소득은 평균 2,037.0만원, 겸업 및 부업을 통한 연간 소득은 평균 78.7만원으로 직업 활동을 통한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평균 2,115.7만원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이주민, 50대 이하 연령층, 창업 및 취업 희망층에서 직업 활동을 통한 연간 소득이 더 높았다.

| 표 1201 - (5) | 직업 활동을 통한 가구의 연간 소득

단위: 만원(명)

구분		합계	주업 소득	겸업 및 부업 소득
합계 (3,127)		2,115.7	2,037.0	78.7
읍/면	읍 (1,431)	2,343.3	2,285.8	57.5
	면 (1,697)	1,923.7	1,827.1	96.6
영농 여부	농어가 ( 977)	1,503.4	1,274.4	229.0
	비농어가 (2,151)	2,393.7	2,383.3	10.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18)	2,318.4	2,279.7	38.7
	선주민 (1,110)	1,747.1	1,595.6	15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676)	2,591.6	2,579.0	12.5
	40대 ( 674)	2,983.5	2,894.3	89.2
	50대 ( 756)	2,245.2	2,148.6	96.7
	60대 ( 610)	1,419.6	1,294.7	125.0
	70대 이상 ( 410)	701.9	633.0	68.9
창업 및 취업 희망 여부	희망함 ( 397)	2,319.3	2,294.0	25.3
	희망하지 않음 (2,730)	2,086.0	1,999.5	86.5

## 1202 > 은퇴계획

귀하께서는 만으로 몇 세 정도에 은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퇴계획 -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6%(n=3,878)]

[은퇴 희망 연령 - 특정 연령 선택층(n=537) 기준/ 은퇴 연령 - 이미 은퇴한 층(n=415) 기준]

- ▶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48.2%)
- ▶ 특정연령 선택층의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62.4세, 이미 은퇴한 층의 은퇴 연령은 평균 63.2세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절반가량(48.2%)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특정 연령'(13.8%), '잘 모르겠다'(11.2%), '이미 은퇴했음'(10.7%) 순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비율이 더욱 높았다.

| 표 1202 - (1) | 은퇴계획

단위 : %(명)

구분		특정 연령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이미 은퇴했음	잘 모르겠다	해당 없음
합계 (3,878)		13.8	48.2	10.7	11.2	16.1
읍/면	읍 (1,711)	19.5	41.3	7.2	11.2	20.9
	면 (2,167)	9.4	53.6	13.4	11.2	12.4
영농 여부	농어가 ( 970)	5.3	81.1	0.8	10.6	2.2
	비농어가 (2,909)	16.7	37.2	14.0	11.3	20.8

한편, 특정 연령을 선택한 경우(n=537) 절반가량이 '60-64세'(51.1%)에 은퇴를 희망하였으며, 아울러 '65-69세'(25.8%)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60세 미만'(10.4%), '70-74세'(8.8%), '75-79세'(2.4%), '80세 이상'(1.5%),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은 62.4세였다. 농어가에서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이 높았다.

| 표 1202 - (2) | 은퇴 희망 연령

단위 : %(명)

구분		평균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합계 (537)		62.4세	10.4	51.1	25.8	8.8	2.4	1.5
읍/면	읍 (333)	62.2세	8.1	52.0	30.6	6.4	2.2	0.7
	면 (204)	62.6세	14.1	49.6	18.0	12.8	2.7	2.9
영농 여부	농어가 ( 51)	69.7세	2.5	20.1	21.6	26.4	17.0	12.3
	비농어가 (485)	61.6세	11.2	54.4	26.3	7.0	0.8	0.4

이미 은퇴한 경우(n=415) 은퇴 연령으로 '60-64세'(26.7%), '60세 미만'(24.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65-69세'(18.5%), '70-74세'(17.2%)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75-79세'(8.2%), '80세 이상'(5.3%)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은퇴 연령은 63.2세였다. 면지역에서 평균 은퇴 연령이 높았다.

| 표 1202 - (3) | 은퇴 연령

단위 : %(명)

구분		평균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합계 (397)		63.2세	24.0	26.7	18.5	17.2	8.2	5.3
읍/면	읍 (115)	60.2세	32.5	22.7	20.3	12.9	7.8	3.8
	면 (282)	64.4세	20.6	28.3	17.7	19.0	8.4	6.0

 은퇴계획 - 추이

- 문항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잘 모르겠다' 비율이 크게 감소함(-19.9%p)

| 표 1202 - (4) | 은퇴계획 - 추이

단위 : %(명)

구분	특정 연령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이미 은퇴했음	잘 모르겠다	해당 없음
2019년 (3,878)	13.8	48.2	10.7	11.2	16.1
2014년 (3,067)	11.3	51.5	6.1	31.1	

\* 2019년 '해당 없음' 항목이 추가됨

- '60-64세'(+11.9%p) 비율이 증가한 반면, '70-74세'(-8.8%p) 비율이 감소하여 은퇴 희망 연령(평균 -1.3세)이 약간 감소함

| 표 1202 - (5) | 은퇴 희망 연령 - 추이

단위 : %(명)

구분	평균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19년 (537)	62.4세	10.4	51.1	25.8	8.8	2.4	1.5
2014년 (347)	63.7세	12.6	39.2	22.4	17.6	3.4	4.8

## 1203 >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 ▶ 향후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층이 12.1%
- ▶ '소득을 늘리기 위해'가 주된 창업(71.4%) 및 취업(72.0%) 희망 이유
- ▶ 창업 시 '자본금 부족'(36.8%), 취업 시 '일할 기회 부족'(42.1%)이 가장 큰 어려움

### '창업 및 취업 희망층'이 12.1%

귀댁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께서는 향후 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취업(임금근로)'(7.6%), '창업(자영업)'(4.4%) 등 향후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층이 12.1%였으며,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귀농·귀촌 가구에서 [창업 및 취업 희망층] 비율이 다소 높았다.

| 표 1203 - (1) | 창업 및 취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창업(자영업)	취업(임금근로)	창업 및 취업 희망층
합계 (3,972)		4.4	7.6	12.1
읍/면	읍 (1,763)	5.6	12.4	18.0
	면 (2,209)	3.5	3.9	7.3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2.1	1.7	3.8
	비농어가 (2,977)	5.2	9.6	14.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10.4	15.0	25.4
	40대 ( 701)	8.9	12.9	21.8
	50대 ( 855)	3.7	6.1	9.8
	60대 ( 792)	0.6	4.8	5.3
	70대 이상 ( 901)	0.2	1.7	1.9
귀농·귀촌인 여부	해당 ( 369)	15.5	23.5	39.0
	비해당 (3,603)	3.3	6.0	9.3

### '숙박 및 음식점업'(42.3%)이 주된 희망 창업 업종

희망 창업 분야는?

[개방형 질문 : 창업 희망층(n=176) 기준]

창업 희망층(n=176)의 희망 업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42.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도매 및 소매업'(19.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3.8%)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6.5%), '농업, 임업 및 어업'(5.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4%), '제조업'(3.0%), '부동산업'(2.8%), '건설업'(2.7%), '운수 및 창고업'(0.7%) 순이었다.

50대 연령층, 귀농·귀촌 가구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도매 및 소매업' 비율이 높았다.

| 표 1203 - (2) | 희망 창업 업종

단위 : %(명)

구분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합계 (176)		5.2	3.0	2.7	19.8	0.7	42.3	2.8	6.5	13.8	3.4
읍/면	읍 (99)	3.3			27.3		42.6	4.9	6.1	14.6	1.3
	면 (77)	7.7	6.7	6.1	10.1	1.5	41.9		7.1	12.7	6.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	1.7			28.6		41.2			22.3	6.2
	40대 (62)		7.5	7.6	16.2		35.4	2.9	18.5	11.9	
	50대 (32)	18.7			10.0	3.6	63.7				4.0
	60대 (5)		11.3				22.5	66.1			
	70대 이상 (2)	100.0									
귀농·귀촌인 여부	해당 (57)	4.2			17.0		48.9			21.7	8.2
	비해당 (118)	5.7	4.4	4.0	21.1	1.0	39.1	4.1	9.7	9.9	1.1

 희망 창업 업종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창업 희망층(n=176) 기준]

구분	세부사항
농업, 임업 및 어업 (5.2%)	· 농사, 농업, 버섯 농사, 화훼, 화원/화초 관련 분야 등
제조업 (3.0%)	· 가구 제작업, 캠핑카 제작 등
건설업 (2.7%)	· 건설업 등
도매 및 소매업 (19.8%)	· 인터넷 쇼핑몰, 의류도매업, 서점, 무역업, 유통업, 판매업 등
운수 및 창고업 (0.7%)	· 크레인 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42.3%)	· 음식점, 전통찻집, 카페, 캠핑장, 펜션 운영 등
부동산업 (2.8%)	· 공인중개사, 부동산업 등
교육 서비스업 (6.5%)	· 교육 관련 분야, 공부방 및 학원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8%)	· 공연방, 관광산업, 헬스장 등 운동 관련 분야, 체험학습장 등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	· 미용실, 서비스업 등

### 주된 희망 취업 직종은 '사무 종사자'(24.8%), '단순노무 종사자'(22.4%)

희망 취업 직종은?

[개방형 질문 : 취업 희망층(n=304) 기준]

취업 희망층(n=304)의 희망 직종으로 '사무 종사자'(24.8%), '단순노무 종사자'(22.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6%), '판매 종사자'(13.3%), '서비스 종사자'(1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5.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4.1%) 순이었다.

면지역,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귀농·귀촌 가구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 표 1203 - (3) | 희망 취업 직종

단위 : %(명)

구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합계 (304)		16.6	24.8	13.1	13.3	5.7	4.1	22.4
읍/면	읍 (219)	17.8	25.0	16.7	13.4	7.5	4.7	14.9
	면 (85)	13.2	24.4	3.9	13.0	1.1	2.5	4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08)	20.8	30.9	8.9	19.1	10.3	1.5	8.6
	40대 (91)	21.3	33.2	21.0	15.9	5.7		2.9
	50대 (52)	14.3	20.1	18.9	10.3		14.5	22.0
	60대 (38)	2.6	2.5	3.3		3.0	8.4	80.3
	70대 이상 (15)		2.6					97.4
귀농· 귀촌인 여부	해당 (87)	37.4	19.1	18.4	6.5	14.1	1.8	2.7
	비해당 (217)	8.2	27.1	10.9	16.1	2.4	5.0	30.3

 희망 취업 직종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취업 희망층(n=304) 기준]

구분	세부사항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6%)	·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학원 강사, 운동 강사, 스포츠 에이전트, 심리상담사, 손해사정사, 연구직, 연구원, 지역 활동가 등
사무 종사자 (24.8%)	· 일반 사무직, 총무 사무원, 행정 사무원, 공무원, 면사무소·관공서 사무직 등
서비스 종사자 (13.1%)	· 식당, 요양보호사, 노인돌봄서비스, 서비스업종 등
판매 종사자 (13.3%)	· 대형마트 생활용품 판매원, 판매직 아르바이트, 판매직종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7%)	· 건설업 기술직종, 기계 및 용접 기술직, 도장(페인트칠), 자동차 관련 기능직 등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1%)	· 제조업, 현장 생산직, 화물차 운전
단순노무 종사자 (22.4%)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경비원, 청소원, 건설현장 단순노무직, 단순노동 등

**희망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은 '개인사업자'(92.3%),  
취업은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 '민간부문'(58.8%) 비율이 높음**

희망 창업/취업 조직의 형태는? (취업 희망층에 한해) 희망하는 근로 형태는?

[창업(n=176) 및 취업(n=304) 희망층 기준]

희망 창업 조직형태(n=176)로 대부분 '개인사업자'(92.3%)를 선호하였으며, '(영리)법인사업자'는 6.3%, '비영리 법인/단체'는 1.4%에 그쳤다.

| 표 1203 - (4) | 희망 창업 조직형태

단위 : %(명)

구분		개인사업자	(영리)법인사업자	비영리법인/단체
합계 (176)		92.3	6.3	1.4
읍/면	읍 (99)	91.0	6.4	2.6
	면 (77)	93.9	6.1	

희망 취업 조직형태(n=304)로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 '민간부문'(58.8%) 비율이 공무원, 계약직,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39.1%)에 비해 높았으며, '비영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희망하는 층은 2.1%로 높지 않았다. 희망 근로 형태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57.5%) 근로를 '시간제'(42.5%)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에서 '민간부문', '시간제'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에서 '전일제' 비율이 높았다.

| 표 1203 - (5) | 희망 취업 조직형태 및 근로형태

단위 : %(명)

구분	희망 조직 형태			희망 근로 형태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전일제	시간제
합계 (304)	39.1	58.8	2.1	57.5	42.5
읍/면	읍 (219)	38.3	61.7	55.1	44.9
	면 (85)	41.2	51.2	63.6	36.4

 월 평균 기대소득은 창업 395.8만원, 취업 192.9만원

창업/취업을 통한 월 평균 기대 소득은?

[창업(n=176) 및 취업(n=304) 희망층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창업 : 응답률 96.0%(n=169), 취업 : 응답률 99.3%(n=302)]

창업을 통한 월 평균 기대소득(n=169)으로 '300-400만원 미만'(30.7%), '200-300만원 미만'(16.5%), '400-500만원 미만'(6.2%), '200만원 미만'(3.3%) 등 [500만원 미만]이 56.7%였다. '500-1,000만원 미만'이 39.6%, '1,000만원 이상'이 3.8%로 월 평균 기대 소득은 395.8만원이었다.

면지역에서 창업을 통한 월 평균 기대소득 수준이 높았다.

| 표 1203 - (6) | 창업 기대소득 단위 : %(명)

구분		평균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합계 (169)		395.8만원	3.3	16.5	30.7	6.2	39.6	3.8
읍/면	읍 ( 92)	382.3만원	0.8	18.1	32.1	3.3	45.7	.
	면 ( 77)	411.8만원	6.3	14.5	29.0	9.7	32.2	8.3

취업을 통한 월 평균 기대소득(n=302)으로 '200-300만원 미만'(38.8%), '100-200만원 미만'(36.6%) 등 [100-300만원 미만(75.4%) 비율이 매우 높았다. '300만원 이상'이 18.7%였으며, '50만원 미만'(3.9%), '50-100만원 미만'(2.0%) 등 [100만원 미만]이 5.9%로 월 평균 기대 소득은 192.9만원이었다.

읍지역에서 취업을 통한 월 평균 기대소득 수준이 높았다.

| 표 1203 - (7) | 취업 기대소득 단위 : %(명)

구분		평균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합계 (302)		192.9만원	3.9	2.0	36.6	38.8	18.7
읍/면	읍 (217)	199.6만원	0.4	1.2	36.7	43.0	18.7
	면 ( 85)	175.6만원	12.9	4.0	36.4	28.1	18.6

### '소득을 늘리기 위해'가 주된 창업(71.4%) 및 취업(72.0%) 희망 이유

창업/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창업(n=176) 및 취업(n=304) 희망층 기준]

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n=176)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71.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23.1%),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1.3%) 순이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서 이직 겸 창업을 하고 싶다” 등 '기타'는 4.2%였다.

| 표 1203 - (8) | 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기타
합계 (176)		71.4	23.1	1.3	4.2
읍/면	읍 (99)	75.1	21.4		3.5
	면 (77)	66.6	25.3	2.9	5.2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n=304) 또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72.0%)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17.0%),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7.5%),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3.4%) 순이었다.

면지역에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비율이 높았다.

| 표 1203 - (9) |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합계 (304)		72.0	7.5	3.4	17.0
읍/면	읍 (219)	69.3	9.0	4.4	17.2
	면 (85)	78.9	3.7	0.8	16.5

**'자본금 부족'(36.8%)이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 '일할 기회 부족'(42.1%)이 취업의 가장 큰 어려움**

농어촌에서 창업/취업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창업(n=176) 및 취업(n=304) 희망층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창업 : 응답률 97.7%(n=172), 취업 : 응답률 97.7%(n=297)]

농어촌 창업 시 가장 큰 어려움(n=172)으로 '자본금 부족'(36.8%)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내 시장 협소'(22.6%), '지역 내 인프라 부족(교통수단 등)'(19.0%), '사업장/설비 확보'(14.8%), '본인의 역량(지식/기술) 개발 기회 부족'(5.8%), '인력 확보'(1.0%) 순이었다.

| 표 1203 - (10) | 농어촌에서 창업 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본인의 역량 (지식/기술) 개발 기회 부족	자본금 부족	사업장/설비 확보	인력 확보	지역 내 인프라 부족 (교통수단 등)	지역 내 시장 협소
합계 (172)		5.8	36.8	14.8	1.0	19.0	22.6
읍/면	읍 (95)	6.3	24.8	19.1	1.8	29.3	18.8
	면 (77)	5.2	51.7	9.5		6.3	27.4

농어촌 취업 시 가장 큰 어려움(n=297)으로 '일할 기회가 부족'(42.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려움'(23.7%), '지역 내 인프라 부족(교통수단 등)'(20.3%), '본인의 역량(지식/기술) 개발 기회 부족'(13.9%) 순이었다. 면지역에서 '일할 기회가 부족', '본인의 역량(지식/기술) 개발 기회 부족'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에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려움', '지역 내 인프라 부족(교통수단 등)' 비율이 높았다.

| 표 1203 - (11) | 농어촌에서 취업 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본인의 역량 (지식/기술) 개발 기회 부족	일할 기회가 부족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려움	지역 내 인프라 부족 (교통수단 등)
합계 (297)		13.9	42.1	23.7	20.3
읍/면	읍 (217)	11.9	38.3	28.5	21.3
	면 (79)	19.6	52.5	10.4	17.4

## 1204 > 사회적 경제 인지도 및 필요 서비스 분야

- ▶ '사회적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층은 12.5%
- ▶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분야는 '의료 및 보건, 복지 서비스'(36.7%), '농업 및 관련 업종'(25.0%)

### '사회적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층은 12.5%

최근 농어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활력도 높이기 위한 경제활동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비율이 6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른다'(26.6%), '사회적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12.5%) 순이었다.

| 그림 1204 | 사회적 경제 인지도



면지역, 농어가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비율이 높았다.

| 표 1204 - (1) | 사회적 경제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사회적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른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합계 (3,972)		12.5	26.6	61.0
읍/면	읍 (1,763)	11.9	31.4	56.7
	면 (2,209)	13.0	22.7	64.3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9.9	25.3	64.8
	비농어가 (2,977)	13.3	27.0	59.7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분야는 '의료 및 보건, 복지 서비스'(36.7%), '농업 및 관련 업종'(25.0%)**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3%(n=3,906)]

농어촌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분야로 '의료 및 보건, 복지 서비스'(36.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농업 및 관련 업종'(25.0%)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 여가 관련 서비스'(13.8%), '교육, 보육 관련 서비스'(13.2%), '건축, 주거환경 관련 서비스'(7.3%), '운수업, 택배 배송 관련 서비스'(3.9%) 순이었다.

비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사회적 경제 비인지층에서 '의료 및 보건, 복지 서비스'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60대 연령층에서 '농업 및 관련 업종' 비율이 높았으며,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화, 여가 관련 서비스', '교육, 보육 관련 서비스'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 1204 - (2) |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필요 서비스 분야

단위 : %(명)

구분		농업 및 관련 업종	의료 및 보건, 복지 서비스	교육, 보육 관련 서비스	문화, 여가 관련 서비스	건축, 주거환경 관련 서비스	운수업, 택배 배송 관련 서비스	기타
<b>합계 (3,906)</b>		<b>25.0</b>	<b>36.7</b>	<b>13.2</b>	<b>13.8</b>	<b>7.3</b>	<b>3.9</b>	<b>0.1</b>
읍/면	읍 (1,740)	18.6	37.3	17.0	16.1	7.6	3.3	0.1
	면 (2,166)	30.1	36.2	10.1	12.0	7.0	4.5	0.2
영농 여부	농어가 ( 982)	52.5	25.6	4.4	8.3	5.3	3.9	
	비농어가 (2,923)	15.7	40.4	16.1	15.7	8.0	3.9	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17)	12.6	25.0	33.0	18.8	5.1	5.4	
	40대 ( 692)	18.3	29.7	23.9	19.6	6.4	2.0	
	50대 ( 844)	28.8	26.1	8.3	20.5	13.5	2.7	0.2
	60대 ( 776)	36.4	39.2	3.3	9.1	7.1	4.7	0.1
	70대 이상 ( 876)	26.6	59.7	1.9	2.8	3.8	4.8	0.2
사회적 경제 인지도	인지층 (1,536)	23.8	32.1	15.1	17.8	7.4	3.7	0.1
	비인지층 (2,370)	25.7	39.7	11.9	11.2	7.2	4.1	0.1

## 1205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실태(농어가)

▶ '농수산물 유통/직거래'(10.7%) 경험률이 가장 높음

 '농수산물 유통/직거래'(10.7%) 경험률이 가장 높음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다음의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 경험 : 농어가(n=995) 기준/사업별 각 100.0%]

'농수산물 유통/직거래'(10.7%) 참여 경험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수산물 가공'(4.4%), '농어촌 체험관광'(0.7%), '숙박 제공(민박 운영)'(0.5%), '음식 판매(식당 운영)'(0.4%) 경험률은 높지 않았다.

| 표 1205 - (1)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경험 유무(농어가)

단위 : %(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식당 운영)	숙박 제공 (민박 운영)
합계 (995)		4.4	10.7	0.7	0.4	0.5
읍/면	읍 (224)	1.6	3.5			
	면 (771)	5.2	12.7	1.0	0.5	0.7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경험 유무(농어가) - 추이

○ 2014년 이후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 표 1205 - (2)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경험 유무(농어가)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식당 운영)	숙박 제공 (민박 운영)
2019년 ( 995)	4.4	10.7	0.7	0.4	0.5
2018년 ( 853)	7.6	21.9	3.9	3.5	2.0
2014년 (1,120)	4.3	32.2	1.1	0.6	0.6
2013년 ( 912)		16.7	6.2		3.1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종합 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개인 경영체' 비율이 높음

[각 사업별 참여층 기준]

경영형태로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개인 경영체'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 1205 - (3) | 경영형태

단위 : %(명)

구분	개인 경영체	마을 운영위원회 등 지역조직	영농조합 법인	협동조합
농수산물 가공 ( 43)	89.8	4.9	1.9	3.3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104)	82.8	10.4	4.9	1.9
농어촌 체험관광 ( 7)	58.0	42.0		
음식 판매(식당 운영) ( 4)	100.0			
숙박 제공(민박 운영) ( 5)	60.8		39.2	

 경영형태 - 추이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개인 경영체'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농어촌 체험관광(+21.2%p), 농수산물 직거래(+8.1%p)에서 '마을 운영위원회 등 지역조직' 비율이 증가함

| 표 1205 - (4) | 경영형태 - 추이

단위 : %(명)

구분	개인 경영체	마을 운영 위원회 등 지역 조직	마을 법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협동 조합	기타
농수산물 가공	2019년 ( 43)	89.8	4.9		1.9		3.3
	2014년 ( 48)	66.0		4.4	22.5	5.3	1.8
농수산물 직거래	2019년 (104)	82.8	10.4		4.9		1.9
	2014년 (356)	76.7	2.3	1.8	11.0	0.9	6.4 0.9
농어촌 체험관광	2019년 ( 7)	58.0	42.0				
	2014년 ( 11)	18.7	20.8	8.6	51.9		
음식 판매 (식당운영)	2019년 ( 4)	100.0					
	2014년 ( 7)	100.0					
숙박 제공 (민박운영)	2019년 ( 5)	60.8			39.2		
	2014년 ( 7)	93.9	6.1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사업층이 평균 1,363.3만원으로 관련 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가구 소득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는 '음식 판매(식당 운영)'(평균 56.8점)이 가장 높음

[각 사업별 참여층 기준]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을 통한 연간 소득은 '농수산물 유통/직거래'가 평균 1,363.3만원(n=1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수산물 가공'은 평균 1,015.9만원(n=43), '음식 판매(식당 운영)'이 평균 878.6만원(n=4), '숙박 제공(민박 운영)'은 평균 701.5만원(n=5), '농어촌 체험관광'은 평균 180.5만원(n=7)이었다.

| 표 1205 - (5) | 연간 소득

단위: 만원(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식당 운영)		숙박 제공 (민박 운영)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 43)	1,015.9	(103)	1,363.3	( 7)	180.5	( 4)	878.6	( 5)	701.5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의 가구 소득 기여도에 대해 '음식 판매(식당 운영)'(평균 56.8점, n=4)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였으며, '농수산물 유통/직거래'(평균 45.2점, n=105), '농수산물 가공'(평균 44.2점, n=43)은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인 반면, '숙박 제공(민박 운영)'(평균 30.9점, n=5), '농어촌 체험관광'(평균 40.5점, n=7)은 '불만족하는 수준'의 평가였다.

| 표 1205 - (6) | 가구 소득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식당 운영)		숙박 제공 (민박 운영)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 43)	44.2	(105)	45.2	( 7)	40.5	( 4)	56.8	( 5)	30.9

 가구 소득 기여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2014년 대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감소한 가운데, '음식 판매(식당 운영)' 만족도는 증가함(평균 +6.3점)

| 표 1205 - (7) | 가구 소득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 - 추이

단위: 점(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식당 운영)		숙박 제공 (민박 운영)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2019년	( 43)	44.2	(105)	45.2	( 7)	40.5	( 4)	56.8	( 5)	30.9
2014년	( 48)	56.6	(358)	50.3	( 11)	47.0	( 7)	50.5	( 7)	46.9

### ‘음식 판매(식당 운영)’(36.3%)에서 정부 지원 수혜 경험률이 가장 높음

[각 사업별 참여층 기준]

각 사업별 참여층 중 ‘음식 판매(식당 운영)’ 사업에서 수혜 경험률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농수산물 유통/직거래’는 17.8%, ‘농수산물 가공’은 15.7%였다.

| 표 1205 - (8) | 정부 지원 수혜 여부

단위 : %(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식당 운영)		숙박 제공 (민박 운영)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합계	( 43)	15.7	(106)	17.8		0.0	( 4)	36.3		0.0

### 정부 지원 수혜 여부 - 추이

- 2014년 대비 ‘농수산물 유통/직거래’에서 수혜 경험층 비율이 증가함(+7.7%p)

| 표 1205 - (9) | 정부 지원 수혜 여부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식당 운영)		숙박 제공 (민박 운영)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2019년	( 43)	15.7	(106)	17.8		0.0	( 4)	36.3		0.0
2014년	( 48)	19.0	(360)	10.1	( 12)	49.2		0.0	( 7)	6.1

## 1206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농어가)

▶ '농수산물 유통/직거래'(17.9%) 참여 의향층이 가장 많음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향후 (지속)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농어가(n=995) 기준]

참여 경험률이 높았던 '농수산물 유통/직거래'(17.9%) 의향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수산물 가공'(8.5%), '농어촌 체험관광'(3.1%), '음식 판매(식당 운영)', '숙박 제공(민박 운영)'(각 1.3%) 순으로 의향률이 높게 나타났다.

| 그림 1206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농어가)



계층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참여 의사가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사업별 참여 경험층에서 향후 사업 참여 의사 역시 높았다.

| 표 1206 - (1)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농어가)

단위 : %(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식당 운영)	숙박 제공 (민박 운영)
합계 (995)			8.5	17.9	3.1	1.3	1.3
읍/면	읍 (224)		3.8	7.6	1.7	2.2	0.8
	면 (771)		9.9	20.9	3.5	1.1	1.4
농어촌 자원활용 사업 참여경험	농수산물 가공 ( 43)		77.2	51.6	10.4	4.7	2.5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106)		31.7	97.7	13.6	0.5	2.5
	농어촌 체험관광 ( 7)		78.8	90.3	91.8		
	음식 판매(식당 운영) ( 4)		91.3	49.4		84.1	1.3
	숙박 제공(민박 운영) ( 5)		45.8	93.1	39.2	40.2	93.4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농어가) - 추이**

- 2018년 대비 참여 의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과 비슷한 수준
- 2014년 이후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참여 의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표 1206 - (2)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농어가)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식당 운영)	숙박 제공 (민박 운영)
2019년 ( 995)	8.5	17.9	3.1	1.3	1.3
2018년 ( 853)	16.0	30.0	8.7	9.8	5.9
2014년 (1,120)	8.0	36.4	4.5	2.1	2.2
2013년 ( 912)		32.5	17.1		9.8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3년은 '농어가 식당 또는 민박'으로 질문함

## 1207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농어가)

▶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39.7%)이 주된 어려움

귀하께서 위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경험 유무’ 혹은 ‘참여 의향’에서 하나라도 ‘있음’을 선택한 층(n=212) 기준]

농어가에서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39.7%)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자금 부족’(23.3%), ‘인력 부족’(19.7%)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설비 부족’(9.6%), ‘기술력 부족’(3.4%), ‘경영관리 역량 부족’(2.9%), ‘행정·제도 복잡’(1.3%) 순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경험층 및 의향층에서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음식 판매(식당 운영) 의향층에서 ‘자금 부족’ 비율이 높았다.

| 표 1207 - (1)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농어가)

단위 : %(명)

구분		자금 부족	기술력 부족	경영관리 역량 부족	시설/설비 부족	행정·제도 복잡	인력 부족	고객·판로 확보 (홍보 및 마케팅)
합계 (212)		23.3	3.4	2.9	9.6	1.3	19.7	39.7
읍/면	읍 ( 21)	41.5	11.6		6.0		21.1	19.7
	면 (191)	21.3	2.5	3.2	10.1	1.5	19.5	42.0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경험	가공 ( 40)	24.0	7.0	1.2	11.1	0.2	24.2	32.4
	유통/직거래 (103)	19.5	0.3	2.8	9.9	1.7	17.0	48.7
	농촌체험관광 ( 7)				9.7		4.5	85.8
	음식 판매 ( 4)				1.4	1.8	38.5	58.4
	숙박 제공 ( 5)	57.6			35.4		0.3	6.6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향	가공 ( 83)	34.3	6.4	5.5	14.1	0.7	15.9	23.1
	유통/직거래 (171)	19.8	3.0	3.0	9.2	1.1	18.3	45.5
	농촌체험관광 ( 30)	35.1	8.7	2.0	16.9	0.5	2.7	34.1
	음식 판매 ( 13)	56.9	5.0		6.0		17.6	14.4
	숙박 제공 ( 12)	42.7	18.2		28.1		6.8	4.1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농어가) - 추이**

- 2018년 대비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11.5%p) 비율이 증가한 반면, '기술력 부족'(-5.8%p) 비율은 감소함

| 표 1207 - (2)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농어가) - 추이

단위 : %(명)

		자금 부족	기술력 부족	경영 관리 역량 부족	시설/ 설비 부족	행정· 제도 복잡	관련 규제로 인한 제약	인력 부족	고객· 판로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참여자 간 갈등
2019년	( 212)	23.3	3.4	2.9	9.6	1.3		19.7	39.7	
2018년	( 280)	20.1	9.2	6.1	8.0	2.2	1.8	23.0	28.2	1.4
2014년	( 470)	20.0	7.1	4.2	10.9	1.1	1.4	22.0	30.2	1.0
2013년	( 347)	29.3	17.9		16.8		2.9	23.3	5.3	2.4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4년 '경영관리역량부족', '행정·제도 복잡' 항목이 추가됨

\* 2019년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이 '기술력 부족'으로 명칭 변경, '관련 규제로 인한 제약' 항목이 제외됨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 1208 > 영농형태(농어가)

### ▶ '논벼'(35.1%), '노지채소'(20.1%)가 주된 영농형태

귀택에서 주된 수입원이 되는 영농형태는 무엇입니까?

[농어가(n=99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8%(n=973)]

'논벼'(35.1%), '노지채소'(20.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수'(13.3%), '식량작물'(10.9%), '시설채소'(6.9%), '특/약용 작물·버섯'(5.1%), '축산'(4.0%), '화훼'(0.5%) 순이었다. 선주민층에서 '논벼' 비율이 높았으며, 면지역에서 '노지채소'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이주민층에서 '과수' 비율이 높았다.

| 표 1208 - (1) | 영농형태

단위 : %(명)

구분		논벼	식량작물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화훼	특/약용작물·버섯	축산	기타
합계 (973)		35.1	10.9	20.1	6.9	13.3	0.5	5.1	4.0	4.2
읍/면	읍 (216)	33.0	8.4	10.9	5.8	23.4		10.7	2.5	5.2
	면 (757)	35.6	11.6	22.7	7.2	10.4	0.7	3.5	4.5	3.9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76)	23.6	13.4	20.3	5.3	19.2	1.0	4.9	4.5	7.8
	선주민 (697)	39.6	9.9	20.0	7.5	10.9	0.3	5.2	3.9	2.8



### 영농형태(농어가) - 추이

- 2014년 대비 '논벼'(-21.9%p) 비율이 감소한 반면, '노지채소'+8.9%p), '과수'+6.1%p) 비율은 증가함

| 표 1208 - (2) | 영농형태 - 추이

단위 : %(명)

구분	논벼	식량작물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화훼	특/약용작물·버섯	축산	기타
2019년 ( 973)	35.1	10.9	20.1	6.9	13.3	0.5	5.1	4.0	4.2
2014년 (1,081)	57.0	9.3	11.2	5.2	7.2	0.3	4.4	5.2	0.2

## 1209 > 농업 계획 및 농업 승계자 유무(농어가)

▶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층이 72.6%로 나타난 가운데,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는 8.4%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층이 72.6%

농업 규모(논/밭/임야/시설 등 면적)에 대한 향후 5년 후 귀하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농어가(n=99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1%(n=956)]

농업 계획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72.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17.9%),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6.3%), '확대할 계획이다'(3.1%) 순이었다.

읍지역, 50대 이하 연령층, 농업 승계자가 있는 층에서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60대 이상 연령층, 농업 승계자가 없는 층에서 '축소할 계획이다' 비율이 높았다.

| 표 1209 - (1) | 농업 계획

단위 : %(명)

구분		확대할 계획이다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축소할 계획이다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합계 (956)		3.1	72.6	17.9	6.3
읍/면	읍 (216)	3.6	77.3	12.1	7.0
	면 (740)	3.0	71.2	19.6	6.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32)	7.9	91.0	1.0	
	40대 (102)	10.5	83.1	6.4	
	50대 (245)	4.5	83.6	9.8	2.1
	60대 (304)	0.6	72.5	19.4	7.5
	70대 이상 (272)	1.4	56.8	30.0	11.8
농업 승계자 유무	있음 ( 81)	3.1	79.8	10.2	6.9
	없음 (588)	1.2	66.0	24.4	8.3
	모르겠음 (284)	7.1	83.9	6.8	2.2

 농업 계획 - 추이

- 2014년 대비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8.8%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축소할 계획이다'(-6.2%p) 비율이 감소함

| 표 1209 - (2) | 농업 계획 - 추이

단위 : %(명)

구분	확대할 계획이다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축소할 계획이다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2019년 ( 956)	3.1	72.6	17.9	6.3
2014년 (1,098)	7.4	63.8	24.1	4.7

### 농업 승계자 '있음'(8.4%) < '없음'(61.9%)

귀댁에는 경영주의 뒤를 이어 농업에 종사할 사람(자녀 및 손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이 있습니까?

[농어가(n=99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4%(n=959)]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8.4%)에 비해 없는 가구(61.9%) 비율이 높은 가운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가구는 29.6%였다.

| 표 1209 - (3) | 농업 승계자 유무

단위 : %(명)

구분		농업 승계자 있음	농업 승계자 없음	아직 잘 모르겠다
합계 (959)		8.4	61.9	29.6
읍/면	읍 (216)	6.4	60.4	33.3
	면 (743)	9.0	62.4	28.6

### 농업 승계자 유무 - 추이

-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표 1209 - (4) | 농업 승계자 유무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업 승계자 있음	농업 승계자 없음	아직 잘 모르겠다
2019년 ( 959)	8.4	61.9	29.6
2014년 (1,098)	9.4	58.9	31.7

## 1210 >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 ▶ '식료품비'(27.9%)가 주된 지출 항목

2018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 가운데 귀댁의 생활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65)/

중복응답 : 1순위×3+2순위×2+3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 함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으로 '식료품비'(27.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보건의료비'(17.6%), '교통통신비'(17.2%), '광열수도비'(16.8%)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교육비'(8.5%), '주거비'(6.3%) 순이었으며, 경조비, 문화여가비, 가구가사용품비 등 '기타'는 5.7%였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아파트 거주층에서 '식료품비', '교육비'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독주택 거주층에서 '보건의료비', '광열수도비' 비율이 높았다.

| 표 1210 - (1) |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단위 : %(명)

구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
합계 (3,965)		27.9	17.6	6.3	16.8	8.5	17.2	5.7
읍/면	읍 (1,757)	30.7	14.7	8.6	14.0	11.7	16.2	4.1
	면 (2,207)	25.6	20.0	4.4	19.1	5.9	18.1	6.9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21.1	22.3	2.0	22.5	5.0	19.5	7.7
	비농어가 (2,970)	30.2	16.1	7.7	14.9	9.6	16.5	5.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36.9	7.2	10.3	9.6	11.6	17.1	7.2
	40대 ( 701)	31.2	8.2	6.3	9.4	23.0	17.9	4.0
	50대 ( 849)	27.6	12.2	7.3	17.3	8.9	20.9	5.8
	60대 ( 791)	23.6	21.1	4.8	21.0	1.4	20.0	8.1
	70대 이상 ( 900)	22.1	35.4	3.3	24.3	0.4	11.0	3.5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31)	25.0	23.6	3.0	20.7	4.9	17.2	5.5
	아파트 (1,258)	34.0	10.3	9.5	9.8	15.4	16.3	4.6
	기타 ( 476)	25.2	8.8	13.1	17.2	6.8	19.8	8.9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 추이

-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표 1210 - (2) |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 추이

단위 : %(명)

구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
2019년 (3,965)	27.9	17.6	6.3	16.8	8.5	17.2	5.7
2014년 (3,937)	25.2	16.5	6.5	18.0	9.6	14.2	9.9

\* 2014년 기타는 '가구가사용품비'(1.1%), '피복신발비'(1.8%), '문화여가비'(1.1%), '관혼상제비'(2.7%), '기타'(3.2%)의 합임

## 1211 > 주요 물품 구입 실태

- ▶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 모두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가 주된 구입처
- ▶ 주된 구입처 위치는 '우리 읍/면 내', 물품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 ▶ 물품 구입처까지 평균 13분 내외 소요됨

###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 모두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가 주된 구입처

귀하께서는 아래 물품을 구입하실 때 주로 어느 곳을 이용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식료품, 일상생활용품 : 응답률 각 99.9%(n=3,970)]

식료품 구입처로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55.3%)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소형 슈퍼마켓'(16.2%),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10.6%), '상설시장/5일장'(9.1%), '동네가게'(4.8%),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1.4%) 순이었으며, "이동 판매 차량", "가족/지인이 대신 구매해준다" 등 '기타'는 2.5%였다.

일상생활용품 구입처 역시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52.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소형 슈퍼마켓'(16.6%),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12.0%), '동네가게'(5.6%),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5.5%), '상설시장/5일장'(4.5%), '기타'(2.9%) 순으로 식료품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그림 1211 | 물품 구입처



식료품 구입처의 경우, 면지역, 농어가, 선주민층에서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 ‘상설시장/5일장’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 비율이 높았다.

| 표 1211 - (1) | 식료품 구입처

단위 : %(명)

구분		동네 가게	중소형 슈퍼 마켓	농/수/ 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 마트	대형 할인 매장 (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상설 시장/ 5일장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기타
합계 (3,970)		4.8	16.2	55.3	10.6	0.0	9.1	1.4	2.5
읍/면	읍 (1,763)	5.6	23.3	47.4	13.4		6.4	2.2	1.7
	면 (2,207)	4.2	10.5	61.7	8.4	0.0	11.3	0.8	3.1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1.6	8.7	69.5	4.7	0.0	13.9	0.3	1.2
	비농어가 (2,975)	5.9	18.7	50.6	12.6	0.0	7.5	1.8	2.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5.1	24.1	43.7	20.3		1.8	3.6	1.3
	40대 ( 701)	2.1	15.3	55.6	18.6		6.2	1.9	0.2
	50대 ( 855)	7.2	16.9	60.2	9.4	0.0	4.0	1.0	1.3
	60대 ( 792)	2.9	14.1	64.5	5.6		11.4	1.0	0.6
	70대 이상 ( 899)	6.2	11.7	51.8	2.2	0.1	20.2		7.9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5.5	19.2	51.9	14.2		6.2	2.0	1.0
	선주민 (1,499)	3.8	11.3	61.0	4.8	0.0	13.9	0.4	4.8

일상생활용품 구입처의 경우, 면지역, 농어가, 60대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비율이 높았다.

| 표 1211 - (2) | 일상생활용품 구입처

단위 : %(명)

구분		동네 가게	중소형 슈퍼 마켓	농/수/ 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 마트	대형 할인 매장 (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상설 시장/ 5일장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기타
합계 (3,970)		5.6	16.6	52.8	12.0	0.0	4.5	5.5	2.9
읍/면	읍 (1,763)	5.6	21.8	42.6	16.2		2.5	9.5	1.8
	면 (2,206)	5.5	12.5	61.0	8.5	0.0	6.2	2.4	3.9
영농 여부	농어가 (995)	2.5	9.0	71.8	6.3	0.0	7.6	1.0	1.7
	비농어가 (2,974)	6.6	19.2	46.4	13.9		3.5	7.1	3.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3.0	20.6	36.3	19.7		0.7	18.4	1.3
	40대 (701)	2.0	16.7	50.8	20.7		1.3	7.8	0.7
	50대 (855)	8.1	18.5	56.5	10.5		2.5	2.3	1.7
	60대 (792)	4.4	15.4	64.4	8.6	0.0	4.8	1.6	0.8
	70대 이상 (899)	9.0	12.8	54.0	3.1	0.0	11.9	0.1	9.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6.3	20.0	46.2	15.1	0.0	2.6	8.5	1.4
	선주민 (1,498)	4.4	11.1	63.7	6.8	0.0	7.8	0.7	5.6


**물품 구입처 - 추이**

- 식료품 구입처의 경우, 2014년 대비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18.4%p)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상설시장/5일장'(-8.8%p), '중소형 슈퍼마켓'(-6.1%p),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5.8%p) 비율은 감소함

| 표 1211 - (3) | 식료품 구입처 - 추이

단위 : %(명)

구분	동네 가게	중소형 슈퍼 마켓	농/수/ 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 마트	대형 할인 매장 (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상설 시장/ 5일장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기타
2019년 (3,970)	4.8	16.2	55.3	10.6	0.0	9.1	1.4	2.5
2014년 (3,907)	6.1	22.3	36.9	16.4	0.1	17.9	0.3	

- 일상생활용품 구입처의 경우,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10.9%p),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4.1%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중소형 슈퍼마켓'(-6.5%p),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4.9%p), '상설시장/5일장'(-4.5%p) 비율은 감소함

| 표 1211 - (4) | 일상생활용품 구입처 - 추이

단위 : %(명)

구분	동네 가게	중소형 슈퍼 마켓	농/수/ 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 마트	대형 할인 매장 (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상설 시장/ 5일장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기타
2019년 (3,970)	5.6	16.6	52.8	12.0	0.0	4.5	5.5	2.9
2014년 (3,902)	7.5	23.1	41.9	16.9	0.1	9.0	1.4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 모두 '우리 읍/면 내'가 주된 구입처 위치**

물품 구입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식료품 : 응답률 96.6%(n=3,835), 일상생활용품 : 응답률 91.9%(n=3,652)]

주로 이용하는 식료품 구입처의 위치로 '우리 읍/면 내'(47.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우리 마을 내'(35.7%)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 시/군 내'는 13.8%, '다른 시/군'은 3.2%였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 상설시장/5일장 이용층에서 '우리 읍/면 내'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네가게, 중소형 슈퍼마켓 이용층에서 '우리 마을 내', 대형할인매장 이용층에서 '우리 시/군 내' 비율이 높았다.

| 표 1211 - (5) | 식료품 주된 구입처 위치

단위 : %(명)

구분		우리 마을 내	우리 읍/면 내	우리 시/군 내	다른 시/군
<b>합계 (3,835)</b>		<b>35.7</b>	<b>47.3</b>	<b>13.8</b>	<b>3.2</b>
읍/면	읍 (1,705)	<b>54.2</b>	34.9	8.1	2.8
	면 (2,131)	20.8	<b>57.3</b>	<b>18.4</b>	3.5
영농 여부	농어가 ( 981)	13.1	<b>67.0</b>	16.1	3.8
	비농어가 (2,854)	<b>43.4</b>	40.6	13.0	2.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696)	<b>49.4</b>	30.5	14.8	5.2
	40대 ( 687)	39.3	41.8	15.2	3.6
	50대 ( 835)	36.0	48.7	11.5	3.8
	60대 ( 780)	26.9	<b>57.6</b>	13.1	2.3
	70대 이상 ( 837)	29.0	<b>55.0</b>	14.8	1.2
물품 구입처	동네가게 ( 192)	<b>98.3</b>	1.7		
	중소형 슈퍼마켓 ( 642)	<b>70.2</b>	22.5	7.1	0.2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2,197)	24.8	<b>64.9</b>	7.7	2.5
	대형할인매장 ( 423)	25.7	15.3	<b>48.9</b>	10.1
	상설시장/5일장 ( 362)	15.6	<b>48.6</b>	29.8	5.9
	기타 ( 19)	<b>96.4</b>	1.8	1.8	

일상생활용품 주된 구입처 위치 역시 ‘우리 읍/면 내’(47.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우리 마을 내’(36.1%)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 시/군 내’(13.7%), ‘다른 시/군’(3.2%) 순으로 식료품 주된 구입처 위치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 상설시장/5일장 이용층에서 ‘우리 읍/면 내’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네가게, 중소형 슈퍼마켓 이용층에서 ‘우리 마을 내’, 대형할인매장 이용층에서 ‘우리 시/군 내’ 비율이 높았다.

| 표 1211 - (6) | 일상생활용품 주된 구입처 위치

단위: %(명)

구분		우리 마을 내	우리 읍/면 내	우리 시/군 내	다른 시/군
합계 (3,652)		36.1	47.0	13.7	3.2
읍/면	읍 (1,576)	53.7	34.2	9.0	3.1
	면 (2,076)	22.7	56.8	17.3	3.2
영농 여부	농어가 ( 972)	14.7	64.6	16.9	3.8
	비농어가 (2,680)	43.9	40.7	12.5	2.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589)	43.7	35.9	15.4	5.0
	40대 ( 641)	40.0	40.8	15.2	4.1
	50대 ( 821)	39.6	44.7	12.0	3.7
	60대 ( 775)	29.9	54.9	13.0	2.3
	70대 이상 ( 824)	30.1	54.9	13.5	1.4
물품 구입처	동네가게 ( 221)	98.9	1.1		
	중소형 슈퍼마켓 ( 660)	69.7	23.1	6.8	0.4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2,096)	23.8	65.3	8.5	2.4
	대형할인매장 ( 475)	20.7	23.4	45.8	10.1
	상설시장/5일장 ( 180)	15.4	45.9	32.1	6.6
	기타 ( 20)	80.7	4.4	2.6	12.3



주된 구입처 위치 - 추이

-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 모두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표 1211 - (7) | 식료품 주된 구입처 위치 - 추이

단위 : %(명)

구분	우리 마을 내	우리 읍/면 내	우리 시/군 내	다른 시/군
2019년 (3,835)	35.7	47.3	13.8	3.2
2014년 (3,889)	35.1	44.2	17.1	3.6

| 표 1211 - (8) | 일상생활용품 주된 구입처 위치 - 추이

단위 : %(명)

구분	우리 마을 내	우리 읍/면 내	우리 시/군 내	다른 시/군
2019년 (3,652)	36.1	47.0	13.7	3.2
2014년 (3,841)	36.5	45.2	14.8	3.5

## ▶ 물품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이동 시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식료품 : 응답률 96.6%(n=3,835), 일상생활용품 : 응답률 91.9%(n=3,650)]

식료품 구입을 위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51.8%)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걸어서'(28.1%), '대중교통'(16.6%) 순이었다.

일상생활용품 역시 '자가용'(50.7%)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걸어서'(29.3%), '대중교통'(16.1%) 순으로 식료품 구입처까지의 이동 수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가용'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50대 연령층에서 '걸어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 표 1211 - (9) | 주된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식료품					일상생활용품					
	사례수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사례수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b>합계</b>	<b>(3,835)</b>	<b>28.1</b>	<b>16.6</b>	<b>51.8</b>	<b>3.5</b>	<b>(3,650)</b>	<b>29.3</b>	<b>16.1</b>	<b>50.7</b>	<b>3.9</b>	
읍/면	읍	(1,705)	<b>43.9</b>	6.4	46.5	3.2	(1,575)	<b>42.6</b>	7.4	46.5	3.5
	면	(2,131)	15.5	<b>24.7</b>	<b>56.0</b>	3.8	(2,075)	19.2	<b>22.6</b>	<b>53.9</b>	4.3
영농 여부	농어가	( 981)	9.8	<b>21.5</b>	<b>63.4</b>	5.3	( 972)	12.7	<b>20.5</b>	<b>61.3</b>	5.6
	비농어가	(2,854)	<b>34.4</b>	14.9	47.8	2.9	(2,679)	<b>35.4</b>	14.5	46.8	3.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696)	28.0	5.9	<b>64.3</b>	1.9	( 589)	23.6	7.2	<b>66.9</b>	2.2
	40대	( 687)	28.4	2.8	<b>67.8</b>	1.0	( 641)	29.1	5.0	<b>64.8</b>	1.1
	50대	( 835)	<b>33.0</b>	8.7	57.4	0.9	( 821)	<b>36.0</b>	6.5	56.5	1.0
	60대	( 780)	23.3	18.0	55.7	3.0	( 775)	26.0	15.1	55.0	3.9
	70대 이상	( 837)	27.6	<b>43.3</b>	19.0	<b>10.1</b>	( 823)	30.1	<b>41.4</b>	18.1	<b>10.4</b>

 **물품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 식료품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2014년 대비 '자가용'(+13.0%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8.9%p), '걸어서'(-5.3%p) 비율은 감소함

| 표 1211 - (10) | 식료품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2019년 (3,835)	28.1	16.6	51.8	3.5
2014년 (3,884)	33.4	25.5	38.8	2.2

-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2014년 대비 '자가용'(+12.4%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8.3%p), '걸어서'(-5.7%p) 비율이 감소함

| 표 1211 - (11) |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2019년 (3,650)	29.3	16.1	50.7	3.9
2014년 (3,836)	35.0	24.4	38.3	2.3

## 📌 식료품 및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평균 13분 내외 소요됨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식료품 : 응답률 96.5%(n=3,832), 일상생활용품 : 응답률 91.4%(n=3,629)]

식료품 구입처까지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10-20분 미만'(40.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분 미만'(26.7%), '20-30분 미만'(14.5%), '30분-1시간 미만'(9.8%), '5분 미만'(7.4%), '1시간 이상(0.9%)' 순이었으며, 식료품 구입처까지의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13.0분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이용층에서 평균 소요시간이 다소 길었다.

| 표 1211 - (12) | 식료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합계 (3,832)		13.0분	7.4	26.7	40.8	14.5	9.8	0.9
읍/면	읍 (1,702)	10.1분	10.7	40.7	34.8	6.8	6.3	0.6
	면 (2,130)	15.3분	4.7	15.5	45.6	20.6	12.5	1.1
영농 여부	농어가 ( 980)	15.1분	4.7	16.9	46.2	19.8	11.1	1.3
	비농어가 (2,851)	12.3분	8.3	30.0	39.0	12.7	9.3	0.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696)	10.7분	15.2	38.3	30.3	8.3	7.2	0.7
	40대 ( 687)	11.0분	8.3	34.0	39.2	12.6	5.8	0.2
	50대 ( 835)	11.4분	8.4	29.6	44.3	10.9	6.1	0.8
	60대 ( 780)	14.7분	3.5	18.6	47.0	16.6	13.6	0.7
	70대 이상 ( 833)	16.4분	2.7	15.5	41.8	22.9	15.3	1.8
식료품 구입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어서 (1,077)	8.3분	16.7	43.0	32.7	3.3	3.9	0.4
	대중교통 ( 636)	22.2분	1.5	3.0	33.1	32.3	26.4	3.8
	자가용 (1,987)	12.6분	3.9	26.0	47.4	14.5	7.9	0.2
	기타 ( 132)	12.3분	11.0	17.4	46.1	19.4	5.8	0.3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10-20분 미만'(41.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분 미만'(26.2%), '20-30분 미만'(14.5%), '30분-1시간 미만'(9.5%), '5분 미만'(7.6%), '1시간 이상'(0.9%) 순이었다.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의 소요시간은 평균 12.9분으로 식료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식료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과 마찬가지로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이용층에서 평균 소요시간이 다소 길었다.

| 표 1211 - (13) |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단위: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b>합계 (3,629)</b>		<b>12.9분</b>	<b>7.6</b>	<b>26.2</b>	<b>41.3</b>	<b>14.5</b>	<b>9.5</b>	<b>0.9</b>
읍/면	읍 (1,557)	10.2분	11.5	39.4	33.6	8.4	6.5	0.6
	면 (2,072)	15.0분	4.7	16.2	47.1	19.0	11.7	1.2
영농 여부	농어가 ( 969)	15.0분	4.6	16.2	47.3	19.7	10.8	1.4
	비농어가 (2,660)	12.1분	8.7	29.8	39.1	12.6	9.0	0.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579)	10.9분	17.0	32.0	33.5	10.4	6.2	0.8
	40대 ( 636)	10.9분	9.3	35.6	36.7	11.7	6.4	0.3
	50대 ( 821)	11.4분	8.8	29.3	43.4	11.5	6.0	0.9
	60대 ( 775)	14.4분	3.6	20.8	46.3	16.1	12.6	0.7
	70대 이상 ( 818)	16.0분	2.4	16.7	43.5	21.1	14.6	1.7
일상 생활용품 구입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어서 (1,070)	8.5분	16.2	39.5	36.1	4.0	3.8	0.4
	대중교통 ( 586)	21.7분	2.0	5.6	33.7	30.2	24.4	4.2
	자가용 (1,834)	12.7분	4.3	25.7	46.2	15.2	8.3	0.3
	기타 ( 138)	12.5분	10.3	16.9	48.1	19.0	5.5	0.3


**물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 추이**

-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 모두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표 1211 - (14) | 식료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 추이

단위: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019년 (3,832)	13.0분	7.4	26.7	40.8	14.5	9.8	0.9
2014년 (3,883)	13.6분	4.3	28.2	39.8	15.7		11.9

| 표 1211 - (15) |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 추이

단위: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019년 (3,629)	12.9분	7.6	26.2	41.3	14.5	9.5	0.9
2014년 (3,829)	13.2분	4.7	29.6	40.2	14.1		11.4

\* 2014년은 '30분 이상'으로 구분함

## 1212 > 월 평균 생활비

▶ 월 평균 생활비는 180.2만원

2018년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0%(n=3,932)]

농어촌 지역의 월 평균 생활비는 ‘100-200만원 미만’(28.8%), ‘50-100만원 미만’(19.7%) 등 [100만원 미만](28.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20.2%), ‘300-400만원 미만’(12.1%), ‘400만원 이상’(10.2%) 순이었다.

월 평균 생활비는 180.2만원으로, 읍지역, 비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 총 가구원 수 3명 이상층에서 월 평균 생활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12 | 월 평균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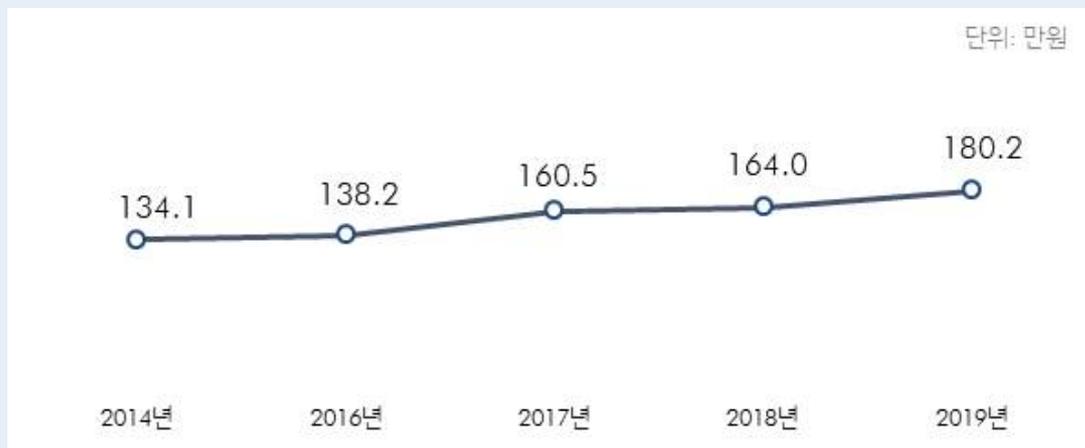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합계 (3,932)		180.2만원	2.2	6.8	19.7	28.8	20.2	12.1	10.2
읍/면	읍 (1,738)	196.6만원	1.3	4.2	18.3	26.2	24.7	13.8	11.5
	면 (2,194)	167.2만원	2.9	8.9	20.8	31.0	16.6	10.7	9.3
영농 여부	농어가 ( 992)	164.7만원	1.7	4.8	21.1	38.5	17.7	9.3	6.9
	비농어가 (2,940)	185.5만원	2.3	7.5	19.2	25.6	21.0	13.0	1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0)	217.9만원	1.5	3.7	9.7	25.4	28.3	19.2	12.2
	40대 ( 678)	263.9만원		1.1	5.5	20.9	26.3	26.3	19.8
	50대 ( 850)	215.9만원	1.1	1.4	11.7	30.2	28.8	11.6	15.2
	60대 ( 788)	145.0만원	1.8	4.8	22.9	45.2	14.6	5.5	5.2
	70대 이상 ( 896)	83.7만원	5.6	20.7	43.3	22.0	5.8	1.6	1.1
총 가구원 수	1명 (1,143)	89.6만원	6.8	18.6	39.0	25.4	6.5	1.9	1.8
	2명 (1,364)	161.8만원	0.4	3.2	22.1	41.1	20.6	5.6	7.1
	3명 이상 (1,425)	270.6만원	0.1	0.8	2.0	19.8	30.8	26.4	20.0

### 월 평균 생활비 - 추이

- 2014년 이후 월 평균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그림 1212 | 월 평균 생활비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4년, 2017년, 2019년은 단일 문항임/ 2016년, 2018년은 비목별 생활비를 합산한 값임

## 1213> 저축 및 부채 현황

- ▶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37.6%
- ▶ 부채가 있는 가구는 41.8%

###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37.6%

귀택에서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저축층’이 37.6%로 나타난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저축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 1213 - (1) | 저축 현황



### 저축 현황 - 추이

- 2014년 대비 저축층 비율이 약간 감소함(-5.5%p)

| 그림 1213 - (2) | 저축 현황 - 추이



## 부채가 있는 가구는 41.8%

귀댁에는 부채(빚)가 있으십니까? 부채(빚)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채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부채의 원인 - 부채 보유층(n=1,659) 중 응답자에 한해 : 98.4%(n=1,632)]

부채가 있는 가구가 41.8%로 나타난 가운데, 읍지역, 이주민,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 귀농·귀촌 가구에서 '부채 있음' 비율이 다소 높았다. 부채가 있는 가구(n=1,632)의 부채 원인으로 '주택 마련'(41.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업 시설, 기계, 자재 등 투자', '(농어업 외) 사업 자금 마련'(각 18.2%),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7.5%), '교육비'(4.0%), '의료비'(3.9%), '결혼, 장례 등 경조사 자금 마련'(1.5%)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이주민,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 귀농·귀촌 가구에서 '주택 마련'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선주민,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 귀농·귀촌 비해당 가구에서 '농어업 시설, 기계, 자재 등 투자' 비율이 높았다.

| 표 1213 | 부채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채 여부		부채의 주된 원인									
	사례수	있음	사례수	농어업 시설, 기계, 자재 등 투자	(농어업 외) 사업 자금 마련	주택 마련	자동차, 가구, 가전 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	의료비	교육비	결혼, 장례 등 경조사 자금 마련	기타	
합계	(3,972)	41.8	(1,632)	18.2	18.2	41.2	7.5	3.9	4.0	1.5	5.5	
읍/면	읍	(1,763)	45.5	(784)	9.3	13.1	55.0	7.5	4.5	4.7	1.4	4.6
	면	(2,209)	38.7	(848)	26.5	22.9	28.4	7.5	3.4	3.3	1.6	6.4
영농 여부	농어가	(995)	42.2	(415)	67.9	5.9	14.1	1.0	1.6	2.3	2.3	4.8
	비농어가	(2,977)	41.6	(1,217)	1.3	22.4	50.4	9.7	4.7	4.6	1.2	5.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48.5	(1,178)	6.8	19.3	48.7	8.9	4.5	4.8	1.5	5.5
	선주민	(1,501)	30.7	(454)	47.7	15.5	21.6	3.8	2.6	1.9	1.3	5.7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28)	50.4	(157)	2.5	16.7	55.3	16.0	7.5	1.2		0.9
	비의향층	(3,609)	41.2	(1,469)	20.0	18.5	39.6	6.6	3.6	4.3	1.6	5.9
귀농귀촌인 여부	해당	(369)	47.9	(176)	1.9	4.5	74.0	4.4	6.6	5.1	1.8	1.7
	비해당	(3,603)	41.1	(1,456)	20.2	19.9	37.2	7.9	3.6	3.9	1.4	6.0

## 1214 >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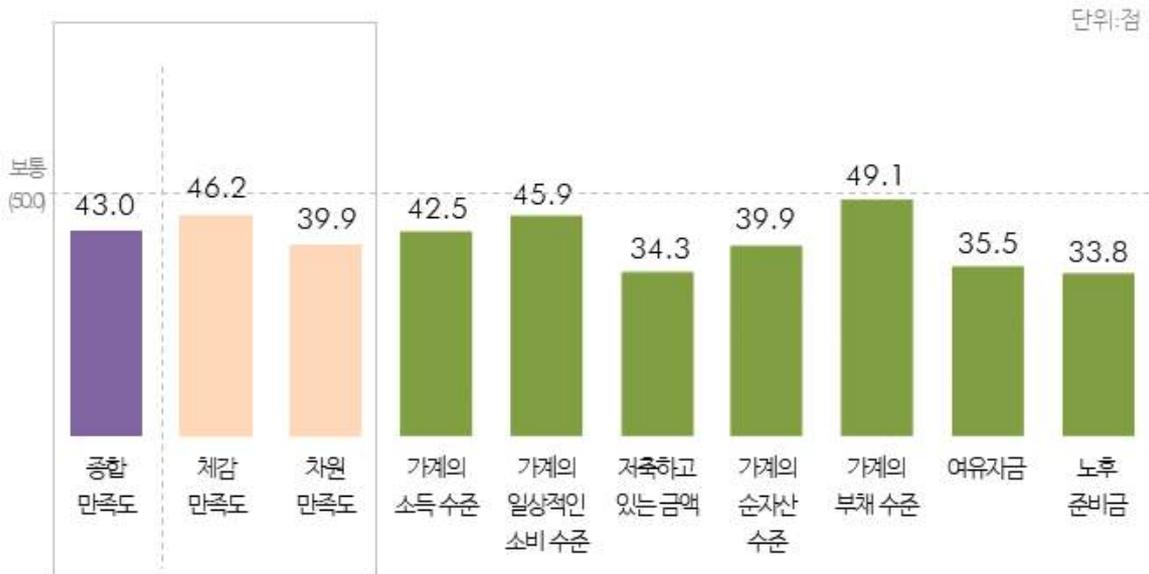
▶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해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평균 43.0점)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  $\chi_i$  = 측정 값]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종합만족도가 평균 43.0점으로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인 느낌을 반영한 체감만족도(평균 46.2점)가 각 평가 속성별 만족도를 환산한 차원만족도(평균 39.9점)에 비해 높았다.

세부 평가 속성별로 '가계의 부채 수준'(평균 49.1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평균 45.9점), '가계의 소득 수준'(평균 42.5점), '가계의 순자산 수준'(평균 39.9점), '여유자금'(평균 35.5점), '저축하고 있는 금액'(평균 34.3점), '노후준비금'(평균 33.8점) 순이었다.

| 그림 1214 |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 종합/체감/차원 만족도 : [조사연구 개요]의 '9. 자료처리 및 분석' 참조(p.59)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축층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읍지역에서 '가계의 소득 수준',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 만족도가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계의 부채 수준'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214 - (1) |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가계의 소득 수준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	저축하고 있는 금액	가계의 순자산 수준	가계의 부채 수준	여유 자금	노후 준비금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합계 (3,972)		43.0	46.2	39.9	42.5	45.9	34.3	39.9	49.1	35.5	33.8
읍/면	읍 (1,763)	43.3	46.2	40.3	44.1	47.0	34.7	39.3	47.1	36.1	34.7
	면 (2,209)	42.9	46.2	39.6	41.3	45.1	34.0	40.5	50.7	35.0	33.1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44.0	46.9	41.1	42.5	45.6	34.6	43.7	50.9	37.0	35.7
	비농어가 (2,977)	42.7	45.9	39.5	42.6	46.0	34.2	38.7	48.5	35.0	33.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45.9	48.6	43.2	47.5	51.6	38.2	41.8	45.7	38.3	37.8
	40대 ( 701)	43.8	47.1	40.4	45.6	48.9	37.1	38.4	43.1	35.5	33.3
	50대 ( 855)	43.7	47.0	40.4	42.2	45.8	35.2	40.8	47.3	37.8	34.9
	60대 ( 792)	41.7	45.1	38.4	39.5	43.2	31.3	39.6	51.9	34.4	32.6
	70대 이상 ( 901)	40.7	43.6	37.7	39.3	41.6	30.7	39.2	55.7	32.0	31.0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51.5	54.4	48.5	52.3	54.9	47.0	47.3	52.1	43.9	42.1
	비저축층 (2,477)	37.9	41.2	34.7	36.7	40.5	26.6	35.5	47.3	30.4	28.8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 추이

- 2014년 대비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평균 +3.9점) 등 종합 만족도가 약간 증가함(평균 +2.7점)

| 표 1214 - (2) |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 추이

단위: 점(명)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가계의 소득 수준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	저축 하고 있는 금액	가계의 순자산 수준	가계의 부채 수준	여유 자금	노후 준비금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2019년	(3,972)	43.0	46.2	39.9	42.5	45.9	34.3	39.9	49.1	35.5	33.8
2014년	(3,939)	40.3	42.3	38.3	40.3	42.0	31.7	37.3	51.5	36.2	34.2

## 1215>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현 거주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가구(n=3,12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122)]

▶ [좋아진 편(합)](22.0%) < [나빠진 편(합)](30.0%)

과거 5년 전에 비해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나빠진 편'(26.2%), '매우 나빠짐'(3.8%) 등 [나빠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30.0%로 '좋아진 편'(21.3%), '매우 좋아짐'(0.7%) 등 [좋아진 편(합)](22.0%)이라는 응답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한편, '보통'이라는 의견이 절반수준(48.0%)으로 5년 전과 비슷한 수준(평균 47.3점)이라는 평가였다.

계층에 관계없이 '보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30대 이하 연령층, 저축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경제활동 여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표 1215 |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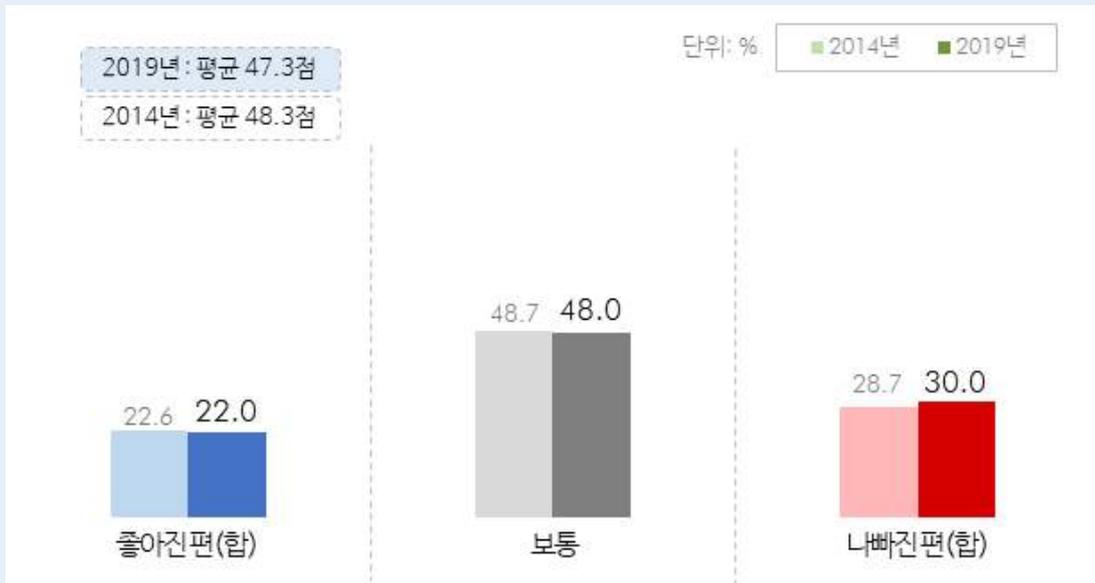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짐	좋아진 편	좋아진 편(합)	보통	나빠진 편	매우 나빠짐	나빠진 편(합)
합계 (3,122)		47.3점	0.7	21.3	22.0	48.0	26.2	3.8	30.0
읍/면	읍 (1,275)	47.0점	0.7	22.1	22.8	46.4	26.2	4.6	30.8
	면 (1,848)	47.4점	0.7	20.8	21.5	49.1	26.2	3.2	29.4
영농 여부	농어가 ( 962)	48.0점	0.7	24.3	25.0	44.4	27.4	3.2	30.6
	비농어가 (2,160)	46.9점	0.7	20.0	20.7	49.6	25.7	4.0	29.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371)	49.6점	3.0	21.9	24.9	48.7	23.4	3.0	26.4
	40대 ( 522)	46.7점	0.2	22.6	22.9	45.9	26.4	4.9	31.3
	50대 ( 705)	47.1점	0.8	22.6	23.4	44.9	27.4	4.3	31.7
	60대 ( 665)	46.7점	0.4	20.2	20.6	49.4	26.0	4.0	30.0
	70대 이상 ( 858)	47.1점	0.2	20.0	20.2	50.5	26.5	2.8	29.3
저축 현황	저축층 (1,053)	49.5점	1.1	26.0	27.1	46.2	23.3	3.4	26.7
	비저축층 (2,070)	46.1점	0.5	18.9	19.4	48.9	27.7	3.9	31.6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 129)	41.9점		15.4	15.4	46.3	28.8	9.5	38.3
	비의향층 (2,967)	47.5점	0.7	21.3	22.1	48.3	26.2	3.4	29.6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 추이

-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그림 1215 |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 1216> 향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 [좋아질 것(합)](30.2%) ≡ [나빠질 것(합)](27.1%)

향후(약 5년 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66)]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전망으로서 '좋아질 것'(29.1%), '매우 좋아질 것'(1.1%) 등 [좋아질 것(합)]이라는 응답이 30.2%로, '나빠질 것'(24.2%), '매우 나빠질 것'(2.9%) 등 [나빠질 것(합)](27.1%)이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보통'이라는 의견이 42.6%로 5년 전 대비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평가보다 약간 긍정적인 평가(평균 50.3점)를 보였다.

면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 저축층, 자영업/직장인층, 창업 및 취업 희망층에서 약간 더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 표 1216 |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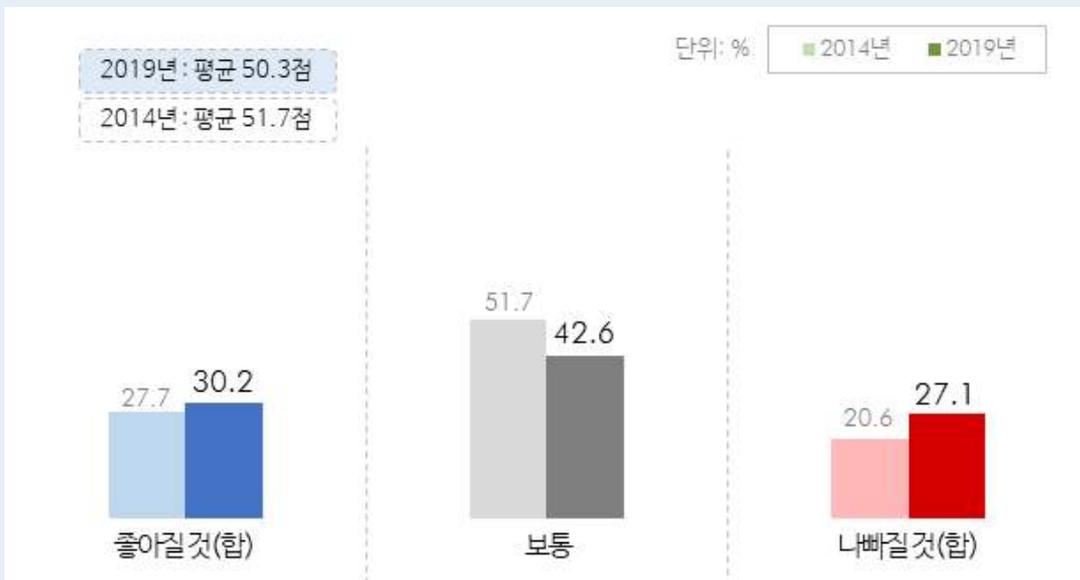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합)	보통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나빠질 것 (합)
합계 (3,966)		50.3점	1.1	29.1	30.2	42.6	24.2	2.9	27.1
읍/면	읍 (1,759)	48.9점	1.8	25.2	27.0	43.1	26.5	3.4	29.9
	면 (2,207)	51.5점	0.6	32.2	32.8	42.3	22.3	2.6	24.9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47.5점	1.0	28.7	29.7	34.2	31.5	4.6	36.1
	비농어가 (2,972)	51.3점	1.2	29.2	30.4	45.5	21.7	2.4	2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55.3점	2.3	32.5	34.8	49.4	15.8		15.8
	40대 ( 701)	52.4점	2.1	34.7	36.9	37.3	22.3	3.5	25.9
	50대 ( 853)	48.2점	1.0	27.1	28.1	40.4	26.7	4.8	31.5
	60대 ( 789)	48.1점	0.1	28.0	28.2	39.1	29.3	3.4	32.7
	70대 이상 ( 900)	48.6점	0.4	24.8	25.2	46.6	25.5	2.7	28.2
저축 현황	저축층 (1,493)	52.3점	1.5	32.4	33.9	42.0	22.3	1.8	24.1
	비저축층 (2,473)	49.1점	0.9	27.1	28.0	43.0	25.3	3.6	29.0
응답자 직업	농어업 종사자 ( 832)	48.5점	1.2	30.1	31.3	33.7	31.5	3.5	35.0
	자영업/직장인 (1,619)	52.9점	0.6	34.5	35.0	43.1	19.9	2.0	21.9
	주부/무직/기타 (1,504)	48.5점	1.7	22.7	24.4	47.2	24.6	3.7	28.4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희망층 ( 479)	54.3점	3.5	32.6	36.1	41.9	21.6	0.4	22.0
	비희망층 (3,487)	49.8점	0.8	28.6	29.4	42.7	24.5	3.3	27.8

 향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 추이

- 2014년 대비 [보통] 비율이 감소(-9.1%p)한 반면, [나빠질 것(합)](+6.5%p) 비율은 증가함
- 5년 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전망은 비슷한 수준(평균 -1.4점)

| 그림 1216 |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 1300〉 문화여가

- 1301> 여가활동의 목적
- 1302> 주된 문화여가활동 실태
- 1303> 희망 문화여가활동 실태
- 1304>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 1305> 동호회 활동 실태
- 1306>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 1307> 체육활동 경험
- 1308> 관광 경험
- 1309>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 1310>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 1311>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 1312>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 1313>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1314>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 1301 > 여가활동의 목적

귀하께서 여가활동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4%(n=3,828)]

### ▶ '몸과 마음의 휴식'(40.7%)이 주된 목적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40.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27.2%), '즐거움과 재미'(17.9%), '자기계발'(8.2%), '친교·교제'(6.0%) 순이었다.

읍지역, 50-60대 연령층에서 '건강 유지 및 체력단련'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즐거움과 재미' 비율이 높았다. 한편,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 비율이 매우 높고, '친교·교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301 - (1) | 여가활동의 목적

단위 : %(명)

구분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	자기 계발	몸과 마음의 휴식	즐거움과 재미	친교·교제
합계 (3,828)		27.2	8.2	40.7	17.9	6.0
읍/면	읍 (1,696)	32.0	9.7	38.8	15.0	4.4
	면 (2,133)	23.3	7.0	42.2	20.2	7.2
영농 여부	농어가 ( 964)	28.2	5.2	40.2	17.3	9.0
	비농어가 (2,865)	26.8	9.2	40.9	18.1	4.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17)	19.8	12.8	39.5	25.6	2.2
	40대 ( 683)	28.5	15.4	39.0	15.7	1.5
	50대 ( 814)	33.2	7.1	41.8	14.0	3.9
	60대 ( 753)	31.0	7.0	39.6	17.0	5.4
	70대 이상 ( 860)	23.0	0.9	43.1	17.8	15.2


**여가활동의 목적 - 추이**

- 2014년 대비 '즐거움과 재미'(+7.8%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몸과 마음의 휴식'(-4.3%p) 비율이 감소함

| 표 1301 - (2) | 여가활동의 목적 - 추이

단위 : %(명)

구분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	자기 계발	몸과 마음의 휴식	즐거움과 재미	친교· 교제	기타
2019년 (3,828)	27.2	8.2	40.7	17.9	6.0	
2014년 (3,912)	27.7	10.2	45.0	10.1	6.6	0.3

## 1302 > 주된 문화·여가활동 실태

- ▶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33.8%)가 주된 여가활동, '혼자' 문화·여가활동을 즐긴다는 응답이 43.0%
- ▶ '주 4회 이상'(47.5%) 빈도가 높고, '자택(집)'(48.4%)이 주된 여가활동 장소
- ▶ 이동 시 '자가용'(46.6%), '걸어서'(42.4%) 비율이 비슷한 수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4.7분

###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33.8%)가 주된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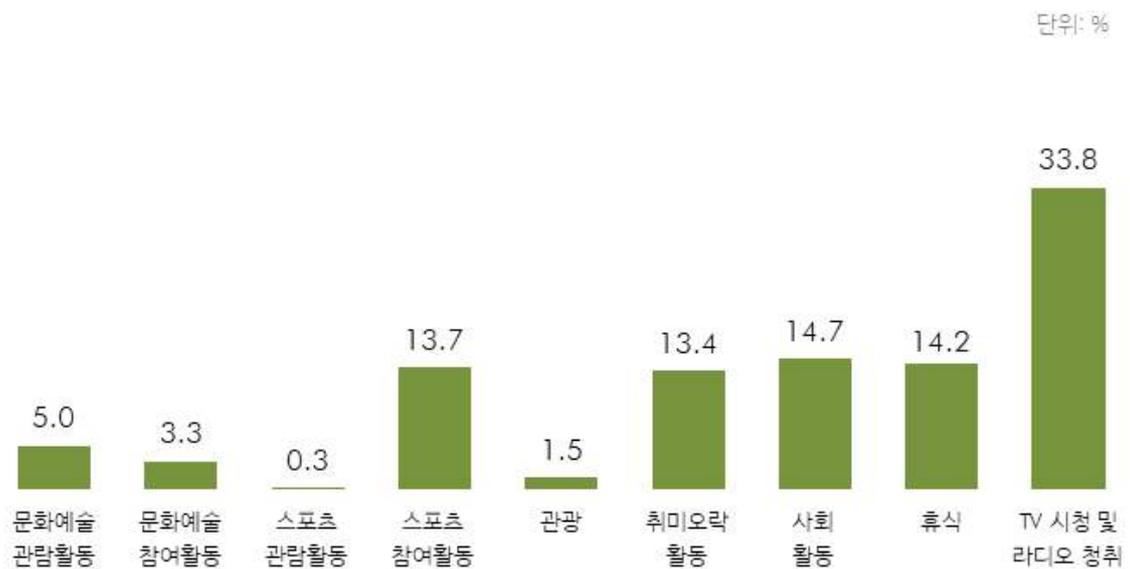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개방형 질문 -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4%(n=3,790)]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33.8%)가 주된 문화·여가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웃/친구와의 교제 및 동호회 모임"(10.9%) 등 '사회활동'(14.7%), "산책 및 걷기"(5.7%), "낮잠"(3.8%) 등 '휴식'(14.2%), "헬스/에어로빅(3.0%)" 등 '스포츠 참여활동'(13.7%), "등산"(3.7%) 등 '취미오락활동'(13.4%) 순이었다.

이밖에 '문화예술 관람활동'(5.0%), '문화예술 참여활동'(3.3%) 등 [문화예술 관련활동](8.3%), '관광'(1.5%), '스포츠 관람활동'(0.3%) 비율은 높지 않았다.

| 그림 1302 - (1) | 주된 문화·여가활동



## 주된 문화·여가활동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4%(n=3,790)]

구분	세부사항
문화예술 관람활동 (5.0%)	· 영화관람(3.7%), 음악연주회 관람(0.4%), 연극공연 관람(0.3%) 등
문화예술 참여활동 (3.3%)	· 악기연주/노래교실 등 학원(1.5%), 미술활동(1.0%), 춤/무용(0.4%), 전통예술 배우기(0.2%) 등
스포츠 관람활동 (0.3%)	· 간접관람(TV, DMB 등)(0.3%)
스포츠 참여활동 (13.7%)	· 헬스/에어로빅(3.0%), 요가/필라테스/태보(2.1%), 수영(1.8%), 농구/배구/야구/축구/족구(1.6%), 배드민턴/줄넘기/스트레칭/체조/홀라후프(1.2%), 골프(0.8%), 볼링/탁구(0.7%), 댄스스포츠(0.6%), 사이클링/산악자전거, 당구/포켓볼(각 0.4%), 게이트볼(0.3%), 테니스/스쿼시(0.1%) 등
관광 (1.5%)	·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각 0.3%), 유적지/명승지 외 관광지 방문(0.2%), 국내캠핑, 지역축제 참가(각 0.1%) 등
취미오락활동 (13.4%)	· 등산(3.7%), 독서/만화책(웹툰)보기(2.3%), 인터넷 검색/채팅/1인 미디어 제작/SNS(1.7%), 낚시(1.5%), 어학·기술·자격증 공부/강의·강연 등 참여(0.8%), 생활공예(0.7%), 게임, 바둑/장기/체스(각 0.6%), 원예(0.4%), 수집활동, 쇼핑/외식 (각 0.2%), 요리하기/다도, 반려동물 돌보기(각 0.1%) 등
사회활동 (14.7%)	· <b>이웃/친구와의 교제 및 동호회 모임(10.9%)</b> , 종교활동(2.0%), 가족 및 친지 방문(0.8%), 사회봉사활동(0.4%) 등
휴식 (14.2%)	· 산책 및 걷기(5.7%), 낮잠(3.8%), 아무것도 안 하기(2.7%), 목욕/사우나/찜질방(0.8%), 음악 감상(0.5%), 신문/잡지 보기(0.4%) 등
<b>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33.8%)</b>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사회활동’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스포츠 참여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동호회 활동층,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층에서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 비율이 높은 반면, 동호회 비활동층, 문화예술프로그램 비관람층에서 ‘사회활동’, ‘휴식’,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비율이 높았다.

| 표 1302 - (1) | 주된 문화·여가활동

단위: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취미 오락 활동	사회 활동	휴식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합계 (3,790)		5.0	3.3	0.3	13.7	1.5	13.4	14.7	14.2	33.8
읍/면	읍 (1,628)	7.6	2.7	0.5	18.4	1.9	14.1	11.8	14.6	28.2
	면 (2,162)	3.1	3.8	0.2	10.1	1.2	12.9	16.9	13.9	37.9
영농 여부	농어가 ( 977)	1.4	4.2	0.3	8.5	0.7	9.9	18.0	17.8	39.2
	비농어가 (2,813)	6.3	3.0	0.4	15.5	1.8	14.6	13.6	12.9	31.9
응답자 성	남성 (1,627)	4.4	0.8	0.8	13.3	1.4	19.7	11.3	14.0	34.4
	여성 (2,164)	5.5	5.2	0.0	14.0	1.6	8.7	17.3	14.3	33.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692)	15.6	2.8	0.7	25.7	2.6	13.3	11.1	8.1	20.3
	40대 ( 667)	8.2	2.9	0.4	16.7	3.3	18.9	8.6	13.7	27.3
	50대 ( 817)	2.6	2.6	0.4	10.2	1.2	18.0	8.5	18.5	38.2
	60대 ( 767)	0.9	4.6	0.2	12.0	0.9	14.4	15.3	16.7	35.0
	70대 이상 ( 847)	0.1	3.6	0.2	6.5	0.0	3.9	28.0	13.1	44.5
동호회 활동 여부	활동층 ( 302)	6.5	14.8		43.2	1.1	22.9	4.7	2.9	3.9
	비활동층 (3,488)	4.9	2.3	0.4	11.1	1.5	12.6	15.6	15.2	36.4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경험	경험층 (1,968)	9.2	4.2	0.3	20.3	2.6	15.2	14.1	12.8	21.4
	비경험층 (1,823)	0.5	2.3	0.5	6.5	0.3	11.5	15.4	15.7	47.2

 주된 문화·여가활동 - 추이

- 2018년 대비 '취미오락활동'+10.2%p), '스포츠 참여활동'+8.5%p) 비율이 증가한 반면, '휴식'(-6.1%p), '사회활동'(-5.4%p) 비율이 감소함

| 표 1302 - (2) | 주된 문화·여가활동 - 추이

단위 :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취미 오락 활동	사회 활동	휴식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기타
2019년 (3,790)	5.0	3.3	0.3	13.7	1.5	13.4	14.7	14.2	33.8	
2018년 (2,751)	5.4	1.5	2.0	5.2	1.6	3.2	20.1	20.3	33.0	7.6
2014년 (3,929)	5.4	1.4	1.5	17.5	3.3	4.8	14.4	17.8	29.2	3.9

\* 2014년 '기타'는 '독서, 신문/잡지 보기'(2.0%),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1.9%) 항목의 합임

\*\* 2018년 '기타'는 '독서, 신문/잡지 보기'(2.5%),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4.9%), '기타'(0.2%) 항목의 합임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80) 기준 수치이며, 주된 문화·여가활동을 2순위까지 측정하여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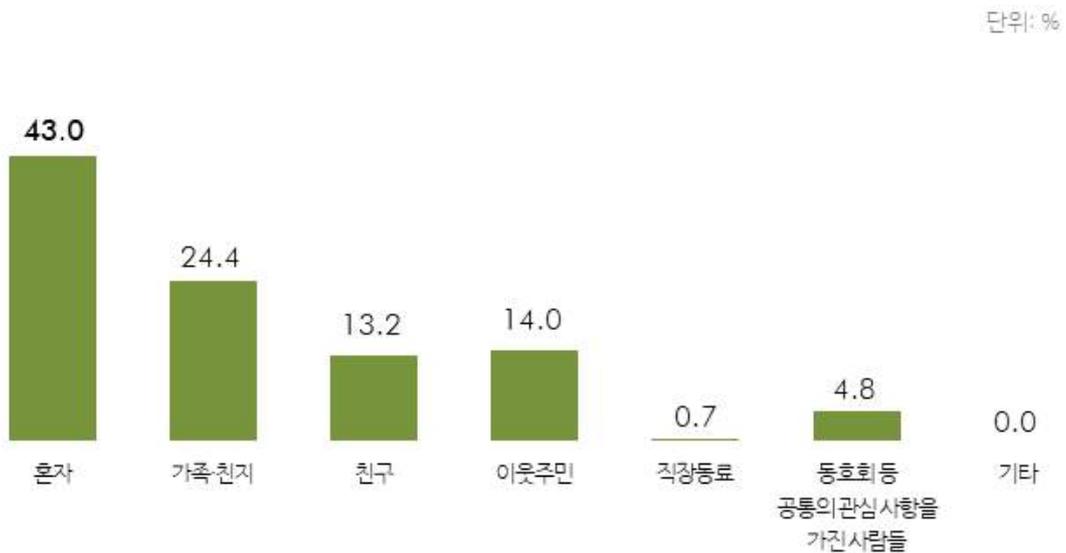
(국민여가활동조사 분류 참고)

**농어촌 주민의 43.0%가 '혼자' 문화·여가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1%(n=3,777)]

주된 여가활동 동반자로 '혼자'(43.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친지'(24.4%), '이웃주민'(14.0%), '친구'(13.2%),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4.8%), '직장동료'(0.7%) 순이었다.

| 그림 1302 - (2) | 주된 문화·여가활동 동반자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월 평균 생활비가 200만원 미만인 층,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휴식인 층에서 ‘혼자’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남성, 40대 연령층, 월 평균 생활비가 200만원 이상인 층,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관광인 층에서 ‘가족·친지’ 비율이 높았다.

한편, 면지역, 농어가, 여성, 70대 이상 연령층,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참여활동, 사회활동인 층에서 ‘이웃 주민’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관람 활동인 층에서 ‘친구’ 비율이 높았다.

| 표 1302 - (3) | 주된 문화·여가활동 동반자

단위: %(명)

구분			혼자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주민	직장 동료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기타
합계 (3,777)			43.0	24.4	13.2	14.0	0.7	4.8	0.0
읍/면	읍	(1,619)	41.7	26.8	15.0	10.9	0.4	5.2	
	면	(2,158)	44.0	22.5	11.8	<b>16.3</b>	0.8	4.5	0.0
영농 여부	농어가	( 976)	41.1	27.4	9.9	<b>18.8</b>	0.1	2.7	0.1
	비농어가	(2,801)	43.7	23.3	14.3	12.3	0.8	5.5	0.0
응답자 성	남성	(1,616)	42.5	<b>29.2</b>	15.6	6.8	1.0	4.8	
	여성	(2,162)	43.4	20.8	11.3	<b>19.3</b>	0.4	4.7	0.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682)	30.5	29.7	<b>27.1</b>	6.5	1.1	5.1	
	40대	( 666)	38.5	<b>35.7</b>	11.8	5.0	1.0	8.1	
	50대	( 815)	<b>48.9</b>	26.7	13.7	6.2	1.3	3.2	0.0
	60대	( 767)	<b>49.6</b>	17.7	10.2	15.7	0.1	6.7	0.0
	70대 이상	( 846)	<b>45.1</b>	15.0	5.3	<b>33.0</b>		1.6	0.0
월평균 생활비	200만원 미만	(2,122)	<b>49.1</b>	17.3	11.2	<b>18.0</b>	0.4	4.1	0.0
	200만원 이상	(1,626)	35.2	<b>33.7</b>	15.8	8.9	0.9	5.5	0.0
주된 문화· 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191)	7.8	58.9	<b>31.1</b>		2.1		
	문화예술 참여활동	( 126)	19.3	1.8	17.1	<b>40.5</b>	0.1	<b>21.2</b>	
	스포츠 관람활동	( 13)	<b>72.6</b>	22.8		4.7			
	스포츠 참여활동	( 519)	26.5	10.4	24.2	19.7	1.7	<b>17.6</b>	
	관광	( 57)	1.9	<b>83.5</b>	6.5		1.5	6.5	
	취미오락활동	( 499)	51.5	14.3	22.6	4.7	0.1	6.8	0.1
	사회활동	( 557)	8.8	8.5	24.6	<b>52.7</b>	1.1	4.4	
	휴식	( 535)	<b>72.2</b>	17.0	4.5	6.2	0.0		0.1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1,280)	58.2	38.4	1.1	1.9	0.4	0.0		

 주된 문화·여가활동 동반자 - 추이

○ 2014년 대비 '혼자' 비율이 증가(+9.1%p)한 반면, '가족·친지'(-9.0%p), '친구'(-5.4%p) 비율이 감소함

| 표 1302 - (4) | 주된 문화·여가활동 동반자 - 추이

단위: %(명)

구분	혼자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주민	직장 동료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	기타
2019년 (3,777)	43.0	24.4	13.2	14.0	0.7	4.8	0.0
2014년 (3,928)	33.9	33.4	18.6	11.4	0.8	1.6	0.2

### 주 4회 이상(47.5%)이 주된 문화·여가활동 빈도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3%(n=3,784)]

여가활동의 빈도는 '주 4회 이상'이 47.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 2-3회'(24.6%), '주 1회 정도'(12.6%), '월 1-3회 정도'(10.9%), '2-3개월에 1회 정도'(2.9%), '4-6개월에 1회 정도'(1.3%), '연 1회 정도'(0.1%) 순이었다.

| 그림 1302 - (3) | 주된 문화·여가활동 빈도



면지역, 70대 이상 연령층,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인 층에서 ‘주 4회 이상’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참여활동인 층에서 ‘주 2-3회’ 비율이 높았다.

한편,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참여활동인 층에서 ‘주 1회 정도’ 비율 또한 높은 반면, 문화예술 관람활동인 층에서 ‘월 1-3회 정도’ 비율이 높고, 관광인 층에서 ‘월 1-3회 정도’, ‘2-3개월에 1회 정도’ 비율이 높았다.

| 표 1302 - (5) | 주된 문화여가활동 빈도

단위 :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2-3개월에 1회 정도	4-6개월에 1회 정도	연 1회 정도
합계 (3,784)		47.5	24.6	12.6	10.9	2.9	1.3	0.1
읍/면	읍 (1,624)	43.5	29.6	11.5	12.0	2.3	1.0	0.1
	면 (2,160)	50.6	20.8	13.5	10.1	3.4	1.5	0.2
영농 여부	농어가 ( 972)	47.8	26.1	15.9	6.4	3.0	0.7	0.1
	비농어가 (2,812)	47.5	24.1	11.5	12.4	2.9	1.5	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692)	35.0	30.8	14.8	14.6	3.2	1.5	
	40대 ( 663)	38.1	25.4	12.6	15.8	5.1	3.0	
	50대 ( 816)	46.7	24.5	12.7	10.4	3.7	1.5	0.4
	60대 ( 767)	48.8	24.3	13.8	10.2	2.3	0.4	0.2
	70대 이상 ( 845)	64.9	19.2	9.8	5.0	0.7	0.3	
주된 문화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191)		6.5	7.5	58.9	16.6	10.5	
	문화예술 참여활동 ( 126)	4.5	35.6	41.5	18.1	0.4		
	스포츠 관람활동 ( 13)	93.4	6.6					
	스포츠 참여활동 ( 519)	31.5	49.0	12.6	5.8	1.1		
	관광 ( 57)	8.3	0.2	2.3	43.1	31.3	8.5	6.3
	취미오락활동 ( 508)	30.0	24.4	18.6	17.8	6.0	3.0	0.1
	사회활동 ( 558)	42.9	27.1	18.2	7.8	3.3	0.6	0.1
	휴식 ( 536)	40.8	29.2	21.3	7.1	0.8	1.0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1,275)	78.5	14.6	2.8	3.9	0.1			

 주된 문화·여가활동 빈도 - 추이

- 2014년 대비 '주 4회 이상' 비율이 증가(+14.1%p)한 반면, '월 1-3회 정도'(-9.5%p), '주 1회 정도'(-5.6%p) 비율이 감소함
- 주된 문화·여가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층에서 '주 4회 이상' 비율이 더욱 증가(+17.7%p)하고, 스포츠 참여활동층에서 '주 2-3회' 비율이 증가(+25.0%p)한 반면, 관광(-12.6%p), 스포츠 참여활동(-23.4%p)층에서 '월 1-3회 정도' 비율이 감소함

| 표 1302 - (6) | 주된 문화·여가활동 빈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2-3개월에 1회 정도	4-6개월에 1회 정도	연 1회 정도
2019년 (3,784)		47.5	24.6	12.6	10.9	2.9	1.3	0.1
주된 문화·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191)		6.5	7.5	58.9	16.6	10.5	
	문화예술 참여활동 ( 126)	4.5	35.6	41.5	18.1	0.4		
	스포츠 관람활동 ( 13)	<b>93.4</b>	6.6					
	스포츠 참여활동 ( 519)	31.5	<b>49.0</b>	12.6	<u>5.8</u>	1.1		
	관광 ( 57)	8.3	0.2	2.3	<u>43.1</u>	<b>31.3</b>	8.5	6.3
	취미오락활동 ( 508)	30.0	24.4	<u>18.6</u>	17.8	6.0	3.0	0.1
	사회활동 ( 558)	42.9	27.1	18.2	7.8	3.3	0.6	0.1
	휴식 ( 536)	40.8	29.2	21.3	7.1	0.8	1.0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1,275)	<b>78.5</b>	14.6	2.8	3.9	0.1		
2014년 (3,923)		33.4	21.4	18.2	20.4	4.3	1.4	0.9
주된 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 ( 212)	5.0	2.4	19.6	60.4	9.7	2.8	
	문화예술 활동 ( 56)	4.9	34.9	42.7	13.0		4.4	
	스포츠 관람 ( 61)	<b>19.8</b>	13.2	20.3	<u>39.2</u>	6.0	1.4	
	스포츠 활동 ( 687)	26.2	<b>24.0</b>	18.8	<u>29.2</u>	1.4	0.2	0.2
	여행 ( 131)	3.2	4.3	7.9	<u>55.7</u>	<b>18.9</b>	7.9	2.2
	취미활동 ( 190)	12.3	18.4	<u>33.1</u>	27.9	5.9	2.3	
	사회활동 ( 564)	26.3	33.5	22.0	12.6	3.9	0.7	0.9
	휴식 ( 698)	21.7	22.3	22.2	22.6	8.2	2.4	0.6
	TV 및 라디오 시청 (1,143)	<b>60.8</b>	17.6	11.4	6.5	1.5	0.7	1.5

**'자택(집)'(48.4%)이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우리 마을 내'(70.4%)가 주된 장소 위치**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주된 장소 응답률 95.4%(n=3,789)/ 장소 위치 응답률 :95.2%(n=3,782)]

'자택(집)'(48.4%)이 주된 여가활동 장소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4.6%), "마을 주변"(3.3%) 등 '실외공간'(16.7%), "영화관"(3.4%) 등 '민간시설'(16.0%), "마을회관"(4.4%), "경로당"(4.2%) 등 '마을 내 공동시설'(9.7%), "주민체육센터"(2.6%) 등 '공공시설'(8.4%) 순이었다.

| 그림 1302 - (4) |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의 위치로 '우리 마을 내'(70.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우리 시/군 내'(11.6%), '우리 읍/면 내'(10.0%), '다른 시/군'(8.0%) 순이었다.

| 그림 1302 - (5) |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4%(n=3,789)]

구분	세부사항
<b>주택(집)(48.4%)</b>	
<b>공공시설 (8.4%)</b>	· 주민체육센터(2.6%), 시·군청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등(1.5%), 생활문화센터(1.0%), 복지회관/복지관 등 복지시설(0.9%), 도서관(0.6%), 문화원(0.5%), 문화예술회관, 학교(각 0.2%), 보건소(0.1%) 등
<b>마을 내 공동시설 (9.7%)</b>	· 마을회관(4.4%), 경로당(4.2%), 체육시설(0.7%), 마을정자(0.1%) 등
<b>민간시설 (16.0%)</b>	· 영화관(3.4%), 종교시설(1.8%), 음식점(1.6%), 문화센터(1.3%), 헬스클럽(1.2%), 카페(0.9%), 찜질방/목욕탕, 요가/필라테스(각 0.7%), 공연장(0.6%), 수영장(0.5%), 당구장, 개인사업장/직장(각 0.4%), 탁구장, 댄스스포츠(각 0.3%), 골프장(0.2%), 악기연주/노래교실 등 학원, 공방(각 0.1%) 등
<b>실외공간 (16.7%)</b>	· 산(4.6%), 마을 주변(3.3%), 야구/축구 등 운동경기장(2.2%), 공원/유원지(1.9%), 저수지/강/바다(1.6%), 테니스장(0.7%), 학교운동장(0.6%), 골프장(0.5%), 유적지/명승지 등 관광지(0.3%), 산책로(0.2%), 캠핑장, 게이트볼장(각 0.1%) 등
<b>기타 (0.8%)</b>	· 이웃/친구집(0.8%)

면지역, 50대 이상 연령층,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휴식,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인 층에서 ‘자택(집)’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사회활동인 층에서 ‘민간시설’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참여활동인 층에서 ‘공공시설’ 비율이 높은 반면, 관광, 취미오락활동, 휴식인 층에서 ‘실외공간’ 비율이 높았다.

| 표 1302 - (7) |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단위 : %(명)

구분		자택(집)	공공시설	마을내공동시설	민간시설	실외공간	기타
합계 (3,789)		48.4	8.4	9.7	16.0	16.7	0.8
읍/면	읍 (1,628)	42.1	10.6	5.6	21.4	19.7	0.6
	면 (2,161)	53.1	6.8	12.8	12.0	14.4	0.9
영농여부	농어가 ( 976)	53.5	6.5	14.5	11.5	13.5	0.5
	비농어가 (2,813)	46.6	9.1	8.0	17.6	17.8	0.9
응답자연령	30대 이하 ( 692)	35.9	9.3	1.8	35.3	16.1	1.6
	40대 ( 667)	45.2	10.6	1.7	22.7	19.7	
	50대 ( 816)	55.6	7.6	2.3	12.3	21.9	0.3
	60대 ( 767)	50.1	9.8	9.1	11.2	18.9	0.9
	70대 이상 ( 846)	52.6	5.6	30.0	3.1	7.6	1.0
주된 문화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191)	0.3	7.6		92.1		
	문화예술 참여활동 ( 126)	12.0	58.3	16.2	12.5	0.9	
	스포츠 관람활동 ( 13)	86.4				13.6	
	스포츠 참여활동 ( 519)	2.9	32.0	10.3	32.6	22.2	
	관광 ( 57)				2.3	97.7	
	취미오락활동 ( 508)	40.8	7.4	1.4	9.0	41.4	
	사회활동 ( 558)	11.1	4.4	45.0	29.1	5.0	5.3
	휴식 ( 537)	50.7	0.4	2.0	6.0	40.9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1,280)	97.6	0.2	1.9	0.4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마을 내 공동시설 이용층에서 ‘우리 마을 내’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30대 이하 연령층, 민간시설 이용층에서 ‘우리 시/군 내’ 비율이 높았다.

한편, 공공시설 이용층에서 ‘우리 읍/면 내’ 비율이 높은 반면, 실외공간 이용층에서 ‘다른 시/군’ 비율이 높았다.

| 표 1302 - (8) |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단위: %(명)

구분		우리 마을 내	우리 읍/면 내	우리 시/군 내	다른 시/군
합계 (3,782)		70.4	10.0	11.6	8.0
읍/면	읍 (1,625)	64.1	11.3	17.2	7.4
	면 (2,157)	75.1	8.9	7.4	8.5
영농 여부	농어가 ( 969)	77.7	9.4	9.2	3.7
	비농어가 (2,813)	67.8	10.2	12.5	9.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692)	50.1	12.3	24.9	12.7
	40대 ( 667)	60.7	11.2	16.9	11.2
	50대 ( 810)	72.7	10.7	7.4	9.3
	60대 ( 766)	72.0	11.9	8.4	7.7
	70대 이상 ( 846)	91.0	4.6	3.7	0.8
주된 문화·여가 활동 장소	공공시설 ( 320)	19.7	43.8	29.7	6.7
	마을 내 공동시설 ( 366)	95.8	1.7	2.5	
	민간시설 ( 601)	17.1	25.5	39.9	17.5
	실외공간 ( 631)	47.0	12.1	13.3	27.5
	기타 ( 30)	47.3	1.7	39.9	11.1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및 장소 위치 - 추이

- 2014년 대비 실외 공간 등 '기타' 비율이 증가(+9.1%p)한 반면, '공공시설'(-3.2%p), '민간시설'(-3.1%p) 비율은 감소함

| 표 1302 - (9) |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 추이 단위 : %(명)

구분	주택 (집)	공공 시설	마을내 공동시설	민간 시설	기타
2019년 (3,789)	48.4	8.4	9.7	16.0	17.5
2014년 (3,921)	49.2	11.6	11.6	19.1	8.4

\* 2014년 '공공시설'은 '시/군 공공시설'(4.5%), '읍/면 공공시설'(7.1%) 항목의 합임

\*\* 2019년 '기타'는 '실외 공간'(16.7%), '기타'(0.8%) 항목의 합임

- 2014년 대비 '우리 마을 내'(+36.1%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우리 읍/면 내'(-19.3%p), '다른 시군'(-11.2%p) 비율은 감소함

| 그림 1302 - (6) |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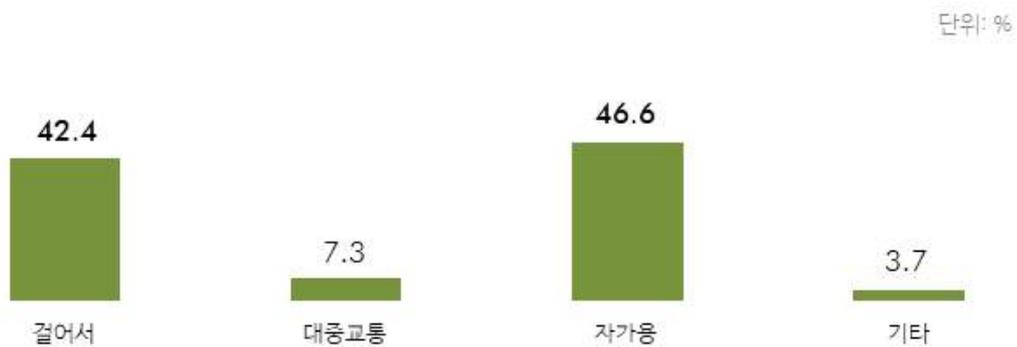


**'자가용'(46.6%), '걸어서'(42.4%) 이용률이 비슷한 수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4.7분**

[여가활동 장소로 '자택을 제외한 가구(n=1,956) 중 응답가구에 한해 : 교통수단 응답률 99.5%(n=1,946)/ 소요시간 응답률 : 97.1%(n=1,900)]

여가활동 장소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자가용'(46.6%), '걸어서'(42.4%)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층은 7.3%로 나타났다.

| 그림 1302 - (7) |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가활동 장소까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으로 '10-20분 미만'(25.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분-1시간 미만'(18.9%), '20-30분 미만'(17.9%), '5-10분 미만'(17.5%), '1시간 이상'(12.9%), '5분 미만'(7.5%) 순으로 평균 소요시간은 24.7분이었다.

| 그림 1302 - (8) |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걸어서’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자가용’ 비율이 높았다.

| 표 1302 - (10) |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b>합계</b> (1,946)		<b>42.4</b>	<b>7.3</b>	<b>46.6</b>	<b>3.7</b>
읍/면	읍 ( 940)	40.1	6.1	<b>50.0</b>	3.8
	면 (1,006)	44.6	8.4	43.4	3.7
영농 여부	농어가 ( 450)	<b>48.4</b>	4.9	41.6	5.1
	비농어가 (1,496)	40.6	8.0	<b>48.1</b>	3.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442)	27.5	6.6	<b>63.7</b>	2.2
	40대 ( 366)	28.3	7.6	<b>64.1</b>	
	50대 ( 360)	36.8	3.7	57.8	1.7
	60대 ( 378)	38.7	<b>12.6</b>	40.8	8.0
	70대 이상 ( 398)	<b>80.7</b>	6.0	6.7	6.7

60대 이하 연령층,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관람활동, 관광, 취미오락활동인 층, 문화여가활동 시 대중교통, 자가용을 이용하는 층에서 편도 소요시간이 더 길었다.

| 표 1302 - (11) |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b>합계</b> (1,900)		<b>24.7분</b>	<b>7.5</b>	<b>17.5</b>	<b>25.3</b>	<b>17.9</b>	<b>18.9</b>	<b>12.9</b>
읍/면	읍 ( 915)	21.8분	8.4	13.6	27.5	20.0	21.6	8.9
	면 ( 985)	27.4분	6.6	21.2	23.2	15.9	16.5	16.7
영농여부	농어가 ( 437)	20.5분	8.3	19.7	29.1	17.5	16.6	8.8
	비농어가 (1,463)	25.9분	7.2	16.9	24.2	17.9	19.6	1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430)	<b>25.8분</b>	5.2	13.5	20.2	<b>27.6</b>	20.4	13.1
	40대 ( 360)	<b>26.0분</b>	8.1	11.2	27.7	13.2	24.9	15.0
	50대 ( 350)	<b>31.5분</b>	4.9	10.3	24.1	19.0	20.7	<b>21.1</b>
	60대 ( 368)	<b>28.5분</b>	6.8	14.4	26.8	19.0	18.9	14.2
	70대 이상 ( 392)	12.6분	<b>12.2</b>	<b>37.3</b>	28.4	9.4	10.2	2.5
주된 문화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178)	<b>39.2분</b>			12.2	13.1	<b>54.6</b>	20.1
	문화예술 참여활동 ( 110)	17.6분	10.2	13.3	35.9	24.2	11.3	5.1
	스포츠 관람활동 ( 2)	<b>30.0분</b>					100.0	
	스포츠 참여활동 ( 503)	17.0분	7.7	21.0	31.1	22.0	14.1	4.0
	관광 ( 55)	<b>73.0분</b>			8.3	5.6	4.0	<b>82.2</b>
	취미오락활동 ( 285)	<b>47.1분</b>	6.2	5.0	10.7	16.7	23.1	<b>38.2</b>
	사회활동 ( 482)	12.2분	13.1	32.3	32.1	13.8	5.9	2.8
	휴식 ( 259)	22.6분	1.5	11.8	26.0	23.3	31.0	6.3
주요 교통 수단	걸어서 ( 804)	12.7분	16.4	30.4	27.7	11.0	12.2	2.2
	대중교통 ( 141)	<b>39.5분</b>	0.6	0.9	12.1	25.6	40.8	<b>20.0</b>
	자가용 ( 884)	<b>33.6분</b>	0.6	8.8	24.6	22.3	21.6	<b>22.1</b>
	기타 ( 70)	20.7분	4.8	14.4	32.6	23.9	17.8	6.5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편도 소요시간 - 추이

- 2014년 대비 '대중교통'(-11.1%p) 비율이 감소한 반면, '자가용'(+5.4%p), '걸어서'(+3.6%p) 비율은 증가함

| 그림 1302 - (9) |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2014년 대비 '30분-1시간 미만'(-10.3%p) 비율이 감소한 반면, '1시간 이상'(+3.3%p), '20-30분 미만'(+2.9%p) 비율은 증가하여 평균 소요시간은 비슷한 수준(평균 +0.6분)

| 표 1302 - (12) | 문화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 - 추이

단위: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019년 (1,900)	24.7분	7.5	17.5	25.3	17.9	18.9	12.9
2014년 (1,976)	24.1분	4.8	14.9	26.5	15.0	29.2	9.6

## 1303 > 희망 문화·여가활동 실태

- ▶ '스포츠 참여활동'(31.1%)이 주된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 ▶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장소는 '실외공간'(27.0%), '공공시설'(26.1%), '민간시설'(24.0%)
- ▶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로 '우리 마을 내'(39.3%) 비율이 가장 높음

귀하께서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개방형 질문 -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65.7%(n=2,611)]

### 가장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은 '스포츠 참여활동'(31.1%)

“수영”(8.8%), “헬스/에어로빅”(6.2%), “요가/필라테스/태보”(5.0%) 등 ‘스포츠 참여활동’(31.1%) 이 주된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적지/명승지 외 관광지 방문”(5.8%), “국외 관광”(4.5%) 등 ‘관광’(17.3%), “등산”(3.8%) 등 ‘취미오락활동’(13.9%), “악기연주/노래교 실”(7.0%) 등 ‘문화예술 참여활동’(10.6%), “영화관람”(3.5%) 등 ‘문화예술 관람활동’(9.9%), “목욕/ 사우나/찜질방”(2.9%) 등 ‘휴식’(7.6%), “이웃/친구와의 교제 및 동호회 모임”(3.1%) 등 ‘사회활동’(6.7%), “직접관람(경기장 방문)”(2.1%) 등 ‘스포츠관람’(2.2%),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0.7%) 순 이었다. 응답자가 실제로 주된 문화·여가활동으로 응답했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스포츠 참여활동’(+17.4%p), ‘관광’(+15.8%p)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한편, 상대적으로 물리적·인적 인프라가 필요한 ‘문화예술 참여활동’(+7.3%p), ‘문화예술 관람활동’(+4.9%p)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33.1%p)나 ‘휴식’(-6.6%p) 관련 욕구는 다소 낮았다.

| 그림 1303 - (1) | 희망 문화·여가활동



**희망 문화·여가활동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65.7%(n=2,611)]

구분	세부사항
문화예술 관람활동 (9.9%)	· 영화관람(3.5%), 연극공연 관람(2.2%), 전시회 관람(2.0%), 음악연주회 관람(1.1%), 박물관 관람(0.1%) 등
문화예술 참여활동 (10.6%)	· 악기연주/노래교실(7.0%), 춤/무용(1.0%), 미술활동(0.7%), 사진촬영(0.6%), 전통예술 배우기(0.4%) 등
스포츠 관람활동 (2.2%)	· 직접관람(경기장 방문)(2.1%) 등
스포츠 참여활동 (31.1%)	· 수영(8.8%), 헬스/에어로빅(6.2%), 요가/필라테스/태보(5.0%), 댄스스포츠(2.4%), 골프(2.2%), 볼링/탁구(1.2%), 배드민턴/줄넘기/스트레칭/체조/홀라후프(1.0%), 농구/배구/야구/축구/족구(0.9%), 게이트볼(0.8%), 당구/포켓볼(0.6%), 테니스/스쿼시(0.5%), 사이클링/산악자전거(0.1%) 등
관광 (17.3%)	· 유적지/명승지 외 관광지 방문(5.8%), 국외 관광(4.5%),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2.5%), 문화유적방문(1.0%), 국내캠핑(0.6%), 지역축제 참가(0.5%), 농촌체험관광(0.3%) 등
취미오락활동 (13.9%)	· 등산(3.8%),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각 2.2%), 낚시(1.8%), 어학·기술·자격증 공부/강의·강연 등 참여(1.2%), 바둑/장기/체스(0.9%), 독서/만화책(웹툰) 보기(0.4%), 인터넷 검색/채팅/1인 미디어 제작/SNS, 게임(각 0.3%), 원예(0.2%), 수집활동(0.1%) 등
사회활동 (6.7%)	· 이웃/친구와의 교체 및 동호회 모임(3.1%), 사회봉사활동(2.2%), 종교활동, 가족 및 친지 방문(0.5%) 등
휴식 (7.6%)	· 목욕/샤우나/찜질방(2.9%), 산책 및 걷기(1.7%), 아무것도 안 하기(1.1%), 낮잠(0.8%), 음악 감상(0.6%) 등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0.7%)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성,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포츠 참여활동' 희망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화예술 참여활동' 비율이 높고 읍지역, 남성에서 '취미 오락활동' 비율이 높았다. 한편,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사회활동', '휴식' 비율이 높았다.

| 표 1303 - (1) | 희망 문화여가활동

단위 :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취미 오락 활동	사회 활동	휴식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합계 (2,611)		9.9	10.6	2.2	31.1	17.3	13.9	6.7	7.6	0.7
읍/면	읍 (1,247)	12.0	9.8	2.5	30.3	18.6	16.3	4.6	5.8	0.2
	면 (1,364)	8.0	11.4	1.9	31.9	16.1	11.6	8.7	9.2	1.3
영농 여부	농어가 ( 635)	6.5	11.1	1.6	28.7	19.5	16.7	6.1	8.6	1.2
	비농어가 (1,976)	11.0	10.5	2.4	31.9	16.6	12.9	6.9	7.3	0.6
응답자 성	남성 (1,055)	8.0	5.8	4.1	28.4	18.0	16.8	7.7	10.4	0.9
	여성 (1,557)	11.1	13.9	0.9	33.0	16.8	11.8	6.1	5.7	0.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572)	13.5	6.7	1.8	42.8	14.7	14.0	1.6	4.9	
	40대 ( 518)	14.5	9.5	4.2	34.1	17.9	15.2	0.8	3.7	
	50대 ( 597)	9.7	10.6	2.8	33.7	14.7	13.8	9.3	4.8	0.7
	60대 ( 521)	7.6	12.4	1.0	25.6	20.7	16.2	7.7	8.4	0.4
	70대 이상 ( 404)	2.0	15.4	0.7	14.1	19.5	8.9	16.6	19.6	3.2

 희망 문화여가활동 - 추이

- 2018년 대비 '스포츠 참여활동'(+18.6%p), '문화예술 참여활동'(+5.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관광'(-14.5%p), '휴식'(-15.0%p) 비율이 감소함

| 표 1303 - (2) | 희망 문화여가활동 - 추이

단위 :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취미 오락 활동	사회 활동	휴식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기타
2019년 (2,611)	9.9	10.6	2.2	31.1	17.3	13.9	6.7	7.6	0.7	
2018년 (2,631)	11.2	5.3	3.0	12.5	31.8	9.4	4.1	22.6		0.1
2014년 (3,930)	11.6	7.9	3.5	18.3	30.7	9.2	3.8	14.8		0.2

\* 2019년에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항목이 추가됨

\*\* 2019년의 경우,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주된 문화여가활동과 다를 경우에 한해 조사함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80) 기준 수치이며, 희망 문화·여가활동을 2순위까지 측정하여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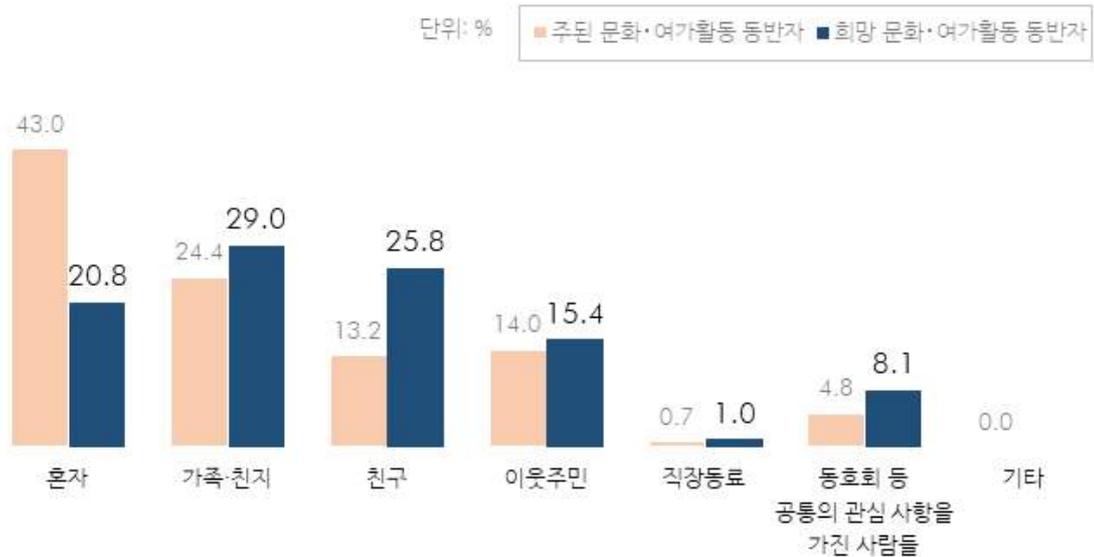
\*\*\*\* 2014년은 희망 문화·여가활동을 3순위까지 측정하여 1순위×3+2순위×2+3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한 결과임

## 가족·친지(29.0%)가 희망하는 주된 동반자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65.0%(n=2,582)]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의 동반자로 '가족·친지'(29.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25.8%), '혼자'(20.8%), '이웃주민'(15.4%),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8.1%), '직장동료'(1.0%) 순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 주된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에 비해 '친구'+12.6%p, '가족·친지'+4.6%p) 비율이 높은 반면, '혼자'(-22.2%p) 비율은 낮았다.

| 그림 1303 - (2)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관람활동, 관광인 층에서 ‘가족친지’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참여활동, 사회활동인 층에서 ‘이웃주민’ 비율이 높았다.

한편,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스포츠 관람활동, 취미오락활동인 층에서 ‘친구’ 비율이 높은 반면, 휴식인 층에서 ‘혼자’, 문화예술 참여활동인 층에서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 비율이 높았다.

| 표 1303 - (3)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단위: %(명)

구분		혼자	가족친지	친구	이웃주민	직장동료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
합계 (2,582)		20.8	29.0	25.8	15.4	1.0	8.1
읍/면	읍 (1,222)	22.8	35.6	23.1	11.0	0.8	6.6
	면 (1,360)	18.9	23.0	28.2	19.3	1.0	9.5
영농여부	농어가 ( 629)	16.4	27.4	28.9	19.5		7.8
	비농어가 (1,953)	22.2	29.5	24.8	14.1	1.3	8.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562)	21.4	32.5	26.1	9.6	1.5	9.0
	40대 ( 509)	22.9	38.9	26.8	3.7	2.8	4.9
	50대 ( 591)	19.8	26.7	30.7	10.3	0.4	12.2
	60대 ( 518)	20.1	24.2	25.6	19.4		10.7
	70대 이상 ( 401)	19.5	21.2	17.3	40.7		1.4
희망 문화 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244)	5.7	65.3	19.7	2.7		6.5
	문화예술 참여활동 ( 273)	18.6	7.4	24.4	28.6		21.0
	스포츠 관람활동 ( 57)	13.2	43.8	40.1	2.8		
	스포츠 참여활동 ( 810)	28.6	14.3	27.5	16.6	3.0	10.0
	관광 ( 450)	6.7	64.1	18.6	8.1	0.1	2.4
	취미오락활동 ( 356)	20.8	14.2	46.3	13.2		5.5
	사회활동 ( 174)	14.9	15.0	26.9	29.3		13.8
	휴식 ( 198)	47.2	26.8	5.1	20.9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 19)	45.1	48.7	1.7	4.5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 추이**

- 2014년 대비 '혼자'(+9.1%p),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5.4%p) 비율이 증가한 반면, '가족·친지'(-19.4%p) 비율이 감소함

| 표 1303 - (4)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 추이

단위 : %(명)

구분	혼자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주민	직장 동료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	기타
2019년 (2,582)	20.8	29.0	25.8	15.4	1.0	8.1	
2014년 (3,934)	11.7	48.4	23.4	12.9	0.7	2.7	0.2

\* 2014년은 1순위로 선택한 희망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를 조사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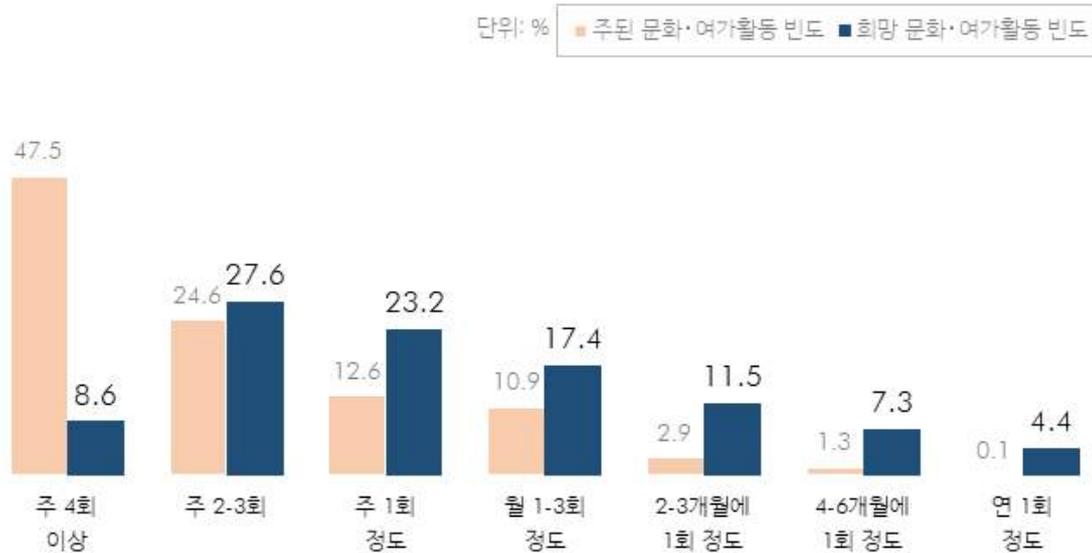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빈도로 '주 2-3회'(27.6%), '주 1회 정도'(23.2%) 비율이 높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64.6%(n=2,567)]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로 '주 2-3회'(27.6%), '주 1회 정도'(23.2%)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 1-3회 정도'(17.4%), '2-3개월에 1회 정도'(11.5%), '주 4회 이상'(8.6%), '4-6개월에 1회 정도'(7.3%), '연 1회 정도'(4.4%) 순이었다.

실제 문화여가활동 빈도에 비해 '주 1회 정도'+10.6%p), '2-3개월에 1회 정도'+8.6%p), '월 1-3회 정도'+6.5%p), '4-6개월에 1회 정도'+6.0%p) 비율이 높은 반면,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인 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던 '주 4회 이상'(38.9%p) 비율은 낮았다.

| 그림 1303 - (3) |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



40대 이하 연령층,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스포츠 참여활동인 층에서 '주 23회' 비율이 높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휴식,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인 층에서 '주 4회 이상' 비율이 높았다.

한편,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인 층에서 '주 1회 정도' 비율이 높은 반면, 문화예술 관람활동, 스포츠 관람활동인 층에서 '월 13회 정도', '23개월에 1회 정도', 관광인 층에서 '46개월에 1회 정도', '연 1회 정도' 비율이 높았다.

| 표 1303 - (5) |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

단위: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2-3 개월에 1회 정도	4-6 개월에 1회 정도	연 1회 정도
합계 (2,567)		8.6	27.6	23.2	17.4	11.5	7.3	4.4
읍/면	읍 (1,220)	7.1	30.4	25.0	15.6	9.3	6.9	5.9
	면 (1,347)	9.9	25.1	21.6	19.1	13.6	7.7	3.1
영농 여부	농어가 ( 618)	8.2	24.0	25.1	17.6	10.8	10.7	3.6
	비농어가 (1,949)	8.7	28.7	22.6	17.3	11.8	6.2	4.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572)	9.9	31.1	23.5	16.3	8.2	2.3	8.6
	40대 ( 501)	5.1	33.2	18.4	19.1	12.5	10.6	1.1
	50대 ( 583)	7.7	25.3	23.1	20.0	13.2	6.5	4.2
	60대 ( 512)	6.9	26.2	26.3	14.7	13.6	10.1	2.2
	70대 이상 ( 398)	14.6	20.7	24.9	16.5	9.9	7.7	5.6
희망 문화 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234)	1.5	5.2	13.4	34.6	32.7	7.4	5.0
	문화예술 참여활동 ( 277)	4.7	37.2	37.0	20.0	1.2		
	스포츠 관람활동 ( 56)	3.5	5.5	14.4	30.0	35.2	9.3	2.2
	스포츠 참여활동 ( 804)	12.6	52.7	24.0	8.4	2.0	0.0	0.3
	관광 ( 445)	1.7	1.1	1.6	14.1	24.9	35.1	21.5
	취미오락활동 ( 359)	5.9	21.7	39.9	27.4	4.1	1.0	
	사회활동 ( 173)	8.2	22.9	26.9	10.0	30.1	1.8	
	휴식 ( 198)	22.1	19.8	32.0	23.7	1.2		1.2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 19)	71.0	24.8	1.6	0.9	1.7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 - 추이

- 2014년 대비 '주 2-3회'(+14.5%p) 비율이 높은 반면, '월 1-3회 정도'(-10.8%p) 비율이 감소하여, 2014년에 비해 더 잦은 빈도로 문화·여가활동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임

| 표 1303 - (6) |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2-3개월에 1회 정도	4-6개월에 1회 정도	연 1회 정도
2019년 (2,567)	8.6	27.6	23.2	17.4	11.5	7.3	4.4
2014년 (3,935)	7.5	13.1	20.5	28.2	12.5	8.2	10.0

\* 2014년은 1순위로 선택한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빈도를 조사한 값임

### 실외공간(27.0%), 공공시설(26.1%), 민간시설(24.0%)이 주된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65.3%(n=2,595)]

“유적지/명승지 등 관광지”(7.3%), “산”(5.5%), “공원/유원지”(4.3%) 등 ‘실외공간’(27.0%), “주민 체육센터”(12.1%), “생활문화센터”(5.9%), “시·군청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4.0%) 등 ‘공공시설’(26.1%), “문화센터”(8.1%) 등 ‘민간시설’(24.0%)이 주된 희망 여가활동 장소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마을회관”(4.4%) 등 ‘마을 내 공동시설’(11.4%), ‘자택(집)’(6.5%), “해외”(4.7%) 등 ‘기타’(4.9%) 순이었다.

주된 문화여가활동 장소에 비해 ‘공공시설’(+17.7%p), ‘실외공간’(+10.3%p), ‘민간시설’(+8.0%p) 비율이 높은 반면, ‘자택(집)’(-41.9%p) 비율은 낮았다.

| 그림 1303 - (4) |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65.3%(n=2,595)]

구분	세부사항
자택(집)(6.5%)	
공공시설 (26.1%)	· <b>주민체육센터(12.1%)</b> , 생활문화센터(5.9%), 시군청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4.0%), 문화예술회관(2.7%), 복지회관/복지관 등 복지시설(0.6%), 문화원(0.4%), 도서관(0.1%) 등
마을 내 공동시설 (11.4%)	· 마을회관(4.4%), 경로당, 체육시설(각 3.4%) 등
민간시설 (24.0%)	· 문화센터(8.1%), 영화관(3.5%), 찜질방/목욕탕(2.5%), 공연장(1.7%), 수영장(1.3%), 헬스클럽(0.9%), 당구장(0.6%), 종교시설, 악기연주/노래교실 등 학원, 요가/필라테스(각 0.5%), 음식점, 전시회장(각 0.4%), 골프장(0.3%), 카페, 볼링장(각 0.2%), 탁구장, 배드민턴장(각 0.1%) 등
실외공간 (27.0%)	· 유적지/명승지 등 관광지(7.3%), 산(5.5%), 공원/유원지(4.3%), 야구/축구 등 운동경기장(3.2%), 저수지/강/바다(2.1%), 골프장(1.7%), 캠핑장(0.6%), 마을 주변, 게이트볼장(각 0.4%), 학교운동장, 산책로(각 0.2%), 테니스장(0.1%) 등
기타 (4.9%)	· 해외(4.7%), 가족/친지집(0.2%)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참여활동인 층에서 '공공시설'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문화예술 관람활동, 사회활동, 휴식인 층에서 '민간시설', 농어가,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스포츠 관람활동, 관광인 층에서 '실외공간' 비율이 높았다.

한편, 면지역,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사회활동인 층에서 '마을 내 공동시설' 비율이 높은 반면,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인 층에서 '자택(집)' 비율이 높았다.

| 표 1303 - (7) |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

단위 : %(명)

구분		자택 (집)	공공 시설	마을 내 공동시설	민간 시설	실외 공간	기타
합계 (2,595)		6.5	26.1	11.4	24.0	27.0	4.9
읍/면	읍 (1,235)	5.7	29.4	5.1	27.2	25.1	7.5
	면 (1,361)	7.2	23.2	17.1	21.2	28.8	2.6
영농 여부	농어가 ( 633)	6.2	20.2	14.0	19.4	36.0	4.2
	비농어가 (1,963)	6.6	28.0	10.6	25.5	24.1	5.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568)	8.1	32.1	8.3	25.0	17.9	8.6
	40대 ( 513)	2.8	29.0	7.0	26.3	27.9	7.1
	50대 ( 593)	6.7	26.3	5.1	30.3	28.9	2.7
	60대 ( 520)	5.9	26.8	13.0	20.0	31.9	2.5
	70대 이상 ( 402)	9.7	13.0	28.6	15.7	29.8	3.2
희망 문화 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254)	0.2	29.7	0.4	69.5	0.2	
	문화예술 참여활동 ( 272)	4.7	39.2	22.6	28.3	5.2	
	스포츠 관람활동 ( 57)	2.0			7.4	90.6	
	스포츠 참여활동 ( 811)	1.7	49.7	15.1	20.2	13.3	
	관광 ( 451)					73.4	26.6
	취미오락활동 ( 357)	10.5	19.2	11.0	17.0	41.7	0.6
	사회활동 ( 176)	7.6	9.8	35.7	40.5	3.5	2.9
	휴식 ( 198)	36.0	3.2	4.2	35.4	21.1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 19)	95.5		4.5				

**‘우리 마을 내’(39.3%)가 주된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65.4%(n=2,598)]

희망 하는 문화·여가활동 장소의 위치로 ‘우리 마을 내’(39.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시/군’(21.0%), ‘우리 읍/면 내’(18.1%), ‘우리 시/군 내’(16.9%) 순이었다.

실제 문화·여가활동 장소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다른 시/군’(+13.0%p), ‘우리 읍/면 내’(+8.1%p), ‘우리 시/군 내’(+5.3%p)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 마을 내’(-31.1%p) 비율은 낮았다.

| 그림 1303 - (5) |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면지역, 비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가 마을 내 공동시설인 층에서 '우리 마을 내'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가 실외공간인 층에서 '다른 시/군', 공공시설인 층에서 '우리 읍/면 내', 민간시설인 층에서 '우리 시/군 내' 비율이 높았다.

| 표 1303 - (8) | 희망 문화·여가활동 장소 위치

단위: %(명)

구분		우리 마을 내	우리 읍/면 내	우리 시/군 내	다른 시/군	기타
합계 (2,598)		39.3	18.1	16.9	21.0	4.7
읍/면	읍 (1,240)	35.4	19.9	17.4	19.9	7.4
	면 (1,358)	42.9	16.4	16.4	22.0	2.3
영농 여부	농어가 ( 629)	35.3	16.4	19.0	25.1	4.2
	비농어가 (1,969)	40.6	18.6	16.2	19.7	4.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568)	37.1	17.2	22.9	14.3	8.6
	40대 ( 516)	30.5	22.1	16.6	23.6	7.1
	50대 ( 593)	38.6	14.4	21.4	22.9	2.8
	60대 ( 521)	37.1	24.4	12.4	23.7	2.4
	70대 이상 ( 401)	58.0	11.2	7.8	20.9	2.1
희망 문화·여가 활동 장소	공공시설 ( 678)	45.1	39.3	14.3	1.2	
	마을 내 공동시설 ( 296)	100.0				
	민간시설 ( 622)	28.4	27.2	32.9	11.5	
	실외공간 ( 699)	10.0	4.7	19.2	65.9	0.1
	기타 ( 127)	0.1		0.1	3.8	95.9

## 1304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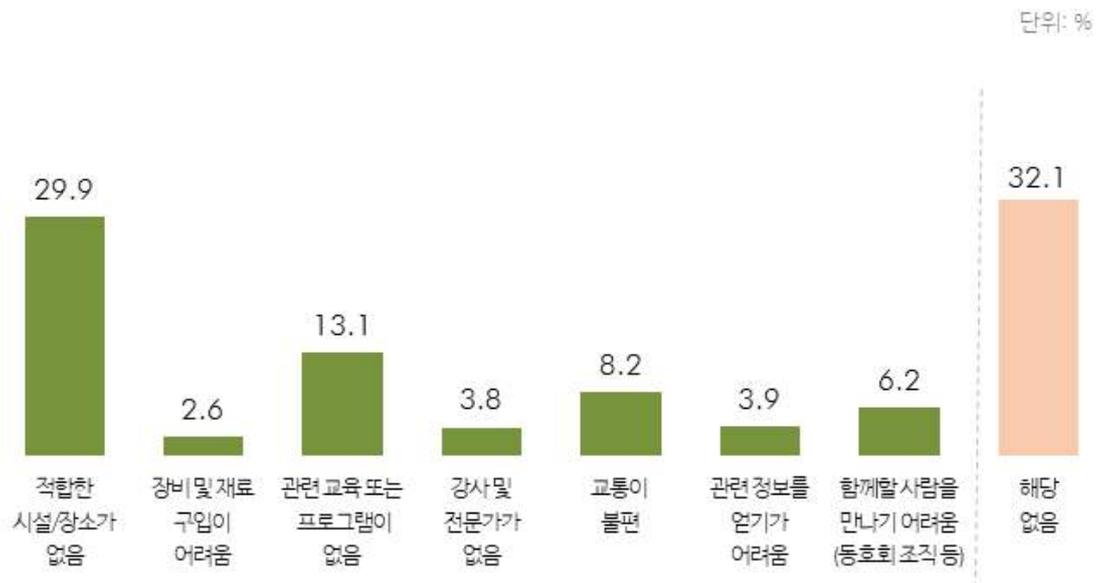
▶ '적합한 시설/장소가 없음'(29.9%)이 주된 지역적 제약요인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지역적 제약요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있는 가구(n=2,611)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4%(n=2,596)]

'적합한 시설/장소가 없음'(29.9%)이 희망 문화·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된 지역적 제약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13.1%), '교통이 불편'(8.2%), '함께 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동호회 조직 등)'(6.2%),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3.9%), '강사 및 전문가가 없음'(3.8%),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움'(2.6%) 순이었다. 한편, '해당 없음'은 32.1%였다.

| 그림 1304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희망 문화·여가 활동이 문화예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휴식인 층에서 '적합한 시설·장소가 없음'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문화예술 참여활동인 층에서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 비율이 높고, 사회활동인 층에서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 비율이 높았다.

한편,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관광, 사회활동, 휴식인 층에서 '해당 없음' 비율이 높았다.

| 표 1304 - (1)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단위 : %(명)

구분		적합한 시설·장소가 없음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움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	강사 및 전문가가 없음	교통이 불편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	해당 없음
합계 (2,596)		29.9	2.6	13.1	3.8	8.2	3.9	6.2	32.1
읍/면	읍 (1,242)	28.7	3.0	11.9	5.0	9.7	3.9	5.1	32.7
	면 (1,354)	31.1	2.2	14.2	2.8	6.8	4.0	7.3	31.6
영농 여부	농어가 ( 629)	25.3	4.5	10.3	2.4	5.9	3.1	7.6	40.9
	비농어가 (1,967)	31.4	1.9	14.0	4.3	8.9	4.2	5.8	29.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564)	36.4	4.2	13.5	6.0	3.8	2.6	2.2	31.3
	40대 ( 516)	33.8	1.5	12.6	3.5	13.7	2.1	1.9	30.9
	50대 ( 595)	28.3	4.4	10.3	3.3	7.2	4.8	8.2	33.6
	60대 ( 518)	26.5	0.8	15.5	3.8	6.3	7.0	11.5	28.7
	70대 이상 ( 403)	22.8	1.4	14.5	2.2	11.1	2.9	7.9	37.2
희망 문화·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258)	48.3		10.8	1.2	8.8	4.6	8.5	17.7
	문화예술 참여활동 ( 276)	12.2	3.9	45.7	7.2	2.5	3.6	5.0	19.9
	스포츠 관람활동 ( 57)	20.7		1.7		46.6		6.1	24.9
	스포츠 참여활동 ( 805)	44.8	4.0	10.0	6.2	5.3	4.8	4.2	20.8
	관광 ( 451)	9.1	0.9	6.8	0.1	13.8	5.2	6.7	57.4
	취미오락활동 ( 356)	20.4	5.0	17.7	7.2	4.2	4.7	7.2	33.6
	사회활동 ( 176)	26.1		5.6		10.0	0.3	15.9	42.1
	휴식 ( 198)	43.6	0.8	0.7		9.8	0.2	2.9	42.1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 19)	2.2	3.0	1.7	4.5				88.6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 추이

- 2014년 대비 '적합한 시설·장소가 없음'(-13.7%p) 비율이 감소한 반면, '해당 없음'+(+9.2%p) 비율은 증가함
- 희망 문화·여가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광층(+32.3%p), 스포츠 관람활동층(+14.7%p), 취미오락 활동층(+14.2%p)에서 '해당 없음' 비율이 증가하고 문화예술 참여활동층(+27.0%p)에서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 비율이 증가한 반면, '적합한 시설·장소가 없음' 비율이 감소함

| 표 1304 - (2)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 추이 단위 : %(명)

구분		적합한 시설·장소가 없음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움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	강사 및 전문가가 없음	교통이 불편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	기타	해당 없음
2019년 (2,596)		29.9	2.6	13.1	3.8	8.2	3.9	6.2		32.1
희망 문화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258)	48.3		10.8	1.2	8.8	4.6	8.5		17.7
	문화예술 참여활동 ( 276)	12.2	3.9	45.7	7.2	2.5	3.6	5.0		19.9
	스포츠 관람활동 ( 57)	20.7		1.7		46.6		6.1		24.9
	스포츠 참여활동 ( 805)	44.8	4.0	10.0	6.2	5.3	4.8	4.2		20.8
	관광 ( 451)	9.1	0.9	6.8	0.1	13.8	5.2	6.7		57.4
	취미오락활동 ( 356)	20.4	5.0	17.7	7.2	4.2	4.7	7.2		33.6
	사회활동 ( 176)	26.1		5.6		10.0	0.3	15.9		42.1
	휴식 ( 198)	43.6	0.8	0.7		9.8	0.2	2.9		42.1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 19)	2.2	3.0	1.7	4.5					88.6	
2014년 (3,933)		43.6	3.9	10.6	4.7	4.4	7.1	2.4	0.4	22.9
희망 문화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 ( 395)	54.2	3.1	10.2	4.3	5.7	8.7	1.0	0.1	12.7
	문화예술활동 ( 265)	45.2	5.2	18.7	9.1	6.0	3.4	2.6		9.8
	스포츠 관람 ( 82)	39.2	8.9	9.2	6.9	12.6	9.7	3.3		10.2
	스포츠활동 ( 794)	57.7	3.3	10.8	4.2	1.8	3.2	3.2	0.1	15.6
	여행 (1,338)	36.6	4.6	10.5	5.4	4.8	10.4	2.3	0.2	25.1
	취미활동 ( 295)	37.5	5.3	13.1	6.2	7.4	5.5	4.8	0.7	19.4
	사회활동 ( 124)	24.5	3.7	14.2	5.7	5.9	7.0	3.0		36.0
휴식 ( 624)	40.8	1.8	5.5	1.2	2.7	6.3	1.1	1.2	39.4	

## 1305 > 동호회 활동 실태

- ▶ 동호회 활동층이 7.8%, 활동층의 참여 동호회 개수는 평균 1.5개
- ▶ 동호회 종류로 '스포츠 참여활동'(47.2%) 비율이 높고, 활동 빈도로 '월1-3회 정도'(28.6%), '주 2-3회'(26.2%), '주 1회 정도'(24.4%) 비율이 높음
- ▶ 동호회 참여 경력은 평균 8년 5개월, 전문성으로 '중급'이 31.0%

### 동호회 활동층이 7.8%, 활동층의 참여 동호회 개수는 평균 1.5개

귀하께서는 현재(2019.9.1. 기준)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동호회(동우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호회 활동 여부 - 조사대상자(n=3,972) 기준 / 활동 동호회 개수 - 동호회 활동층(n=309) 기준]

동호회 활동층이 7.8%로 40대 연령층,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에서 참여율이 높았다. 활동층(n=309)의 활동 동호회 개수로 '1개'(67.5%)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개'(24.4%), '3개'(4.3%), '5개'(3.1%), '4개'(0.6%) 순으로 평균 참여 동호회 개수는 1.5개였다.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1개'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비농어가,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에서 '2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305 - (1) | 동호회 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활동 여부		활동 동호회 개수						
		사례수	활동층	사례수	평균	1개	2개	3개	4개	5개
<b>합계</b>		<b>(3,972)</b>	<b>7.8</b>	<b>(309)</b>	<b>1.5개</b>	<b>67.5</b>	<b>24.4</b>	<b>4.3</b>	<b>0.6</b>	<b>3.1</b>
읍/면	읍	(1,763)	7.9	(140)	1.6개	69.8	17.6	4.9	0.8	6.9
	면	(2,209)	7.7	(169)	1.4개	65.6	<b>30.2</b>	3.9	0.4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7.3	( 73)	1.2개	<b>82.5</b>	12.3	3.7	0.8	0.8
	비농어가	(2,977)	7.9	(236)	1.5개	62.9	<b>28.2</b>	4.6	0.5	3.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8.1	( 58)	<b>1.9개</b>	53.3	<b>31.0</b>			<b>15.7</b>
	40대	( 701)	<b>11.3</b>	( 79)	1.3개	75.4	18.0	6.6		
	50대	( 855)	9.5	( 81)	1.4개	69.8	23.5	4.5	1.5	0.7
	60대	( 792)	9.4	( 74)	1.4개	63.6	<b>31.6</b>	4.1	0.7	
	70대 이상	( 901)	1.7	( 16)	1.2개	<b>89.4</b>	4.9	5.8		
문화·여가 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경험층	( 411)	<b>20.5</b>	( 84)	1.5개	59.7	<b>30.6</b>	9.1	0.6	
	비경험층	(3,561)	6.3	(225)	1.5개	<b>70.4</b>	22.2	2.6	0.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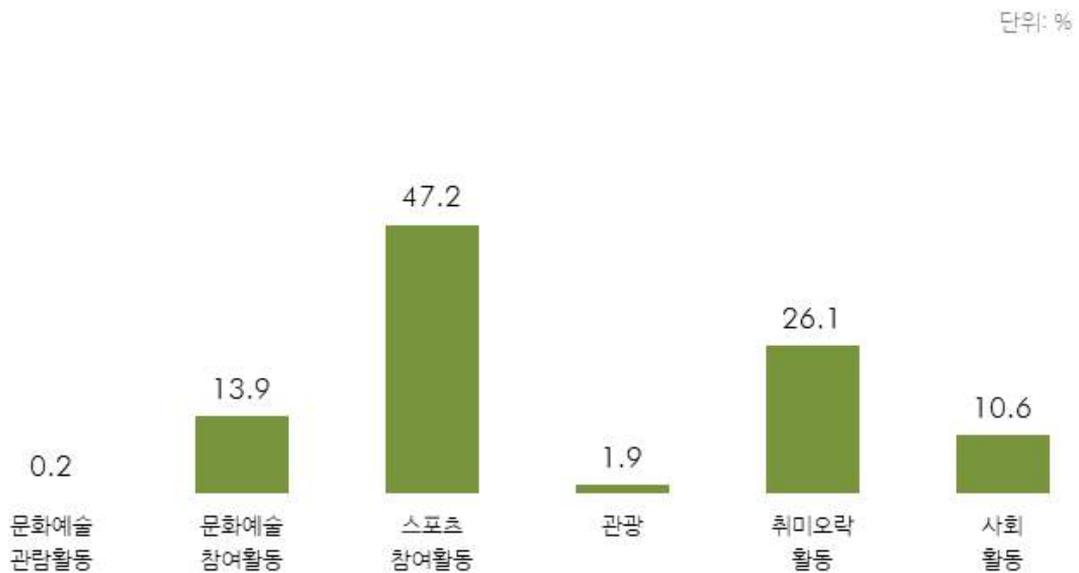
**동호회 종류로 '스포츠 참여활동'(47.2%) 등 비율이 높음**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신 동호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개방형 질문 - 동호회 활동층(n=309)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5.1%(n=294)]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로 “농구/배구/야구/축구/족구”(12.7%), “배드민턴/줄넘기/스트레칭/체조/홀라후프”(11.6%), “볼링/탁구”(6.5%) 등 ‘스포츠 참여활동’(47.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등산”(9.2%), “독서/만화책(웹툰) 보기”(7.0%) 등 ‘취미오락활동’(26.1%), “악기연주/노래교실 등 학원”(5.9%) 등 ‘문화예술 참여활동’(13.9%), “사회봉사활동”(9.9%) 등 ‘사회활동’(10.6%), ‘관광’(1.9%), ‘문화예술 관람활동’(0.2%) 순이었다.

| 그림 1305 - (1) |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



## ▶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동호회 활동층(n=309)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5.1%(n=294)]

구분	세부사항
문화예술 관람활동 (0.2%)	· 영화관람(0.2%)
문화예술 참여활동 (13.9%)	· 악기연주/노래교실 등 학원(5.9%), 전통예술 배우기(4.2%), 미술활동(2.2%), 글짓기/독서토론(0.4%) 등
스포츠 참여활동 (47.2%)	· 농구/배구/야구/축구/족구(12.7%), 배드민턴/줄넘기/스트레칭/체조/홀라후프(11.6%), 볼링/탁구(6.5%), 댄스스포츠(4.3%), 골프(2.7%), 게이트볼(1.7%), 스노보드/스키 등(1.6%), 테니스/스쿼시(1.5%), 당구/포켓볼, 수영(각 1.2%), 헬스/에어로빅, 육상/조깅/속보(각 0.8%), 사이클링/산악자전거(0.5%) 등
관광 (1.9%)	· 문화유적방문(1.4%) 등
취미오락활동 (26.1%)	· 등산(9.2%), 독서/만화책(웹툰) 보기(7.0%), 반려동물 돌보기(3.4%), 어학기술 자격증 공부/강의/강연 등 참여(2.9%), 낚시(1.9%), 요리하기/다도, 원예(각 0.5%), 바둑/장기/체스, 음주(각 0.2%), 생활공예, 미용(각 0.1%) 등
사회활동 (10.6%)	· 사회봉사활동(9.9%), 종교활동(0.5%), 이웃·친구와의 교제 및 동호회 모임(0.3%)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 여성,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에서 '문화예술 참여활동' 비율이 높은 반면, 비경험층에서 '취미오락활동' 비율이 높았다.

한편, 비농어가, 남성,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스포츠 참여활동'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50대 연령층에서 '사회활동' 비율이 높았다.

| 표 1305 - (2) |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

단위 : %(명)

구분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	취미오락 활동	사회 활동
합계 (294)		0.2	13.9	47.2	1.9	26.1	10.6
읍/면	읍 (139)		9.6	47.9	3.0	24.9	14.6
	면 (155)	0.4	17.8	46.7	0.9	27.2	7.1
영농 여부	농어가 ( 72)	0.6	25.1	27.1	1.7	34.0	11.4
	비농어가 (222)	0.1	10.2	53.7	2.0	23.6	10.4
응답자 성	남성 (148)	0.1	7.7	58.0	2.9	21.6	9.7
	여성 (146)	0.3	20.1	36.3	0.9	30.8	1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58)			58.9		35.1	6.0
	40대 ( 79)	0.2	15.5	57.4	4.9	15.7	6.4
	50대 ( 81)	0.6	18.1	30.9	0.2	27.6	22.7
	60대 ( 61)		19.3	47.9	2.1	25.0	5.7
	70대 이상 ( 15)		14.9	35.9	2.5	40.2	6.6
문화여가 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경험층 ( 73)	0.2	33.1	40.2	2.2	10.5	13.8
	비경험층 (221)	0.2	7.6	49.6	1.8	31.3	9.6

 동호회 활동 여부 및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 - 추이

- 2014년 대비 동호회 활동층(-1.9%p) 및 활동층의 활동 동호회 개수(평균 -0.1개)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림 1305 - (2) | 동호회 활동 여부



- 2014년 대비 '취미오락활동'(+17.6%p) 비율이 높은 반면, '문화예술 관람활동'(-7.9%p), '스포츠 참여활동'(-5.4%p) 비율은 낮음

| 표 1305 - (3) |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 - 추이 단위: %(명)

구분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	취미오락 활동	사회 활동	기타
2019년 (294)	0.2	13.9		47.2	1.9	26.1	10.6	
2014년 (381)	8.1	12.4	1.9	52.6	3.2	8.5	11.5	1.7

**활동 빈도로 '월1-3회 정도'(28.6%), '주 2-3회'(26.2%), '주 1회 정도'(24.4%) 비율이 높음**

그 동호회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동호회 활동층(n=309)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0%(n=306)]

동호회 활동 참여 빈도로 '월 1-3회 정도'(28.6%), '주 2-3회'(26.2%), '주 1회 정도'(24.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 4회 이상'(10.5%), '2-3개월에 1회 정도'(7.8%), '4-6개월에 1회 정도'(2.1%), '연 1회 정도'(0.4%) 순이었다.

비농어가에서 '주 1회 정도' 비율이 높고, 읍지역에서 '주 4회 이상'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 '2-3개월에 1회 정도' 비율이 높았다.

| 표 1305 - (4) | 동호회 참여 빈도 단위 :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2-3개월에 1회 정도	4-6개월에 1회 정도	연 1회 정도
합계 (306)		10.5	26.2	24.4	28.6	7.8	2.1	0.4
읍/면	읍 (138)	16.3	24.7	24.0	26.5	4.9	3.4	0.3
	면 (168)	5.7	27.5	24.8	30.3	10.1	1.1	0.4
영농 여부	농어가 ( 71)	9.3	27.1	13.4	27.1	21.1	0.5	1.5
	비농어가 (235)	10.9	26.0	27.7	29.0	3.8	2.6	

**동호회 참여 빈도 - 추이**

- 2014년 대비 '주 2-3회'(11.7%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주 1회 정도'(-6.4%p), '주 4회 이상'(-4.0%p) 비율은 감소함

| 표 1305 - (5) | 동호회 참여 빈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2-3개월에 1회 정도	4-6개월에 1회 정도	연 1회 정도
2019년 (306)	10.5	26.2	24.4	28.6	7.8	2.1	0.4
2014년 (382)	14.5	14.5	30.8	25.8	9.7	2.6	2.1

## 동호회 참여 경력은 평균 8년 5개월

귀하께서는 그 동호회 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동호회 활동층(n=309)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0%(n=306)]

동호회 활동의 참여 경력으로 '3-5년 미만'(23.9%), '1-3년 미만'(17.4%), '1년 미만'(5.1%) 등 [5년 미만] 비율이 46.4%로 절반가량을 차지한 가운데, 다음으로 '5-10년 미만'(18.4%), '10-20년 미만'(17.1%), '20-30년 미만'(11.8%), '30년 이상'(6.2%) 순으로 평균 8년 5개월 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읍지역, 농어가에서 평균 참여 기간이 길었다.

| 표 1305 - (6) | 동호회 참여 경력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306)		8년 5개월	5.1	17.4	23.9	18.4	17.1	11.8	6.2
읍/면	읍 (138)	10년	7.4	19.3	12.5	16.8	19.1	14.4	10.3
	면 (168)	7년 2개월	3.1	15.8	33.3	19.6	15.5	9.7	2.9
영농 여부	농어가 ( 71)	10년 11개월	2.9	12.3	21.6	12.8	25.5	9.2	15.6
	비농어가 (235)	7년 8개월	5.7	18.9	24.7	20.0	14.6	12.6	3.4

### 동호회 참여 경력 - 추이

- 2014년 대비 '5년 이상'+15.5%p), '3-5년 미만'+5.6%p) 비율이 증가한 반면, '1-3년 미만'(-11.0%p), '1년 미만'(-10.1%p) 비율이 감소함

| 표 1305 - (7) | 동호회 참여 빈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2019년 (306)	5.1	17.4	23.9	53.6
2014년 (383)	15.2	28.4	18.3	38.1

\* 2014년은 폐쇄형 질문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지 않음

\*\* 2014년 '1년 미만'은 '6개월 미만'(6.5%), '6개월-1년 미만'(8.7%)의 합임

 전문성으로 '중급'이 31.0%

그 동호회 활동에 있어 귀하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회 활동층(n=309)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8.7%(n=305)]

동호회 활동의 전문성으로 '중급'(31.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준전문가 수준'(22.3%), '전문가 수준'(20.7%), '초급'(16.8%) 순이었다.

읍지역, 참여 경력 5년 미만층에서 '초급' 비율이 높은 반면, 5년 이상층에서 '중급' 이상 비율이 높았다.

| 표 1305 - (8) | 동호회 활동 전문성

단위 : %(명)

구분		초급	중급	준전문가 수준	전문가 수준	해당 없음
합계 (305)		16.8	31.0	22.3	20.7	9.3
읍/면	읍 (138)	23.8	24.7	22.8	18.9	9.9
	면 (168)	11.0	36.2	21.8	22.1	8.9
영농 여부	농어가 ( 71)	15.9	41.5	16.4	17.2	9.1
	비농어가 (234)	17.0	27.8	24.1	21.7	9.4
동호회 참여 경력	5년 미만 (142)	35.7	26.4	18.9	11.8	7.3
	5년 이상 (163)	0.3	35.1	25.3	28.2	11.1

 동호회 활동 전문성 - 추이

- 2014년 대비 '전문가 수준'(+13.3%p), '준전문가 수준'(+9.8%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중급'(-24.9%p) 비율이 감소하여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표 1305 - (9) | 동호회 활동 전문성 - 추이

단위 : %(명)

구분	초급	중급	준전문가 수준	전문가 수준	해당 없음
2019년 (305)	16.8	31.0	22.3	20.7	9.3
2014년 (383)	19.6	55.9	12.5	7.4	4.6

## 1306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층'이 50.8%, '영화'(35.8%), '축제'(26.8%) 관람층 비율이 높음
- ▶ 관람 횟수는 평균 5.6회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층'이 50.8%, '영화'(35.8%), '축제'(26.8%) 관람층 비율이 높음

귀하께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관람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나 스포츠를 모두 골라주십시오

[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중복응답 : 프로그램별 각 100.0% ]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하나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관람 경험층'이 50.8%였으며, 프로그램별로는 '영화'(35.8%), '축제'(26.8%) 관람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시회'(6.4%), '스포츠'(5.6%), '연극, 무용 공연'(4.9%), '대중음악, 연예'(3.4%), '전통예술공연'(2.7%), '문학행사'(2.5%), '서양음악 공연'(1.9%) 순이었다.

읍지역,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관람 경험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비농어에서 '영화'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에서 '축제' 비율이 높았다.

| 표 1306 - (1)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단위 : %(명)

구분		관람 경험층	문학 행사	전시회	서양 음악 공연	전통 예술 공연	연극, 무용 공연	영화	대중 음악, 연예	스포츠	축제
합계 (3,972)		50.8	2.5	6.4	1.9	2.7	4.9	35.8	3.4	5.6	26.8
읍/면	읍 (1,763)	58.5	3.3	8.4	3.1	3.4	7.6	47.2	3.8	8.0	29.8
	면 (2,209)	44.6	1.8	4.8	0.9	2.1	2.8	26.7	3.2	3.7	24.4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47.5	2.1	2.6	0.5	2.9	1.4	21.3	1.4	2.1	35.5
	비농어가 (2,977)	51.9	2.7	7.7	2.3	2.6	6.1	40.7	4.1	6.8	23.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89.7	1.8	14.2	2.5	1.6	10.9	78.5	6.5	14.8	37.3
	40대 ( 701)	69.5	7.3	11.2	6.0	4.2	10.5	63.7	6.1	9.4	29.9
	50대 ( 855)	44.9	1.1	3.2	0.8	1.7	3.4	28.8	3.0	4.9	24.3
	60대 ( 792)	39.2	2.2	5.0	0.6	4.6	1.4	17.7	2.5	0.9	25.7
	70대 이상 ( 901)	20.9	0.9	0.7	0.3	1.6	0.3	2.6	0.2	0.2	19.2

 **관람 횟수는 평균 5.6회**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총 몇 회입니까?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층(n=2,018)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4%(n=2,006)]

농어촌 주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횟수로 '4·5회'(22.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10회'(19.3%), '1회'(17.8%), '2회'(16.1%), '3회'(12.6%), '11회 이상'(11.5%) 순으로 연 평균 관람 횟수는 5.6회였다.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평균 관람 횟수가 더 많았다.

| 표 1306 - (2)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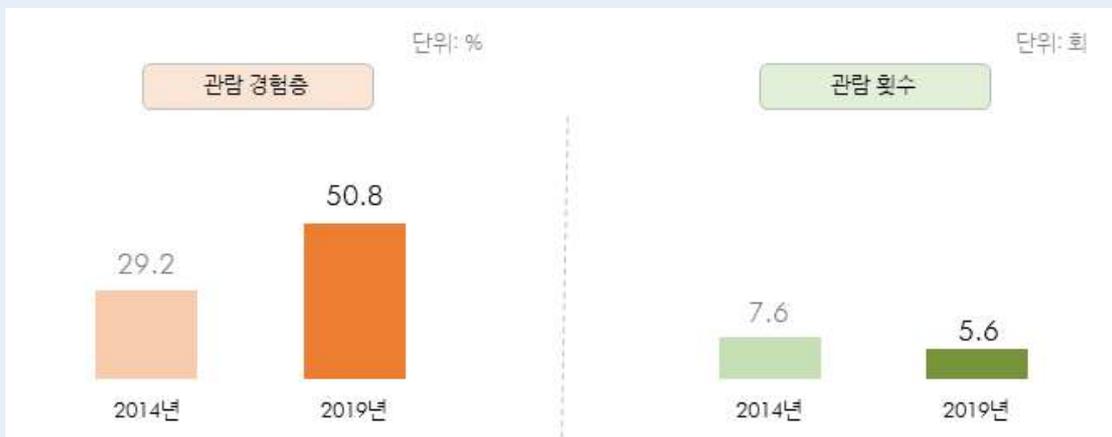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1회	2회	3회	4·5회	6·10회	11회 이상
합계 (2,006)		5.6회	17.8	16.1	12.6	22.7	19.3	11.5
읍/면	읍 (1,020)	6.6회	11.4	10.9	10.6	25.5	25.7	15.9
	면 ( 986)	4.5회	24.5	21.4	14.8	19.8	12.6	6.9
영농 여부	농어가 ( 472)	3.4회	28.1	27.7	14.2	18.2	9.3	2.4
	비농어가 (1,533)	6.3회	14.7	12.5	12.2	24.1	22.4	14.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637)	7.6회	8.3	10.1	15.0	22.1	26.6	17.9
	40대 ( 487)	6.6회	8.6	8.7	9.9	31.0	26.4	15.3
	50대 ( 381)	4.0회	22.2	22.1	13.6	24.7	11.1	6.2
	60대 ( 310)	3.9회	24.2	28.9	13.4	17.1	11.6	4.8
	70대 이상 ( 188)	2.2회	54.7	22.2	8.6	7.9	5.3	1.3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 추이

- 항목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2014년 대비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층이 증가(+21.0%p)한 반면, 경험층의 평균 관람 횟수는 약간 감소함(평균 -2.0회)

| 그림 1306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 추이



\* 2019년에 '박물관 관람' 항목이 제외되고 '문학행사', '축제' 항목이 추가됨

\*\* 2014년 경우, 프로그램별 관람횟수를 측정하여 총 관람 횟수와 관람 경험률을 산출한 결과임

## 1307 > 체육활동 경험

▶ 체육활동 경험층이 45.3%, '걷기'(46.5%), '체력단련운동'(35.0%)이 주된 체육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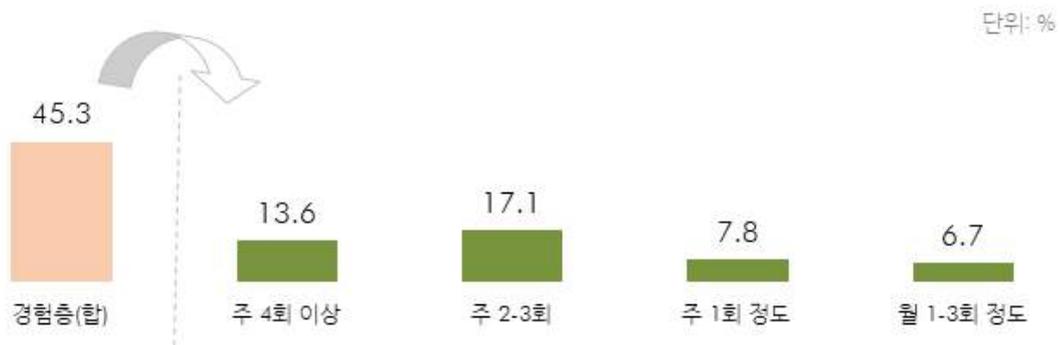
### ☞ 체육활동 경험층이 45.3%

귀하께서는 지난 1개월 동안 여가시간에 30분 이상 체육활동(일상생활의 걷기 제외)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조사대상자(n=3,972)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8%(n=3,962)]

지난 1개월 간 체육활동 횟수로 '주 2-3회'(17.1%), '주 4회 이상'(13.6%)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 1회 정도'(7.8%), '월 1-3회 정도'(6.7%) 순으로 체육활동 경험층이 45.3%였다.

| 그림 1307 - (1) | 체육활동 경험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경험층 비율이 높았다.

| 표 1307 - (1) | 체육활동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층(합)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비경험층(합)
합계 (3,962)		45.3	13.6	17.1	7.8	6.7	54.7
읍/면	읍 (1,763)	49.2	15.9	19.8	7.9	5.5	50.8
	면 (2,199)	42.2	11.8	14.9	7.8	7.7	57.8
영농 여부	농어가 ( 992)	36.5	13.1	12.3	4.9	6.2	63.5
	비농어가 (2,971)	48.2	13.8	18.7	8.8	6.9	5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16)	51.3	10.9	22.4	10.9	7.1	48.7
	40대 ( 701)	56.0	15.2	23.6	6.3	11.0	44.0
	50대 ( 855)	48.7	14.7	19.6	7.9	6.4	51.3
	60대 ( 790)	46.8	17.7	13.2	9.3	6.6	53.2
	70대 이상 ( 899)	27.7	10.0	8.8	5.3	3.5	72.3

**‘걷기’(46.5%), ‘체력단련운동’(35.0%)이 주된 체육활동**

귀하께서 주로 하는 체육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체육활동 경험층(n=1,795)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9%(n=1,793)]

‘걷기’(46.5%), “헬스”(13.2%), “요가/필라테스/태보”(6.7%), “자전거/사이클/산악자전거”(4.6%) 등 ‘체력단련운동’(35.0%)이 주된 체육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축구/풋살”(2.9%) 등 ‘구기 운동’(6.4%), “배드민턴”(2.0%) 등 ‘라켓 운동’(4.0%), ‘무도/격투기’(0.2%), ‘레저스포츠’(0.0%) 순이었다. 한편, “등산”(5.6%) 등 ‘기타’는 8.0%였다.

| 그림 1307 - (2) | 주된 체육활동 종류



먼지역, 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걷기’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체력단련 운동’ 비율이 높았다.

| 표 1307 - (2) | 주된 체육활동 종류

단위 : %(명)

구분		구기 운동	라켓 운동	무도/ 격투기	체력단련 운동	레저 스포츠	걷기	기타
합계 (1,793)		6.4	4.0	0.2	35.0	0.0	46.5	8.0
읍/면	읍 ( 862)	5.4	4.6	0.3	41.8		39.9	7.9
	면 ( 931)	7.3	3.5		28.6	0.0	52.5	8.1
영농 여부	농어가 ( 360)	4.0	4.9		22.9	0.0	59.0	9.1
	비농어가 (1,433)	7.0	3.8	0.2	38.0		43.3	7.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372)	12.6	1.1		57.0		26.7	2.6
	40대 ( 390)	7.5	6.2	0.8	44.7		34.6	6.3
	50대 ( 411)	4.0	5.6		22.7	0.0	56.5	11.2
	60대 ( 370)	4.2	4.5		24.5		55.3	11.6
	70대 이상 ( 249)	2.8	1.4		22.9		64.9	8.0

 주된 체육활동 종류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체육활동 경험층(n=1,795)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9%(n=1,793)]

구분	세부사항
구기 운동 (6.4%)	· 축구/풋살(2.9%), 골프(그라운드, 파크 포함)(1.7%), 족구(0.8%), 당구/포켓볼(0.4%), 게이트볼(0.3%), 볼링(0.2%), 배구(0.1%)
라켓 운동 (4.0%)	· 배드민턴(2.0%), 탁구(1.8%), 테니스(0.2%)
무도/격투기 (0.2%)	· 유도(0.2%)
체력단련운동 (35.0%)	· 헬스(13.2%), 요가/필라테스/태보(6.7%), 자전거/사이클/산악자전거(4.6%), 수영, 댄스스포츠(각 3.0%), 체조(맨손체조, 생활체조)(2.2%), 줄넘기(0.6%), 마라톤(0.4%) 등
레저스포츠 (0.0%)	· 암벽등반(0.0%)
걷기(46.5%)	
기타 (8.0%)	· 등산(5.6%), 낚시(2.0%) 등

 **체육활동 경험 - 추이**

- 2014년 대비 체육활동 경험층이 증가함(+19.3%p)

| 그림 1307 - (3) | **체육활동 경험 - 추이**



- 2014년 대비 '걷기'+16.1%p), '체력단련 운동'+7.2%p), '기타'+7.6%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레저스포츠'(-17.3%p), '구기운동'(-5.8%p) 비율이 감소함

| 표 1307 - (3) | **주된 체육활동 종류 - 추이**

단위: %(명)

구분	구기 운동	라켓 운동	무도/ 격투기	체력단련 운동	레저 스포츠	걷기	기타
2019년 (1,793)	6.4	4.0	0.2	35.0	0.0	46.5	8.0
2014년 (1,023)	12.2	8.5	1.0	27.8	17.3	30.4	0.4

\* 2019년에 '리듬스포츠' 항목이 삭제됨

\*\* 2014년에는 "등산"이 '레저스포츠'로 분류되었으나, 2019년에는 '기타'로 분류가 변경됨(2018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 분류 참고)

## 1308 > 관광 경험

▶ 관광 경험층이 54.2%, 농어촌 주민의 평균 경험횟수는 1.8회

 **관광 경험층이 54.2%**

귀하께서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국내 또는 국외를 관광을 목적으로 여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대상자(n=3,972) 기준]

관광 경험층이 54.2%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관광 경험층’(38.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내+국외 관광 경험층’(10.7%), ‘국외 관광 경험층’(4.7%) 순이었다.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광 경험률이 높았다.

| 표 1308 - (1) | 관광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관광 경험층	국내+국외 관광 경험층	국내 관광 경험층	국외 관광 경험층	비경험층
합계 (3,972)		54.2	10.7	38.8	4.7	45.8
읍/면	읍 (1,763)	55.7	12.9	38.9	4.0	44.3
	면 (2,209)	53.0	8.9	38.8	5.3	47.0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53.0	11.0	36.1	5.9	47.0
	비농어가 (2,977)	54.6	10.6	39.7	4.3	45.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74.8	16.4	54.6	3.8	25.2
	40대 ( 701)	57.8	16.0	39.1	2.7	42.2
	50대 ( 855)	55.8	9.3	40.9	5.6	44.2
	60대 ( 792)	50.8	9.9	31.9	9.0	49.2
	70대 이상 ( 901)	36.4	3.9	30.1	2.4	63.6

### 관광 경험 - 추이

- 2014년 대비 관광 경험층이 증가함(+9.2%p)

| 그림 1308 - (1) | 관광 경험 여부 - 추이



**농어촌 주민의 평균 관광 횟수는 1.8회**

[조사대상자(n=3,972) 기준]

‘1회’(17.0%), ‘4회 이상’(15.5%), ‘2회’(14.1%), ‘3회’(7.7%) 등 평균 관광 횟수는 1.8회였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내 관광 평균 횟수가 많았다.

| 표 1308 - (2) | 관광 횟수

단위: %(명)

구분	평균	비경험층	경험층				
			1회	2회	3회	4회 이상	
<b>합계 (3,972)</b>	<b>1.8회</b>	<b>45.8</b>	<b>17.0</b>	<b>14.1</b>	<b>7.7</b>	<b>15.5</b>	
읍/면	읍 (1,763)	2.1회	44.3	12.7	12.5	9.4	21.1
	면 (2,209)	1.6회	47.0	20.4	15.4	6.3	10.9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1.3회	47.0	22.4	13.5	6.7	10.4
	비농어가 (2,977)	2.0회	45.4	15.2	14.3	8.0	17.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3.2회	25.2	10.2	15.7	12.5	36.4
	40대 ( 701)	2.8회	42.2	8.3	15.5	13.8	20.2
	50대 ( 855)	1.5회	44.2	19.9	16.5	7.4	12.0
	60대 ( 792)	1.4회	49.2	22.6	14.0	5.2	9.0
	70대 이상 ( 901)	0.7회	63.6	21.5	9.6	1.5	3.8

**관광 횟수 - 추이**

- 관광 횟수가 2014년과 비슷한 수준(평균 +0.2회)

| 그림 1308 - (2) | 관광 횟수 - 추이



 **국내(59.9%)와 국외(19.0%) 모두 주된 동반자는 '가족·친지'**

[관광 경험층(n=2,154) 기준/ 중복응답 : 동반자 유형별 각 100.0%]

국내 관광 동반자로 '가족·친지'(59.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24.0%), '이웃주민'(15.9%),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4.3%), '혼자'(2.4%), '직장동료'(1.6%)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가족·친지', '친구'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 '이웃주민' 비율이 높았다.

| 표 1308 - (3) | **국내 관광 동반자** 단위 : %(명)

구분		혼자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주민	직장 동료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
<b>합계</b> (2,154)		2.4	<b>59.9</b>	24.0	15.9	1.6	4.3
읍/면	읍 ( 982)	3.4	<b>63.8</b>	<b>29.0</b>	8.8	1.6	3.9
	면 (1,171)	1.5	56.7	19.9	<b>21.7</b>	1.6	4.7
영농 여부	농어가 ( 527)	3.1	46.1	19.5	<b>30.8</b>	1.2	8.1
	비농어가 (1,626)	2.1	<b>64.4</b>	<b>25.5</b>	11.0	1.7	3.1

국외 관광 동반자 역시 '가족·친지'(19.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5.9%), '이웃주민'(1.9%),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1.3%), '직장동료'(0.9%), '혼자'(0.5%)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읍지역에서 '가족·친지' 비율이 높았다.

| 표 1308 - (4) | **국외 관광 동반자** 단위 : %(명)

구분		혼자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주민	직장 동료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
<b>합계</b> (2,154)		0.5	<b>19.0</b>	5.9	1.9	0.9	1.3
읍/면	읍 ( 982)	0.7	<b>22.7</b>	3.8	1.7	0.9	0.8
	면 (1,171)	0.3	16.0	7.7	2.0	0.8	1.6
영농 여부	농어가 ( 527)	0.4	19.9	6.3	4.0	0.4	2.8
	비농어가 (1,626)	0.5	18.8	5.8	1.2	1.0	0.7

## 1309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이 10.3%, 참여한 강좌, 강습회 종류로 '스포츠 참여활동'이 53.3%

📌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이 10.3%, 평균 경험횟수는 1.4회

귀하께서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강좌, 강습회 등에 참여하여 전문인력(강사, 지도자 등)의 지도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여부 : 조사대상자(n=3,972) 기준/ 지도 횟수 : 경험층(n=411) 기준]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강좌, 강습회 등에 참여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층이 10.3%로 나타난 가운데, 전문인력 지도 횟수(n=411)로 '1회'(71.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회'(23.0%), '3회'(4.5%), '5회 이상'(0.5%), '4회'(0.3%) 순으로 평균 지도 횟수는 1.4회였다.

| 표 1309 - (1)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평균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계	(3,972)	10.3	(411)	1.4회	71.6	23.0	4.5	0.3	0.5	
읍/면	읍	(1,763)	11.0	(195)	1.3회	76.9	20.1	3.0		
	면	(2,209)	9.8	(216)	1.4회	66.9	25.5	5.9	0.6	1.0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11.0	(109)	1.4회	67.8	30.3	0.9	1.0	
	비농어가	(2,977)	10.1	(301)	1.4회	73.0	20.3	5.9	0.0	0.7

###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경험 - 추이

- 2014년 대비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 비율이 약간 증가(+2.5%p)

| 그림 1309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여부 - 추이



**참여한 강좌, 강습회 종류로 '스포츠 참여활동'이 53.3%**

[개방형 질문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n=411) 기준/ 중복응답, 100.0% 환산]

참여한 강좌, 강습회 종류로 “요가/필라테스/태보”(21.0%), “배드민턴/줄넘기/스트레칭/체조/홀라후프”(10.3%) 등 ‘스포츠 참여활동’(53.3%) 비율이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어학·기술·자격증 공부, 강의/강연 등 참여”(16.3%) 등 ‘취미오락활동’(24.7%), “악기연주/노래교실”(7.7%) 등 문화예술 참여활동’(19.0%), ‘휴식’(1.7%), ‘사회활동’(1.3%) 순이었다.

읍지역,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스포츠 참여활동’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60대 연령층에서 ‘문화예술 참여활동’, 40대 연령층에서 ‘취미오락활동’ 비율이 높았다.

| 표 1309 - (2) | 참여한 강좌, 강습회 종류

단위 : %(명)

구분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활동	휴식
합계 (411)		19.0	53.3	24.7	1.3	1.7
읍/면	읍 (195)	8.8	61.0	25.3	1.8	3.0
	면 (216)	27.2	47.0	24.2	0.9	0.7
영농 여부	농어가 (109)	22.9	49.7	25.5	0.3	1.5
	비농어가 (301)	17.5	54.6	24.4	1.7	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61)	6.6	78.3	15.1	0.0	0.0
	40대 (111)	13.0	42.8	41.4	2.8	0.0
	50대 ( 58)	20.8	46.4	19.6	0.5	12.5
	60대 ( 94)	29.5	53.0	15.9	1.6	0.0
	70대 이상 ( 86)	21.0	58.3	20.1	0.2	0.0

## 강좌, 강습회 종류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n=411) 기준/ 중복응답, 100.0% 환산]

구분	세부사항
문화예술 참여활동 (19.0%)	· 악기연주/노래교실 등 학원(7.7%), 전통예술 배우기(4.9%), 미술활동(4.8%), 연극(0.9%), 글짓기/독서토론(0.5%), 춤/무용(0.2%)
스포츠 참여활동 (53.3%)	· <b>요가/필라테스/태보(21.0%), 배드민턴/줄넘기/스트레칭/체조/홀라후프(10.3%), 댄스스포츠(7.8%), 수영(7.5%), 헬스/에어로빅(3.6%), 볼링/탁구(1.4%), 골프(1.2%), 당구/포켓볼(0.3%), 궁도(0.1%)</b>
취미오락활동 (24.7%)	· <b>어학·기술·자격증 공부/강의·강연 등 참여(16.3%), 요리하기/다도(3.2%), 생활공예(2.6%), 독서/만화책(웹툰) 보기(1.3%), 경매(0.7%), 인터넷 검색/채팅/1인 미디어 제작/SNS(0.3%), 원예(0.2%)</b>
사회활동 (1.3%)	· 사회봉사활동(1.2%), 종교활동(0.1%)
휴식 (1.7%)	· 명상(1.3%), 안마(0.4%)

## 1310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 '전통놀이'(9.8%) 경험률이 가장 높음
- ▶ '전통예술'(16.1%), '전통의식주'(15.4%), '전통놀이'(14.9%) 향후 참여 의향률이 가장 높음

### '전통놀이'(9.8%) 경험률이 가장 높음

귀하께서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 또는 농촌문화를 활용한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활동 유형별 각 100.0%]

전반적으로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여가활동 참여율이 10% 미만으로 높지 않은 가운데, 율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 고누,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9.8%)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전통놀이' 경험률이 다소 높았다.

| 표 1310 - (1)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통 예술	전통 의식주	전통 무예	공동체 의례	공동체 놀이	전통 놀이
합계 (3,972)		4.1	1.7	1.0	1.4	3.4	9.8
읍/면	읍 (1,763)	5.1	1.9	1.3	1.4	2.8	7.7
	면 (2,209)	3.4	1.6	0.7	1.4	3.8	11.4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5.3	1.1	0.9	1.9	6.2	13.2
	비농어가 (2,977)	3.7	1.9	1.0	1.2	2.4	8.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3.9	1.8	1.1	1.9	3.2	8.6
	40대 ( 701)	6.9	3.0	2.8	1.8	3.5	8.6
	50대 ( 855)	3.6	2.2	0.4	0.9	2.0	6.5
	60대 ( 792)	4.8	1.3	0.3	0.5	3.5	9.5
	70대 이상 ( 901)	2.1	0.6	0.6	1.9	4.6	15.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4.9	1.8	1.2	0.8	2.8	7.7
	선주민 (1,501)	2.9	1.6	0.6	2.4	4.2	13.2

**'전통예술'(평균 72.3점), '전통놀이'(평균 70.7점), '전통의식주'(평균 69.0점) 만족도가 가장 높음**

참여하신 활동에 대해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참여 만족도 : 활동별 참여층에 한해/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  $\chi_i$  = 측정 값]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경험층의 참여 만족도로 농악, 민요, 전통무용, 전통공예, 한국화, 서예, 시조 등 '전통예술'(평균 72.3점), '전통놀이'(평균 70.7점), 한복, 천연염색, 매듭, 음식, 한과 등 만들기, 한옥 짓기 등 '전통의식주'(평균 69.0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동제, 산신제, 당산제, 성황제, 별신굿, 용왕제 등 '공동체의례'(평균 54.1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 그림 1310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만족도



면지역에서 '전통놀이' 만족도가 높은 반면, 비농어가에서 '공동체의례', '공동체놀이'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310 - (2)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전통예술		전통의식주		전통무예		공동체의례		공동체놀이		전통놀이		
	사례수	평균											
<b>합계</b>	<b>(144)</b>	<b>72.3</b>	<b>( 68)</b>	<b>69.0</b>	<b>( 38)</b>	<b>65.6</b>	<b>( 52)</b>	<b>54.1</b>	<b>(131)</b>	<b>63.2</b>	<b>(360)</b>	<b>70.7</b>	
읍/면	읍	( 75)	71.9	( 32)	69.9	( 21)	63.9	( 24)	54.6	( 49)	63.2	(116)	65.4
	면	( 69)	72.6	( 36)	68.3	( 17)	67.7	( 29)	53.7	( 82)	63.2	(244)	<b>73.3</b>
영농 여부	농어가	( 48)	73.2	( 11)	<b>78.3</b>	( 9)	<b>70.2</b>	( 17)	50.9	( 60)	59.2	(124)	69.2
	비농어가	( 96)	71.8	( 57)	67.3	( 29)	64.1	( 36)	<b>55.7</b>	( 72)	<b>66.6</b>	(236)	71.5

**'전통예술'(16.1%), '전통의식주'(15.4%), '전통놀이'(14.9%) 향후 참여의향이 가장 높음**

향후(에도) 다음의 활용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기준/ 활동 유형별 각 100.0%]

만족도가 높았던 '전통예술'(16.1%), '전통의식주'(15.4%), '전통놀이'(14.9%)에서 참여 의향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신밧기, 강강술래, 줄다리기, 거북놀이, 달집태우기 등 '공동체놀이'(8.3%), 씨름, 국궁, 택견, 태권도 등 '전통무예'(5.7%), '공동체의례'(5.5%)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읍지역, 이주민층에서 '전통예술', '전통의식주'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공동체놀이', '전통놀이' 비율이 높았다.

| 표 1310 - (3)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향후 참여 의사

단위 : %(명)

구분		전통 예술	전통 의식주	전통 무예	공동체 의례	공동체 놀이	전통 놀이
합계 (3,972)		16.1	15.4	5.7	5.5	8.3	14.9
읍/면	읍 (1,763)	20.1	19.4	8.3	6.5	9.4	14.2
	면 (2,209)	12.9	12.3	3.7	4.7	7.4	15.5
영농 여부	농어가 ( 995)	16.3	13.0	6.0	6.8	12.1	18.2
	비농어가 (2,977)	16.0	16.2	5.7	5.1	7.0	13.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17.5	19.1	8.5	5.5	8.0	13.0
	40대 ( 701)	22.4	26.3	10.2	7.4	10.9	19.5
	50대 ( 855)	13.2	12.9	5.0	4.7	7.5	13.0
	60대 ( 792)	18.5	14.9	4.2	5.6	9.5	13.9
	70대 이상 ( 901)	10.6	6.9	2.2	4.8	6.4	15.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19.1	18.8	6.6	4.7	8.0	13.8
	선주민 (1,501)	11.0	9.8	4.3	6.9	8.8	16.8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 추이**

- 2018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표 1310 - (4)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 추이

단위: %(명)

구분	전통예술	전통 의식주	전통무예	공동체 의례	공동체 놀이	전통놀이	기타
2019년 (3,972)	4.1	1.7	1.0	1.4	3.4	9.8	
2018년 (2,780)	2.5	1.4	1.0	1.1	2.7	8.7	0.2

- 2018년 대비 '전통의식주'(평균 +4.1점)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공동체의례'(평균 -14.0점), '공동체놀이'(평균 -4.6점) 만족도는 낮아짐

| 표 1310 - (5)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만족도 - 추이

단위: 점(명)

구분	전통예술		전통의식주		전통무예		공동체의례		공동체놀이		전통놀이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2019년	(144)	72.3	(68)	69.0	(38)	65.6	(52)	54.1	(131)	63.2	(360)	70.7
2018년	( 69)	68.7	(38)	64.9	(27)	63.2	(30)	68.1	( 76)	67.8	(243)	74.5

- 2018년 대비 '전통예술'+(7.5%p), '전통의식주'+(4.9%p) 참여 의향률이 증가함

| 표 1310 - (6)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향후 참여 의사 - 추이

단위: %(명)

구분	전통예술	전통 의식주	전통무예	공동체 의례	공동체 놀이	전통놀이	기타
2019년 (3,972)	16.1	15.4	5.7	5.5	8.3	14.9	
2018년 (2,780)	8.6	10.5	3.3	3.1	6.6	15.1	0.2

\* 2018년은 도/농 종합 조사로 농어촌 가구(n=2,780) 기준 수치임

## 1311 >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 ▶ '친교·휴식시설'(24.9%)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62)]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로 “찜질방/목욕탕”(13.6%), “산책로/산림욕장”(4.0%), “공원/유원지”(3.9%) 등 ‘친교, 휴식 시설’(24.9%)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영장”(10.4%), “헬스클럽”(4.8%) 등 ‘실내 체육시설’(18.3%), “영화관”(8.4%)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16.3%), “문화센터”(7.2%) 등 ‘취미활동 시설’(9.7%), ‘실외 체육시설’(3.8%) 순이었다. 한편, ‘필요한 시설이 없음’은 27.2%였다.

### ▶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필요한 (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62)]

구분	세부사항
문화예술 관련 시설 (16.3%)	· 영화관(8.4%), 공연장(2.6%), 전시관(2.0%), 도서관(1.5%), 미술관(0.2%), 박물관(0.1%) 등
실내 체육시설 (18.3%)	· 수영장(10.4%), 헬스클럽(4.8%), 요가/필라테스(0.6%), 당구장/포켓볼장(0.5%), 볼링장, 탁구장(각 0.2%), 스포츠센터, 스포츠댄스(각 0.1%) 등
실외 체육시설 (3.8%)	· 야구/축구 등 운동경기장(2.5%), 게이트볼장(0.5%), 테니스장(0.4%), 골프장, 체육공원(각 0.3%) 등
취미활동 시설 (9.7%)	· 문화센터(7.2%), 동아리활동 공간(1.0%), 악기연주/노래교실 등 학원(0.3%) 등
친교, 휴식 시설 (24.9%)	· 찜질방/목욕탕(13.6%), 산책로/삼림욕장(4.0%), 공원/유원지(3.9%), 마을회관/경로당/마을정자(1.0%), 어린이공원/놀이터/키즈카페(0.6%), 카페(0.5%) 등
필요한 시설이 없음(27.2%)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사회활동, 휴식인 층에서 ‘친교, 휴식 시설’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관람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인 층에서 ‘문화예술 관련 시설’ 비율이 높고, 문화예술 참여활동인 층에서 ‘취미활동 시설’ 비율이 높았다.

한편, 70대 이상 연령층,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인 층에서 ‘필요한 시설 이 없음’ 비율이 높았다.

| 표 1311 - (1) |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단위 : %(명)

구분		문화예술 관련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실외 체육 시설	취미활동 시설	친교, 휴식 시설	필요한 시설이 없음
합계 (3,962)		16.3	18.3	3.8	9.7	24.9	27.2
읍/면	읍 (1,758)	24.3	16.2	3.6	12.2	18.7	25.0
	면 (2,203)	9.9	19.9	3.9	7.6	29.8	28.9
영농 여부	농어가 ( 992)	8.3	20.0	4.9	7.6	32.5	26.7
	비농어가 (2,969)	18.9	17.7	3.4	10.3	22.3	27.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22)	35.6	21.3	5.0	15.2	10.8	11.9
	40대 ( 701)	23.9	25.8	6.0	10.0	15.0	19.3
	50대 ( 851)	14.4	20.4	2.4	13.4	20.6	28.8
	60대 ( 790)	9.9	19.6	3.7	7.0	33.9	26.0
	70대 이상 ( 896)	2.2	6.7	2.5	3.8	39.9	45.1
희망 문화 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258)	59.6	14.3	1.0	7.7	13.5	4.0
	문화예술 참여활동 ( 276)	20.9	18.4	3.7	21.3	25.8	9.9
	스포츠 관람활동 ( 57)	47.5	7.2	16.3	2.0	6.5	20.4
	스포츠 참여활동 ( 812)	13.4	41.5	6.4	14.3	15.8	8.7
	관광 ( 451)	23.3	12.6	4.0	9.3	34.5	16.3
	취미오락활동 ( 362)	24.5	14.2	2.9	14.3	27.6	16.5
	사회활동 ( 176)	7.3	8.8	0.5	9.7	55.9	17.8
	휴식 ( 198)	9.6	6.5	5.5	8.4	49.9	20.1
TV시청및라디오청취 ( 19)	21.7	3.2			27.5	47.5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 추이**

- 문항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2014년 대비 '친교, 휴식시설'(-12.3%p), '취미활동시설'(-7.7%p) 비율이 감소함

| 표 1311 - (2) |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 추이

단위 : %(명)

구분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 시설	취미활동 시설	친교, 휴식 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이 없음
2019년 (3,962)	16.3	22.1	9.7	24.9		27.2
2014년 (3,845)	18.3	21.2	17.4	37.2	5.8	

\* 2014년 '친교, 휴식시설'은 '관광, 오락시설'(9.8%), '친교, 휴식시설'(27.4%) 항목의 합임

\*\* 2019년 '체육시설'은 '실내 체육시설'(18.3%), '실외 체육시설'(3.8%) 항목의 합임

\*\* 2019년 '필요한 시설이 없음' 항목이 추가됨

## 1312>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희망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89.4%(n=3,550)/ 중복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함]

### ▶ '체육활동 지도'(22.2%)가 희망하는 주된 프로그램

'체육활동 지도'(22.2%)가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주된 프로그램이었으며, 다음으로 '영화 상영'(14.1%), '취미활동 교육'(13.8%), '문화예술 교육'(13.7%), '대중음악, 연예 공연'(13.4%), '전통예술 공연'(6.5%), '인문교양 강좌'(4.8%), '서양음악 공연'(4.5%), '이동 도서관'(3.7%), '미술 전시'(3.2%)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화상영', '취미활동 교육'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면지역,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통예술공연', '문화예술 교육' 비율이 높았다.

| 표 1312 - (1) |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단위 : %(명)

구분		미술 전시	서양 음악 공연	전통 예술 공연	대중 음악, 연예 공연	영화 상영	문화 예술 교육	체육 활동 지도	취미 활동 교육	인문 교양 강좌	이동 도서관	기타
합계 (3,550)		3.2	4.5	6.5	13.4	14.1	13.7	22.2	13.8	4.8	3.7	0.0
읍/면	읍 (1,590)	3.3	4.9	3.9	12.9	16.3	10.8	20.7	17.8	5.8	3.7	0.1
	면 (1,960)	3.2	4.3	8.6	13.9	12.4	16.0	23.4	10.5	4.0	3.7	0.0
영농 여부	농어가 ( 878)	2.7	3.9	9.5	13.7	14.3	15.9	23.4	9.8	4.3	2.3	0.1
	비농어가 (2,672)	3.4	4.7	5.5	13.4	14.1	12.9	21.8	15.1	5.0	4.2	0.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09)	4.0	4.7	1.9	15.1	20.4	8.6	20.0	17.2	3.8	4.3	0.0
	40대 ( 645)	4.4	6.2	1.8	10.9	15.4	8.7	23.2	16.2	8.2	5.0	0.1
	50대 ( 787)	2.3	5.7	4.3	13.7	15.5	13.9	22.9	13.0	4.6	4.1	0.0
	60대 ( 722)	4.0	2.6	6.3	12.7	12.9	17.9	22.1	13.7	5.0	2.8	0.1
	70대 이상 ( 686)	1.4	3.5	18.4	14.6	6.1	18.8	22.7	9.0	2.9	2.4	0.0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 추이

- 2014년 대비 '대중음악, 연예 공연'(+4.9%p), '취미활동 교육'(+4.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전통예술공연'(-5.6%p), '서양음악 공연'(-3.8%p) 비율은 감소함

| 표 1312 - (2) |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 추이 단위 : %(명)

구분	미술 전시	서양 음악 공연	전통 예술 공연	대중 음악, 연예 공연	영화 상영	문화 예술 교육	체육 활동 지도	취미 활동 교육	인문 교양 강좌	이동 도서관	기타
2019년 (3,550)	3.2	4.5	6.5	13.4	14.1	13.7	22.2	13.8	4.8	3.7	0.0
2014년 (3,893)	1.8	8.3	12.1	8.5	16.0	11.6	25.3	9.5		1.8	5.2

\* 2014년 '서양음악공연'은 '음악 공연', '대중음악, 연예공연'은 '연예공연', '기타'는 '연극/무용 등 공연' 수치임

\*\* 2019년에 '인문교양강좌' 항목이 추가됨

## 1313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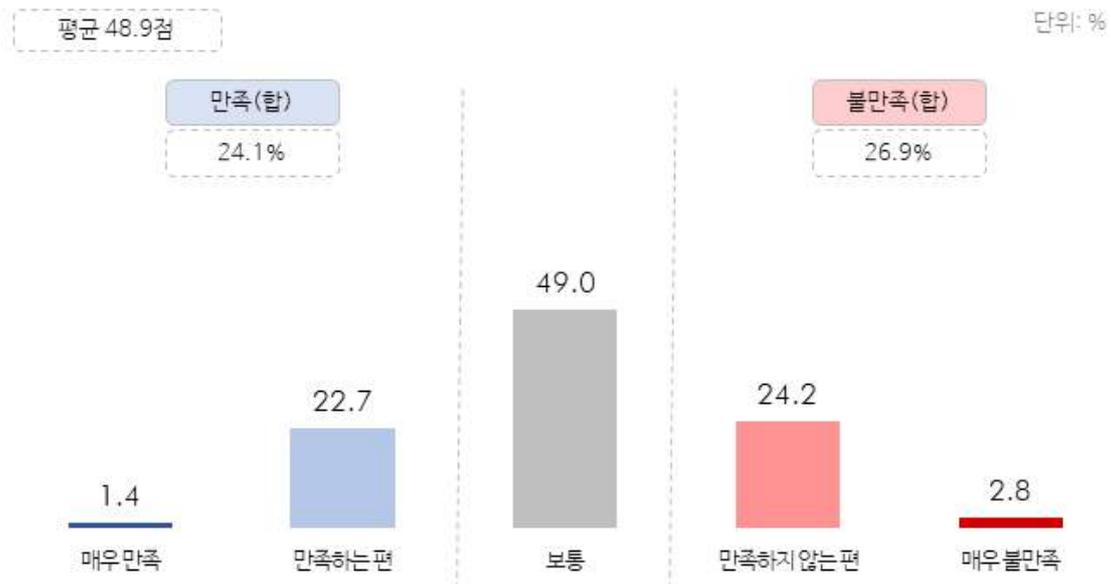
### ▶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평균 48.9점)의 평가

귀하께서는 귀하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7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2%(n=3,939)/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  $\chi_i$  = 측정 값]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평균 48.9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만족하는 편'(22.7%), '매우 만족'(1.4%) 등 만족한다는 층이 24.1%로, '만족하지 않는 편'(24.2%), '매우 불만족'(2.8%) 등 [불만족(합)](26.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보통'이라는 견해가 절반 수준(49.0%)을 차지했다.

| 그림 1313 - (1)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40대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1313 - (1)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1)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만족(합)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매우 불만족	불만족(합)
합계 (3,939)		48.9점	1.4	22.7	24.1	49.0	24.2	2.8	26.9
읍/면	읍 (1,742)	49.0점	1.8	22.0	23.9	49.2	24.2	2.8	26.9
	면 (2,196)	48.9점	1.1	23.2	24.3	48.8	24.1	2.8	27.0
영농 여부	농어가 ( 989)	48.1점	0.9	20.3	21.2	51.8	24.2	2.8	27.0
	비농어가 (2,950)	49.2점	1.6	23.5	25.1	48.0	24.1	2.8	26.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707)	50.0점	1.0	29.7	30.8	41.1	24.5	3.6	28.1
	40대 ( 699)	46.9점	3.4	19.5	22.9	43.4	28.9	4.8	33.7
	50대 ( 850)	48.2점	0.9	20.9	21.8	50.8	24.7	2.7	27.4
	60대 ( 786)	49.3점	1.3	23.4	24.7	48.7	24.5	2.1	26.6
	70대 이상 ( 896)	50.1점	0.7	20.6	21.3	58.1	19.3	1.2	20.6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인 층, 동호회 활동 참여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경험층, 체육활동 경험층,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주된 문화·여가활동이 스포츠 관람활동, 휴식,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인 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1313 - (2)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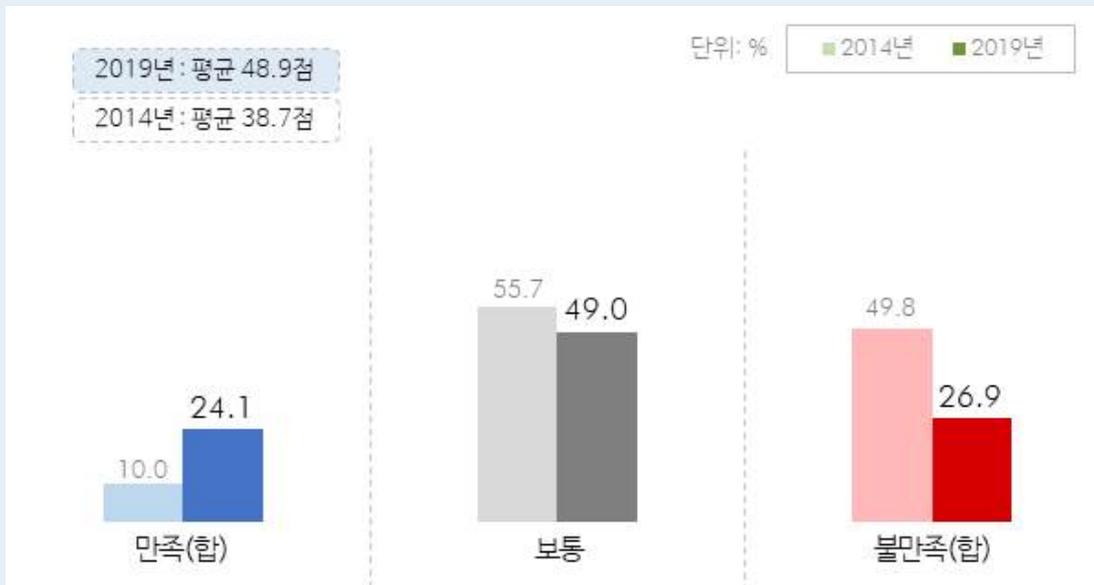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만족(합)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매우 불만족	불만족(합)
합계 (3,939)	48.9점	1.4	22.7	24.1	49.0	24.2	2.8	26.9
주된 문화·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 191)	59.3점	2.3	47.7	50.0	34.8	15.2	15.2
	문화예술 참여활동 ( 125)	60.5점	1.0	51.7	52.6	38.1	6.6	2.6
	스포츠 관람활동 ( 13)	33.5점	2.2	16.5	18.7	29.4	16.6	35.3
	스포츠 참여활동 ( 506)	57.7점	4.8	38.8	43.5	40.1	15.0	1.3
	관광 ( 57)	55.9점	4.0	37.6	41.7	36.1	22.2	
	취미오락활동 ( 505)	51.5점	3.0	27.9	30.9	44.1	22.3	2.7
	사회활동 ( 556)	49.1점	0.7	22.2	22.9	50.9	24.8	1.3
	휴식 ( 534)	44.0점	0.5	13.7	14.2	51.0	30.9	3.9
	TV 시청/라디오 청취 (1,272)	44.4점	0.1	13.1	13.1	54.5	29.0	3.4
동호회 활동 여부	참여층 ( 308)	60.4점	5.1	50.1	55.2	30.6	9.8	4.4
	비참여층 (3,630)	48.0점	1.1	20.3	21.4	50.5	25.4	2.6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경험	경험층 (1,997)	51.3점	2.2	28.1	30.4	45.2	21.5	2.9
	비관람층 (1,942)	46.5점	0.6	17.0	17.6	52.9	26.9	2.6
체육활동 경험	경험층 (1,779)	52.0점	2.6	28.2	30.8	45.8	21.4	2.0
	비경험층 (2,150)	46.4점	0.4	18.1	18.5	51.8	26.2	3.5
문화여가 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지도 경험층 ( 409)	60.3점	5.4	47.1	52.4	33.5	11.4	2.7
	비경험층 (3,530)	47.6점	1.0	19.8	20.8	50.8	25.6	2.8

 문화여가 생활 만족도 - 추이

- 2014년 대비 [불만족(합)] 비율이 감소(-22.9%p)한 반면, [만족(합)] 비율이 증가(+14.1%p)하여 지역의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함(평균 +10.2점)

| 그림 1313 - (2)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추이



## 1314 >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여가 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현 거주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가구(n=3,12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6%(n=3,113)]

▶ [좋아진 편(합)](35.2%) > [나빠진 편(합)](9.3%)

전반적인 문화·여가 여건이 ‘좋아진 편’(33.1%), ‘매우 좋아짐’(2.1%) 등 [좋아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35.2%로, ‘나빠진 편’(8.1%), ‘매우 나빠짐’(1.2%) 등 [나빠진 편(합)](9.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편, ‘보통’이 55.5%로 과거 5년 전과 ‘비슷한 수준’(평균 56.7점)이라는 평가를 보였다.

면지역,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에서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40대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 표 1314 |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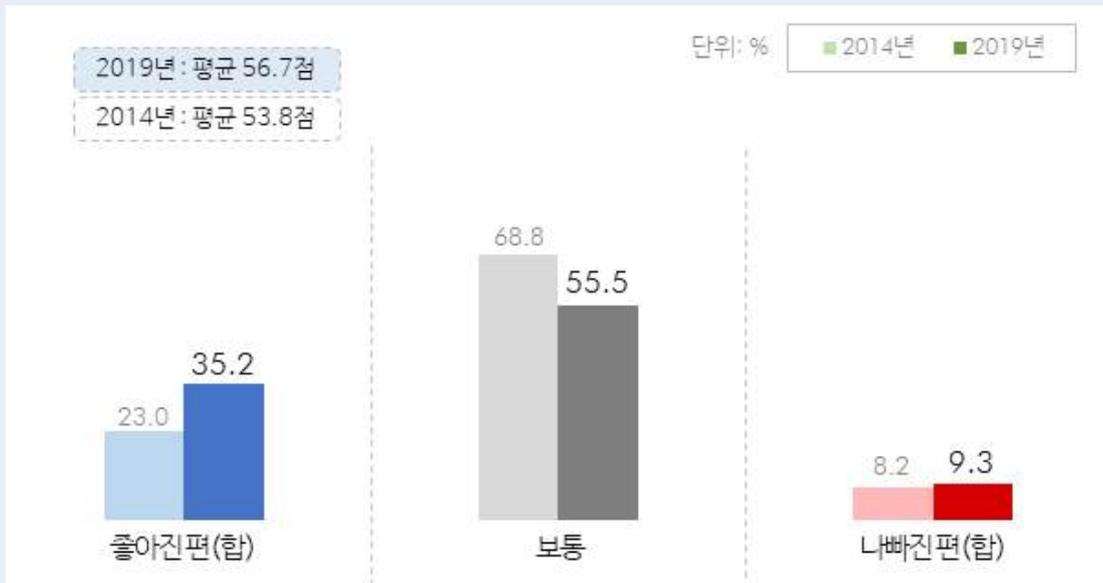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짐	좋아진 편	좋아진 편(합)	보통	나빠진 편	매우 나빠짐	나빠진 편(합)
합계 (3,113)		56.7점	2.1	33.1	35.2	55.5	8.1	1.2	9.3
읍/면	읍 (1,272)	54.4점	1.6	30.7	32.2	54.0	11.3	2.4	13.7
	면 (1,842)	<b>58.3점</b>	2.6	34.8	37.3	56.5	5.8	0.4	6.2
영농 여부	농어가 ( 960)	57.6점	2.1	36.0	38.1	53.1	7.9	0.9	8.8
	비농어가 (2,154)	56.3점	2.2	31.8	34.0	56.6	8.1	1.3	9.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 368)	55.9점	5.2	29.9	35.2	49.2	14.4	1.3	<b>15.7</b>
	40대 ( 522)	<u>53.0점</u>	0.8	26.7	<u>27.4</u>	58.8	11.2	2.6	13.8
	50대 ( 703)	57.6점	1.9	33.2	35.2	58.7	5.5	0.6	6.1
	60대 ( 663)	58.0점	1.8	37.8	39.6	52.0	7.2	1.2	8.4
	70대 이상 ( 856)	57.7점	2.1	34.6	36.7	56.3	6.2	0.8	7.1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지도 경험층 ( 352)	<b>65.5점</b>	6.2	<b>54.2</b>	<b>60.4</b>	35.6	3.7	0.4	4.1
	비경험층 (2,761)	55.6점	1.6	30.4	32.0	<b>58.0</b>	8.6	1.3	9.9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 추이

- 2014년 대비 [좋아진 편(합)] 비율은 증가(+12.2%p)한 반면, [보통] 비율은 감소(-13.3%p)하여 과거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평균 +2.9점)

| 그림 1314 |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 제 2 부 기존통계 활용

2100) 경제활동 부문

2200) 문화·여가 부문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100〉

## 경제활동 부문

---

- 2101> 취업 가구구성원의 업종 및 직종
- 2102> 농가소득 구성
- 2103>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 2104> 영농형태별 농가
- 2105> 노후준비
- 21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 2107> 생활비 지출 항목
- 2108> 소득 및 가계지출
- 2109> 농가의 저축 및 보험
- 2110> 부채 규모
- 2111> 소득 만족도
- 2112> 소비생활 만족도



## 2101 > 취업 가구구성원의 업종 및 직종

▶ 가구주 기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5.1%) 비율이 가장 높음

2017년 기준, 가구주의 직업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5.1%), '단순노무 종사자'(14.8%), '사무 종사자'(14.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4.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2.8%) 비율이 높았다. 가구원의 직업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8.5%), '단순 노무 종사자'(17.2%), '사무 종사자'(17.1%) 비율이 높아 가구주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 표 2101 | 취업 가구구성원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연도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2008	가구주	4.5	13.7	15.0	6.6	9.4	8.3	12.4	14.9	14.7	0.4
	가구원	1.1	21.6	18.7	11.6	13.3	7.5	4.4	3.7	17.9	0.0
2009	가구주	5.2	14.3	14.7	6.3	9.0	7.9	11.9	15.2	15.0	0.6
	가구원	1.3	19.6	18.7	12.1	13.1	6.9	4.7	4.2	19.4	0.0
2010	가구주	5.3	14.1	15.2	6.3	8.9	7.9	12.1	14.8	14.8	0.7
	가구원	1.5	21.3	17.5	13.5	12.7	6.6	4.0	4.0	18.9	0.0
2011	가구주	6.4	15.1	14.5	6.2	9.2	7.3	11.6	15.2	13.9	0.7
	가구원	4.2	17.8	16.6	9.4	10.9	6.5	7.9	10.0	16.3	0.4
2012	가구주	5.9	14.9	13.9	6.9	8.7	7.3	12.1	15.1	14.6	0.6
	가구원	3.9	18.3	16.0	9.7	10.2	6.5	8.1	10.2	16.9	0.3
2013	가구주	5.5	15.0	14.0	6.6	9.3	7.2	13.1	14.9	13.9	0.5
	가구원	4.0	18.5	16.2	9.2	10.1	6.5	8.7	10.3	16.3	0.3
2014	가구주	5.4	15.1	13.8	7.0	9.0	7.2	13.6	15.1	13.4	0.4
	가구원	3.6	18.4	16.1	9.8	9.7	6.8	8.9	10.0	16.3	0.3
2015	가구주	5.5	15.0	14.4	7.0	8.8	7.2	12.8	15.1	13.8	0.5
	가구원	3.6	18.8	16.8	9.8	9.6	6.6	8.5	9.8	16.3	0.3
2016	가구주	5.6	15.4	14.7	7.0	9.2	6.3	12.8	14.4	13.9	0.7
	가구원	3.7	19.0	17.1	9.5	9.8	6.0	8.6	9.3	16.7	0.4
2017	가구주	5.9	15.1	14.4	6.8	9.4	6.0	12.8	14.1	14.8	0.7
	가구원	4.0	18.5	17.1	9.6	9.5	5.7	9.0	9.1	17.2	0.4

자료 :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 2102 > 농가소득 구성

▶ 2018년 농가소득은 4천2백여만원, 이 중 농업소득 비율은 30.7%

2018년 기준, 농가소득은 42,065,828원으로 농업소득(30.7%)에 비해 농외소득(69.3%) 비율이 높았다. 농가소득 중 가처분소득은 34,271,403원이었다.

| 표 2102 | 농가소득 구성

(단위: 원/연간)

구분	농가소득(A)	농업소득(B)		농외소득(C)		농외 소득률 (C/A)	가처분소득
		농업 소득률 (B/A)	농외소득	이전· 비경상소득			
2005	30,503,015	11,815,293	38.7	9,884,433	8,803,288	61.3	23,232,064
2006	32,303,483	12,091,582	37.4	10,037,375	10,174,526	62.6	23,732,975
2007	31,967,420	10,405,729	32.6	11,096,738	10,464,954	67.4	24,429,468
2008	30,522,624	9,654,302	31.6	11,352,588	9,515,734	68.4	23,749,149
2009	30,813,662	9,697,897	31.5	12,127,682	8,988,084	68.5	24,256,962
2010	32,121,000	10,098,000	31.4	12,946,000	9,077,000	68.6	25,712,000
2011	30,148,071	8,752,709	29.0	12,948,896	8,446,466	71.0	24,398,069
2012	31,031,135	9,127,448	29.4	13,585,485	8,318,203	70.6	25,855,378
2013	34,523,966	10,034,697	29.1	15,705,029	8,784,241	70.9	28,443,629
2014	34,950,404	10,303,294	29.5	14,798,905	9,848,205	70.5	28,861,252
2015	37,215,119	11,256,717	30.2	14,938,878	11,019,525	69.8	31,343,404
2016	37,197,421	10,067,559	27.1	15,251,904	11,877,958	72.9	31,147,389
2017	38,239,150	10,046,874	26.3	16,268,554	11,923,722	73.7	32,337,405
2018	42,065,828	12,920,321	30.7	16,952,336	12,193,172	69.3	34,271,403

자료: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2103 >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사유는 '생활비, 용돈을 벌려고'(70.8%)

2018년 기준, 창업 및 취업 희망 사유로 '생활비, 용돈을 벌려고'(70.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자기계발, 자아 발전을 위해'(19.5%) 비율 역시 높았다.

창업 희망 업종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각 24.1%)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 희망 직업으로 '관리자·전문가'(27.2%), '사무 종사자'(23.3%), '서비스·판매 종사자'(22.6%) 비율이 높았다. 희망 직장 일의 고용형태로 '임금근로자'(93.5%) 비율이 '비임금근로자'(6.6%)에 비해 높은 가운데,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전일제"(72.5%) 비율이 "시간제"(21.0%)에 비해 높았다.

| 표 2103 - (1) | 창업·취업 희망 사유

(단위: 천명, %)

연도	계	생활비, 용돈을 벌려고	자기계발, 자아 발전을 위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려고	자녀의 교육비에 보태기 위해	기타
2016	2,496	69.8	20.8	4.8	4.3	0.3
2017	1,899	70.6	18.7	6.3	3.7	0.7
2018	2,317	70.8	19.5	4.9	4.7	0.1

자료: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8년부터는 1년 이내 취업·창업 희망자 중 구체적 활동계획이 있는 경우만 조사

| 표 2103 - (2) | 창업 희망 업종

(단위: 천명, %)

연도	계	광·제조업 및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2016	143	15.4	25.2	21.7	19.6	18.9
2017	119	5.0	24.4	22.7	11.8	36.1
2018	137	6.6	24.1	24.1	10.9	35.0

자료: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8년부터는 1년 이내 취업·창업 희망자 중 구체적 활동계획이 있는 경우만 조사

| 표 2103 - (3) | 취업 희망 직업

(단위: 천명, %)

연도	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 조작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6	2,342	24.4	26.2	24.6	0.6	10.5	13.7
2017	1,767	25.0	26.4	22.8	0.6	12.8	12.3
2018	2,166	27.2	23.3	22.6	0.2	14.0	12.7

자료: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8년부터는 1년 이내 취업·창업 희망자 중 구체적 활동계획이 있는 경우만 조사

| 표 2103 - (4) | 희망 직장 일의 고용형태

(단위: 천명, %)

연도	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일제	시간제			
2016	2,496	93.8	72.6	21.2	6.2	5.7	0.4
2017	1,899	93.0	73.5	19.5	7.0	6.3	0.7
2018	2,317	93.5	72.5	21.0	6.6	5.9	0.6

자료: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8년부터는 1년 이내 취업·창업 희망자 중 구체적 활동계획이 있는 경우만 조사

## 2104> 영농형태별 농가

▶ '논벼'(37.9%) 비율이 가장 높음

2018년 기준, 영농형태로 '논벼'(37.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채소·산나물'(25.0%), '과수'(17.0%), '식량작물'(8.8%), '축산'(5.2%), '특용작물·버섯'(3.9%), '화초·관상작물'(1.1%), '약용작물'(0.8%), '기타작물'(0.5%) 순이었다.

| 표 2104 | 영농형태별 농가

(단위 : 호, %)

연도	농가 수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
2010	1,177,318	44.4	9.9	19.0	2.4	14.5	0.6	1.6	0.8	6.9
2011	1,163,209	43.7	7.8	21.7	2.4	15.1	0.8	1.6	1.1	5.7
2012	1,151,116	42.9	7.8	23.6	2.3	15.1	0.7	1.5	0.6	5.4
2013	1,142,029	41.7	8.7	23.7	2.4	15.4	0.7	1.4	0.5	5.5
2014	1,120,776	42.1	8.8	22.7	2.8	15.8	0.8	1.4	0.4	5.2
2015	1,088,518	41.7	12.7	18.2	3.5	15.8	1.0	1.3	0.9	4.9
2016	1,068,274	38.9	7.2	24.8	4.6	17.0	0.8	1.1	0.6	5.0
2017	1,042,017	38.3	8.7	23.6	4.6	17.2	0.8	1.1	0.5	5.3
2018	1,020,838	37.9	8.8	25.0	3.9	17.0	0.8	1.1	0.5	5.2

자료 :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 2105 &gt; 노후준비

▶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7.5%,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3.7%)

2019년 기준,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7.5%이었으며,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3.7%),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20.1%) 순이었다. 반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32.5%로 '준비능력 없음'(54.5%), '앞으로 준비할 계획'(20.1%), '자녀에게 의탁'(17.5%)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준비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 표 2105 - (1) | 노후준비하고(되어) 있음

(단위 : %)

연도	구분		준비하고(되어)있음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2007	농어촌	65.6	39.7	7.9	14.6	2.8	26.1	8.4	0.5
	도시	74.2	41.4	8.0	16.6	3.9	22.5	6.6	1.1
2009	농어촌	64.3	42.9	8.4	16.6	4.0	22.4	5.1	0.6
	도시	77.8	42.6	7.3	18.0	3.8	20.7	6.3	1.2
2011	농어촌	66.4	51.6	7.9	12.3	2.9	18.7	5.3	1.3
	도시	77.9	55.9	7.1	13.7	2.5	14.5	5.3	1.1
2013	농어촌	60.1	49.0	8.2	9.3	4.3	20.8	6.9	1.5
	도시	75.7	53.1	7.8	11.6	4.6	16.9	5.1	0.9
2015	농어촌	64.9	49.6	8.3	9.3	4.4	21.0	6.6	0.7
	도시	74.3	56.1	8.6	8.9	3.8	17.1	4.9	0.6
2017	농어촌	69.9	53.1	10.7	7.5	3.2	18.7	6.6	0.2
	도시	74.0	57.8	9.1	8.7	4.0	14.9	5.1	0.4
2019	농어촌	67.5	53.7	10.2	6.6	3.2	20.1	5.6	0.5
	도시	73.8	59.7	8.6	7.0	4.3	14.7	5.1	0.7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이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어)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 표 2105 - (2) | 노후준비하고 있지 않음

(단위 : %)

연도	구분		준비하고 있지 않음			
			아직 생각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2007	농어촌	34.4	9.3	25.5	42.0	23.1
	도시	25.8	11.6	33.4	43.0	12.0
2009	농어촌	35.7	7.1	19.5	55.5	18.0
	도시	22.2	9.1	27.9	47.3	15.7
2011	농어촌	33.6	8.7	16.4	57.7	17.1
	도시	22.1	10.7	24.8	50.4	14.1
2013	농어촌	39.9	8.4	18.4	49.2	23.9
	도시	24.3	8.9	26.0	49.9	15.1
2015	농어촌	35.1	7.1	23.8	51.3	17.9
	도시	25.7	10.9	26.2	49.5	13.4
2017	농어촌	30.1	6.8	17.6	52.9	22.3
	도시	26.0	11.4	28.9	48.8	10.9
2018	농어촌	32.5	7.6	20.1	54.5	17.5
	도시	26.2	11.8	29.7	49.6	8.9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이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어)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 21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 농어촌 농어업 경영주의 농업 및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농업 경영주의 농업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8.5%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 미만'(7.0%), '5-10년 미만'(6.2%), '15-20년 미만'(4.5%), '5년 미만'(3.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의 어업 경영주의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4.5%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 미만'(8.6%), '15-20년 미만'(7.1%), '5-10년 미만'(6.0%), '5년 미만'(3.8%)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2106 |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단위: %)

연도	구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2005	농가	3.9	5.3	6.2	3.8	80.8
	농어촌	3.0	4.3	5.3	3.5	84.0
	도시	8.7	10.2	10.6	5.6	64.9
	어가	4.6	7.0	9.8	7.4	71.2
	농어촌	4.3	6.7	9.7	7.5	71.7
	도시	6.1	8.1	9.9	7.0	69.0
2010	농가	5.1	6.6	7.8	4.2	76.4
	농어촌	3.7	4.6	6.4	3.8	81.6
	도시	11.1	14.8	14.0	5.9	54.2
	어가	3.7	5.9	9.5	6.3	74.6
	농어촌	3.4	5.6	9.3	6.2	75.6
	도시	5.0	7.5	10.4	6.7	70.5
2015	농가	4.9	8.0	9.0	5.2	72.9
	농어촌	3.9	6.2	7.0	4.5	78.5
	도시	8.7	14.6	16.5	7.7	52.5
	어가	4.1	6.2	8.8	7.2	73.7
	농어촌	3.8	6.0	8.6	7.1	74.5
	도시	5.3	7.3	9.6	7.6	70.1

자료 :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주 : 어가는 해수면+내수면을 합한 수치임

## 2107 > 생활비 지출 항목

▶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26,033천원으로,  
이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6,047천원) 이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함

2018년 기준,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비지출은 26,033천원으로 이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6,047천원)이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기타 상품 및 서비스'(4,146천원), '감가상각비'(3,790천원), '보건'(2,381천원), '주거 및 수도광열'(1,789천원) 순이었다.

한편, 어가의 연평균 소비지출은 23,333천원으로 농가에 비해 약간 적은 수준이었으며, 세부 지출항목별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56천원), '감가상각비'(3,943천원), '보건'(2,495천원), '기타 상품 및 서비스'(2,232천원) 순으로 농가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 표 2107 - (1) | 생활비 지출 항목(1)

(단위: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농가	어가	농가	어가	농가	어가
소비지출	20,017	18,780	21,264	19,976	22,156	21,14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4,481	4,038	4,788	4,151	5,628	4,320
주류 및 담배	304	461	297	425	294	440
의류 및 신발	549	700	612	747	613	785
주거 및 수도광열	1,606	1,787	1,795	1,970	1,740	2,02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575	630	601	659	597	754
보건	1,943	1,750	2,005	1,960	1,936	2,102
교통	1,250	1,415	1,317	1,612	1,358	1,630
통신	857	1,148	883	1,120	844	1,079
오락_문화	520	551	645	646	570	642
교육	663	486	660	530	685	626
음식_숙박	1,239	1,368	1,263	1,491	1,239	1,6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011	1,771	3,097	1,827	3,133	1,881
감가상각비	3,018	2,674	3,300	2,840	3,520	3,240

자료: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 표 2107 - (2) | 생활비 지출 항목(2)

(단위: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농가	어가	농가	어가	농가	어가
소비지출	22,315	20,399	24,184	21,569	24,466	21,755
식품품 및 비주류 음료	5,699	3,754	5,499	4,353	5,708	4,375
주류 및 담배	298	412	311	404	308	390
의류 및 신발	630	790	722	814	717	799
주거 및 수도광열	1,698	2,009	1,918	2,124	1,769	2,01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583	740	671	749	683	747
보건	1,956	2,012	2,098	2,265	2,154	2,266
교통	1,336	1,665	1,515	1,670	1,504	1,686
통신	844	1,110	1,057	1,207	1,006	1,204
오락_문화	549	669	701	723	805	718
교육	640	495	610	486	560	448
음식_숙박	1,224	1,518	1,464	1,561	1,427	1,555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180	1,812	3,837	1,836	4,064	2,053
감가상각비	3,677	3,414	3,779	3,377	3,759	3,499

구분	2015		2016		2017	
	농가	어가	농가	어가	농가	어가
소비지출	24,741	22,588	24,999	23,325	24,738	22,361
식품품 및 비주류 음료	5,706	4,575	5,532	4,435	5,305	4,287
주류 및 담배	337	457	356	486	346	437
의류 및 신발	670	859	652	780	613	764
주거 및 수도광열	1,730	2,016	1,782	2,096	1,678	1,86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694	706	648	767	607	718
보건	2,149	2,444	2,351	2,790	2,361	2,815
교통	1,355	1,591	1,325	1,516	1,317	1,475
통신	989	1,215	966	1,207	960	1,152
오락_문화	816	817	791	730	767	775
교육	529	435	489	334	481	288
음식_숙박	1,441	1,685	1,534	1,589	1,512	1,531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340	2,165	4,365	2,460	4,540	2,407
감가상각비	3,985	3,623	4,207	4,133	4,250	3,849

자료: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 표 2107 - (3) | 생활비 지출 항목(3)

(단위: 천원)

구분	2018	
	농가	어가
소비지출	26,033	23,333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6,047	4,856
주류 및 담배	621	810
의류 및 신발	838	953
주거 및 수도광열	1,789	1,84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657	617
보건	2,381	2,495
교통	1,685	1,578
통신	1,024	1,181
오락_문화	940	866
교육	635	467
음식_숙박	1,479	1,490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146	2,232
감가상각비	3,790	3,943

자료: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 2108 > 소득 및 가계지출

▶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42,066천원, 연평균 가계지출은 33,828천원

2018년 기준,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42,066천원으로 전년 대비 +3,827천원 증가했고,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51,836천원으로 전년 대비 +2,820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시기에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63,290천원으로 전년 대비 +4,597천원 증가하여 농어촌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컸다.

농가의 호당 연평균 가계지출은 33,828천원으로 전년 대비 +3,188천원 증가하였으며, 어가는 31,362천원으로 전년 대비 +2,257천원 증가했다. 한편, 도시근로자는 45,770천원으로 전년 대비 -555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08 - (1) | 소득 및 가계지출(1)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07	농가	31,967	28,048
	어가	30,668	22,963
	도시근로자	43,874	33,918
2008	농가	30,523	27,102
	어가	31,176	25,405
	도시근로자	46,807	36,306
2009	농가	30,814	26,574
	어가	33,945	25,188
	도시근로자	46,238	36,440
2010	농가	32,121	27,672
	어가	35,696	26,695
	도시근로자	48,092	38,514
2011	농가	30,148	27,906
	어가	38,623	27,523
	도시근로자	50,983	40,376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표 2108 - (2) | 소득 및 가계지출(2)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12	농가	31,031	27,490
	어가	37,381	26,625
	도시근로자	53,908	41,937
2013	농가	34,524	30,264
	어가	38,586	28,032
	도시근로자	55,275	42,571
2014	농가	34,950	30,555
	어가	41,015	28,237
	도시근로자	56,815	43,822
2015	농가	37,215	30,613
	어가	43,895	29,573
	도시근로자	57,800	43,951
2016	농가	37,197	31,049
	어가	47,077	30,086
	도시근로자	58,613	44,267
2017	농가	38,239	30,640
	어가	49,016	29,105
	도시근로자	58,693	46,325
2018	농가	42,066	33,828
	어가	51,836	31,362
	도시근로자	63,290	45,770

자료: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가계동향조사 소득은 2017년 이후 분기별 공표(제시한 수치는 4/4분기 기준 수치임), 지출은 연단위 공표이나 기준 2인 이상에서 2017년 이후 1인 이상으로 기준 변경

## 2109 > 농가의 저축 및 보험

▶ 농가의 '당좌자산'은 65,764,953원, '예금 등 금융자산'은 60,126,908원  
'미수금 및 선급금'은 128,642원

2018년 연도말 기준, 농가의 '당좌자산'은 65,764,953원(48,166,541원), '예금 등 금융자산'은 60,126,908원(-52,359,01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현금'은 5,509,404원으로 전년 대비 +4,585,856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수금 및 선급금'은 128,642원으로 전년 대비 -393,386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09 | 농가의 저축 및 보험

(단위 : 원/ 연간)

연도	당좌자산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미수금 및 선급금
2006	66,806,458	390,666	65,854,065	561,727
2007	74,633,541	417,872	73,721,350	494,319
2008	52,117,781	470,433	51,491,203	156,144
2009	63,492,665	583,431	62,762,415	146,819
2010	77,668,077	831,132	76,482,269	354,675
2011	85,847,660	1,457,122	84,117,235	273,302
2012	92,215,064	1,676,069	90,362,263	176,731
2013	65,053,286	422,958	64,351,970	278,358
2014	76,458,958	407,950	75,577,525	473,483
2015	89,108,668	430,395	88,081,077	597,195
2016	101,305,834	578,997	100,131,760	595,077
2017	113,931,494	923,548	112,485,918	522,028
2018	65,764,953	5,509,404	60,126,908	128,642

자료 : 농가경제조사

\* 각 연도 기초, 기말 통계 중 기말 통계로 작성

## 2110 > 부채 규모

▶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33,269천원, 어가는 61,004천원

2018년도 말 기준,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33,269천원으로 농업용 부채는 13,687천원, 가계용 부채는 9,980천원이었다. 같은 시기 기준, 어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61,004천원으로 농가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이 중 어업용 부채는 37,428천원, 가계용 부채는 12,569천원으로 나타났다.

| 표 2110 - (1) | 부채 규모(1)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부채		농업, 어업용		가계용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2007	농가	28,966	29,946	16,125	16,481	7,263	7,725
	어가	33,920	34,407	16,800	16,690	9,544	10,178
2008	농가	23,920	25,786	12,638	13,600	6,343	6,446
	어가	33,630	33,587	18,581	18,207	9,265	9,484
2009	농가	25,614	26,268	13,040	13,150	6,891	7,086
	어가	35,745	35,864	19,734	19,038	9,701	10,618
2010	농가	27,025	27,210	13,189	12,930	6,857	7,330
	어가	34,177	35,640	18,349	18,277	9,835	10,347
2011	농가	27,509	26,035	12,634	11,892	7,748	7,156
	어가	39,687	37,862	20,035	18,631	11,045	10,816
2012	농가	27,889	27,262	13,022	13,123	7,435	7,030
	어가	40,766	39,518	20,716	20,177	10,544	10,363
2013	농가	26,946	27,363	11,934	11,715	7,504	7,729
	어가	39,470	40,422	20,335	20,689	9,473	10,194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 표 2110 - (2) | 부채 규모(2)

(단위: 천원)

연도	구분	부채(연도말)	농업, 어업용(연도말)	가계용(연도말)
2014	농가	27,878	11,778	7,539
	어가	41,404	21,413	10,092
2015	농가	27,215	11,917	7,754
	어가	41,645	21,143	10,386
2016	농가	27,215	11,917	7,754
	어가	41,645	21,143	10,386
2017	농가	26,730	11,924	7,756
	어가	42,870	21,485	10,664
2018	농가	33,269	13,687	9,980
	어가	61,004	37,428	12,569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 2111 > 소득 만족도

▶ 농어촌에서 소득 '만족' 비율은 13.9%

2019년 기준, 농어촌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 만족도는 '불만족'이 42.1%로 '만족'(13.9%)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111 | 소득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소득 있음						소득 없음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66.2	10.2	1.3	8.9	37.8	52.0	35.9	16.1	33.8
	도시	63.6	10.0	1.1	8.9	36.2	53.8	35.7	18.2	36.4
2009	농어촌	69.9	13.5	1.6	11.9	38.3	48.2	34.9	13.3	30.1
	도시	64.9	14.2	1.5	12.7	39.6	46.2	32.7	13.5	35.1
2011	농어촌	74.0	10.5	1.2	9.3	40.5	48.9	36.3	12.6	26.0
	도시	71.9	12.0	1.5	10.5	38.9	49.1	35.5	13.6	28.1
2013	농어촌	80.3	10.8	1.7	9.1	40.7	48.5	36.0	12.5	19.7
	도시	75.6	12.4	1.5	10.9	38.6	49.1	34.6	14.5	24.4
2015	농어촌	81.1	10.6	1.3	9.3	45.4	44.5	33.8	10.7	18.9
	도시	77.9	11.5	1.6	9.9	41.6	46.8	33.8	13.0	22.1
2017	농어촌	85.2	12.5	1.6	10.9	42.8	44.7	32.9	11.8	14.8
	도시	81.4	13.4	1.8	11.6	40.3	46.2	32.7	13.5	18.6
2019	농어촌	84.3	13.9	2.0	11.9	44.0	42.1	31.9	10.2	15.7
	도시	82.8	14.1	2.0	12.1	42.1	43.9	31.8	12.1	17.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 2011년 이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 2112> 소비생활 만족도

▶ 농어촌의 소비생활 '만족' 비율은 15.6%

2019년 기준, 농어촌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32.9%)이 '만족'(15.6%)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112 |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10.1	1.2	8.9	45.3	44.6	33.2	11.4
	도시	10.2	1.2	9.0	43.2	46.6	33.3	13.3
2009	농어촌	12.2	1.8	10.4	45.6	42.2	33.0	9.2
	도시	14.0	1.8	12.2	46.2	39.8	29.9	9.9
2011	농어촌	10.4	1.2	9.2	49.1	40.5	31.7	8.8
	도시	13.2	1.6	11.6	46.3	40.4	30.0	10.4
2013	농어촌	12.2	1.8	10.4	48.4	39.3	31.3	8.0
	도시	13.9	2.0	11.9	46.4	39.7	29.6	10.1
2015	농어촌	12.5	1.6	10.9	51.1	36.4	28.6	7.8
	도시	14.1	2.0	12.1	47.4	38.4	28.6	9.8
2017	농어촌	13.8	1.7	12.1	50.4	35.8	28.4	7.4
	도시	15.7	2.2	13.5	46.6	37.7	28.3	9.4
2019	농어촌	15.6	2.2	13.4	51.5	32.9	26.1	6.8
	도시	17.1	2.5	14.6	47.4	35.5	27.0	8.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 2011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

2200〉

# 문화여가 부문

---

2201>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

2202> 주요 여가활동

2203>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204>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205>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206>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실태

2207> 지난 1년 간 여행 경험

2208>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209> 여가활용 만족도



## 2201 >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

▶ 농어촌의 주된 여가활동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35.0%)

2018년 기준, 농어촌의 여가활동 목적으로 '개인의 즐거움'(35.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마음의 안정과 휴식'(17.9%), '스트레스 해소'(14.0%) 비율 역시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8.5%), '자기만족'(7.0%), '시간 보내기'(5.3%), '가족과의 시간'(5.2%), '대인관계/교제'(5.1%), '자기계발'(1.9%) 순이었으며, 도/농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2201 |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

(단위: %)

연도	구분	개인의 즐거움	마음 의 안정 과 휴식	스트 레스 해소	건강	자기 만족	대인 관계/ 교제	가족 과의 시간	시간 보내 기	자기 계발	종교 적 신념	기타
2014	읍면지역	42.1	13.6	12.4	8.4	6.9	3.8	3.3	8.1	1.3	-	0.1
	대도시	38.0	15.7	15.2	10.6	7.3	5.0	3.0	3.5	1.6	-	0.0
	중소도시	44.4	13.3	15.1	9.4	4.8	3.9	5.1	2.3	1.6	-	-
2016	읍면지역	35.6	16.3	12.5	10.5	9.5	5.2	4.8	3.0	2.6	0.0	0.0
	대도시	38.0	14.7	16.7	10.3	7.0	5.6	2.8	2.7	2.3	0.0	0.0
	중소도시	36.8	19.9	11.5	10.3	8.3	4.8	2.4	3.8	2.2	0.0	0.0
2018	읍면지역	35.0	17.9	14.0	8.5	7.0	5.1	5.2	5.3	1.9	0.0	0.0
	대도시	35.0	17.1	14.4	9.3	9.1	4.6	4.1	4.1	2.3	0.0	0.0
	중소도시	28.4	19.7	15.5	11.7	9.4	5.7	5.1	2.9	1.6	0.0	0.0

자료 : 각 연도 국민여가활동조사

## 2202 > 주요 여가활동

- ▶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은 'TV 시청'(주중 50.1%/ 주말 38.9%)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 농어촌에서는 주로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주중 45.6%/ 주말 54.2%)하고 있음

2019년 기준, 농어촌의 주중 여가활동으로는 'TV 시청' 비율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휴식활동'(18.6%),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10.2%), '취미·자기개발 활동'(7.8%) 순이었다.

휴일을 포함한 주말의 경우, 주중과 마찬가지로 'TV 시청'(38.9%), '휴식활동'(19.9%)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사회 및 기타활동'(9.4%),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8.5%), '스포츠 활동'(6.3%) 순으로 주중의 여가활동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에서는 주중의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45.6%), '혼자서'(29.8%), '친구와 함께'(16.4%)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말의 경우에도 주중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54.2%)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19.1%), '혼자서'(17.2%) 순으로 나타나 주중의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주요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도/농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표 2202 - (1) | 주요 여가활동(1)

(단위: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일	기타
2007	농어촌	29.1	4.2	1.1	0.4	3.6	4.5	1.0	1.6	0.3	9.2	16.8	18.4	9.2	0.5
	도시	27.4	5.3	2.4	0.6	5.0	6.5	1.1	3.2	0.2	10.5	13.1	15.4	8.9	0.5
2009	농어촌	30.0	4.6	1.4	0.4	3.8	4.9	1.1	1.8	0.3	8.0	19.2	14.4	8.9	1.2
	도시	30.1	5.4	2.8	1.0	5.7	6.2	1.0	3.4	0.4	10.0	13.0	12.5	8.2	0.6
2011	농어촌	36.4	3.3	2.0	0.6	4.3	4.7	1.3	1.5	0.4	8.1	16.4	12.9	7.1	1.1
	도시	36.1	4.3	3.5	1.2	5.5	6.4	1.5	2.8	0.2	9.4	12.5	9.5	6.5	0.5
2013	농어촌	35.6	4.7	2.3	0.6	4.6	3.7	1.2	1.5	0.2	8.9	15.4	13.0	7.1	1.2
	도시	34.2	5.9	3.6	0.8	5.3	5.8	1.3	2.8	0.3	8.6	12.4	10.9	7.6	0.6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5	농어촌	45.2	3.8	0.7	1.0	5.4	4.2	5.2	5.7	19.2	8.3	1.3
	도시	42.0	5.4	0.9	1.2	7.7	4.9	6.8	6.7	16.2	6.8	1.3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9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202 - (2) | 주요 여가활동(2)

(단위: %)

연도	구분	주중의 주요 여가활동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7	농어촌	54.7	1.5	0.7	0.7	5.2	0.9	9.2	7.5	16.3	2.9	0.4
	도시	50.3	2.2	0.7	0.9	6.9	0.6	12.8	7.7	15.5	2.2	0.2
2019	농어촌	50.1	1.5	0.5	0.6	5.7	0.7	10.2	7.8	18.6	4.1	0.1
	도시	45.0	2.0	0.7	1.1	6.1	0.6	14.6	8.8	17.7	3.3	0.1

연도	구분	주말(휴일 포함)의 주요 여가활동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7	농어촌	42.2	4.8	0.5	0.8	6.1	7.2	6.6	5.3	18.2	7.8	0.5
	도시	36.1	6.4	0.7	1.3	7.4	6.8	9.7	5.7	18.9	6.7	0.3
2019	농어촌	38.9	4.2	0.5	0.9	6.3	5.4	8.5	5.8	19.9	9.4	0.2
	도시	33.6	5.4	0.6	1.5	6.7	6.2	10.8	5.9	21.3	8.0	0.1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13세 이상 인구)

| 표 2202 - (3) |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단위: %)

연도	구분	주중의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혼자서	직장동료와 함께	기타
2017	농어촌	46.6	16.0	4.1	29.8	3.5	0.1
	도시	42.8	18.7	3.9	30.5	4.1	0.0
2019	농어촌	45.6	16.4	4.3	29.8	3.8	0.1
	도시	40.2	19.0	4.1	32.0	4.6	0.0

연도	구분	주말(휴일 포함)의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혼자서	직장동료와 함께	기타
2017	농어촌	55.5	18.5	7.4	17.3	1.1	0.1
	도시	55.3	21.6	6.5	15.2	1.3	0.0
2019	농어촌	54.2	19.1	8.4	17.2	1.2	0.0
	도시	53.4	21.8	6.8	16.9	1.1	0.0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13세 이상 인구)

## 2203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농어촌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관광활동'(42.3%) 비율이 가장 높음

2019년 기준, 농어촌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관광활동' 비율이 4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미·자기개발 활동'(11.6%), '스포츠 활동'(9.6%), '문화예술 관람'(9.4%), 'TV 및 DVD 시청'(8.2%), '휴식활동'(5.9%), '사회 및 기타활동'(5.7%) 순이었다. 한편, 도/농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2203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단위: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일	기타
2009	농어촌	6.0	43.8	5.5	1.4	5.6	1.4	3.6	7.5	2.5	3.8	2.3	8.3	7.5	0.8
	도시	4.5	45.4	7.1	1.9	8.1	1.8	4.4	9.3	2.4	4.4	0.9	5.0	4.6	0.2
2011	농어촌	7.5	43.9	7.2	2.2	7.1	1.6	3.7	5.5	2.1	3.8	1.6	6.1	7.4	0.4
	도시	6.2	43.3	10.0	2.4	8.4	1.8	4.7	7.4	2.3	4.2	0.9	4.0	4.3	0.2
2013	농어촌	7.4	47.4	7.2	2.1	6.8	0.9	3.3	4.6	1.9	4.3	1.7	5.0	7.2	0.4
	도시	5.6	46.8	9.4	2.5	8.7	1.7	4.6	6.6	1.5	3.4	0.7	3.6	4.7	0.2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5	농어촌	8.9	10.6	1.9	3.1	10.2	38.3	1.7	10.6	7.4	7.3	0.2
	도시	7.1	12.6	2.8	3.3	12.6	38.3	1.9	11.0	5.1	5.1	0.2
2017	농어촌	7.7	8.7	1.8	3.2	8.9	45.5	1.9	11.2	5.0	5.9	0.2
	도시	5.4	10.4	2.4	2.9	11.0	46.7	2.4	11.1	3.7	4.0	0.1
2019	농어촌	8.2	9.4	2.2	2.9	9.6	42.3	2.1	11.6	5.9	5.7	0.1
	도시	6.0	10.2	2.4	3.1	10.4	44.1	2.8	12.0	4.9	3.9	0.1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9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2204>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 농어촌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9.5%, 문화 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5.0%

2018년 기준, 농어촌에서 ‘문학교육’(3.0%), ‘미술교육’(2.9%)에 대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문화·예술교육 전체에 대한 참여율은 9.5%로 대도시(10.0%)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중소도시(1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어촌의 문화 동호회 중 ‘미술’(1.6%) 동호회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어촌의 전체 동호회 참여율은 5.0%로 대도시(7.5%), 중소도시(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2204 - (1)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교육	미술 교육	서양 음악 교육	전통 예술 교육	무용 교육	연극 교육	뮤지컬 교육	영화 교육	대중 음악 교육	역사 문화 유산 교육
2012	농어촌	12.0	2.3	2.3	2.9	1.4	0.9	0.7	1.2	3.6	4.4	1.7
	대도시	7.1	2.1	2.0	0.9	0.5	0.5	1.0	0.8	2.1	1.3	1.1
	중소도시	9.0	2.3	2.4	1.7	1.1	0.8	0.7	0.2	1.3	0.8	1.1
2014	농어촌	6.9	1.9	1.9	0.9	0.6	0.3	0.7	0.8	1.4	1.1	1.0
	대도시	6.9	2.2	1.7	1.1	0.6	0.4	0.4	0.2	1.0	0.6	1.7
	중소도시	7.0	2.1	2.1	2.3	0.6	0.5	0.5	0.3	1.6	0.9	1.2
2016	농어촌	10.8	2.6	2.9	2.0	2.4	0.7	0.6	0.5	1.7	1.8	-
	대도시	9.8	2.2	2.4	1.2	1.1	0.4	0.8	0.6	1.6	1.1	-
	중소도시	13.9	3.4	4.0	1.9	1.8	0.9	0.6	0.4	2.3	2.2	-
2018	농어촌	9.5	3.0	2.9	1.6	2.2	0.5	0.4	0.4	1.5	0.7	-
	대도시	10.0	3.4	3.2	1.7	1.0	0.3	0.7	0.3	0.9	0.8	-
	중소도시	13.3	4.4	4.3	2.2	1.4	0.8	0.7	0.4	1.7	0.9	-

자료 : 각 연도 문화향수실태조사

| 표 2204 - (2) | 지역별 문화 동호회 참여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 음악	역사 문화 유산
2012	농어촌	1.8	0.7	0.6	0.6	0.4	0.5	0.4	2.2	1.0	1.1	6.3
	대도시	0.5	0.6	0.2	0.4	0.1	0.3	0.2	0.5	0.4	0.3	2.7
	중소도시	1.0	0.7	0.9	0.6	0.4	0.3	0.0	0.2	0.6	0.3	4.3
2014	농어촌	4.8	0.8	0.9	0.6	0.8	0.1	0.2	0.3	1.4	0.5	0.7
	대도시	4.4	1.1	1.1	0.6	0.4	0.5	0.6	0.1	1.0	0.4	0.4
	중소도시	3.8	0.9	0.7	0.7	0.5	0.3	0.5	0.1	1.0	0.8	0.4
2016	농어촌	4.7	0.9	1.4	0.9	1.1	0.3	0.2	0.2	0.6	0.4	0.3
	대도시	4.1	1.0	1.2	0.4	0.3	0.1	0.4	0.1	0.2	0.3	0.7
	중소도시	7.5	1.6	2.1	1.1	0.7	0.6	0.4	0.1	1.0	0.6	0.6
2018	농어촌	5.0	0.9	1.6	0.7	1.0	0.4	0.1	0.2	0.6	0.4	-
	대도시	7.5	1.8	2.0	1.0	0.6	0.3	0.6	0.4	0.9	0.7	-
	중소도시	9.0	1.7	1.8	1.3	0.9	0.7	0.8	0.2	0.9	1.1	-

자료: 각 연도 문화향수실태조사

## 2205 >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농어촌의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54.0%, 관람 횟수는 평균 7.7회

2019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54.0%, 평균 관람 횟수는 7.7회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공연장’ 관람 경험률(32.1%)이 가장 높았다. 도시에 비해 관람 경험률 및 평균 관람 횟수가 낮았다.

| 표 2205 |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단위 : %, 회)

연도	구분	관람함								관람 하지 않음
				공연장 이용		전시장 이용		스포츠 관람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2007	농어촌	42.8	5.1	79.0	4.8	38.8	2.4	15.0	3.0	57.2
	도시	56.8	7.3	88.1	6.3	36.2	2.9	19.0	3.4	43.2
2009	농어촌	38.4	6.0	84.3	5.4	33.2	2.6	17.8	3.3	61.6
	도시	58.7	7.7	90.2	6.6	32.4	3.0	20.9	3.5	41.3
2011	농어촌	42.7	7.0	30.3	3.2	21.8	2.4	20.4	4.1	57.3
	도시	62.1	8.6	34.2	3.4	23.8	2.5	24.9	4.2	37.9
2013	농어촌	45.9	7.7	30.7	3.7	22.3	2.6	19.5	3.9	54.1
	도시	67.1	9.0	34.0	3.7	22.7	2.6	22.4	4.1	32.9
2015	농어촌	53.0	7.2	30.2	3.1	21.0	2.5	18.1	4.1	47.0
	도시	63.6	8.6	33.7	3.4	23.2	2.6	21.6	3.9	36.4
2017	농어촌	52.3	7.5	31.7	3.5	19.9	2.5	20.2	2.9	47.7
	도시	69.5	9.2	33.7	3.6	23.2	2.6	25.9	3.5	30.5
2019	농어촌	54.0	7.7	32.1	3.2	19.4	2.4	21.4	3.3	46.0
	도시	68.8	8.5	34.2	3.5	22.1	2.6	23.9	3.1	31.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2011년 이후,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를 ‘공연장’에 포함, ‘박물관’, ‘미술관’을 ‘전시장’에 포함

## 2206 >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실태

- ▶ 농어촌에서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은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67.6%)
- ▶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참여 빈도로 '주3회'(22.0%) 비율이 가장 높음

2018년 기준, 농어촌에서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으로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67.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구기 및 라켓류'(18.1%), '기타 스포츠'(11.4%), '무도/격투기'(2.4%), '레저 스포츠'(0.4%) 순이었다.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참여 빈도는 '주3회'(22.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2회'(17.8%), '주1회'(15.4%), '한 달에 3번 이하'(15.0%) 순이었다.

한편,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과 참여 빈도에 대한 도/농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표 2206 - (1) |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 (단위: %)

연도	구분	걷기	등산	보디 빌딩 (헬스)	축구	자전거, 사이클	배드민턴	수영	요가	체조	줄넘기	농구	당구
2014	농어촌	33.1	13.9	4.8	6.4	5.6	5.8	1.9	3.0	3.5	2.1	-	-
	대도시	27.1	16.9	9.2	5.2	4.8	4.2	4.9	3.2	3.0	2.1	-	-
	중소도시	24.9	14.5	8.5	6.9	4.8	4.8	4.4	3.5	3.3	3.5	-	-
2015	농어촌	39.0	17.2	6.2	8.5	6.5	6.8	2.4	4.1	-	-	2.0	2.2
	대도시	33.6	25.1	12.7	7.2	7.4	4.5	7.1	4.4	-	-	3.5	2.9
	중소도시	35.3	21.2	13.2	8.9	8.2	5.6	6.5	5.2	-	-	3.6	2.9

연도	구분	구기 및 라켓류	무도/격투기	민속 스포츠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	레저 스포츠	기타 스포츠
2016	농어촌	21.7	1.4	0.0	67.6	0.7	8.6
	대도시	21.4	2.0	0.0	68.7	0.3	7.5
	중소도시	24.0	3.1	0.1	65.2	0.3	7.4
2017	농어촌	21.8	2.7	0.0	67.0	0.3	8.3
	대도시	23.2	2.5	0.0	65.0	0.4	9.0
	중소도시	23.1	5.0	0.0	64.2	0.3	7.4
2018	농어촌	18.1	2.4	-	67.6	0.4	11.4
	대도시	21.7	2.3	-	65.7	0.5	9.8
	중소도시	22.4	2.4	-	65.6	0.4	9.1

자료 : 각 연도 국민생활체육조사

주 : 2015년 이전 - 123순위, 2016년 이후 1순위

| 표 2206 - (2) |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참여 빈도

(단위: %)

연도	구분	한 달에 3번 이하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 6회	매일
2016	농어촌	18.3	14.8	16.8	20.6	7.2	10.5	3.8	8.1
	대도시	15.0	14.9	17.6	25.4	5.8	13.7	4.2	3.5
	중소도시	15.3	13.8	17.5	23.8	7.3	15.7	2.8	3.9
2017	농어촌	16.5	16.3	14.7	20.8	8.5	13.9	2.1	7.1
	대도시	16.3	14.6	11.1	28.2	8.2	13.2	1.7	6.6
	중소도시	17.2	16.2	17.4	20.9	7.6	12.6	2.9	5.1
2018	농어촌	15.0	15.4	17.8	22.0	9.6	11.9	2.6	5.6
	대도시	12.8	12.2	16.0	27.1	11.6	10.6	3.6	6.1
	중소도시	14.1	13.9	15.7	25.3	9.2	11.4	2.9	7.5

자료 : 각 연도 국민생활체육조사(1순위)

## 2207 > 지난 1년간 여행 경험

- ▶ 국내 관광여행 경험률은 67.0%, 인구 1인당 여행 횟수는 3.5회, 관광객 1인당 여행 횟수는 5.2회
- ▶ 농어촌의 해외 관광여행 경험률은 23.5%

2019년 기준, 농어촌의 국내 관광여행 경험률은 67.0%, 인구 1인당 여행 횟수는 3.5회, 관광객 1인당 여행 횟수는 5.2회로 나타났다. 숙박여행 경험률(45.3%)과 당일여행 경험률(48.7%)이 비슷한 수준인 반면, 관광객 1인당 여행 횟수는 당일여행(평균 4.5회)이 숙박여행(평균 2.8회)에 비해 많았다. 도/농 간 국내 관광여행 경험률은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농어촌의 숙박여행 경험률이 도시에 비해 낮았다.

| 표 2207 - (1) | 지난 1년 간 국내 관광여행 횟수

(단위 : %, 회)

연도	구분	국내 관광 여행 경험 있음	인구	관광자	숙박	인구	관광자	회당	당일	인구	관광자
			1인당 여행 횟수	1인당 여행 횟수	여행	1인당 여행 횟수	1인당 여행 횟수	평균 숙박 일수	여행	1인당 여행 횟수	1인당 여행 횟수
2009	농어촌	60.4	2.6	4.4	34.0	0.8	2.4	2.4	46.6	1.8	3.9
	도시	65.8	3.4	5.2	46.1	1.2	2.5	2.4	47.2	2.3	4.8
2011	농어촌	61.1	2.4	3.9	36.3	0.8	2.2	2.5	43.3	1.6	3.7
	도시	63.7	2.9	4.6	47.0	1.1	2.4	2.5	41.1	1.8	4.3
2013	농어촌	64.1	2.6	4.1	36.1	0.9	2.4	2.4	47.1	1.8	3.7
	도시	67.8	3.2	4.8	49.0	1.2	2.5	2.4	45.0	2.0	4.4
2015	농어촌	64.9	2.8	4.4	38.8	0.9	2.4	2.4	48.3	1.9	3.9
	도시	67.1	3.5	5.2	49.7	1.3	2.7	2.4	44.3	2.1	4.8
2017	농어촌	68.0	3.6	5.3	42.6	1.2	2.8	2.4	51.2	2.4	4.7
	도시	71.2	3.8	5.3	54.7	1.6	2.8	2.5	44.9	2.2	4.9
2019	농어촌	67.0	3.5	5.2	45.3	1.3	2.8	2.7	48.7	2.2	4.5
	도시	69.7	3.6	5.2	53.7	1.5	2.8	2.5	44.8	2.1	4.7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019년 기준, 농어촌의 해외 관광여행 경험률은 23.5%였으며, 목적별로는 ‘관광’ 비율이 88.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가사’(7.5%), ‘업무’(7.4%), ‘교육’(2.8%) 순이었다. 농어촌의 해외 관광여행 경험률은 도시에 비해 낮았다.

| 표 2207 - (2) | 지난 1년 간 해외 관광여행 횟수

(단위 : %, 회)

연도	구분	해외 여행 한 적 있음	관광		가사		업무		교육	
			관광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관광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가사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가사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업무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업무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교육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교육 여행자 1인당 여행 횟수
2009	농어촌	9.0	74.6	1.3	11.8	2.1	19.2	2.2	3.1	1.3
	도시	14.6	71.1	1.4	12.3	1.9	22.9	2.7	5.4	1.1
2011	농어촌	11.0	71.5	1.5	13.3	2.0	17.6	1.9	6.6	1.4
	도시	16.9	72.2	1.4	12.8	2.3	18.9	2.8	7.0	1.4
2013	농어촌	12.6	78.7	1.4	11.0	1.9	13.0	2.1	5.6	1.5
	도시	18.2	76.9	1.5	10.8	2.1	17.9	2.6	5.1	1.3
2015	농어촌	13.5	81.4	1.3	8.9	1.5	11.4	2.2	3.6	1.6
	도시	21.0	79.6	1.5	9.9	1.9	16.7	2.7	4.2	1.4
2017	농어촌	19.7	90.1	1.5	6.3	1.5	6.2	3.1	2.8	2.2
	도시	27.9	87.8	1.5	6.4	1.8	11.6	2.9	2.9	1.2
2019	농어촌	23.5	88.4	1.6	7.5	1.9	7.4	2.2	2.8	1.6
	도시	31.9	90.0	1.6	6.5	1.8	9.8	2.7	2.7	1.7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2208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698개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총 698개소로, ‘복지회관’(214개소) 등 지역 문화·복지 시설(319개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08 - (1)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1)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 상영장	미술관	화랑		
2006	농어촌	715	96	69	6	21	57	41	16
	도시	2,728	1,415	296	235	884	363	125	238
2009	농어촌	690	101	72	10	19	55	52	3
	도시	2,951	1,647	342	246	1,059	387	129	258

연도	구분	총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다목적 체육 이용시설	소계
2006	농어촌	426	53	316	57	0	136
	도시	744	72	461	178	33	206
2009	농어촌	393	43	283	67	-	141
	도시	701	84	454	163	-	216

자료 :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 표 2208 - (2)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2)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2011	농어촌	609	105	80	7	18	56	50	6
	도시	2,353	1,097	411	337	349	363	117	246
2012	농어촌	548	99	79	6	14	59	52	7
	도시	2,334	1,120	412	366	342	366	126	240
2013	농어촌	516	94	79	6	9	55	43	12
	도시	2,412	1,142	401	412	329	369	145	224
2014	농어촌	516	104	84	7	13	71	48	23
2015	농어촌	698	145	100	10	35	94	68	26

연도	구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 회관	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소계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2011	농어촌	299	55	182	62	149	79	11	59
	도시	658	104	368	186	235	147	15	73
2012	농어촌	238	48	143	47	152	79	10	63
	도시	614	89	337	188	234	144	17	73
2013	농어촌	236	38	140	58	131	77	4	50
	도시	667	73	383	211	234	143	15	76
2014	농어촌	196	38	112	46	145	77	9	59
2015	농어촌	319	38	214	67	140	74	9	57

자료 :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 1)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 2014년 기준, 일부 도시 지역의 조사문항 개편으로 인해 동등 비교 불가, 2014년부터 농어촌 결과만 제시

3) 미술관 : 강원 지역의 경우 박물관 포함 수치임

## 2209 > 여가활용 만족도

▶ 농어촌의 여가활용 '만족' 비율은 26.8%

2019년 기준, 농어촌의 여가활용 만족도는 '만족'이 26.8%로 '불만족'(23.6%)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도/농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2209 | 여가활용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2009	농어촌	19.6	4.1	15.5	46.2	34.1	26.2	7.9
	도시	22.2	5.0	17.2	46.1	31.6	24.3	7.3
2011	농어촌	16.0	3.1	12.9	51.4	32.6	25.5	7.1
	도시	20.0	3.5	16.5	48.0	31.9	23.8	8.1
2013	농어촌	23.8	5.9	17.9	48.9	27.3	21.0	6.3
	도시	27.8	6.8	21.0	47.6	24.7	18.5	6.2
2015	농어촌	22.6	5.8	16.8	50.4	27.0	20.6	6.4
	도시	26.6	6.2	20.4	48.6	24.7	18.7	6.0
2017	농어촌	25.6	6.0	19.6	48.0	26.4	20.2	6.2
	도시	27.6	6.1	21.5	46.3	26.2	19.9	6.3
2019	농어촌	26.8	6.7	20.1	49.5	23.6	18.1	5.5
	도시	29.3	7.1	22.2	46.4	24.3	18.8	5.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이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 부록

전국 표본리스트

항목별 타 자료 비교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주요 용어 정리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01 전국 표본리스트

구분	시도	시군	읍/면 수	비고
	합 계		200	
1	인천광역시	옹진군	1	
2	경기도	광주시	1	
3	경기도	김포시	1	
4	경기도	안성시	2	
5	경기도	양주시	2	
6	경기도	양평군	1	
7	경기도	연천군	1	
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4	
9	경기도	이천시	2	
10	경기도	파주시	1	
11	경기도	평택시	1	
12	경기도	포천시	4	
13	경기도	화성시	1	
14	강원도	강릉시	1	
15	강원도	고성군	1	
16	강원도	삼척시	4	
17	강원도	양양군	1	
18	강원도	영월군	1	
19	강원도	정선군	3	
20	강원도	철원군	1	
21	강원도	춘천시	2	
22	강원도	평창군	1	
23	강원도	홍천군	2	
24	강원도	횡성군	2	
25	충청북도	괴산군	3	
26	충청북도	단양군	2	
27	충청북도	보은군	3	
28	충청북도	영동군	2	
29	충청북도	옥천군	1	
30	충청북도	음성군	2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비고
31	충청북도	제천시	2	
32	충청북도	증평군	1	
33	충청북도	진천군	1	
3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	
35	충청북도	충주시	2	
36	충청남도	계룡시	1	
37	충청남도	공주시	2	
38	충청남도	금산군	3	
39	충청남도	논산시	1	
40	충청남도	보령시	1	
41	충청남도	서산시	2	
42	충청남도	서천군	1	
43	충청남도	아산시	2	
44	충청남도	예산군	2	
4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	
4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	
47	충청남도	청양군	1	
48	충청남도	태안군	2	
49	충청남도	홍성군	2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1	
51	경상북도	경산시	1	
52	경상북도	경주시	2	
53	경상북도	고령군	1	
54	경상북도	김천시	1	
55	경상북도	봉화군	1	
56	경상북도	상주시	2	
57	경상북도	성주군	3	
58	경상북도	안동시	3	
59	경상북도	영덕군	1	
60	경상북도	영주시	2	
61	경상북도	영천시	2	
62	경상북도	예천군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비고
63	경상북도	울진군	1	
64	경상북도	의성군	1	
65	경상북도	칠곡군	1	
6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	
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	
68	울산광역시	울주군	2	
69	경상남도	거제시	2	
70	경상남도	거창군	1	
71	경상남도	고성군	1	
72	경상남도	남해군	1	
73	경상남도	밀양시	1	
74	경상남도	산청군	1	
75	경상남도	의령군	1	
76	경상남도	진주시	2	
77	경상남도	창녕군	2	
7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	
7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1	
80	경상남도	하동군	3	
81	경상남도	함안군	1	
82	경상남도	함양군	2	
83	경상남도	합천군	2	
84	전라북도	고창군	3	
85	전라북도	군산시	4	
86	전라북도	김제시	2	
87	전라북도	남원시	3	
88	전라북도	무주군	2	
89	전라북도	부안군	1	
90	전라북도	순창군	2	
91	전라북도	완주군	1	
92	전라북도	익산시	2	
93	전라북도	임실군	2	
94	전라북도	장수군	1	
95	전라북도	정읍시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비고
96	전라남도	강진군	2	
97	전라남도	고흥군	3	
98	전라남도	곡성군	1	
99	전라남도	광양시	1	
100	전라남도	구례군	1	
101	전라남도	담양군	2	
102	전라남도	무안군	1	
103	전라남도	보성군	2	
104	전라남도	순천시	3	
105	전라남도	신안군	2	
106	전라남도	영광군	1	
107	전라남도	영암군	2	
108	전라남도	완도군	1	
109	전라남도	장성군	2	
110	전라남도	장흥군	2	
111	전라남도	진도군	2	
112	전라남도	해남군	2	
113	전라남도	화순군	1	
1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	
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	

## 02 항목별 타 자료 비교

###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부문]

문항	2014	2018	2019	타 자료 비교
<b>&gt; 이주실태(%)</b>				
· 선주민	38.5	35.9	37.8	
· 이주민	61.5	64.1	62.2	
<b>&gt; 이주 직전 거주지(%)</b>				
· 농어촌 → 농어촌	73.1	75.3	59.6	
· 도시 → 농어촌	26.9	24.7	40.4	
<b>&gt; 이주 의사(%)</b>				
· 이주 의향층	13.2	7.2	8.3	※'18 주거실태조사(읍면부) · 이사계획(5년 내) : 4.1%
<b>&gt; 이주 희망 지역(%)</b>				
· 농어촌 → 농어촌	72.5	68.1	59.5	
· 농어촌 → 도시	26.6	31.9	38.6	
· 기타(해외 파견, 이민 등)	0.9	0.0	1.8	
<b>&gt; 이주 희망 이유(%)</b>				
· 직업 관련 사유	21.8	25.9	36.6	
· 주택 관련 사유	30.0	28.2	18.9	
· 가족 관련 사유	3.9	7.0	8.1	
· 생활환경 관련 사유	24.3	25.3	24.3	
· 자녀교육	11.4	9.3	8.3	
·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	5.5	0.5	3.3	
· 건강상의 이유	1.8	0.2	0.5	
·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	-	0.5	-	
· 기타	1.3	3.0	-	

문항		2014	2018	2019	타 자료 비교
<b>&gt; 농어촌 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점)</b>					
보건의료	· 중요도	-	81.5	81.3	* 2014년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로 측정함  ※'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0~10점, 11점 척도) · 보건 복지(5.6점) · 교육(5.5점) · 정주생활기반(6.2점) · 경제활동 일자리(5.1점) · 문화 여가(5.4점) · 환경·경관(5.9점) · 안전(5.7점) · 전체 평균(5.7점)
	· 만족도	44.7	52.0	50.7	
복지서비스	· 중요도	-	81.3	79.8	
	· 만족도	44.7	52.2	50.6	
교육 여건	· 중요도	-	70.4	70.6	
	· 만족도	43.4	49.5	47.6	
문화·여가 여건	· 중요도	-	69.5	68.8	
	· 만족도	38.9	48.9	46.4	
기초생활 기반	· 중요도	-	78.5	78.6	
	· 만족도	47.5	51.3	50.0	
안전	· 중요도	-	79.8	81.4	
	· 만족도	61.3	61.7	63.2	
환경·경관	· 중요도	-	76.1	76.3	
	· 만족도	63.5	62.8	64.0	
이웃과의 관계	· 중요도	-	75.0	74.6	
	· 만족도	-	60.7	61.3	
경제활동	· 중요도	-	79.7	77.8	
	· 만족도	42.9	49.0	48.5	
<b>&gt; 주관적 건강 상태(%)</b>					
· 매우 건강하다		-	4.3	4.7	※'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읍면) · 매우 좋다(22.0%) · 좋다(39.4%) · 보통이다(25.6%) · 나쁘다(11.8%) · 매우 나쁘다(1.3%)
· 건강한 편이다		-	42.2	48.0	
· 보통이다		-	29.1	20.8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21.3	20.8	
·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3.1	5.7	
<b>&gt;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점)</b>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58.7	58.7	60.3	※'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0~10점, 11점 척도) · 나는 지금 행복하다(6.1점)

## [경제활동 부문]

문항	2014	2018	2019	타 자료 비교
<b>&gt; 가구원의 겸업 및 부업 여부(%)</b>				
· 겸업 및 부업층	4.4	-	8.0	
<b>&gt; 은퇴계획(%)</b>				
· 특정 연령	11.3	-	13.8	
·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51.5	-	48.2	
· 이미 은퇴했음	6.1	-	10.7	
· 잘 모르겠다	31.1	-	11.2	
· 해당 없음	-	-	16.1	
<b>&gt; 은퇴 (희망) 연령(세)</b>				
· 은퇴 희망 연령	63.7	-	62.4	
· 은퇴 연령	-	-	63.2	
<b>&gt; 창업 및 취업 희망 여부(%)</b>				
· 창업 및 취업 희망층	6.7	-	12.1	
<b>&gt; 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b>				
·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	-	71.4	※'19 경제활동인구조사(전국) · 생활비, 용돈을 벌려고 (70.8%) · 자기계발, 자아 발전을 위해(19.5%) ·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려고(4.9%) · 자녀의 교육비에 보태기 위해(4.7%) · 기타(0.1%)
·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	-	23.1	
·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	-	1.3	
· 기타	-	-	4.2	
<b>&gt;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b>				
·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	-	72.0	
·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	-	7.5	
·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	-	3.4	
·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	-	17.0	

문항	2014	2018	2019	타 자료 비교
<b>&gt;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b>				
· 자금 부족	20.0	20.1	23.3	
· 기술력 부족	7.1	9.2	3.4	
· 경영관리 역량 부족	4.2	6.1	2.9	
· 시설/설비 부족	10.9	8.0	9.6	
· 행정·제도 복잡	1.1	2.2	1.3	
· 관련 규제에 의한 제약	1.4	1.8	-	
· 인력 부족	22.0	23.0	19.7	
·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	30.2	28.2	39.7	
· 참여자 간 갈등	1.0	1.4	-	
<b>&gt;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b>				
· 식료품비	25.2	-	27.9	※'17 한국복지패널조사(전국)
· 보건의료비	16.5	-	17.6	· 식료품비(21.0%)
· 주거비	6.5	-	6.3	· 주거비(3.6%)
· 광열수도비	18.0	-	16.8	· 광열수도비(3.1%)
· 교육비	9.6	-	8.5	· 가구·가사용품비(3.4%)
· 교통통신비	14.2	-	17.2	· 의류·신발비(3.3%)
· 기타	9.9	-	5.7	· 보건의료비(4.6%)
				· 교육비(5.1%)
				· 교양오락비(4.5%)
				· 교통·통신비(13.3%)
				· 기타소비지출(18.8%)
<b>&gt; 월 평균 생활비(만원)</b>				
· 월 평균 생활비	134.1	164.0	180.2	※'18 주거실태조사(읍면부) · 평균 168.3만원 ※'18 농가경제조사 · 평균 216.9만원
<b>&gt;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점)</b>				
·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40.3	-	43.0	

## [문화·여가 부문]

문항	2014	2018	2019	타 자료 비교
<b>&gt; 여가활동의 목적(%)</b>				
·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	27.7	-	27.2	※'18 국민여가활동조사(음면) · 개인의 즐거움(35.0%) · 마음의 안정과 휴식(17.9%) · 스트레스 해소(14.0%) · 건강(8.5%) · 자기만족(7.0%) · 대인관계/교제(5.1%) · 가족과의 시간(5.2%) · 시간 보내기(5.3%) · 자기계발(1.9%)
· 자기계발	10.2	-	8.2	
· 몸과 마음의 휴식	45.0	-	40.7	
· 즐거움과 재미	10.1	-	17.9	
· 친교/교제	6.6	-	6.0	
· 기타	0.3	-	-	
<b>&gt; 주된 문화·여가활동(%)</b>				
· 문화예술 관람활동	5.4	5.4	5.0	※'18 국민여가활동조사(음면) · 문화예술관람활동(0.8%) · 문화예술참여활동(1.1%) · 스포츠관람활동(1.3%) · 스포츠참여활동(4.8%) · 관광활동(0.4%) · 취미오락활동(23.8%) · 휴식활동(61.9%) · 사회 및 기타활동(5.8%)
· 문화예술 참여활동	1.4	1.5	3.3	
· 스포츠 관람활동	1.5	2.0	0.3	
· 스포츠 참여활동	17.5	5.2	13.7	
· 관광	3.3	1.6	1.5	
· 취미오락활동	4.8	3.2	13.4	
· 사회활동	14.4	20.1	14.7	
· 휴식	17.8	20.3	14.2	
·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29.2	33.0	33.8	
· 기타	3.9	7.6	-	

문항	2014	2018	2019	타 자료 비교
<b>&gt; 희망 문화여가활동(%)</b>				
· 문화예술 관람활동	11.6	11.2	9.9	<b>※'19 사회조사(읍면부)</b> · TV 시청(8.2%) · 문화예술 관람(9.4%) · 문화예술 참여(2.2%) · 스포츠관람(2.9%) · 스포츠활동(9.6%) · 관광활동(42.3%) ·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2.1%) · 취미·자기개발 활동(11.6%) · 휴식활동(5.9%) · 사회 및 기타활동(5.7%) · 기타(0.1%)
· 문화예술 참여활동	7.9	5.3	10.6	
· 스포츠 관람활동	3.5	3.0	2.2	
· 스포츠 참여활동	18.3	12.5	31.1	
· 관광	30.7	31.8	17.3	
· 취미오락활동	9.2	9.4	13.9	
· 사회활동	3.8	4.1	6.7	
· 휴식	14.8	22.6	7.6	
·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	-	0.7	
· 기타	0.2	0.1	-	
<b>&gt;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b>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층(%)	29.2	-	50.8	<b>※'19 사회조사(읍면부)</b> · 경험층 : 54.0%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횟수(회)	7.6	-	5.6	
<b>&gt; 체육활동 경험(%)</b>				
· 주 4회 이상	-	-	13.6	<b>※'18 국민생활체육조사(읍면)</b> · 전혀 하지 않는다(26.6%) · 한 달에 3번 이하(11.1%) · 주1회(11.4%) · 주2회(12.7%) · 주3회(16.0%) · 주4회(7.2%) · 주5회(8.7%) · 주 6회(2.2%) · 매일(4.2%)
· 주 2-3회	-	-	17.1	
· 주 1회 정도	-	-	7.8	
· 월 1-3회 정도	-	-	6.7	
· 비경험층	-	-	54.7	

문항	2014	2018	2019	타 자료 비교
<b>&gt; 주된 체육활동 종류(%)</b>				
· 구기운동	12.2	-	6.4	※'18 국민생활체육조사(읍면) · 구기 및 라켓류(18.1%) · 무도/격투기(2.4%) · 체력단련 및 생활운동(67.6%) · 레저 스포츠(0.4%) · 기타 스포츠(11.4%)
· 라켓운동	8.5	-	4.0	
· 무도/격투기	1.0	-	0.2	
· 체력단련운동	27.8	-	35.0	
· 레저스포츠	17.3	-	0.0	
· 걷기	30.4	-	46.5	
· 기타	0.4	-	8.0	
<b>&gt; 관광 경험(%)</b>				
· 국내+국외 관광 경험층	6.0	-	10.7	※'19 사회조사(읍면부) · 국내관광여행 경험 있음 (67.0%) · 해외여행 한 적 있음 (23.5%)
· 국내 관광 경험층	36.3	-	38.8	
· 국외 관광 경험층	2.7	-	4.7	
<b>&gt;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b>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여부(%)	7.8	-	10.3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횟수(회)	1.7	-	1.4	
<b>&gt;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b>				
· 문화예술 관련 시설	18.3	-	16.3	
· 체육시설	21.2	-	22.1	
· 취미활동 시설	17.4	-	9.7	
· 친교, 휴식 시설	37.2	-	24.9	
· 기타	5.8	-	-	
· 필요한 시설이 없음	-	-	27.2	
<b>&gt;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점)</b>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51.8		※'18 국민여가활동조사 · 평균 4.25점(7점 척도)

## 0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sup>5)</sup>

###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 ◦ 표본오차 (sampling error)

- 모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 표본을 확률 추출하는 데서 생기는 통계적 오차
- 표본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의 정확성(precision)을 나타내는 척도
- 일반적으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의 형태로 표현

####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 ◦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 ◦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 ◦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통상적으로 1 ~ 5% 정도로 사용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 ~ 10% 정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5)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1)

구분		n	평균(점)	SE	RSE(%)	
종합만족도	합계	3,972	54.3	0.74	1.4	
	읍/면	읍	1,763	54.7	1.57	2.9
		면	2,209	54.0	0.80	1.5
	영농 여부	농어가	995	57.3	0.68	1.2
		비농어가	2,977	53.3	0.99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50.9	2.21	4.3
		40대	701	53.2	1.92	3.6
		50대	855	56.0	1.01	1.8
		60대	792	55.5	0.78	1.4
		70대 이상	901	55.3	0.68	1.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52.8	1.20	2.3
		선주민	1,501	56.9	0.82	1.4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49.1	1.98	4.0
		비의향층	3,609	54.8	0.74	1.4
체감만족도	합계	3,972	55.3	0.93	1.7	
	읍/면	읍	1,763	55.0	1.89	3.4
		면	2,209	55.5	0.85	1.5
	영농 여부	농어가	995	58.1	0.85	1.5
		비농어가	2,977	54.4	1.22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52.0	2.42	4.6
		40대	701	54.5	2.45	4.5
		50대	855	57.7	1.12	1.9
		60대	792	56.6	1.08	1.9
		70대 이상	901	55.1	0.94	1.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54.1	1.50	2.8
		선주민	1,501	57.3	0.96	1.7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49.4	2.06	4.2
		비의향층	3,609	55.8	0.96	1.7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2)

구분		n	평균(점)	SE	RSE(%)	
차원만족도	합계	3,972	53.3	0.68	1.3	
	읍/면	읍	1,763	54.3	1.35	2.5
		면	2,209	52.5	0.94	1.8
	영농 여부	농어가	995	56.6	0.68	1.2
		비농어가	2,977	52.2	0.88	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9.9	2.14	4.3
		40대	701	51.9	1.53	2.9
		50대	855	54.2	1.10	2.0
		60대	792	54.3	0.72	1.3
		70대 이상	901	55.5	0.68	1.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51.4	1.03	2.0
		선주민	1,501	56.5	0.78	1.4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48.7	2.15	4.4
비의향층		3,609	53.8	0.65	1.2	
보건의료	합계	3,972	50.7	0.87	1.7	
	읍/면	읍	1,763	51.7	1.73	3.3
		면	2,209	50.0	1.06	2.1
	영농 여부	농어가	995	54.4	1.01	1.9
		비농어가	2,977	49.5	1.04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5.7	2.95	6.5
		40대	701	46.9	1.85	4.0
		50대	855	53.9	1.34	2.5
		60대	792	53.2	0.84	1.6
		70대 이상	901	52.7	1.12	2.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48.6	1.16	2.4
		선주민	1,501	54.3	1.16	2.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43.8	2.91	6.6
비의향층		3,609	51.4	0.83	1.6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3)

구분		n	평균(점)	SE	RSE(%)	
복지서비스	합계	3,972	50.6	0.85	1.7	
	읍/면	읍	1,763	52.4	1.64	3.1
		면	2,209	49.2	1.11	2.3
	영농 여부	농어가	995	53.3	0.94	1.8
		비농어가	2,977	49.7	1.09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6.4	2.46	5.3
		40대	701	49.8	1.96	3.9
		50대	855	52.3	1.25	2.4
		60대	792	51.6	1.12	2.2
		70대 이상	901	52.0	0.83	1.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49.0	1.32	2.7
		선주민	1,501	53.2	1.01	1.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44.6	2.88	6.5
비의향층		3,609	51.2	0.81	1.6	
교육 여건	합계	3,972	47.6	0.99	2.1	
	읍/면	읍	1,763	50.9	1.89	3.7
		면	2,209	44.9	1.06	2.4
	영농 여부	농어가	995	47.9	0.93	1.9
		비농어가	2,977	47.4	1.30	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6.5	3.23	6.9
		40대	701	47.4	1.99	4.2
		50대	855	47.6	1.17	2.5
		60대	792	48.1	0.94	2.0
		70대 이상	901	48.0	0.94	2.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46.9	1.46	3.1
		선주민	1,501	48.6	1.00	2.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43.1	3.16	7.3
비의향층		3,609	48.1	1.00	2.1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4)

구분		n	평균(점)	SE	RSE(%)	
문화·여가 여건	합계	3,972	46.4	0.99	2.1	
	읍/면	읍	1,763	48.1	1.75	3.6
		면	2,209	45.0	1.23	2.7
	영농 여부	농어가	995	48.3	0.89	1.9
		비농어가	2,977	45.7	1.25	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4.1	3.23	7.3
		40대	701	45.7	2.39	5.2
		50대	855	46.7	1.38	3.0
		60대	792	46.2	1.31	2.8
		70대 이상	901	48.5	0.80	1.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44.2	1.46	3.3
		선주민	1,501	49.9	1.03	2.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39.3	3.67	9.3
비의향층		3,609	47.0	0.91	1.9	
기초생활기반	합계	3,972	50.0	1.13	2.3	
	읍/면	읍	1,763	51.4	2.05	4.0
		면	2,209	48.9	1.54	3.1
	영농 여부	농어가	995	54.7	1.54	2.8
		비농어가	2,977	48.4	1.35	2.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6.8	3.00	6.4
		40대	701	48.9	1.91	3.9
		50대	855	51.9	1.42	2.7
		60대	792	50.7	1.72	3.4
		70대 이상	901	51.0	1.12	2.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47.2	1.51	3.2
		선주민	1,501	54.6	1.31	2.4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43.9	4.96	11.3
비의향층		3,609	50.7	1.09	2.2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5)

구분		n	평균(점)	SE	RSE(%)	
안전	합계	3,972	63.2	1.03	1.6	
	읍/면	읍	1,763	63.9	1.34	2.1
		면	2,209	62.7	1.66	2.6
	영농 여부	농어가	995	67.2	1.26	1.9
		비농어가	2,977	61.9	1.24	2.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59.3	2.01	3.4
		40대	701	61.0	1.65	2.7
		50대	855	63.7	1.70	2.7
		60대	792	65.6	1.33	2.0
		70대 이상	901	65.7	1.17	1.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62.1	1.61	2.1
		선주민	1,501	65.1	1.25	1.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63.5	2.15	3.4
비의향층		3,609	63.3	1.08	1.7	
환경·경관	합계	3,972	64.0	0.91	1.4	
	읍/면	읍	1,763	61.1	1.54	2.5
		면	2,209	66.3	1.55	2.3
	영농 여부	농어가	995	70.0	1.09	1.6
		비농어가	2,977	62.0	1.04	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58.7	1.89	3.2
		40대	701	62.4	2.11	3.4
		50대	855	64.2	1.90	3.0
		60대	792	65.9	1.16	1.8
		70대 이상	901	67.6	1.32	2.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61.0	1.15	1.9
		선주민	1,501	68.9	1.11	1.6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60.1	2.33	3.9
비의향층		3,609	64.4	0.95	1.5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6)

구분		n	평균(점)	SE	RSE(%)	
이웃과의 관계	합계	3,972	61.3	0.89	1.4	
	읍/면	읍	1,763	59.7	1.24	2.1
		면	2,209	62.6	1.66	2.7
	영농 여부	농어가	995	67.5	1.03	1.5
		비농어가	2,977	59.3	1.00	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55.4	1.70	3.1
		40대	701	58.2	1.13	1.9
		50대	855	59.6	2.15	3.6
		60대	792	63.9	1.33	2.1
		70대 이상	901	68.0	1.19	1.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58.0	1.18	2.0
		선주민	1,501	66.9	1.01	1.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56.6	1.88	3.3
비의향층		3,609	61.8	0.95	1.5	
경제활동 여건	합계	3,972	48.5	0.98	2.0	
	읍/면	읍	1,763	51.5	1.59	3.1
		면	2,209	46.1	1.15	2.5
	영농 여부	농어가	995	49.2	1.09	2.2
		비농어가	2,977	48.2	1.18	2.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8.3	2.59	5.3
		40대	701	49.0	2.07	4.2
		50대	855	50.0	1.35	2.7
		60대	792	46.2	1.27	2.8
		70대 이상	901	48.6	1.00	2.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71	47.9	1.41	2.9
		선주민	1,501	49.3	1.08	2.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328	46.5	1.62	3.5
비의향층		3,609	48.8	1.00	2.1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1)

구분		n	평균(점)	SE	RSE(%)	
종합만족도	합계	3,972	43.0	1.03	2.4	
	읍/면	읍	1,763	43.3	1.98	4.6
		면	2,209	42.9	1.03	2.4
	영농 여부	농어가	995	44.0	1.25	2.8
		비농어가	2,977	42.7	1.30	3.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5.9	2.07	4.5
		40대	701	43.8	2.29	5.2
		50대	855	43.7	1.23	2.8
		60대	792	41.7	1.15	2.8
		70대 이상	901	40.7	0.90	2.2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51.5	1.41	2.7
비저축층		2,477	37.9	0.80	2.1	
체감만족도	합계	3,972	46.2	1.03	2.2	
	읍/면	읍	1,763	46.2	1.94	4.2
		면	2,209	46.2	1.09	2.4
	영농 여부	농어가	995	46.9	1.32	2.8
		비농어가	2,977	45.9	1.29	2.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8.6	2.31	4.7
		40대	701	47.1	2.19	4.6
		50대	855	47.0	1.35	2.9
		60대	792	45.1	1.41	3.1
		70대 이상	901	43.6	0.93	2.1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54.4	1.42	2.6
비저축층		2,477	41.2	0.89	3.0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2)

구분		n	평균(점)	SE	RSE(%)	
차원만족도	합계	3,972	39.9	1.10	2.8	
	읍/면	읍	1,763	40.3	2.07	5.1
		면	2,209	39.6	1.12	2.8
	영농 여부	농어가	995	41.1	1.23	3.0
		비농어가	2,977	39.5	1.38	3.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3.2	2.00	4.6
		40대	701	40.4	2.47	6.1
		50대	855	40.4	1.26	3.1
		60대	792	38.4	1.12	2.9
		70대 이상	901	37.7	0.97	2.6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48.5	1.46	3.0
비저축층		2,477	34.7	0.87	2.5	
가계의 소득수준	합계	3,972	42.5	1.36	3.2	
	읍/면	읍	1,763	44.1	2.51	5.7
		면	2,209	41.3	1.33	3.2
	영농 여부	농어가	995	42.5	1.61	3.8
		비농어가	2,977	42.6	1.67	3.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7.5	2.38	5.0
		40대	701	45.6	3.15	6.9
		50대	855	42.2	1.44	3.4
		60대	792	39.5	1.51	3.8
		70대 이상	901	39.3	1.12	2.8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52.3	1.69	3.2
비저축층		2,477	36.7	1.18	3.2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3)

구분		n	평균(점)	SE	RSE(%)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수준	합계	3,972	45.9	1.20	2.6	
	읍/면	읍	1,763	47.0	2.21	4.7
		면	2,209	45.1	1.27	2.8
	영농 여부	농어가	995	45.6	1.41	3.1
		비농어가	2,977	46.0	1.46	3.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51.6	2.26	4.4
		40대	701	48.9	2.63	5.4
		50대	855	45.8	1.36	3.0
		60대	792	43.2	1.45	3.4
		70대 이상	901	41.6	1.09	2.6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54.9	1.56	2.8
		비저축층	2,477	40.5	1.04	2.6
저축하고 있는 금액	합계	3,972	34.3	0.92	2.7	
	읍/면	읍	1,763	34.7	1.36	3.9
		면	2,209	34.0	1.24	3.6
	영농 여부	농어가	995	34.6	1.28	3.7
		비농어가	2,977	34.2	1.06	3.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38.2	2.22	5.8
		40대	701	37.1	2.19	5.9
		50대	855	35.2	1.34	3.8
		60대	792	31.3	1.44	4.6
		70대 이상	901	30.7	1.07	3.5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47.0	1.37	2.9
		비저축층	2,477	26.6	0.78	2.9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4)

구분		n	평균(점)	SE	RSE(%)	
가계의 순자산 수준	합계	3,972	39.9	1.14	2.8	
	읍/면	읍	1,763	39.3	2.10	5.3
		면	2,209	40.5	1.28	3.2
	영농 여부	농어가	995	43.7	1.17	2.7
		비농어가	2,977	38.7	1.45	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1.8	2.14	5.1
		40대	701	38.4	2.58	6.7
		50대	855	40.8	1.48	3.6
		60대	792	39.6	1.41	3.6
		70대 이상	901	39.2	1.12	2.9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47.3	1.43	3.0
		비저축층	2,477	35.5	1.06	3.0
가계의 부채 수준	합계	3,972	49.1	1.26	2.6	
	읍/면	읍	1,763	47.1	2.55	5.4
		면	2,209	50.7	1.29	2.5
	영농 여부	농어가	995	50.9	1.65	3.2
		비농어가	2,977	48.5	1.55	3.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5.7	2.29	5.0
		40대	701	43.1	2.88	6.7
		50대	855	47.3	1.82	3.9
		60대	792	51.9	1.89	3.6
		70대 이상	901	55.7	2.00	3.6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52.1	1.61	3.1
		비저축층	2,477	47.3	1.40	3.0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5)

구분		n	평균(점)	SE	RSE(%)	
여유자금	합계	3,972	35.5	1.25	3.5	
	읍/면	읍	1,763	36.1	2.15	6.0
		면	2,209	35.0	1.47	4.2
	영농 여부	농어가	995	37.0	1.50	4.0
		비농어가	2,977	35.0	1.54	4.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38.3	2.52	6.6
		40대	701	35.5	2.47	7.0
		50대	855	37.8	1.79	4.7
		60대	792	34.4	1.11	3.2
		70대 이상	901	32.0	1.25	3.9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43.9	1.70	3.9
비저축층		2,477	30.4	1.03	3.4	
노후준비금	합계	3,972	33.8	1.41	4.2	
	읍/면	읍	1,763	34.7	2.69	7.8
		면	2,209	33.1	1.37	4.1
	영농 여부	농어가	995	35.7	1.49	4.2
		비농어가	2,977	33.2	1.78	5.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37.8	2.79	7.4
		40대	701	33.3	2.68	8.0
		50대	855	34.9	1.76	5.1
		60대	792	32.6	1.23	3.8
		70대 이상	901	31.0	1.24	4.0
	저축 현황	저축층	1,495	42.1	2.15	5.1
비저축층		2,477	28.8	1.05	3.6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1)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39	48.9	0.78	1.6
읍/면	읍	1,742	49.0	1.59	3.2
	면	2,196	48.9	0.84	1.7
영농 여부	농어가	989	48.1	0.93	1.9
	비농어가	2,950	49.2	0.99	2.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07	50.0	2.19	4.4
	40대	699	46.9	1.97	4.2
	50대	850	48.2	1.11	2.3
	60대	786	49.3	1.11	2.3
	70대 이상	896	50.1	0.77	1.5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2)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39	48.9	0.78	1.6
주된 문화·여가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191	59.3	2.67	4.5
	문화예술 참여활동	125	60.5	2.54	4.2
	스포츠 관람활동	13	33.5	9.97	29.8
	스포츠 참여활동	506	57.7	2.27	3.9
	관광	57	55.9	5.01	9.0
	취미오락활동	505	51.5	1.83	3.6
	사회활동	556	49.1	1.21	2.5
	휴식	534	44.0	1.38	3.1
	TV 시청/라디오 청취	1,272	44.4	0.90	2.0
동호회 활동 여부	참여층	308	60.4	1.77	2.9
	비참여층	3,630	48.0	0.83	1.7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경험	경험층	1,997	51.3	1.39	2.7
	비관람층	1,942	46.5	0.69	1.5
체육활동 경험	경험층	1,779	52.0	1.31	2.5
	비경험층	2,150	46.4	0.64	1.4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경험	지도 경험층	409	60.3	2.08	3.4
	비경험층	3,530	47.6	0.59	1.2

## 04 주요 용어 정리

- **가구주**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단독주택** : 단일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황하기 위한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연립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m<sup>2</sup>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m<sup>2</sup>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전세** : 계약한 액수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입주하여 살다가 퇴거할 때 그 금액을 되찾아 나오는 방식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입주할 때 낸 금액의 이자이다.
- **보증부 월세** : 보증금을 내고 별도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월세가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월세분의 10배 정도의 금액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 **사글세** : 매월 월세액을 정한 뒤 미리 1년분 정도의 월세 합계액을 선세(先貰)로 내고 그 금액을 매달 삭감해 가는 형식이다. 사글세액의 잔액이 떨어질 때가 계약이 만료되는 달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 만일 계약기간 내에 퇴거할 경우에는 삭감된 액수의 잔액을 되찾아갈 수 있다.
-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등을 말한다.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등을 말한다.
- **사무 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등을 말한다.
-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등을 말한다.
- **판매 종사자**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등을 말한다.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어업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등을 말한다.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등을 말한다.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등을 말한다.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등을 말한다.
- **자영업자(고용주)**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로 본다.
-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교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 등이 해당된다.
- **임시직**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한다.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한다.
- **무급가족종사자** : 직접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로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농수산물 가공** : 농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식품 및 특공산품 등을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농수산물 이용 식품 가공에는 농수산물을 수확한 후 말리거나 잘라서 판매, 세척 후 포장하여 판매, 가공하여 식품 재료 및 완성된 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농수산물 유통/직거래** : 농림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개인 가구에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직판장, 직매장, 통신판매, 우편판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판매, 거리판매, 방문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농어촌 체험관광** : 농어촌체험관광이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이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수산물, 음식 판매, 숙박 운영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체험이나 교육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거나, 농수산물 직거래, 음식 판매, 숙박 제공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마을 단위로 방문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이나 교육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개인 단위로 직접 도시 방문객을 확보하여 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조사한다.
- **음식 판매(식당 운영)** : 마을 단위로 방문 도시민을 대상으로 식사를 준비하여 판매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개인 단위로 직접 도시 방문객을 확보하여 식사를 준비, 판매한 경험을 조사한다. 농촌진흥청 사업에 의한 '농가 맛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 **숙박 제공(민박 운영)** : 마을 단위로 방문 도시민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하거나, 개인 단위로 직접 방문객을 확보하여 도시 방문객을 확보하여 숙소를 제공한 경험을 조사한다.
- **식량작물** : 쌀, 보리, 쌀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밀, 조, 수수, 메밀, 녹두 등을 가리킨다.
- **동호회**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결성된 특정 취미나 활동에 공동의 관심과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향우회, 동창회나 단순 친목 목적의 친목회, 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구기 운동** : 게이트볼, 족구, 축구, 야구, 농구, 골프를 비롯하여 당구, 배구, 소프트볼, 아이스하키, 핸드볼 등이 포함된다.
- **레저스포츠** : 지상레저스포츠, 항공레저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가 모두 해당된다.

## 05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ID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경제활동, 문화·여가 -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은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귀댁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작성기관 농촌진흥청  
실사기관 코뮤니타스  
전화번호 053-746-0021

조사원 이름

※ 본 페이지는 조사원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원 표 본 가 구	1회 방문	일자	시간	2회 방문	일자	시간	3회 방문	일자	시간	
		월 일	:		월 일	:		월 일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1)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2)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3)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4)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5)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6)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7)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8)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응답자	① 가구주      ② 가구주 배우자								
조사방법	① 조사원 면접    ② 응답자 자기기입    ③ 조사원 면접과 응답자 자기기입 병행								
최종 조사 가구	연락처	(    )-(    )-(    )	시/군/구		읍/면				
	도로명 주소								

## 2019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참여 동의서

2019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방문을 위한 사전 약속 및 오류 점검 등의 용도로 귀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표본가구로 선정되신 기간(2018년~2022년) 동안에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 시 이용하게 됩니다.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조사 및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각 지역을 대표하므로,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월 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여자 : (서명)



농촌진흥청

## 2019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2019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 1.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 1. [가구주와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가구주 및 배우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 **가구주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분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상태	동거		학력	결혼 이민	장애	
				여부	1 비동거 시 사유			여부	증상
	① 남 ② 여		① 유배우 ② 미혼, 비혼 ③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등)	① 동거 ② 비동거	※ 코드표 참고	※ 코드표 참고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중증 ② 경증
가구주		_____년							
배우자		_____년							

### 《코드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1 비동거 시 사유	① 친지 보육 ②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 ③ 자녀 교육 지원 ④ 직장(직업, 취업준비) ⑤ 건강(입원, 요양 등) ⑥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2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③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 졸업(중퇴, 수료) ⑥ 대학원 이상

2.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가구주/배우자 외 가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 취업, 유학, 요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직계가족(배우자, 자녀)을 포함하되, 결혼해 분가한 가족은 제외합니다.

구분	[3] 가구주와의 관계	동거		성별	연령 구분	결혼 이인	장애	
		여부	[1] 비동거 시 사유				여부	증상
	※ 코드표 참고	① 동거 ② 비동거	※ 코드표 참고	① 남 ② 여	① 영아(36개월 미만) ② 유아(만3세~미취학) ③ 초등학생 ④ 중·고등학생 ⑤ 만 19세 이상 성인 - ( )년생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중증 ② 경증
가구원 1								
가구원 2								
가구원 3								
가구원 4								
가구원 5								
가구원 6								
가구원 7								
가구원 8								
총 가구원 수 ※ 동거 가구원 수	총 _____ 명	[4] 가구 구성 ※ 코드표 참고		농어가 여부	① 농어가(가구원 중 농어업 종사자가 있음) ② 비농어가(농어업 종사자 없음)			
구분	코드							
[3]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의 자녀 ⑤ 조부모	② 자녀의 배우자 ⑥ 형제자매/그배우자	③ 손자녀/그배우자 ⑦ 기타 친인척	④ 부모 ⑧ 동거인				
[4] 가구 구성 코드								
1세대	⑩ 1인 가구		⑪ 부부(응답자+배우자)		⑰ 기타(상기를 제외한 모든 1세대 가구)			
2세대	⑳ 부부+미성년자녀 ㉔ 부부+양친(또는 편부모) ㉗ 조부모(또는 편조부모)+성년손자녀		㉑ 편부모+미성년자녀 ㉕ 조부모+미성년손자녀 ㉘ 기타(상기를 제외한 모든 2세대 가구)		㉒ 부부(또는 편부모)+성년자녀 ㉖ 편조부모+미성년손자녀			
3세대	㉓ 조부모(또는 편조부모)+혼인자녀부부(또는 자녀/그배우자)+손자녀 ㉙ 기타(상기를 제외한 모든 3세대 이상 가구)							







16. [창업 및 취업 희망 여부] 귀댁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께서는 **향후 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십니까?

① 희망함



② 희망하지 않음

↳ **문17번** 으로 가십시오

16-1. [희망 창업/취업 세부사항] 희망하시는 창업 또는 취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창업 또는 취업, 둘 중 하나를 희망하는 경우는 하나만, 둘 다를 희망하는 경우는 둘 다 작성

※ 가구주, 배우자 모두 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할 경우, 가구주를 기준으로 응답

구분	창업	취업
(1) 희망 창업/취업 분야(직종)는? * 구체적으로		
(2) 희망 창업/취업 조직의 형태는?	① 개인사업자 ② (영리)법인사업자 ③ 비영리법인/단체 ④ 기타 (↔) )	① 공공부문(공무원, 계약직, 공공근로 등) ② 민간부문(영리법인, 개인사업자) ③ 비영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④ 기타 (↔) )
(3) 근로 형태는?		① 전일제(하루 8시간 이상 근무) ② 시간제
(4) 창업/취업을 통한 월 평균 기대 소득은?	약 ( )만원	약 ( )만원
(5) 창업/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①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②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③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④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⑤ 기타 (↔) )	①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②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③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④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⑤ 기타 (↔) )
(6) 농어촌에서 창업/취업시 가장 큰 어려움은?	① 본인의 역량(지식/기술) 개발 기회 부족 ② 자본금 부족 ③ 사업장/설비 확보 ④ 인력 확보 ⑤ 지역 내 인프라 부족(교통수단 등) ⑥ 지역 내 시장 협소 ⑦ 기타 (↔) )	① 본인의 역량(지식/기술) 개발 기회 부족 ② 일할 기회가 부족 ③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려움 ④ 지역 내 인프라 부족(교통수단 등) ⑤ 기타 (↔) )



\*보기 - 경영 형태

- ① 개인경영체      ② 마을운영위원회 등 지역조직      ③ 영농조합법인      ④ 농업회사법인  
 ⑤ 협동조합      ⑥ 기타 (⇨ )

20.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향후 (지속)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구 분	향후 참여 의사	구 분	향후 참여 의사
(1) 농수산물 가공	① 있음 ② 없음	(4) 음식 판매(식당 운영)	① 있음 ② 없음
(2) 농수산물 유통작거래	① 있음 ② 없음	(5) 숙박 제공(민박 운영)	① 있음 ② 없음
(3) 농어촌 체험관광	① 있음 ② 없음		

21.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참여 경험’ 또는 ‘향후 참여 의사’ 중 한 개라도 ‘있음’을 선택한 경우** 귀하께서 위 사업에 참여하면서, 또는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자금 부족                                      ② 기술력 부족                                      ③ 경영관리 역량 부족  
 ④ 시설/설비 부족                                      ⑤ 행정·제도 복잡                                      ⑥ 인력 부족  
 ⑦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                                      ⑧ 참여자 간 갈등                                      ⑨ 기타 (⇨ )

22. [영농형태] 귀댁에서 **주된** 수입원이 되는 영농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논벼      ② 식량작물                                      ③ 노지채소      ④ 시설채소      ⑤ 과수  
 ⑥ 화훼      ⑦ 특/약용작물버섯                                      ⑧ 축산                                      ⑨ 기타 (⇨ )

23. [영농 계획] 농업 규모(논/밭/임야/시설 등 면적)에 대한 향후 5년 후 귀하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①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② 축소할 계획이다      ③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④ 확대할 계획이다

24. [농업 승계자 유무] 귀댁에는 경영주의 뒤를 이어 농업에 종사할 사람(자녀 및 손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③ 아직 잘 모르겠다

## — 소비활동

25.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2018년('18.1.1.~12.31.)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 가운데 귀댁의 생활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주식류, 부식류, 외식비 등 **식료품비**  
 ② 병원치료비, 약값, 의치, 보정기, 영양제, 보약비 등 **보건의료비**  
 ③ 월세, 주택수리비, 관리비 등 **주거비**  
 ④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등 **광열수도비**  
 ⑤ 학비, 학원비, 과외비, 자녀용돈, 책값 등 **교육비**  
 ⑥ 대중교통 이용료,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 기름값, 전화/휴대폰/인터넷요금 등 **교통통신비**  
 ⑦ 기타(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문화여가비, 관혼상제비, 경조비 등) (⇨ )

26. [주요 물품 구입 실태] 귀하께서는 아래 물품을 구입하실 때 **주로 어느 곳을** 이용하십니까? 물품 구입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의 **위치**와 이동 시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구 분	A. 물품 구입처	B. 위치	C.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D. 편도 소요시간
(1) 식료품 (농수축산물, 가공품 등)	① 동네가게 ② 중소형 슈퍼마켓 ③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 ④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 ⑤ 백화점 ⑥ 상설시장/5일장 ⑦ 인터넷 쇼핑물, TV홈쇼핑 ⑧ 기타 (⇨ )	① 우리 마을 내 ② 우리 읍/면 내 ③ 우리 시/군 내 ④ 다른 시/군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기타 (⇨ )	( )분
(2) 일상 생활용품 (세제, 화장지 등)	① 동네가게 ② 중소형 슈퍼마켓 ③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 ④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 ⑤ 백화점 ⑥ 상설시장/5일장 ⑦ 인터넷 쇼핑물, TV홈쇼핑 ⑧ 기타 (⇨ )	① 우리 마을 내 ② 우리 읍/면 내 ③ 우리 시/군 내 ④ 다른 시/군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기타 (⇨ )	( )분



31.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V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계의 소득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매월 저축하고 있는 금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계의 순자산*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가계의 부채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에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노후의 생활비, 질병치료비, 문화여가비 등에 대한 노후준비금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계의 순자산이란, 가계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을 의미함

32. [경제적 생활수준 전반적인 만족도] 귀하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33. [5년 전 대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현 거주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응답]**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① 매우 나빠졌다 ② 나빠진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아진 편이다 ⑤ 매우 좋아졌다

34. [향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향후(약 5년 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나빠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Ⅲ. 문화여가

— 여가활동 실태

35. [여가활동의 목적]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여가활동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
- ② 자기 계발
- ③ 몸과 마음의 휴식
- ④ 즐거움과 재미
- ⑤ 친교·교제
- ⑥ 기타 (⇒ )

36~37. [여가활동 실태]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또한,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구분	36. 주로 하는 여가활동	37.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1) 여가활동 유형 (보기①에서 번호를 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세요)	번호 : (⇒ )	번호 : (⇒ )
(2) 여가활동 동반자 (보기②에서 번호를 고르고 '⑦기타'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3) 여가활동 빈도 (보기③에서 번호를 골라주세요)		
(4) 여가활동 장소 (보기④에서 번호를 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세요)	번호 : (⇒ )	번호 : (⇒ )
(5) 장소의 위치 (보기⑤에서 번호를 고르고 '⑥기타'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6) 주요 교통수단 (보기⑥에서 번호를 고르고 '④기타'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7) 편도 소요시간	약 ( )분	





—  유형별 여가활동 실태

40.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귀하께서 [지난 1년('18.9.1.~'19.8.31.)을 기준으로] 관람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나 스포츠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TV를 통한 관람이 아닌 직접 관람 경험)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 <input type="checkbox"/> ② 전시회(미술, 사진, 디자인 등)     |
| <input type="checkbox"/> ③ 서양음악공연(클래식, 오페라 등)          | <input type="checkbox"/> ④ 전통예술공연(국악, 풍물, 민속놀이 등) |
| <input type="checkbox"/> ⑤ 연극, 무용공연(뮤지컬 포함)            | <input type="checkbox"/> ⑥ 영화                     |
| <input type="checkbox"/> ⑦ 대중음악(콘서트), 연예(마술쇼 등)        | <input type="checkbox"/> ⑧ 스포츠                    |
| <input type="checkbox"/> ⑨ 축제(지역축제 마을축제 등)             | <input type="checkbox"/> ⑩ 관람 경험 없음               |



↳ **문41번** 으로 가십시오

40-1.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횟수] [지난 1년('18.9.1.~'19.8.31.)을 기준으로] 총 몇 회입니까?  
총 (            ) 회

41. [체육활동 경험] 귀하께서는 [지난 1개월 동안(2019.8.1.~2019.8.31.)] 1회 30분 이상 체육 활동(일상생활의 걷기 제외)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3회 정도    ⑤ 전혀 하지 않았다



↳ **문42번** 으로 가십시오

41-1. [주된 체육활동] 주로 하신 체육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① 게이트볼, 족구,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등 구기 운동 (⇨                    | )                |
| ②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테니스 등 라켓 운동 (⇨                          | )                |
| ③ 검도, 유도, 태권도, 권투 등 무도/격투기 (⇨                            | )                |
| ④ 헬스, 마라톤, 수영,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자전거, 줄넘기, 체조 등 체력단련운동 (⇨ | )                |
| ⑤ 스키, 스케이트, 승마,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래프팅, 서핑 등 레저스포츠 (⇨         | )                |
| ⑥ 걷기   | ⑦ 등산, 낚시 등 기타 (⇨ |

42. [관광 경험 여부] 귀하께서는 [지난 1년('18.9.1.~'19.8.31.)을 기준으로] 국내 또는 국외를 **관광 목적으로 여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43번** 으로 가십시오.

42-1. [관광 횟수 및 동반자] [지난 1년('18.9.1.~'19.8.31.)을 기준으로] 국내 또는 국외를 관광 목적으로 여행하신 횟수는 각각 **총 몇 회**입니까? 또한, 함께 여행한 일행이 어떤 분들인지, **해당되는 분들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구 분	횟수	동반자
(1) 국내	( ) 회	<input type="checkbox"/> ① 혼자 <input type="checkbox"/> ② 가족친지 <input type="checkbox"/> ③ 친구 <input type="checkbox"/> ④ 이웃 주민(마을 단위 포함) <input type="checkbox"/> ⑤ 직장 동료 <input type="checkbox"/> ⑥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
(2) 국외	( ) 회	<input type="checkbox"/> ① 혼자 <input type="checkbox"/> ② 가족친지 <input type="checkbox"/> ③ 친구 <input type="checkbox"/> ④ 이웃 주민(마을 단위 포함) <input type="checkbox"/> ⑤ 직장 동료 <input type="checkbox"/> ⑥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

43.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귀하께서는 [지난 1년('18.9.1.~'19.8.31.)을 기준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강좌, 강습회 등에 참여하여 **전문인력(강사, 지도자 등)의 지도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실 경우 **참여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세 가지**(프로그램, 강좌명)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 있음 - ( ) 개

강좌명(1)	강좌명(2)	강좌명(3)	
--------	--------	--------	--

② 없음

—  전통문화·여가활동 경험 및 수요

44.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귀하께서는 [지난 1년('18.9.1.~'19.8.3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 또는 농촌문화를 활용한 문화·여가활동을 **관람하거나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향후(에도) 다음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참여 경험	참여 만족도					향후 참여 의사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전통예술(농악, 민요, 전통무용, 전통공예, 한국화, 서예, 시조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2) 전통의식주(한복, 천연염색, 매듭, 음식, 한과 등 만들기, 한옥 짓기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3) 전통무예(씨름, 국궁, 택견, 태권도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4) 공동체의례(동제, 산신제, 당산제, 성황제, 별신굿, 용왕제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5) 공동체놀이(지신밟기, 강강술래, 줄다리기, 거북놀이, 달집태우기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6) 전통놀이(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 고누, 공기놀이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7) 기타(↔ )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  문화·여가 자원

45.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보 기 >	필요한 시설
① 전시관,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등 <b>문화예술 관련 시설</b> ② 수영장, 헬스클럽, 당구장 등 <b>실내 체육시설</b> ③ 경기장(축구, 농구, 야구 등),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b>실외 체육시설</b> ④ 문화센터, 동아리활동 공간 등 <b>취미활동 시설</b> ⑤ 경로당, 공원, 산책로, 찜질방/목욕탕, 카페 등 <b>친교, 휴식 시설</b> ⑥ <b>기타</b> ⑦ 필요한 시설이 없음	번호 : (↔ )

46.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희망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미술 전시	③ 전통예술 공연(국악, 풍물 등)
② 서양음악 공연(클래식 악기/노래 등)	④ 대중음악, 연예 공연
⑤ 영화 상영	⑥ 문화예술 교육(회화, 서예, 악기연주, 노래, 춤 등)
⑦ 체육활동 지도(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⑧ 취미활동 교육(요리, 생활공예 등)
⑨ 인문교양 강좌(역사, 인문학, 외국어 등)	⑩ 이동도서관
⑪ 기타(→ )	

47.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귀하께서는 귀하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 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48.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 **[현 거주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응답]**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여가 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 ① 매우 나빠졌다 ② 나빠진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아진 편이다 ⑤ 매우 좋아졌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증원 이름		검증 결과	
--------	--	-------	--